

인천뮤지엄파크
시립미술관 콘텐츠 개발을 위한
학술용역

제 출 문

이 보고서를 인천시청과 2019년 9월 계약 체결한
『인천뮤지엄파크 시립미술관 콘텐츠 개발 학술용역』의
최종 보고서용으로 제출합니다.

2019년 12월

박 신 의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소장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연구진

〈책임연구원〉

박 신 의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소장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연구위원〉

전 태 일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실장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객원교수

백 령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위원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겸임교수

이 진 우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위원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겸임교수

주 명 진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위원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겸임교수

〈연구보조원〉

김 원 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석사과정
경 도 은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석사과정
장 혜 임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석사과정

I.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 범위	4
2) 연구의 방법	4
3. 연구체계 및 추진 일정	5
1) 연구체계	5
2) 추진일정	6

II. 시립미술관 건립 배경 및 환경 분석

1. 시립미술관 건립 배경 및 개요	9
1) 건립배경	9
2) 사업개요	10
3) 시립미술관 건립 추진 경과 및 계획	11
4) 입지분석 및 접근성	12
2. 인천광역시 환경 분석	14
1) 역사적 환경	14
2) 지리적 환경	15
3) 인구통계적 환경	17
4) 교육환경	21
5) 문화환경	23
6) 인천시 환경 분석 주요 쟁점	56

III. 시립미술관의 성격과 방향

1. 국내외 미술관 운영 및 환경 변화 분석	59
1) 국내 지역미술관의 성격 및 운영 특성	59
2) 해외 미술관의 새로운 대응	60

2. 국내외 우수 미술관 사례연구	61
1) 국내 지역 미술관	61
2) 해외 지역 미술관	77
3. 시립미술관의 성격과 방향	92
1) 지역성 연구	92
2) 주요 미술담론	94
3) 전문가 자문회의	101
4) 시립미술관의 SWOT 분석과 대응 전략	105
5) 성격 및 방향	108

IV. 전시 콘텐츠 개발 방향 및 계획

1. 전시 콘텐츠의 성격 및 특성화	113
1) 시립미술관의 전시 개념 및 성격	113
2) 시립미술관 전시 프로그램의 기본방향과 성격	114
3) 시립미술관 전시 운영방안	119
2. 기획전의 주제 개발과 운영방안	122
1) 기획전시의 기본계획	122
2) 구성별 기획전시 운영방안	123
3) 주제별 기획전시 운영방안	124
3. 상설 및 특별전 운영방안	133
1) 상설전 운영방안	133
2) 특별전 운영방안	133
3) 연계 및 교류전 운영방안	134
4. 소장품 정책 및 방향	135
1) 시립미술관의 소장품 개념 및 성격	135
2) 소장품 수집 정책의 기본 방향	137
3) 시립미술관 소장품 현황 분석 및 쟁점	139
4) 시립미술관의 소장품 수집 방안	141
5) 수장고 관리 방향	146
6) 수장고 관리 방안	153

V. 전시 콘텐츠 활용 및 운영계획

1. 교육 프로그램	159
1) 시립미술관의 교육 개념 및 성격	159
2) 시립미술관의 교육 프로그램(안)	163
3) 교육 프로그램의 단계별 운영 계획	170
4) 교육 인력의 구성 및 업무	174
5) 교육 프로그램의 국내·외 사례 및 쟁점	179
2. 조사·연구 및 정보화 프로그램	187
1) 시립미술관의 조사·연구 및 정보화 기본방향	187
2) 시립미술관 조사·연구 프로그램	188
3) 시립미술관의 정보화 프로그램	189
3. 홍보 및 마케팅 프로그램	194
1) 시립미술관의 홍보·마케팅 기본방향	194
2) 시립미술관의 홍보·마케팅	196
3) 시립미술관 홍보·마케팅 전략(안) 및 프로그램 사례	197
4. 야외공원 활용방안	210
1) 야외공원 환경 여건	210
2) 야외공원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방안	211
5. 시립미술관 조직 및 운영주체 설정	212
1) 시립미술관 조직 개념 및 성격	212
2) 시립미술관 조직 및 관리 운영프로그램 기본방향	212
3) 시립미술관의 조직 체계 구성	214
4) 미술관의 운영주체 설정	217

VI. 운영추진단 구성 및 준공 이후 콘텐츠 운영방안

1. 운영추진단의 역할	225
2. 시립미술관 운영추진단 구성 및 운영방안	225
1) 미술관 건립추진의 프로세스	225
2) 미술관 운영추진 기구 구성 및 운영	227

3. 준공 이후 단계별 콘텐츠 운영계획	229
4. 중장기 운영방안	231
1) 단계별 운영방안	232
2) 중장기 발전방안	236
참고문헌	237

표 목차

인천뮤지엄파크 시립미술관 콘텐츠 개발을 위한 학술용역

[표 II-1] 인천뮤지엄파크 시립미술관 사업개요	10
[표 II-2] 시립미술관 대상지 접근성 분석	13
[표 II-3] 인천광역시 성별 인구표	17
[표 II-4]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별 인구 증감률	18
[표 II-5] 읍·면·동 기준 인천광역시 인구 분포 순위	18
[표 II-6] 인천경제자유구역 인구 수	19
[표 II-7] 전국 외국인 인구 대비 인천광역시 외국인 인구 비율	20
[표 II-8] 인천광역시 교육기관 및 학생 수	21
[표 II-9] 인천예술고등학교 개요	21
[표 II-10] 인천광역시 내 미술관련 대학/대학원	22
[표 II-11] 인천광역시 내 문화기반시설 수	23
[표 II-12] 인천광역시 내 주요 미술관 개요	23
[표 II-13] 송암미술관 교육프로그램 개요	25
[표 II-14] 2019년 더리미 미술관 주요 기획전시 개요	28
[표 II-15] 2018/2019년 해든뮤지엄 전시개요	31
[표 II-16] 해든뮤지엄 교육프로그램 개요	32
[표 II-17] 인천광역시 내 주요 갤러리 개요	33
[표 II-18] 2017~2019 갤러리 더웨이 전시 개요	34
[표 II-19] 2019 사진공간 배다리 전시 개요	35
[표 II-20] 2019 갤러리 지오 전시 개요	37
[표 II-21] 인천광역시 내 주요 대안/신생공간	39
[표 II-22] 스페이스빔 전시 개요	40
[표 II-23] 임시공간 전시 개요	41
[표 II-24] 인천광역시 주요 문화기반 자원 : 단체	43
[표 II-25] 2019년 인천미술협회 주요사업	44
[표 II-26] 2019년 인천민예총 주요사업	45
[표 II-27] 인천문화재단 예술지원팀 주요사업	46
[표 II-28] 인천광역시 주요 문화기반 자원 : 미술행사	47
[표 II-29] 인천해양국제미술축전 프로그램	48
[표 II-30] 2011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본전시 개요	51
[표 II-31] 2011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조율전 개요	51

[표 II-32] 2011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참여전 개요	51
[표 II-33] 인천지역 예술인 현황	53
[표 II-34] 인천 미술에 관한 연구 필요성 제기	54
[표 II-35] 인천지역 주요 소집단 미술운동	55
[표 III-1] 2019년 부산시립미술관 전시 개요	62
[표 III-2] 부산시립미술관 주요 교육 프로그램	63
[표 III-3] 2019년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기획전시 개요	66
[표 III-4] 2019 광주시립미술관 주요 교육프로그램	67
[표 III-5] 2019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전시 개요	69
[표 III-6] 2019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주요 교육프로그램	70
[표 III-7]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외 분관	72
[표 III-8] 2019년 제주도립미술관 기획전시 개요	74
[표 III-9] 제주도립미술관 주요 교육 프로그램	75
[표 III-10] 2019년 가나자와21세기미술관 기획전시 개요	78
[표 III-11] 2019 가나자와21세기미술관 주요 교육프로그램	79
[표 III-12] 2019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 주요 전시개요	81
[표 III-13] 2019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 주요 교육프로그램	82
[표 III-14] 2019 타이페이시립미술관 주요 전시개요	85
[표 III-15] 2019 타이페이시립미술관 주요 교육프로그램	86
[표 III-16] 2019 타이페이시립미술관 주요 전시개요	88
[표 III-17] 홍콩미술관 교육프로그램 개요	89
[표 III-18] 아트페어 : 아트바젤 홍콩	90
[표 III-19] 계간 「황해문화」 개요	92
[표 III-20] 인천광역시 지역성 주요 키워드	93
[표 III-21] 인천광역시 주요 미술 담론	94
[표 III-22] 인천아트플랫폼 주요전시	95
[표 III-23] 인천시립박물관 주요 전시	95
[표 III-24] 한국이민사박물관 주요 전시	95
[표 III-25] 짜장면박물관 주요 전시	95
[표 III-26] 동시대 주요 미술 담론	96
[표 III-27] 국외비엔날레 전시	97

표 목차

인천뮤지엄파크 시립미술관 콘텐츠 개발을 위한 학술용역

[표 III-28] 국내 비엔날레 전시	97
[표 III-29] 2019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98
[표 III-30] 2018/2019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전시	99
[표 III-31] 2019 일민미술관 전시	100
[표 IV-1] 인천시청의 '시립미술관 전시구성' 기본계획	115
[표 IV-2] 전시유형에 따른 전시내역과 개최시기	116
[표 IV-3] 전시프로그램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119
[표 IV-4] 인천시청 소장 미술품 등급별 구분	139
[표 IV-5] 수집방법 별 미술품 등급 구분	139
[표 IV-6] 인천미술활성화 사업 프로그램 개요	140
[표 IV-7] 인천시 소장품 수집 기본계획(안)	143
[표 IV-8] 수장환경 조건	155
[표 V-1] 대상 별 교육프로그램	165
[표 V-2] 아웃리치 학교 연계 프로그램의 과정	168
[표 V-3] 인턴 및 자원봉사자의 자격조건	175
[표 V-4] 인턴 및 자원봉사자의 모집방법	175
[표 V-5] 인턴 및 자원봉사자의 업무	175
[표 V-6] 교육 인력 직무 및 직무모형/흐름도	176
[표 V-7] 교육담당 인력의 책무와 작업의 명세내용	177
[표 V-8] 자원봉사자역할과 작업의 명세내용	178
[표 V-9] 2019 부산시립미술관 주요 교육프로그램 내용	179
[표 V-10] 2019 광주시립미술관 주요 교육프로그램 내용	180
[표 V-11] 2019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주요 교육프로그램 내용	181
[표 V-12] 2019 제주도립미술관 주요 교육프로그램 내용	182
[표 V-13] 2019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주요 교육프로그램 내용	183
[표 V-14] 2019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 주요 교육프로그램 내용	184
[표 V-15] 타이페이시립미술관 주요 교육프로그램 내용	185
[표 V-16] 홍콩미술관 주요 교육프로그램 내용	185
[표 V-17] 조사·연구프로그램의 기본 단위 기능 및 목표	187
[표 V-18] 정보화 프로그램 기본 단위 기능 및 목표	187
[표 V-19] 자료 DB화의 목적 및 역할	189

[표 V-20] 정보자료센터의 운영 목적 및 역할	189
[표 V-21] 테이트(TATE) 미술관의 디지털 전략	192
[표 V-22] 테이트(TATE) 미술관의 디지털 커뮤니티 활동	192
[표 V-23] 시립미술관 마케팅 및 고객관리 전략 비전의 주안점	197
[표 V-24] 관람객 프로그램 일반계획	205
[표 V-25] 서비스 특화계획	205
[표 V-26] 이용자별 지원서비스 계획	205
[표 V-27] 지원 인력교육 계획(안)	206
[표 VI-1] 미술관 건립추진 프로세스 주요 내용	226
[표 VI-2] 시립미술관 장기발전방안 주요 전략과제	236

그림 목차

인천뮤지엄파크 시립미술관 콘텐츠 개발을 위한 학술용역

[그림 II-1] 시립미술관 인근 교육시설 분포도	12
[그림 II-2] 인천광역시의 역사적 환경 변화	14
[그림 II-3] 인천광역시 지도	15
[그림 II-4] 인천경제자유구역 지도	16
[그림 II-5] 성·연령 별 인구 분포도	17
[그림 II-6] 인천경제자유구역 인구 변화 그래프	19
[그림 II-7] 인천광역시 국가 별 외국인등록 인구	20
[그림 II-8] 송암미술관 전경	25
[그림 II-9] 송암미술관 전시실	25
[그림 II-10] 인천 아트플랫폼 전경	26
[그림 II-11] 인천 아트플랫폼 건물	27
[그림 II-12] 인천아트플랫폼 전시실	27
[그림 II-13] 더리미미술관 전경	29
[그림 II-14] 더리미미술관 전시실	29
[그림 II-15] 전원미술관 전경	30
[그림 II-16] 전원미술관 전시실	30
[그림 II-17] 해든뮤지움 전경	32
[그림 II-18] 해든뮤지움 전시실	32
[그림 II-19] 갤러리더웨이 전경	34
[그림 II-20] 갤러리더웨이 전시실	34
[그림 II-21] 사진공간 배다리 전경	36
[그림 II-22] 사진공간 배다리 전시실	36
[그림 II-23] 갤러리 지오 전경	38
[그림 II-24] 갤러리 지오 전시실	38
[그림 II-25] 스페이스 빔 전경	40
[그림 II-26] 스페이스 빔 포럼 현장	40
[그림 II-27] 임시공간 전시실	42
[그림 II-28] 임시공간 포럼 현장	42
[그림 II-29] 2018 인천국제아트페어 전경	49
[그림 II-30] 2016 인천국제아트페어 전경	49
[그림 II-31] 2007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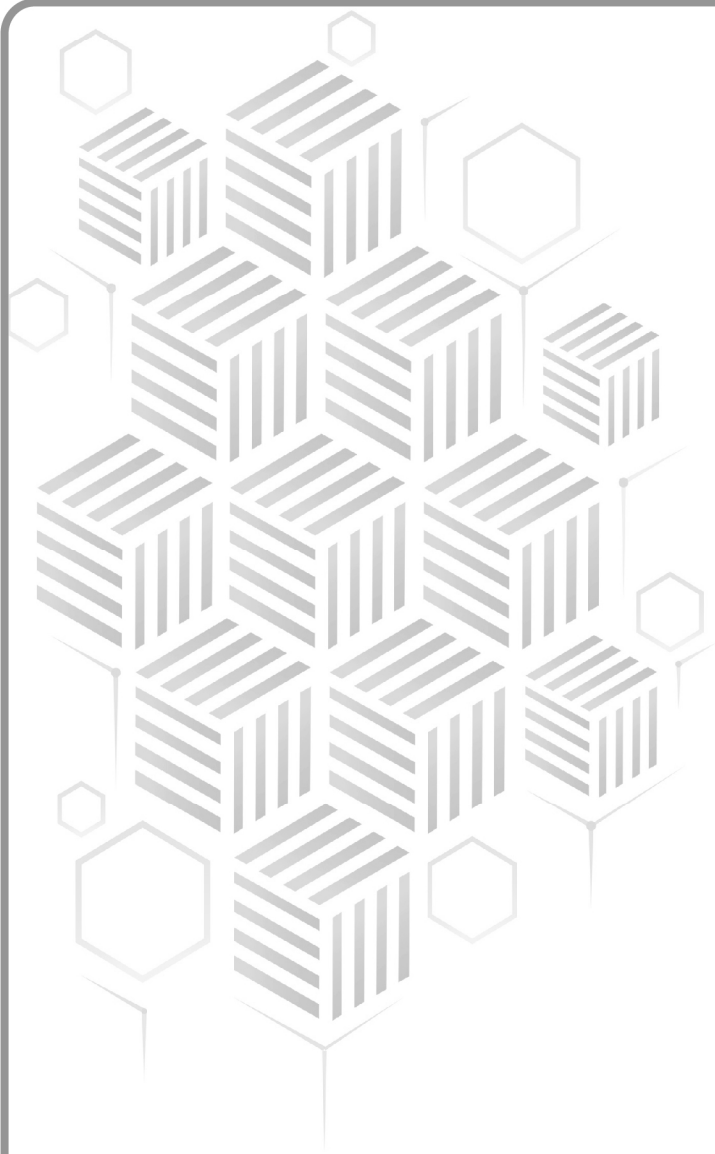
[그림 II-32] 2011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50
[그림 III-1] 부산시립미술관 전경	64
[그림 III-2] 핀란드웨이브 전시 현장	64
[그림 III-3] 광주시립미술관 전경	67
[그림 III-4] 광주시립미술관 전시장 전경	67
[그림 III-5]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전경	71
[그림 III-6]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전시전경	71
[그림 III-7] 제주도립미술관 전경	76
[그림 III-8] 시민교양강좌 현장 스케치	76
[그림 III-9]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전경	79
[그림 III-10] 교육프로그램 : 핸드 온 마루비	79
[그림 III-11]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 전경	83
[그림 III-12]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 전시실	83
[그림 III-13] 타이페이시립미술관 전경	86
[그림 III-14] Ryoji Ikeda 개인전	86
[그림 III-15] 홍콩아트뮤지엄 전경	89
[그림 III-16] 홍콩아트뮤지엄 리노베이션	89
[그림 III-17] 자문회의 현장 스케치	101
[그림 III-18] 자문회의 현장 스케치	101
[그림 III-19] 시립미술관 SWOT 분석	105
[그림 III-20] SWOT 분석에 따른 대응 전략	107
[그림 III-21] 시립미술관의 성격과 방향	108
[그림 IV-1] 전시의 역할과 기능	113
[그림 IV-2] 기획전시 주요 특징	122
[그림 IV-3] 소장품의 역할과 기능	135
[그림 IV-4] 소장품 정책의 필요성 및 방향	136
[그림 IV-5] 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 기본방향	137
[그림 IV-6] 미디어 파사드	138
[그림 IV-7] 빛의 작품 : 아니쉬 카푸어	138
[그림 IV-8] 빛의 작품 : 올라퍼 엘리아슨	138
[그림 IV-9] 빛의 작품 : 올라퍼 엘리아슨	138

그림 목차

인천뮤지엄파크 시립미술관 콘텐츠 개발을 위한 학술용역

[그림 IV-10] 미술품 등록 목표 소장품 구입방안 (1안)	144
[그림 IV-11] 미술품 등록 목표 소장품 구입방안 (2안)	145
[그림 IV-12] 시립미술관의 소장품 관리·운영방안	146
[그림 IV-13] 소장품 등록대장	147
[그림 IV-14] 소장품 관리카드 앞면	147
[그림 IV-15] 소장품 관리카드 뒷면	147
[그림 IV-16] 소장품 등록 절차	148
[그림 IV-17] 반입/반출 증명서	149
[그림 IV-18] 작품 반입(반출) 의뢰서	149
[그림 IV-19] 소장품의 보존 업무	150
[그림 IV-20] 소장품 대여신청서 앞면	152
[그림 IV-21] 소장품 대여신청서 후면	152
[그림 IV-22] 소장품 열람 신청서	153
[그림 IV-23] 일반 수장고	154
[그림 IV-24] 특별 수장고	154
[그림 IV-25] 임시 수장고	155
[그림 IV-26] 작품보관증	156
[그림 IV-27] 수장고 열쇠 출납부	156
[그림 V-1] 시립미술관 교육의 역할과 기능	159
[그림 V-2] 교육의 목표	160
[그림 V-3] 교육프로그램 개발 과정	163
[그림 V-4] 개관 전 교육프로그램 준비 과정	170
[그림 V-5] 교육 담당 인력의 업무	176
[그림 V-6] 국립현대 미술관 서울 디지털 정보실 (좌: 디지털 아카이브 우:디지털 도서관)	190
[그림 V-7] 브리티시 도서관(British Library)의 내부	191
[그림 V-8] 홍보 및 마케팅의 역할과 기능	194
[그림 V-9]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201
[그림 V-10] 뮤지엄 산	201
[그림 V-11] 국립중앙박물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기자단의 모습	204
[그림 V-12] 뉴욕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유튜브 채널	207
[그림 V-13] 루브르박물관 X 에어비앤비	208

[그림 V-14] 박물관 밤샘파티	208
[그림 V-15] 꿈의 조력자와 잠드는 하룻밤	209
[그림 V-16] 부지 내 선교사사택과 정원	210
[그림 V-17] 극동방송사옥	210
[그림 V-18] 미술관 조직의 역할과 기능	212
[그림 V-19] 조직의 구조 및 역학관계	213
[그림 VI-1] 시립미술관 운영추진단의 역할	225
[그림 VI-2] 미술관 운영추진기구의 단계별 구성	228



I

연구 개요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연구체계 및 추진 일정

I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시립미술관은 용현 · 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사회공원(기부채납) 부지내 인천뮤지엄파크에 조성될 예정으로, 2025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총부지 54,121㎡(16,371평)에 시립미술관과 박물관, 문화산업 시설 등 복합문화단지로 조성되며, 시립미술관은 총 14,982㎡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음
- 이에 효율적인 미술관 건립과 운영의 방향을 잡고, 시립미술관의 고유한 정체성을 수립하며, 이에 따른 미술관 콘텐츠를 발굴하여 전시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결과적으로 전시 기본구상과 콘텐츠 확보 방안, 전시운영을 위한 조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하게 되었음

2) 연구의 목적

- 인천 뮤지엄파크에 조성될 시립미술관의 콘텐츠 개발 학술 용역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미술관 건립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시립미술관의 콘텐츠 방향성을 제시하고 추진전략을 제시함
- 시립미술관의 특색있고 체계적인 전시콘텐츠를 발굴하여 전시계획의 기본방향을 수립함
- 전시 기본구상, 운영 조직, 인력, 전시디자인, 홍보, 소장품 수집 방안, 교육프로그램 등의 기본 계획을 마련하여 향후 인천 뮤지엄파크의 기본계획 수립 및 활성화에 기여함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구분	내용
공간적 범위	위치 :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사회공헌 부지 일원 (대지면적 53,092㎡, 미술관 연면적 14,982㎡)
시간적 범위	2019 ~ 2025년 (준공)
대상적 범위	인천뮤지엄파크 내 시립미술관
내용적 범위	• 시립미술관의 건립 필요성 및 기본 방향 • 전시 방향 및 콘텐츠 운영 계획 • 미술관의 교육·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 구상 • 소장품 확보 및 수장고 관리 계획 • 수익성과 공공성을 중시한 효율적 운영 기본 계획 • 조사 및 연구 기본 계획 • 준공(2025) 이후의 콘텐츠 운영방안 마련

2) 연구의 방법

■ 문헌연구

- 미술관 활성화 관련 자료 및 연구 보고서 수집 검토
- 국내·외 유사 주제 관련 문헌 자료 수집 검토

■ 사례조사 및 분석

- 국내·외 미술관 사례조사 및 시사점 도출

■ 전문가 집중 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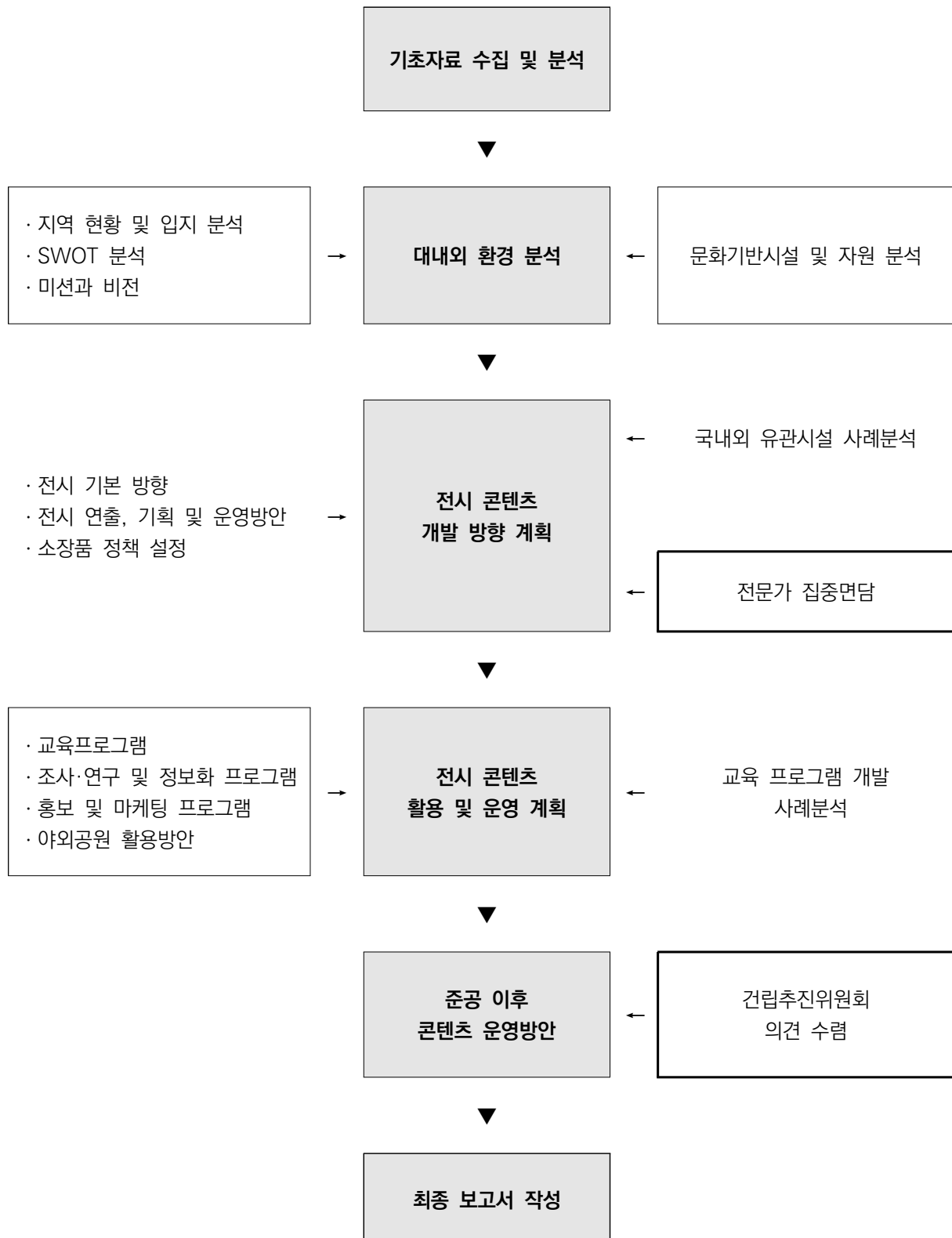
- 미술 관련 전문가와 미술관의 현황 및 개선방안 관련 면담 진행

■ 현장방문

- 현장 방문 및 관계자 인터뷰 실행
- 방문 대상 시립미술관의 미션 및 비전, 전시 현황, 재정, 조직 등 관련 자료 수거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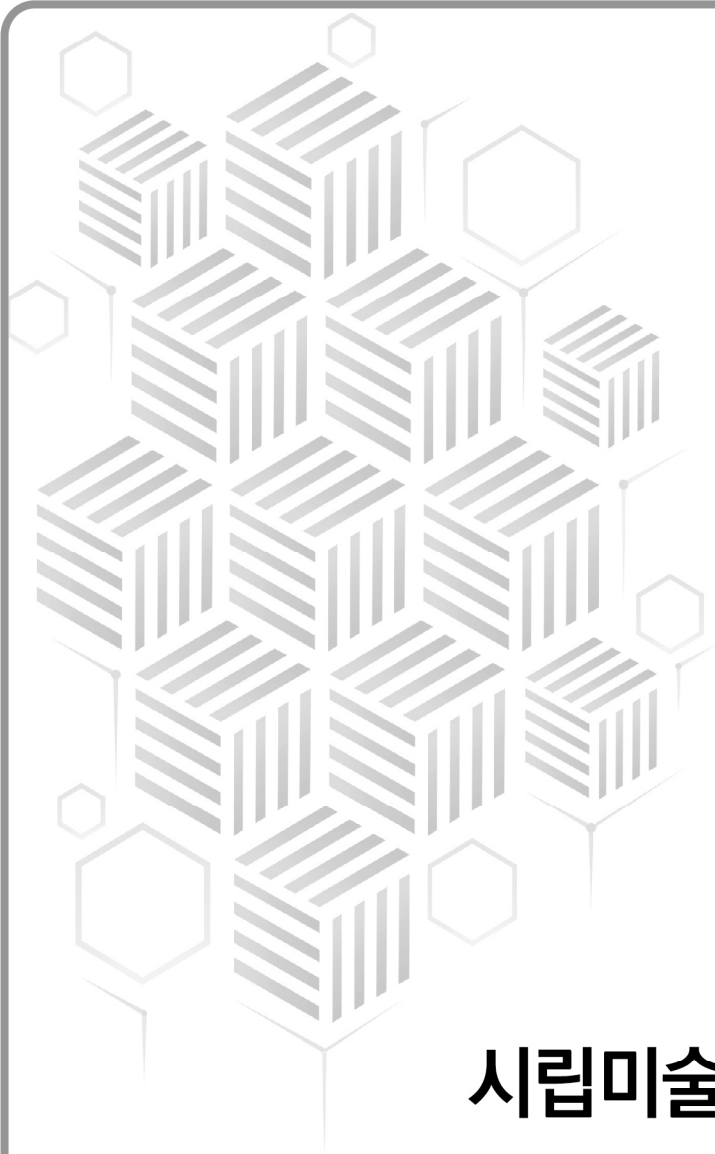
3. 연구체계 및 추진 일정

1) 연구체계



2) 추진일정

사 업 내 용	월별 추진 일정					
	10		11		12	
	1-15	16-31	1-15	16-30	1-15	16-29
자료 수집 및 현황 조사						
착수보고	7일					
인천광역시 환경 분석						
사례 연구 및 성격과 방향						
전문가 자문회의		31일				
전시 콘텐츠 개발 연구						
중간보고				18일		
전시 콘텐츠 활용 및 운영 연구						
준공 이후 콘텐츠 운영 연구						
보고서 작성						
최종 보고						23일
수정 및 편집						
최종성과물 납품						



II

시립미술관 건립 배경 및 환경 분석

1. 시립미술관 건립 배경 및 개요
2. 인천광역시 환경 분석

II

시립미술관 건립 배경 및 환경 분석

1. 시립미술관 건립 배경 및 개요

1) 건립배경

■ 인천광역시의 문화 복지 실현의 필요

- 인구 300만의 규모와 전국 최대면적을 보유한 광역시인 인천은 그 위상에 맞는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여, 인천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
- 특히, 타 광역시와 비교하여 인천광역시에는 시립(공립)미술관이 부재하여, 지역시민들의 미술 문화의 향유의 기회가 낮은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인천뮤지엄파크 내에 시립미술관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신장하고, 동시에 문화 인프라의 확충을 통한 문화 복지 향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원도심 재생정책과 연계하여 문화랜드마크 및 앵커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음

■ 인천지역의 미술 및 작가 조명 필요

- 인천광역시의 시립미술관의 부재는 지역의 미술담론의 형성 및 근현대미술사 연구에 한계점으로 작용해왔음
- 시립미술관의 조성을 통해 미술관과 학계, 미술현장과 유기적인 소통을 함으로써 지역 미술의 담론을 발전시키고, 인천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모색하는 것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미술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지역작가 뿐만 아니라 신진 작가들을 발굴 및 육성함으로써 인천지역의 건강한 미술생태계를 조성하고 인천지역의 미술문화를 이끌어갈 지역작가들을 조명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음

2) 사업개요

- 인천광역시와 ㈜디씨알이(DCRE) 간에 2016년 11월 23일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 사회공헌(기부채납) 협약서>가 체결되어, 해당 기부채납 부지 내에 시립미술관, 시립박물관, 문화산업시설 등이 포함된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이 추진되었음
- 시립미술관은 인천뮤지엄파크 내에 소재하는 미술관으로, 인천시청은 ‘인천뮤지엄파크 시립미술관’으로 명칭으로 정하여 건립 취지에 적합한 전시콘텐츠의 개발을 위해 학술연구를 진행하였음

[표 II-1] 인천뮤지엄파크 시립미술관 사업개요

사업대상	인천뮤지엄파크 시립미술관						
사업기간	2017년 ~ 2025년 (9년)						
위 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587-53번지 일원 ((구)OCI 본사 일원)						
사업규모	총 연면적 : 20,442㎡		시설전용 연면적 : 14,982㎡				
			지하주차장(150대) : 5,460㎡				
주요시설	구분		배치공간				총별면적(㎡)
	지상 4층		기획전시실, 사무실 등				3,900
	지상 3층		전시실, 강의실 등				2,982
	지상 2층		상설전시실, 강의실 등				2,500
	지상 1층		로비, 어린이미술관, 카페, 하역공간 등				3,150
	지하 1층		수장고, 오라토orium, 도서자료실, 기계/전기/소방실				2,450
기능별 공간구성	구분	연면적	각 영역별 면적				
			전시공간	수장공간	교육공간	사무 연구공간	공용공간
	영역별 공간배분	14,982	4,580	1,700	1,161	1,285	6,256
	구성비 (%)	100.00	30.57	11.35	7.75	8.58	41.75
총사업비	(시비) 1,148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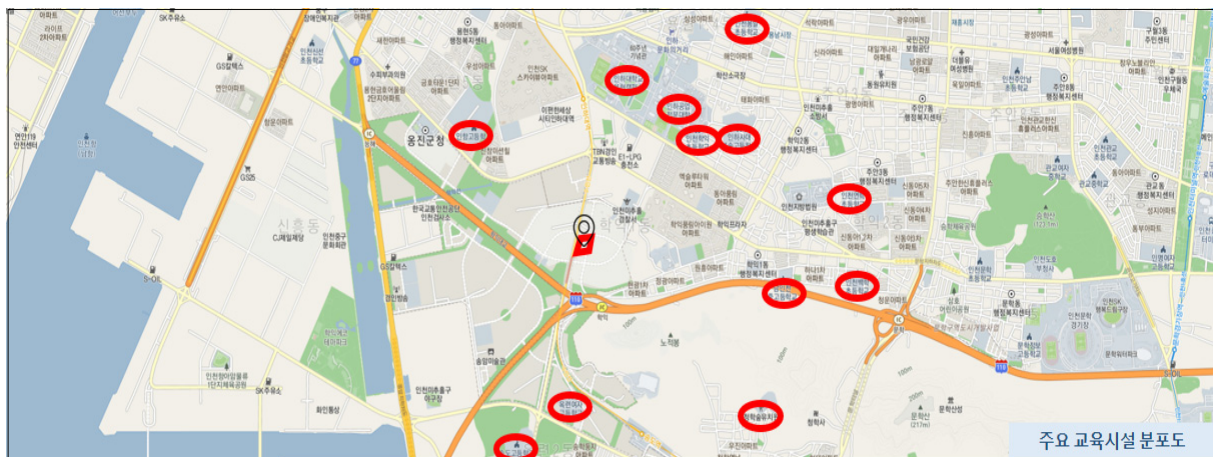
3) 시립미술관 건립 추진 경과 및 계획

2016년 11월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 사회공헌부지 기부채납 협약
2017년 1월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추진계획(안) 수립
2017년 8월	인천뮤지엄파크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용역 착수
2017년 11월	뮤지엄파크 조성 관련 현장 용역 설명회 개최
2018년 2월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공청회 개최
2018년 4월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개최
2018년 6월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핵심문화시설100인 위원회)
2018년 7월	용역 일시중지('18. 7. 5. ~ 9. 26.)
2018년 7월 ~ 9월	현장보고회 3회 개최
2018년 9월	용역재개
2018년 10월	주민공청회 개최(2차)
2018년 10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2019년 5월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통과(문체부)
2019년 9월 ~ 12월	시립미술관 콘텐츠 개발 학술용역 추진
2020년 1월	타당성조사 신청(→행안부 타당성심사과)
2020년 1월 ~ 3월	시립박물관 콘텐츠 개발 학술용역 추진
2020년 3월	미술관 전시 및 소장품 수집 계획 수립
2020년 3월 ~ 6월	미술품 수집을 위한 관련 조례(규칙) 제정
2020년 6월	박물관 전시 계획 수립
2020년 6월	민간투자분야 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2020년 8월	중앙투자심사 신청 등 예산편성 절차 진행
2021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22년 6월 ~ 2024년 12월	공사 착공 및 준공
2023년	미술관 전시 세부계획 수립
2023년	뮤지엄파크 조직구성 및 인력확보 계획 수립
2024년	미술관 운영 관련 조례 제정
2024년	시립박물관 이전 추진계획 수립
2024년 9월 ~ 2026년 9월	민간투자분야 공사 착공 및 준공
2025년 12월	시립 미술관 및 박물관 개관

4) 입지분석 및 접근성

■ 대상지 환경 : 주거단지 및 교육시설 다수 분포

- 대상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1동의 중심에 근접 위치하고 있음
- 인천시청 주거지분석맵에 따르면 학익1동의 연령대별 인구비율은 10세 이하(8.12%), 10대(12.45%), 20대(15.21%), 30대(11.8%), 40대(17.23%), 50대(16.42%), 60대(10.73%), 70대(8.03%) 비율이며, 청장년층 비율은 인천광역시 전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재 대상지의 동쪽으로 아파트 주거 단지가 자리 잡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용현학익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시행중에 있어 주거단지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사업대상지 반경 2km 거리로 초등학교 5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5곳, 대학교 2곳이 위치하여 교육시설이 다수 분포하고 있음
 (초등학교) 백학초등학교, 연학초등학교, 용현남초등학교, 학익초등학교, 인천용학초등학교
 (중학교) 인주중학교,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고등학교) 남인천고등학교,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인항공고등학교,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 학익고등학교
 (대학교) 인하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 대상지가 위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1동은 인천광역시 전체 지역 중 높은 청장년층 비율과 교육시설의 다수 분포하고 있음을 고려해보면, 시립미술관의 교육·체험프로그램을 통한 지역민과의 적극적인 교류가 가능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음



[그림 II-1] 시립미술관 인근 교육시설 분포도

■ 대상지 접근성

- 사업대상지는 인근에 다수의 주택단지가 위치하고, 대중교통 정류장이 인접하여 인천 지역민들의 미술관 접근성이 용이함
- 인천국제공항으로부터 31km 거리에 위치하며, 차량 이용시 약30분 소요 예상됨
-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IC’로부터 약 5.7km에 위치하고 약 10분 내에 도착 가능하며, 시립미술관의 접근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 가능함

[표 II-2] 시립미술관 대상지 접근성 분석

- (도보이용) 시립미술관은 인근 주택단지로부터 500m 거리로, 도보 약 8분 소요 예상
- (대중교통) 수인선 ‘학익역’으로부터 300m 거리로, 도보 약 7분 소요 예상
- (대중교통) 버스정류장(동양화학정류장)에서 200m 거리로, 도보 약 3분 소요 예상
- (차량이용) 인천국제공항으로부터 31km 거리로, 약 30분 소요 예상
- (차량이용) ‘문학IC’로부터 5.7km 거리로, 차량이용 시 약 10분 소요 예상
- (차량이용) 서울 출발(서울시청 기준) 시 46.5km 거리로, 약 1시간 소요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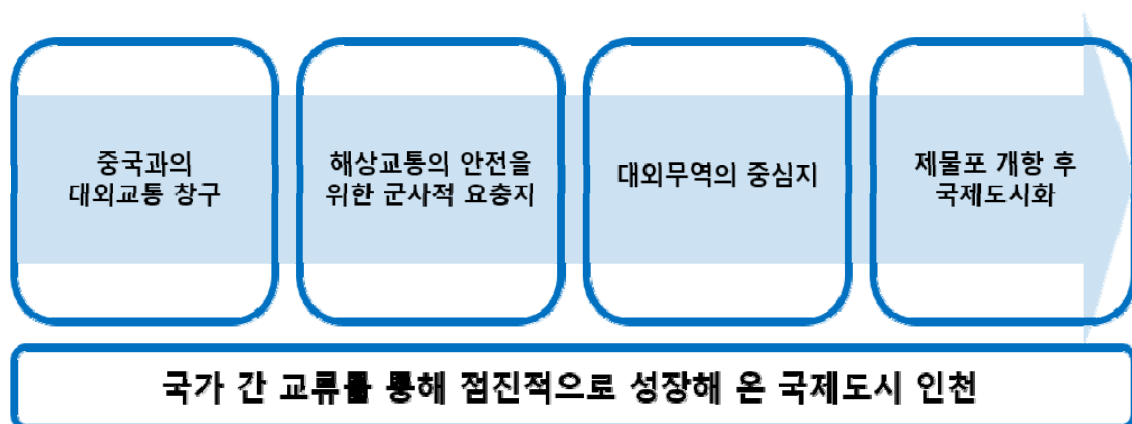


2. 인천광역시 환경 분석

1) 역사적 환경

■ 국제교류의 중심지 인천

- 인천의 최초 명칭은 미추홀(彌鄒忽)이었으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2000) 강화 고인돌 무리를 비롯하여, 인천 지역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고인돌들은 미추홀 건설 기반을 의미하며, 강화도 곳곳에 단군(檀君)의 유향(遺香)이 전래됨
- 삼국시대 인천지역은 백제의 지배 하에서 100여 년 간 중국과의 대외교통의 창구의 역할을 하였음
- 통일신라시대 인천지역에는 군진이 설치되어 외침의 방어 및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는 군사적 요충지로 성장하였음
- 고려시대 인천지역은 대외무역을 통해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몽골의 침입 때 40년 가까이 피난수도로 자리하면서 대몽항쟁의 중심지가 된 바 있음
- 조선의 쇄국정책으로 서해의 해상교통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대외무역으로 번성하였던 인천지역은 그 기능을 상실하여, 일반적인 농·어촌이 되었음
- 그러나 1600년을 전후 왜란과 호란의 영향으로 인천지역은 다시 국방상 요충지가 되었으며, 강화도를 중심으로 한 인천 해안지역의 방어체제가 보강되었음
- 조선의 문호개방으로 인천지역은 서구 열강과 일본, 청나라의 수호통상조약의 주요 무대가 되었고, 개항 이후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이는 국제적인 도시가 되었음
- 인천광역시는 1981년 인천직할시가 되기 이전까지 경기도의 일부였으며, 1995년 인천광역시로 승격되었음. 오늘 날 인천은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문도시가 되었으며, 국제도시로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루고 있음



[그림 II-2] 인천광역시의 역사적 환경 변화

2) 지리적 환경

■ 한반도의 중심, 관문도시 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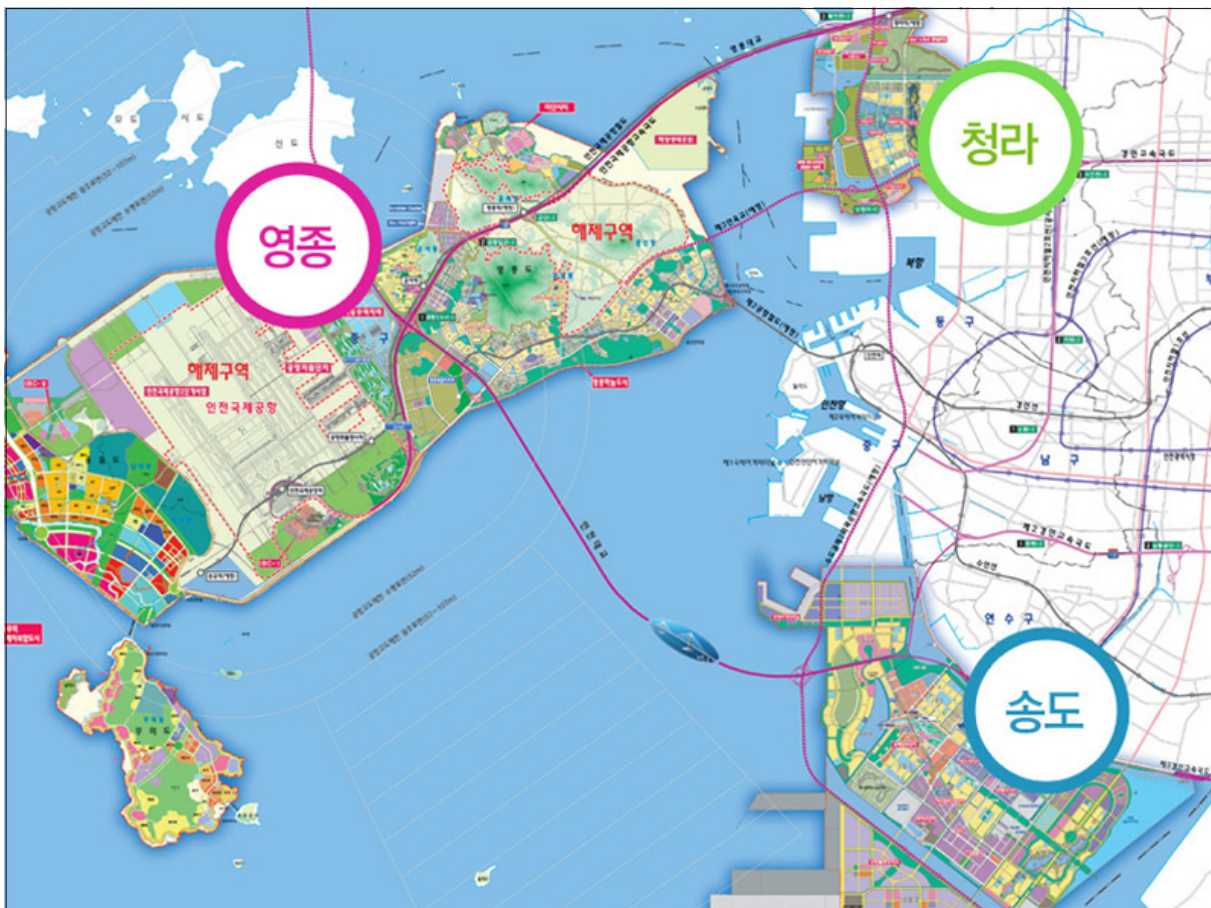
- 인천광역시의 면적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 1,063.27km² 으로 우리나라 최대의 행정 구역의 면적을 가진 광역시임
-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 서울과 28km의 거리에 인접하고 있음
- 옹진반도와 태안반도 사이에 형성된 경기만에 자리하고 있어 육지교통과 해상교통의 거점지역 역할을 하고 있음
- 북으로 경기도 김포시, 동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천시 전역, 동남쪽으로 시흥시와 접하고 있음
- 해상은 충청남도 당진시, 서산시, 태안군과 접하고 있으며, 해수 권역이 광역시 중 가장 넓은 도시임
- 인천항의 국제여객터미널 개장(2000, 2002) 및 인천국제공항의 개항(2001.3)과 제2여객터미널 개항(2018.1)하며, 우리나라의 대표 관문도시의 역할을 하고 있음



[그림 II-3] 인천광역시 지도

■ 국제도시 인천 :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경제중심실현 전략의 핵심지역으로서 2003년 8월 국내 최초로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포함하여, 송도, 영종, 청라국제도시에 총 123.65㎢ 규모가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음
-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의 자본을 유치하고, 동북아의 물류와 금융의 중심지로 성장하여 국내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추진되었음
- 인천광역시 연수구(송도국제도시), 중구(영종국제도시), 서구(청라국제도시)가 있으며, 각각 비즈니스IT·BT, 물류·관광, 금융·레저 분야를 개발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음
- 2018년 12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총 사업체수는 2,695개이며, 송도국제도시 1,520개, 영종국제도시 734개, 청라국제도시 441개로 나타났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서울 및 수도권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의 주요 대도시에서 60~90분 만에 접근할 수 있으며, 상해·베이징·도쿄·홍콩 등 147개의 국외 도시를 비행기로 3시간 안에 접근 가능하다는 지리적 특징점이 강조되고 있음



[그림 II-4] 인천경제자유구역 지도

3) 인구통계적 환경

- 인천광역시에서 발간한 <2018년도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의 총 인구는 3,022,511명으로, 전년 대비 8,966명(0.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 인구

- 남성인구는 1,521,044명(50.3%)으로 여성인구 1,501,467명(49.7%)보다 19,577명 많음
- 남성인구는 전년대비 5,094명(0.33%) 증가하였으며, 여성인구는 전년대비 6,279명(0.42%) 증가하여 여성인구의 증가율이 소폭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II-3] 인천광역시 성별 인구표

단위 : 명, %

구분	남자			여자		
	2017.12.	2018.12.	증감률	2017.12.	2018.12.	증감률
내국인	1,479,597	1,481,844	0.15	1,468,945	1,472,798	0.26
외국인	36,353	39,200	7.26	26,243	28,669	8.46
계	1,515,950	1,521,044	0.33	1,495,188	1,501,467	0.42

출처 : 인천광역시청, 2018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

■ 연령 별 인구

- 유소년인구(0~14세)는 384,919명, 생산가능 인구(15~64세)는 2,207,048명, 고령인구(65세 이상)는 362,675명으로 나타났으며, 인천광역시의 인구는 4,50대 주를 이루고 있음



[그림 II-5] 성·연령 별 인구 분포도

■ 지역 별 인구

- 인천광역시의 군·구별 인구 구성은 서구가 551,311명으로 가장 많고, 옹진군이 21,227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음
- 전년 말 대비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서구였으며,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부평구였음 (서구 : 23,376명 증가 / 부평구 : 14,025명 감소)
- 인구가 증가한 군·구는 서구, 연수구, 중구, 남동구, 강화군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구가 감소한 군·구는 부평구, 계양구, 동구, 미추홀구, 옹진군 순으로 나타났음

[표 II-4]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별 인구 증감률

단위 : 명, %

구분	인구			
	2017.12.	2018.12.	증감	증감률
중구	121,838	126,522	▲4,684	▲3.70
동구	70,387	67,161	▽3,226	▽4.80
미추홀구	427,604	425,471	▽2,133	▽0.50
연수구	344,277	357,362	▲13,085	▲3.66
남동구	548,759	549,691	▲932	▲0.17
부평구	552,162	538,137	▽14,025	▽2.61
계양구	326,892	315,903	▽10,989	▽3.48
서구	527,935	551,311	▲23,376	▲4.24
강화군	69,543	69,726	▲183	▲0.26
옹진군	21,741	21,227	▽514	▽2.42
계	3,011,138	3,022,511	▲11,373	▲0.38

출처 : 인천광역시청, 2018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

- 읍·면·동 기준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연수구 송도2동'이었으며,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은 강화군 서도면으로 나타났음

[표 II-5] 읍·면·동 기준 인천광역시 인구 분포 순위

단위 : 명

순위	인구 수 많은 순		인구 수 적은 순	
	읍·면·동 명	인구	읍·면·동 명	인구
1	연수구 송도2동	58,329	강화군 서도면	400
2	서구 당하동	52,362	강화군 북도면	1,175
3	서구 검암경서동	48,605	옹진군 자월면	1,319
4	미추홀구 용현 5동	48,423	옹진군 대청면	1,320
5	연수구 송도3동	45,696	동구 송림1동	1,885

출처 : 인천광역시청, 2018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

■ 인천경제자유구역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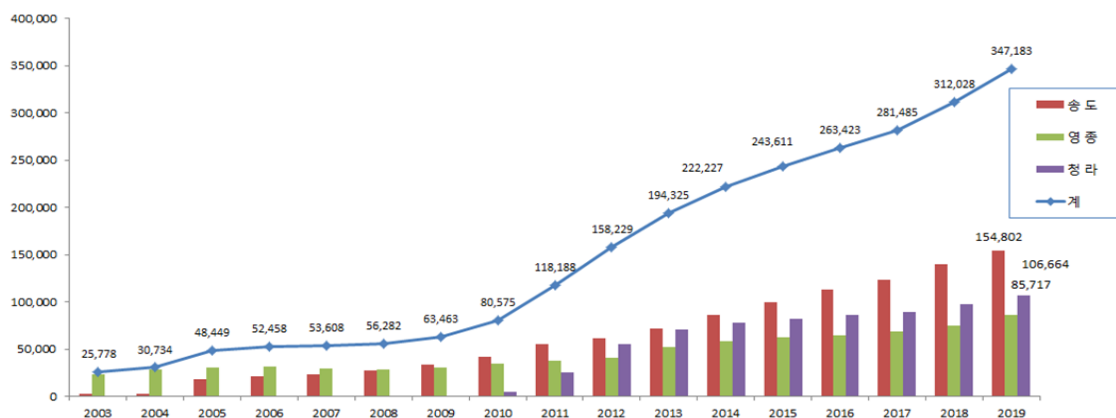
- 2019년 9월 기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총 인구는 347,183명으로, 송도국제도시시는 154,802명, 청라국제도시시는 106,664명, 영종국제도시시는 85,717명의 인구가 분포하고 있음
-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총 6,001명의 외국인이 있으며, 송도국제도시에는 3,522명, 청라국제도시에는 1,491명, 영종국제도시에는 988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인구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송도국제도시가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 가능함

[표 II-6] 인천경제자유구역 인구 수

단위 : 명

구분	행정동	내국인	외국인
송도	송도1동	34,932	1,052
	송도2동	36,538	1,080
	송도3동	47,835	1,150
	송도4동	31,975	240
	소계	151,280	3,522
영종	영종동	15,178	467
	영종1동	37,519	329
	운서동	28,014	605
	용유동	3,515	90
	소계	84,226	1,491
청라	청라1동	31,326	383
	청라2동	47,810	381
	청라3동	26,540	224
	소계	105,676	988
합 계		341,182	6,001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경제자유구역 내 인구 현황> 수정사용



[그림 II-6] 인천경제자유구역 인구 변화 그래프

■ 외국인 인구

- 외국인수는 67,869명으로 인천시 전체인구에 2.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5,273명 (7.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국 외국인 인구수 대비 인천광역시의 외국인 인구는 약 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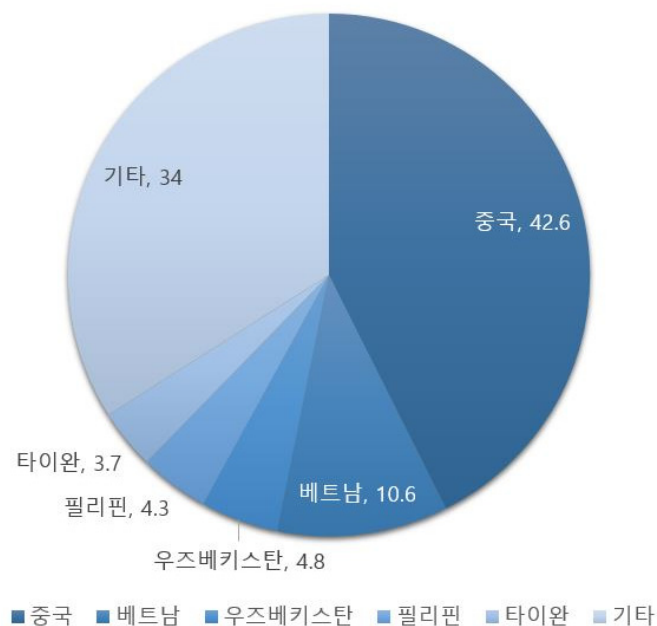
[표 II-기] 전국 외국인 인구 대비 인천광역시 외국인 인구 비율

단위 : 명, %

연도	전국 외국인 수	인천광역시 외국인 수	비율
2018	1,651,561	67,869	4.10
2017	1,479,247	62,596	4.23
2016	1,413,758	59,103	4.18

-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의 외국인 인구는 경기도,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충청남도 다음으로 5위에 이르는 규모를 지니고 있음
- 외국인의 주 거주지역은 부평구(13,497명), 서구(12,715명), 남동구(12,530명), 연수구(11,003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국적별 인구수는 중국(28,946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베트남(7,222명), 우즈베키스탄(3,288명), 필리핀(2,934명), 타이완(2,509명) 순으로 집계되었음

국가 별 외국인등록인구 (단위 :%)



[그림 II-기] 인천광역시 국가 별 외국인등록 인구

4) 교육환경

■ 초·중·고등교육

- 〈2018 인천통계연보〉에 따르면 기준 인천광역시에는 유치원 423개, 초등학교 260개, 중학교 135개, 고등학교 125개 등을 포함하여 총 957개의 교육시설이 있음
- 인천광역시 내에는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가 설립되어, 다양한 성격의 고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임
- 대표적인 미술 교육기관으로는 ‘인천예술고등학교’의 ‘미술과’가 있음

[표 II-8] 인천광역시 교육기관 및 학생 수

구분	학교 수	학생 수
유 치 원	423	42,324
초등학교	260	158,871
중 학 교	135	76,565
일반고등학교	80	57,704
특수목적고등학교	10	3,916
특성화고등학교	27	17,788
자율고등학교	8	5,508
기타 학교	14	1,662
계	957	364,338

■ 인천예술고등학교 미술과

- 2018년 기준 189명의 학생이 미술과에 재학하고 있으며, 세부 전공으로는 ‘한국화’, ‘서양화’, ‘조소’, ‘디자인’이 있음
- ‘드로잉’, ‘미술이론’, ‘미술사’, ‘미술 전공 실기’의 심화과목이 있음
- 연중 교육활동으로는 학교 갤러리 운영, 전시 계획, 미술 진로 탐색이 있음

[표 II-9] 인천예술고등학교 개요

개교	1998	관할교육청	인천시교육청
개설학과	미술과, 음악과, 무용과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구월로 115번길 36
유형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형태	공립
학생수	473명	교원수	53명

■ 대학교육

- 인천광역시에는 총 9개의 전문대학 및 종합대학교와 1개의 교육대학교가 있음
- 미술 관련 학과 보유 대학교는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가 있음
- 인하대학교 조형예술학과의 경우 세부영역을 ‘창작’, ‘예술기획’, ‘예술산업 전문화’으로 구분하여 창작뿐만 아니라, 예술기획 및 산업분야에 관한 교육을 이루어지고 있음
- 인천대학교 문화대학원은 지역문화기획전공을 개설 운영하여 지역문화기획자의 양성을 시도하고 있음
- 인천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은 이콘, 스테인드글라스, 교회문화재 전공 등 종교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전공을 개설·운영하고 있음
- 경인교육대학교는 초등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곳으로, 미술교육전공을 개설·운영하고 있음

[표 II-10] 인천광역시 내 미술관련 대학/대학원

대학교	학사과정		석·박사과정	
	대학	전공	대학원	전공
인천 대학교	예술체육대학	- 서양화 전공 - 동양화 전공 - 디자인학부	일반대학원	- 미술학과 - 디자인학과
			문화대학원	- 지역문화기획전공 - 문화관광산업전공
인하 대학교	예술체육학부	- 조형예술학과 - 디자인융합학과	일반대학원	- 조형예술학과 - 시각정보디자인과
	문과대학	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과	협동과정	문화경영학전공
인천 가톨릭 대학교	대학	- 문화예술콘텐츠학과 - 회화과 - 환경조각과 - 시각디자인학과 - 환경디자인학과	일반대학원	- 현대회화전공 - 바이오메디컬아트 전공 3D융합조형 전공 - 이콘전공 - 스테인드글라스 전공 - 교회문화재 전공
경인교육 대학교	대학	미술교육과	교육 전문대학원	미술교육전공

5) 문화환경

(1) 인천광역시 문화기반시설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내 문화기반시설은 총 101개소로 미술관 5개소, 박물관 28개소, 도서관 48개소, 문예회관 9개소, 지방문화원 10개소, 문화의집 1개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더불어, 인천광역시에는 갤러리, 대안공간, 신생공간 등의 문화시설들이 존재함

[표 II-11] 인천광역시 내 문화기반시설 수

합계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지방 문화원	문예회관	문화의 집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지자체	교육청	국공립	국공립	국공립
101	2	3	14	13	40	8	10	9	1

● 미술관

- 인천광역시 내 등록 미술관은 총 5개소로 공립 2개소, 사립 3개소가 있음

[표 II-12] 인천광역시 내 주요 미술관 개요

지역	구분		시설명 (개관연도)	개요
	설립 주체	등록 여부		
남구	공립	등록	송암미술관 (1992)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 소속된 미술관으로,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서화·조각·공예·도자기 등의 상설전 및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중구	공립	등록	인천아트플랫폼 (2009)	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전시 및 공연, 시민참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임
강화군	사립	등록	더리미미술관 (1995)	1999년 정식 사립미술관으로 등록된 미술관으로, 아르브뤼 작품 전시를 중심으로, 연극공연 및 음악회·미술체험·미술치료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음
	사립	등록	전원미술관 (1995)	유광상 작가에 의해 개관한 미술관으로, 1996년 정식 사립미술관으로 등록되었으며, 유광상 작가의 작품 120여점 및 강화도의 특산물인 화문석으로 제작한 예술품을 전시하고 있음
	사립	등록	해든뮤지움 (2013)	2017년 정식 사립미술관으로 등록된 미술관으로, 국내·외 유명 현대예술가들의 작품을 다소 소장하고 있어 컬렉션 전시를 개최하고, 연령별 맞춤 교육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음

① 송암미술관

■ 개요

- 설립연도 : 2011년
- 시설성격 : 공립 등록미술관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비류대로 55번길 68
- 관 장 명 : 양순덕
- 규 모 : 부지면적 14,533㎡, 연면적 3,685 ㎡
- 주요시설 : 전시실, 강당, 야외전시장 등

■ 설립목적

- 시민들에게 단순관람 외에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열린 문화공간을 지향함

■ 전시공간

- 1층전시실(공예실) : 토기, 청자, 분청자와 백자 등의 공예품 전시 공간
- 2층전시실(서화실) : 서예작품과 조선시대 회화 등의 서화 전시 공간
- 2층 기획전시실 : 초대전 및 각종 기획특별전이 진행되는 공간
- 야외전시실 : 석등, 석상, 석비 등의 유물들을 전시된 야외 공간

■ 소장품 성격

- 고대부터 현대까지 서화, 조각, 공예, 도자기 등 전 시대와 장르를 망라한 유물 9천여 점을 소장하고 있음

■ 전시 성격

-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국내 유물 및 서화 등을 다루는 상설전시가 주를 이루고 있음
- 1층 전시실은 선사시대 토기에서부터 고려시대 청자, 조선시대 분청사기와 백자에 이르기 까지 우리나라의 도자사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전시를 구성되어있음
- 2층 전시실은 추사 김정희를 비롯한 조선 후기 대가들의 서예 작품 및 조선시대 회화를 산수화·영모화·인물화·민화·불화 등을 전시하고 있음
- 야외전시 공간의 경우 석조 유물을 전시하고 있으며 주로 고려 말부터 현대에 이르는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음

■ 교육프로그램

- 초등학생 단체 교육프로그램으로는 12지신 이야기 및 조선시대 선비문화와 ‘사군자’를 주제로 한 “알!송!달!송! 미술관”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중학교 진로 체험프로그램으로는 미술관 큐레이터 진로체험을 주제로 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음

[표 II-13] 송암미술관 교육프로그램 개요

대상	교육명	주제	교육구성	소요시간
초등 3~4학년	출동! 열두 수호신이 간다	12지신 이야기	• 오티 : 소개 및 관람예절 • 강의 : 12지신 이야기 • 미션 : 12지신을 찾아라 • 체험 : 나만의 12지신 연필 만들기 • 정리 : 발표 및 마무리	120분
초등 5~6학년	백투더 조선	조선시대 선비문화와 사군자	• 오티 : 소개 및 관람예절 • 강의 : 조선시대 선비문화 • 미션 : 선비들이 사랑한 사군자 • 체험 : 사군자 그리기 및 찬(讚)찬쓰기 • 정리 : 발표 및 마무리	120분
중학생	꿈을 그리는 미술관	미술관 큐레이터 체험	• 전시관람 : 상설전시 • 이론강의 : 미술관과 학예연구사 • 체험학습 : 발표 및 마무리	120분

■ 특징 및 시사점

- 동양제철화학(現 OCI) 회장故이회림 회장에 의해 설립된 송암미술관은 1989년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에서 개관하였으나, 1992년 인천광역시로 신축 이전 개관하였음. 이후 2005년 인천광역시에 무상기증 되었으며, 2007년 인천광역시립박물관 분관으로 편입되었음
- 기업의 기증을 통한 소장품 및 미술관 건축물을 인천광역시가 확보한 사례임



[그림 II-8] 송암미술관 전경



[그림 II-9] 송암미술관 전시실

② 인천 아트플랫폼

■ 개요

- 설립연도 : 2009년
- 시설성격 : 공립 등록미술관
- 소 재 지 : 제물량로 218번길 3
- 관 장 명 : 이재언
- 규 모 : 부지면적 6,635㎡, 연면적 5,593㎡
- 주요시설 : 전시실, 공연장, 레지던시, 게스트하우스, 카페

■ 설립목적

- 예술의 창작·유통·향유·교육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문화예술의 창작공간의 역할을 하고자 함

■ 전시공간

- 1888년 지어진 근대 개항기 건물과 1930~40년대의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창작스튜디오, 전시장, 공연장, 생활문화 센터 등 8개 동의 규모로 조성되었음
 - A동 : 인천생활문화센터 공간을 운영하고 있음
 - B동 : 주전시장으로 다양한 예술을 보급하는 전시장으로 활용되고 있음
 - C동 : 블랙박스 형태의 공연장으로 다양한 형태의 공연 개최 가능함
 - D동 : 인천아트플랫폼 운영사무실로 운영되고 있음
 - E, F, G동 : 입주작가의 작업공간인 스튜디오와 게스트하우스로 운영됨
 - H동 : 커피숍을 포함한 인천생활문화센터로 활용되고 있음



[그림 II-10] 인천 아트플랫폼 전경

■ 전시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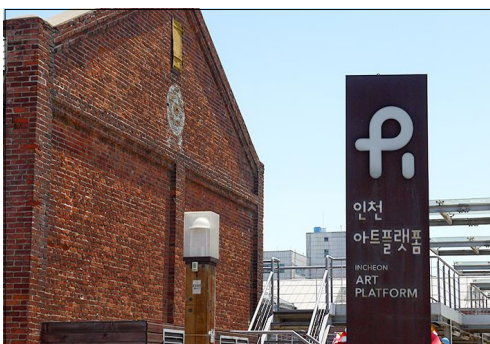
- 입주예술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사업과 동시대 새로운 예술의 경향을 탐구하고 논의로 이끌어내는 다양한 기획전시를 개최하고 있음
- 최근 '10주년 기념전시 <오버드라이브 2009-2019:여행하는 주체들, 창조자, 장소의 경험> (2019.09.25.~10.27.)을 창고 갤러리에서 개최하였음

■ 교육프로그램

- 예술인들과 일반 시민 간의 일방향적인 정보전달과 체험교육의 차원에서 멈추지 않고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 2018년, 레지던시 교육·연구로써 비평 프로그램인 <플랫폼 살롱>을 6회차에 걸쳐 진행했으며, 해당 프로그램은 예술가, 전문가, 학생, 시민이 참여하였음
- 2018년, 인천아트플랫폼은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사운드:코드:비주얼>을 진행하여 미디어아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음

■ 특징 및 시사점

- 인천아트플랫폼은 인천광역시 원도심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중구 해안동 일대의 근대 개항기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조성된 문화예술창작 공간임
- 예술의 창작, 유통, 향유, 교육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공간으로 지역의 문화 활성화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새로운 문화예술의 발신지 역할을 하고 있음
- 2019년 7월에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된 '동아시아 문화도시 2019 <3x=∞>'전을 개최하여 동시대 주요 문화담론과 인천의 지역성 및 역사성을 반영하였음
- 지역성과 역사성을 기반으로 동시대 예술 담론을 추적·발굴하는 문화예술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그림 II-11] 인천 아트플랫폼 건물



[그림 II-12] 인천아트플랫폼 전시실

③ 더리미 미술관

■ 개요

- 설립연도 : 1996년
- 시설성격 : 등록 사립미술관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 421-5
- 관 장 명 : 유리
- 규 모 : 부지면적 1,600㎡, 연면적 340㎡
- 주요시설 : 전시실, 민속관, 워크룸, 카페, 한옥스테이 등

■ 설립목적

- 작품 감상과 더불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지향함

■ 전시공간

- 1층 전시실 : ‘아르브뤼’ 작품이 주로 전시되어 있음
- 2층 전시실 : 작가들의 초대전 및 개인전 등이 열리는 기획전시 공간

■ 소장품 성격

- 유리공예, 판화, 동양화, 서양화, 조각, 민화 등 약 200여 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음

[표 II-14] 2019년 더리미 미술관 주요 기획전시 개요

전시기간	전시명	참여작가
2019.09.17.~10.20.	돌아온 언어展	김주희
2019.08.21.~09.08.	선-사람을 잇다	관람객
2019.07.16.~08.14.	한국 도자장신구회 정기전	강민성, 고경원, 고경희 외 14인
2019.06.~07.	아름다운 비상	이규재, 장현우, 금채민
2019.06.11.~06.22.	소소 - 14인의 민화전	권은주, 김경희, 김재규 외 11인
2019.05.17.~05.30.	제7회 강화여류작가회전	강기욱, 구신자, 권수홍 외 41인
2019.05.05.~06.02.	도자 공예전 ‘내 친구 이야기’	윤경희
2019.04.06.~05.05.	아름답고 실용적인 우리 소창	이옥희와 소창이야기 협동조합
2019.03.09.~04.05.	이동훈 초대전	이동훈

■ 전시 성격

- 개인·단체전, 지역 여류화가전시 등 다양한 분야의 전시회를 기획·운영하고 있음

■ 교육프로그램

- ‘어린이 미술 체험활동’ 및 ‘미술치료 자격증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술치료 자격증반의 경우 한국 정신보건 미술치료학회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음

■ 특징 및 시사점

- 1996년 사설화랑 갤러리 프란스 인을 개관하였으며, 1999년에 지명을 따라 더리미로 개칭 후 같은 해 정식 시립미술관으로 등록되었음
- 2015년 유지영, 유리, 유미 세 자매가 더리미미술관을 인수하여 재개관하였음
- 아마추어 화가나 어린아이의 그림에서 발견되는 순수함이 담긴 아르브뤼 작품을 상설전으로 운영하고 있음
- 전시실, 민속관, 워크룸, 카페, 한옥스테이 등의 시설을 바탕으로, 전시 및 연주회와 체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합문화예술공간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그림 II-13] 더리미미술관 전경



[그림 II-14] 더리미미술관 전시실

④ 전원미술관

■ 개요

- 설립연도 : 1995년
- 시설성격 : 등록 사립미술관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송정리 561
- 대표자명 : 유광상
- 규모 : 부지면적 1,157㎡, 연면적 432㎡
- 주요시설 : 전시실

■ 설립목적

- 한국화가 전원 유광상(1948~)의 작품들을 전시 및 강화지역 문화발전 기여

■ 전시공간

- 1전시실 : 유광상 화백의 생애와 예술세계를 조망할 수 있는 상설전시 공간
- 2·3전시실 : 기획전 중심의 전시 및 강화 화문석 공예품 전시 공간

■ 소장품 성격

- 전원 유광상의 〈외포리의 24시〉, 〈21세기 자화상〉 등 120여 점을 소장하고 있음

■ 전시 성격

- 전원 유광상의 작품을 상설 전시를 중심으로 공예품 전시를 운영하고 있음

■ 특징 및 시사점

- 강화지역 출신의 예술가 유광상 화백이 직접 건립한 미술관으로, 생존 작가가 직접 개인 미술관을 건립한 첫 번째 사례로 알려져 있음



[그림 II-15] 전원미술관 전경



[그림 II-16] 전원미술관 전시실

⑤ 해든뮤지엄

■ 개요

- 설립연도 : 2013년
- 시설성격 : 등록 사립미술관
- 소 재 지 : 길상면 장흥리 211-5
- 관 장 명 : 박춘순
- 규 모 : 연면적 1,986㎡
- 주요시설 : 전시실, 세미나실, 야외가든, 카페

■ 설립목적

- 어렵고 낯선 미술관이 아닌 친숙하고 즐거운 미술관으로 다가가고자 함

■ 전시공간

- 기획전시장 : 국·내외 유명 현대예술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기획전시공간
- 상설전시장 : 야외 전시공간의 성격으로,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

■ 소장품 성격

- 피카소, 샤갈, 베이컨, 로버트 인디애나 등 국외 작가들의 작품과 백남준, 장욱진, 이응로, 김환기, 이우환 등 국내 유명작가들의 작품 다수 소장하고 있음

■ 전시 성격

- 평균 연 1회의 기획전이 개최되고 있음
- 근현대미술작품들의 기획전 및 개인전을 중심으로 개최하는 경향이 있음
- 최근 2019 기획전 〈팝아트〉展(2019.08.30.~2020.03.29.)이 개최하였음

[표 II-15] 2018/2019년 해든뮤지엄 전시개요

전시기간	전시명	참여작가
2019.08.30. ~2020.03.29.	2019 기획전 II 〈팝아트〉展	제프쿤스, 요시모토나라, 줄리안오피, 로버트 인디애나, 데이비드 호크니 등
2019.03.01. ~ 08.25.	2019 기획전 I 〈하늘·땅·사람〉展	공성훈, 김경민, 김정희, 유근택, 이상봉 이상길, 조환, 주태석, 정정주, 한만영, 한운성
2018.03.01. ~2019. 02.24.	개관 5주년 특별전 〈샤갈〉展	마르크 샤갈

■ 교육프로그램

- 연령·단체 별 미술 체험 및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음

[표 II-16] 해든뮤지엄 교육프로그램 개요

대상	주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명	주요 내용
어린이	해든 감상교실	창작활동 및 전시해설 프로그램
	미술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진로교육 프로그램
	해든오경 찾기	아이를 동반한 가족 액티비티 프로그램
	나도 비평가(초등)	체험형 감상교육
청소년	미술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진로체험 교육
	나도 비평가	체험형 감상교육
	예비성인을 위한 현대미술산책	감상 및 특강
	붓글씨로 전하는 마음	창의·인성체험교육
	마음 노트 만들기	창의·인성체험교육
일반	문화예술교양강좌	인문학 특강
	전시연계 강좌	전시 연계 특강
	교양 강좌	예술 문화 인문학 특강
	해든 아틀리에	공예품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해설이 있는 미술관	도슨트와 함께 전시감상
	창의·인성교육	체험, 만들기 중심의 창의인성 교육
기업	해든 아틀리에	공예품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문화예술강좌	문화예술 인문학 특강

■ 특징 및 시사점

- 해든뮤지엄의 박춘순 관장은 1997년 신사동에서 17년 간 ‘갤러리 유로’를 경영하였으며, 2013년 해든뮤지엄을 개관하였음
- 배대용 건축가에 의해 설계된 해든뮤지엄은 2013년 한국건축가협회로부터 ‘2013 올해의 건축 베스트7’에 선정되었음
- 강화지역에 국·내외 유명 현대예술가의 작품을 감상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였음



[그림 II-17] 해든뮤지엄 전경



[그림 II-18] 해든뮤지엄 전시실

● 갤러리

-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 데이터베이스 <아이큐>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내 갤러리는 18개 소로 집계되고 있으나 최근 활동 기록을 확인 가능한 갤러리는 2개소가 있었으며, ‘사진 공간 배다리’를 추가하여 총 3개소를 조사하였음

[표 II-17] 인천광역시 내 주요 갤러리 개요

지역	설립주체	시설명 (개관연도)	개요
강화군	사립	갤러리 더웨이 (2011)	지역의 신진 작가 및 저명한 예술가의 작품을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상업 갤러리임
중구	사립	사진공간 배다리 (2012)	전문성 있는 사진예술공간을 통해 지역의 사진예술의 질적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목표로 설립된 공간임
	사립	갤러리 지오 (2014)	인천환경미술협회에서 활동해 온 고진오 관장이 설립한 공간으로,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위한 문화공간임

① 갤러리 더웨이

■ 개요

- 설립연도 : 2011년
- 시설성격 : 사립갤러리
- 소재지 :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 230-2
- 대표자 : 최귀숙
- 주요시설 : 전시장, 카페

■ 설립목적

-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지역작가들의 활발한 예술활동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사업

- 작품 판매 및 카페 운영

■ 전시 성격

- 지역작가들의 개인전 및 단체전을 중심으로 전시를 진행하고 있음
- 최근 <2019 갤러리 더웨이 소장전>을 진행하였음

[표 II-18] 2017~2019 갤러리 더웨이 전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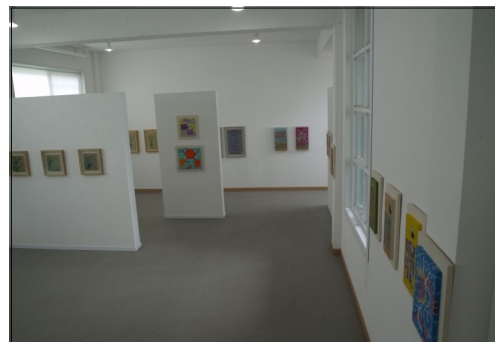
전시기간	전시명	참여작가
2019.07.01.~09.24.	갤러리 더웨이 소장전	장명규, 최귀숙, 이병란 등
2019.01.15.~02.28.	이재학 개인전	이재학
2018.08.18.~10.20.	시인의 노래	김정자
2018.05.19.~06.30.	흙의 소리	정수모
2018.01.13.~04.30.	복비도주(福比陶朱)	이정숙
2017.11.30.~12.31.	세밀화 야생화 작품 전시	강화 도서관 소속 주민
2017.11.16.~12.31.	이재학 사진전	이재학
2017.09.16.~11.26.	장명규 개인전	장명규
2017.08.15.~09.13.	이재학 사진전	이재학
2017.07.24.~09.09.	갤러리 더웨이 소장전	권순익, 백화경, 김정자 등
2017.05.30.~07.22.	갤러리 더웨이 소장전	권순익, 백화경, 김정자 등
2017.03.14.~.05.15.	이병란 모자이크전	이병란

■ 특징 및 시사점

- 강화군에 2011년에 개관한 갤러리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기획전시를 지속해오고 있는 갤러리임
- 갤러리의 소장품 전시 및 지역작가의 개인전 개최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강화군에서 개관 이래로 꾸준히 전시를 기획하고, 예술을 통해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사례임



[그림 II-19] 갤러리더웨이 전경



[그림 II-20] 갤러리더웨이 전시실

② 사진공간 배다리

■ 개요

- 설립연도 : 2012년
- 시설성격 : 사립갤러리
- 소 재 지 : 중구 차이나타운로 51번지 19-1
- 대 표 자 : 이상봉
- 주요시설 : 전시실

■ 설립취지 및 목표

- 전문성 있는 사진예술공간 통한 지역의 사진예술 발전에 기여함

■ 주요 사업

-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진교육, 전시 및 해외교류 지원 사업
- 사진아카데미 및 특강
- 도서 출판 사업

■ 전시 성격

- 2018년부터 전시 공간 대관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음
- 2019년 시각장애인 전시 및 아트 페어 등 8개 전시를 개최하였음

[표 II-19] 2019 사진공간 배다리 전시 개요

전시기간	전시명	참여작가
2019.09.05.~09.24.	AFRICA를 다니다	이희자
2019.07.23.~07.29.	혼용무도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전시동아리
2019.07.01.~07.30.	시각장애인 사진전 '섬에서'	공혜원, 김덕주, 김선도 외 10인
2019.05.31.~06.09.	도쿄공예대학 동문전 '사진의 이유'	한승탁, 최은식, 김상덕 외 7인
2019.03.15.~06.29.	시각장애인 사진포토편어전	김덕주, 이형진, 김유수 외 12인
2019.02.28.~03.03.	하양검정 40기 신인전	인천대학교 사진동아리
2019.02.21.~02.26.	박유선 디자인전	박유석
2019.02.23.~02.23.	2019 살롱 드 배다리 아트페어	고정남, 권동주, 권보미 외 7인

■ 특징 및 시사점

- 인천의 유일한 사진전문 갤러리로, 사진전 기획 및 사진 관련 특강을 운영하며 인천지역의 사진예술 활성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음
- 2018년 시각장애인 사진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특강 및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사진교육 및 전시 계획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음
- 이와 더하여, 전시공간 대관 및 출판 사업에 집중하기 시작하였으며, 대관의 경우 사진 뿐만 아니라 모든 장르의 미술 전시가 가능하도록 변화를 갖기 시작하였음
- 최근 배다리 사진 공간은 시각장애인의 사진활동을 상업화 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음
- 지역 내 특정 장르의 예술의 정착과 이를 통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사례임



[그림 II-21] 사진공간 배다리 전경



[그림 II-22] 사진공간 배다리 전시실

③ 갤러리 지오

■ 개요

- 설립연도 : 2014년
- 시설성격 : 사립갤러리
- 소 재 지 : 중구 신포로 15번길 69
- 대 표 자 : 고진오
- 주요시설 : 카페, 전시장, 세미나실

■ 설립취지 및 목표

- 창작활동을 위한 예술가들의 문화공간 제공 및 신포동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

■ 주요 사업

- 전시기획 ·대관 사업 및 카페 운영

■ 전시 성격

- 장르의 구분 없이 개인 및 단체전, 아트캘린더전 등 대관 및 기획전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예술가를 발굴하고, 전시를 지원해왔음

[표 II-20] 2019 갤러리 지오 전시 개요

전시기간	전시명	장르	참여작가
2019.05.04.~05.14.	관계의 공간	회화	이영숙
2019.04.27.~05.03.	햇살과 바람소리가 함께하는 풍경전	회화	예지희
2019.04.13.~04.26.	박성배 개인전	회화	박성배
2019.04.06.~04.12.	한지수 개인전	회화	한지수
2019.03.30.~04.05.	제52회 일수회 회원전	회화	김영애 외 9인
2019.03.23.~03.29.	예랑서예 제 1회 회원전	서예	강현정 외 18인
2019.03.09.~03.22.	생존 그 어려운 숙제	디지털	박재영
2019.02.23.~03.08.	조각그룹 NEOWA 展	조각	강선구 외 12인
2019.02.09.~02.22.	fill : 채우다	조각	최은자
2019.01.26.~02.01.	제 37회 최경수 개인전	회화	최경수
2018.12.29.~2019.01.25.	2019 아트캘린더전	혼합	고진오 외 83인

■ 특징 및 시사점

- 갤러리 지오는 인천시 중구의 보조금을 바탕으로 2014년에 설립되었으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전시를 개최해왔음
- 고진오 관장은 인천 중구 지역을 ‘예술인 거리’로 꾸미고, ‘예술인 마을’을 조성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음
- 2019년 5월 갤러리 이전 안내 이후 홈페이지 운영이 중단된 상태임
- 홈페이지는 ‘인천시 중구 관동 2가 10-10번지’로 이전 계획을 밝히고 있음



[그림 II-23] 갤러리 지오 전경



[그림 II-24] 갤러리 지오 전시실

● 대안공간/신생공간

- 인천광역시 내 대표적인 대안공간으로 ‘스페이스 빔’이 있으며, 청년예술가들을 중심으로 활성화 되었던 신생공간으로는 ‘임시공간’이 소재하고 있음

[표 II-21] 인천광역시 내 주요 대안/신생공간

지역	설립주체	시설명 (개관연도)	개요
동구	사립	스페이스빔 (2002)	1995년부터 스터디 진행 및 미술전문지 발간, 전시기획 등의 활동을 벌여온 대안적 미술공간으로, 도시재생 관련 담론 형성 및 방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음
중구	사립	임시공간 (2016)	인천 원도심 개항장 문화지구 내 위치한 신생공간으로, 지역 시각 예술 기획과 매개를 위한 거점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음

① 스페이스빔

■ 개요

- 설립연도 : 2002년
- 시설성격 : 사립 대안공간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동구 창영동 7번지
- 대표자 : 민운기
- 주요시설 : 전시실, 공연장, 독립서점, 교육실 등

■ 설립 취지 및 목표

- 중앙집권적인 문화예술구조에서 벗어나 인천 지역문화의 독자적 정체성 모색하며, 지역의 문맥을 고려한 활동 속에서 도시공동체 인천을 만들어가고자 함

■ 주요 사업

- 도시 공동체 관련 담론을 공유·형성해가는 배다리 도시학교 운영
- 전통방식의 양조기법의 복원 및 관계와 소통을 도모하는 배다리전통주학교 운영
- 예술가 전시 및 프로젝트 기획 지원 사업
- 인문학 및 미술 교육을 위한 빔아카데미, 미술공작교실 프로그램 기획·운영
- 문화비평지 격월간 〈시각〉 발간

■ 전시 성격

- 동시대 문화·사회적 담론을 연구하는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해왔으며, 전시 개최 수는 타 공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
- 2019년 전시는 개최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4월 아티스트 파티 〈코끼리파티〉(2019. 04.21.)를 개최하였음

[표 II-22] 스페이스빔 전시 개요

전시기간	전시명	장르	참여작가
2018.12.13.~12.25.	봄바람, 이젠 어떻게 사랑해야하나	회화	유승호
2017.07.03.~07.17.	보이지 않는 도시들	사진	박찬배
2017.06.01.~06.07.	허락된 풍경	사진	이호진
2016.01.17.~11.30.	밤의 접속	혼합	배인숙
2016.10.08.~10.20.	큐리어스 룸	혼합	곽지영, 김진, 박정미
2014.11.01.~11.14.	안녕들 하십니까	혼합	고우리 외 5인
2013.08.31.~09.13.	파란만장, 만개의 파도	혼합	ETC

■ 특징 및 시사점

- 2007년 초 공공미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방치되어 있던 양조장 건물을 임대·리모델링 하여 스페이스 빔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
- 2012년 ‘배다리 도시학교’를 개관하여 다양한 영역과 분야에서 오늘 날의 도시에 대해 고민과 문제의식을 심화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장을 제시하였음
- 스페이스 빔은 미술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맥을 고려한 다각적인 활동 속에서 도시 공동체 인천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음



[그림 II-25] 스페이스 빔 전경



[그림 II-26] 스페이스 빔 포럼 현장

② 임시공간

■ 개요

- 설립연도 : 2016년
- 시설성격 : 사립 신생공간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29 2층
- 대표자 : 채은영
- 주요시설 : 전시장

■ 설립 취지 및 목표

- 큐레이터와 예술가 중심으로 시각문화예술 전시와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공간으로 미술의 공공적 기여를 통해 창작자와 대중의 창의적인 소통을 지향함

■ 주요 사업

- ‘천 명의 사람들이 예술을 새롭게 미술을 보게하자’는 의미의 시립미술관(人千始湫美術館) 프로젝트 진행
- 동시대 청년 예술가 연구 및 전시 개최 지원
- 주제별 로컬 큐레이팅 포럼 진행

■ 전시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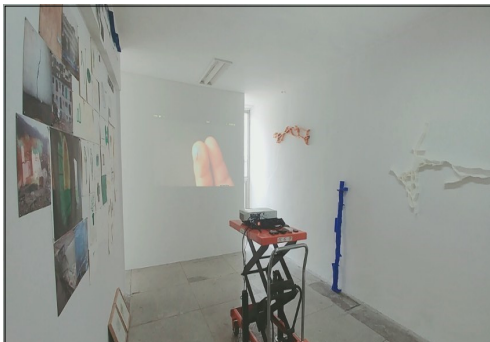
- 동시대 청년 예술가의 작가 연구 전시 및 아트페어를 개최하고 있음
- 최근 작가연구 전시의 성격을 지닌 전시로, ‘언메이크랩’의 3년 간의 작업을 모아 〈오퍼레이션 룸〉(2019.06.25.~07.14.을 진행하였음

[표 II-23] 임시공간 전시 개요

전시기간	전시명	장르	참여작가
2019.06.25.~07.14.	작가연구 : 오퍼레이션 룸	혼합	언메이크랩
2018.12.12.~12.30.	작가연구 : 보는 것만으로 들을 수 있다면	회화	양유연
2018.11.14.~12.02.	작가연구 :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 뿐이야	혼합	김남훈
2018.10.17.~11.04.	작가연구 : 사람-공간-관계	혼합	윤정미
2017.10.18.~10.22.	캐비닛 아트페어	혼합	청년예술가 다수

■ 특징 및 시사점

- 채은영 큐레이터에 의해 설립된 신생공간으로, 주요 프로젝트로는 시립미술관(人千始湫美術館)가 있음
- 채은영 큐레이터가 기획한 시립미술관은 ‘천명의 사람들이 새롭게 미술을 보자’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새로운 미술의 영역을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제공하는 상상의 미술관임
- 송도국제도시, 신포동 임시공간, 서울 문래동에 함께 미술 전시회를 열어, 원도심과 신도시를 잇고 서울과 인천의 연결을 시도하였음
- 이를 통해, 시각예술을 바탕으로 동시대의 지역성과 정치성에 대한 고민과 실천을 시도하였음



[그림 II-27] 임시공간 전시실



[그림 II-28] 임시공간 포럼 현장

(2) 인천광역시 문화기반 자원 : 단체

- 인천광역시의 주요 문화기반 단체로는 인천미술협회, 인천민예총, 인천문화재단이 있음
- 인천미술협회는 연간 약 10개의 미술관련 사업을 개최하여 인천광역시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
- 인천민예총은 지역의 문화콘텐츠 발굴 및 인문학적 교양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인천문화재단은 지역문화가치의 창의적 발굴 및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문화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표 II-24] 인천광역시 주요 문화기반 자원 : 단체

조직형태	단체명 (설립연도)	대표자	특징
사단법인	인천미술협회 (1981)	서주선	인천해양국제미술축전 · 인천국제아트페어 · 전국공모인천미술대전 등 인천광역시 내 미술행사를 적극적으로 주최, 주관하고 있음
사단법인	인천민예총 (1994)	정세훈	2019년 백범김구와 인천 · 인천문화예술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시민의 인문학적 교양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
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 (2004)	최병국	인천의 지역문화가치의 창의적 발굴 및 생활 속 문화가치 확산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인천미술활성화 및 신진예술가 발굴 등 미술문화 저변 확산을 도모하고 있음

① 인천미술협회

■ 개요

- 설립연도 : 1981년
-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안길 78 인천문화회관 2층
- 대표자명 : 서주선
- 설립목적 : 향토 미술 및 민족 미술의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고 미술인의 권익을 옹호하며 미술의 국내 및 국제적인 교류와 미술인 상호간의 협조를 목적으로 함

■ 사업내용

- 인천미술협회는 2019년 내에 약 10여개의 사업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지역의 미술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제교류·신진작가 발굴·아트페어·전시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9년 주요 핵심 사업으로는 <인천해양국제미술축전>이 있으며, ‘인천국제아트페어’와 ‘전국공모 인천미술대전’, ‘인천미술청년작가전’을 포괄하는 행사임

[표 II-25] 2019년 인천미술협회 주요사업

사 업 명	주제 · 특징	기간	장소
인천미술한마당 축제	평화도시 인천	04.05.~04.11.	인천문예회관 전시실 전관
인천미술실기대회	서예, 문인화	대회:06.15. 전시:07.05.~07.11.	대회:인천대공원 전시:인천문예회관 대전시실
인천섬기행전	평화의 섬	08.16.~08.22.	인천문예회관 중·소전시실
인천해양국제미술축전	해양도시 인천	10.08.~10.13.	송도컨벤시아 1전시홀
인천국제아트페어	해양도시 인천	10.08.~10.13.	송도컨벤시아 1전시홀
인천미술청년작가전	해양도시 인천	10.08.~10.13.	송도컨벤시아 1전시홀
제55회 전국공모 인천미술대전	해양도시 인천	10.08.~10.13.	송도컨벤시아 1전시홀
한·미국제미술교류전	국제교류	11.08.~11.14.	인천문예회관 중·소전시실
제79회 인천미술협회전	시립미술관 컬렉션 기금마련	11.22.~11.28.	인천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전관
<제물포 예술제>	예술축제	09.20.~09.26.	수봉문화회관
<한·중미술사진국제교류전>	국제교류	11월	-

② 인천 민예총

■ 개요

- 설립연도 : 1994년
-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23번길 12 재흥빌딩 3층 (구월동)
- 대표자명 : 정세훈
- 설립목적 : 진보적 예술을 지향하는 예술인들의 상호연대와 다양한 예술적 실천을 통하여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사업내용

- 인천민예총은 인천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프로그램은 시각·문학·공연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음
- 인천민예총은 문화예술아카데미를 통해 <고전문학 읽기와 문화콘텐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슈포럼>을 통해 도시재생에서 예술의 역할을 발굴·모색하고 있음
- <2019 백범김구와 인천> 창작뮤지컬을 통해 지역의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다양하게 변용,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신나는 예술여행, 기획전시, 풍물놀이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행사를 진행하고 있음

[표 II-26] 2019년 인천민예총 주요사업

사업명		분야	내용
2019 문화예술 아카데미	이슈포럼	도시재생	이슈포럼은 도시재생에 있어 예술의 역할에 관하여 논하는 포럼행사임
	고전문학 읽기와 문화콘텐츠	문학	동서양 고전 문학에 대한 감상과 토론, 그리고 그 원작과 관련된 영화, 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의 공연 영상을 시청하고 문화콘텐츠로 변용되는 양상의 특징을 이해하여 인문학적 교양 증진을 도모함
2019 백범김구와 인천		공연	백범과 인천의 경험을 소재로 하는 뮤지컬을 쇼케이스 형식으로 진행하고, 이후 지역의 문화콘텐츠로서 다양하게 변용,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젝트임
신나는 예술여행		공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복지사업으로, 인천민예총은 노래, 풍물, 댄스 등 인천 지역 내 문화 순회공연을 진행하고 있음

③ 인천문화재단

■ 개요

- 설립연도 : 2004년
- 조직형태 : 재단법인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195 (항동5가 13)
- 대표자명 : 최병국
- 설립목적 : 인천의 지역 문화가치의 창의적 발굴 및 생활 속 문화가치 확산

■ 사업내용¹⁾

- 인천문화재단의 예술지원팀은 다양한 분야의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특히, 시각예술분야와 관련하여 ‘인천예술인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신진예술가 발굴지원’, ‘예술표현활동’ 사업을 통해 작품 창작·도서 출판·전시 개최·네트워크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인천미술활성화 사업’을 통해 인천 연고작가의 작품을 구입하고, 대여·전시하여 인천 미술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표 II-27] 인천문화재단 예술지원팀 주요사업

지원사업명		분야	사업내용
예술표현활동	시각예술	활동지원	시각예술분야 개인전, 단체전 또는 기획전, 시각 관련 출판 지원
신진예술가 발굴지원	바로 그 지원	활동지원	신진예술가의 문화예술 생태계로의 진입을 도움과 동시에 자생력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 및 후속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
인천예술인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청년예술인 생애처음지원	창작지원	공공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적은 만 19세 이상 35세 이하 청년예술가의 창작활동 지원
	유망예술가 활동지원	창작지원	데뷔 10년 이하, 만 35세 이하의 인천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중진예술가 활동지원	창작지원	데뷔 10년 이상의 인천예술가 및 5년 이상 인천 활동 예술단체의 창작활동 지원
	원로예술인 지원	창작지원	인천연고의 70세 이상 원로예술인 및 단체의 창작활동 지원
인천미술활성화		작품구매 전시·대여	인천 연고 작가의 작품을 구입하고, 구입한 미술품을 대여하거나 전시함으로써 인천 미술문화 활성화를 도모

1) 연구보고서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인천문화재단의 사업내용은 시각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서술하였음

(3) 인천광역시 문화기반 자원 : 미술 행사

- 인천광역시 내 주요 미술행사로는 ‘인천해양국제미술축전’, ‘인천국제아트페어’, ‘인천국제여성미술비엔날레’ 등이 있음
-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되는 대다수의 미술행사는 인천미술협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경우가 많음
- 인천해양국제미술축전은 2019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로, 인천국제아트페어·전국공모인천미술대전·인천미술청년작가전을 포괄하고 있음
- 인천국제여성미술비엔날레는 2011년 이후로 개최되고 있지 않음

[표 II-28] 인천광역시 주요 문화기반 자원 : 미술행사

행사명	주최	주관	특징
2019 인천해양국제 미술축전	인천광역시, 인천미술협회	인천해양 국제미술축전 운영위원회	2018년도까지 개별적으로 개최되었던 인천국제아트페어, 전국공모인천미술대전, 인천미술청년작가전을 포괄하여 개최되는 행사임
인천국제아트페어	인천광역시, 인천미술협회	인천국제 아트페어 운영위원회	2018년 기준, 6개 광역시 및 제주 예총과의 미술교류전을 함께 개최하였으며, 국내 160여명의 작가의 작품 및 해외 5개국의 30여명의 작가가 참여했음
인천국제여성 미술비엔날레	인천여성미술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인천여성미술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2004년에 시작되어 2007년 세계 최초의 국제여성미술비엔날레로 성장하였으나, 2011년 이후로 개최되지 않고 있음
인천미술한마당축제	인천미술협회	인천미술 한마당축제 운영위원회	인천미술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미술동호인과 시민이 직접 작품을 출품하고 참여하는 행사임
인천미술청년작가전	인천미술협회	인천미술 청년작가전 운영위원회	청년작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원로작가들과의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행사임

① 인천해양국제미술축전

■ 개요

- 전 시 명 : 인천해양국제미술축전 : 평화의 서해 서막전
- 전시기간 : 2019.10.09.~10.12.
- 전시장소 : 인천송도컨벤시아 1전시홀
- 주 최 : 인천광역시, 인천미술협회
- 주 관 : 인천해양미술축전 운영위원회
- 후 원 : 인천광역시의회, 인천예총, 인천문화재단, 한국미술협회 등

■ 사업내용

- 해양도시 인천을 재조망 하고 바다와 섬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시하여, 미래문화 융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인천의 대표적인 미술프로젝트임
- 인천해양국제미술축전은 인천해양국제미술축전, 인천국제아트페어, 전국공모인천미술대전, 인천미술청년작가전 총 4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되어있음

[표 II-29] 인천해양국제미술축전 프로그램

사업부문	내용
2019 인천해양국제미술축전	국내외 초대작가 전시
2019 인천국제아트페어	미술시장 부흥을 위한 국내외 유명작가 부스전
제 55회 전국공모 인천미술대전	국내 신진작가 등용문으로써의 전시
2019 인천미술청년작가전	인천연고 50세 이하 작가전

■ 특징 및 시사점

- 인천해양국제미술축전은 2018년도까지 개별적으로 개최된 3개의 미술행사를 동시에 개최하는 행사임
- 해양도시 인천을 조명하는 서양화, 수채화, 서예, 문인화, 공예 등 다양한 미술 장르 약 150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도록 전시를 구성하였음
- 인천을 해양도시에 초점을 맞추어 조명한 이유는 북한 접경 지역이자 남북 평화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임
- 3개의 미술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여, 국내·외 예술가 및 인천의 지역작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기회를 마련한 의의를 지니고 있음

② 인천국제아트페어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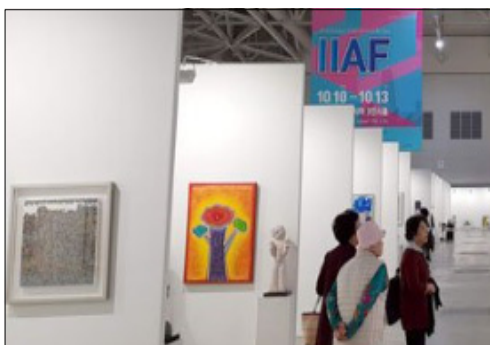
- 전 시 명 : 2018 인천국제아트페어
- 전시기간 : 2018.10.10.~10.13.
- 전시장소 : 인천송도컨벤시아 3전시홀
- 주 최 : 인천광역시, 인천미술협회
- 주 관 : 인천국제아트페어운영위원회
- 후 원 : 인천광역시의회, 인천문화재단, 한국미술협회, 인천예총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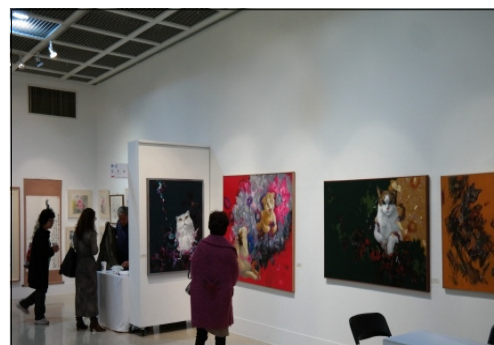
- 인천국제아트페어는 송도국제도시의 글로벌 기업 메세나를 통한 미술 작품 판매 사업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을 통해 인천 미술시장의 확산을 목표로 하였음
- 미술시장의 활성화와 인천시민의 예술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기대하였음
- 6개 광역시 및 제주 예총과의 미술교류전을 함께 개최하였으며, 아트페어에는 국내 160여명의 작가의 작품 및 해외 5개국의 30여명의 작가가 참여했음

■ 특징 및 시사점

- 네이버 뉴스 검색 기준 ‘인천국제아트페어’관련 기사는 17건으로, 이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참가자격 및 참여비용을 살펴보았을 때, 미협 중심의 아트페어라는 이미지가 짙어 다소 폐쇄적인 아트페어라는 이미지가 있을 수 있음
- 2019년 인천국제아트페어는 인천해양국제미술축전에 포함되어 추진되었음



[그림 II-29] 2018 인천국제아트페어 전경



[그림 II-30] 2016 인천국제아트페어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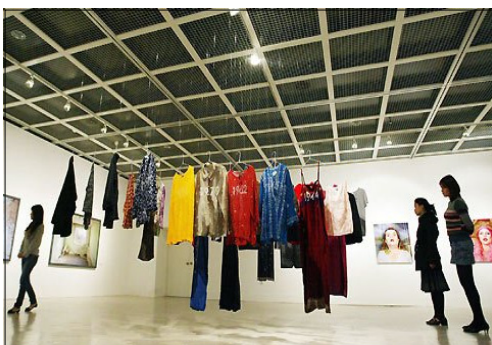
③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 개요

- 시작연도 : 2004년
- 주 최 : (사)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조직위원회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중구 자유공원로 44
- 주요특성 : 여성미술로 국제도시 인천의 브랜드화 및 여성미술에 대한 심층적인 전시주제 탐구
- 역 사 :
 - 인천의 여성작가를 중심으로 2004년 제 1회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가 시작되었음
 - 인천광역시와 조직위원회는 국제전으로 도약하는 계기 마련을 위하여 2006년 Pre-국제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를 개최하였음
 - 2007년 국제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는 세계 최초의 여성미술비엔날레였으며, 2009년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를 통해 유일한 국제 여성미술비엔날레로 성장하였음
 - 2011년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를 마지막으로, 현재 비엔날레의 개최되지 않고 있음

■ 2011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개요

- 전시기간 : 2011. 10.01.~10.30.
- 전시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한국이민사박물관,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부평아트센터
- 주최주관 :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조직위원회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여성가족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시의회, 한국미술협회 등
- 협 찬 : 파라다이스호텔, 전주국제영화제



[그림 II-31] 2007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그림 II-32] 2011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 2011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주요내용

- 본전시 : 미지의 대지 (Terra Incognita)
 - ‘평행우주’의 개념을 통해 분단된 남북에 평화의 메시지를 제시하고자 시도한 전시로, 13개의 참여국가와 28명의 작가가 참여하였고 총 77작품이 출품되었음

[표 II-30] 2011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본전시 개요

제 목	미지의 대지 (Terra Incognita)
전시기간	2011년 10월 1일 ~ 10월 30일 (30일간)
장 소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전관(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408번지)
예술감독	제인 파버(Jane Frver, 미국MIT List Visual Art Center 관장 역임)
전시규모	참여국가 13개국, 참여자 28명, 출품작품 77점

- 조울전 : 2013의 결과로 (In the Wake of 2013)
 - 정치적 변화와 사회 변혁을 이끄는 예술의 힘과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지역사회 재정립에 관한 한국인들의 관점과 연관된 문제를 탐구하는 전시로, 9개의 참여국가와 106명의 작가가 참여했으며, 108점의 작품이 출품되었음

[표 II-31] 2011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조울전 개요

제 목	2013의 결과로 (In the Wake of 2013)
전시기간	2011년 10월 1일 ~ 10월 30일 (30일간)
장 소	한국이민사 박물관 전관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1가 102-2)
큐레이터	한행길 (뉴욕 자메이카 아트센터 큐레이터), 이경모, 크리스토퍼 퍼 케이 호, 호세 루이즈, 여경섭
전시규모	참여국가 9개국, 참여자 106명, 출품작품 30개 프로젝트 (108점)

- 참여전 : 따로 또 같이 (Alone Together)
 -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 세계를 감상 가능한 한국여성작가들의 부스개인전으로, 167명의 작가가 참여했으며, 514여점의 작품이 출품되었음

[표 II-32] 2011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참여전 개요

제 목	따로 또 같이 (Alone Together)
전시기간	2011년 10월 1일 ~ 10월 28일 (28일간)
장 소	특별초대전 : 부평아트센터 갤러리 꽃누리 여성작가 부스초대전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온갤러리, 부평아트센터 갤러리
전시규모	참여국가 2개국(한국, 호주), 참여자 167명, 출품작품 514점

■ 특징 및 시사점

-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는 2011년 이후 개최되고 있지 않음
- 2008년 1월, 2007 국제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에 대한 성명서가 발표되었음
 - 인천민예총, 스페이스빔,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작가회의, 인천여성연대 등 인천 지역 12개 문화·여성 단체는 개최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힘
 - 국비와 시비 6억 투입이 되었음에도 지역의 예술 역량을 결집하지 못하였으며, 특정 단체의 주도로 진행되어 ‘동시대 전 지구적 상황에 대한 국제적인 예술 논의의 장’이라는 본래 취지를 무색케 했다고 주장하였음
(2008 인천투데이)
- 2011년에는 일부 미술계 전문가들은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의 운영상의 과정, 전시 인프라의 문제, 지역예술인들과의 소통 부족 등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2011 오마이뉴스)
 - 인천여성비엔날레조직위원회는 ‘2018 인천 아트페스티벌’을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여, 아트페어와 인천여성비엔날레 회원전을 진행하였음

(4) 인천광역시 문화기반 자원 : 인천 지역 예술인

- 인천지역 예술인 현황은 인천연구원에서 발간한 “인천 예술인 복지플랜-예술인 실태조사 및 복지정책”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하고자 함

■ 인천지역 예술인 현황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을 증명한 인천광역시 예술인은 2,225명으로, 미술 분야 활동 예술인은 353명으로 조사되었음
- 인천예총 소속예술인은 총 2,894명이며 그 중 미술협회 회원은 930명으로 나타났음
- 인천민예총 소속 예술인은 총 171명이며, 미술분야 작가는 27명이었음
- 인천문화재단 지원사업 관련 예술인(단체)의 경우 미술 분야에 359명이 있었음
- 인천시의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는 총 40개이며, 그 중 전시분야는 9개로 나타났음

[표 II-33] 인천지역 예술인 현황

단위 : 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미술분야)	인천예총 (미술협회)	인천민예총 (미술분야)	재단 지원사업 관련 미술인	전문예술법인 단체 (전시분야)
2,225 (353)	2,894 (930)	171 (27)	359	40 (9)

■ 인천지역 예술인 현황 시사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한 인천지역 예술인은 총 2,225명이나, 예총 소속 예술인이 2,894명, 민예총 소속 예술인이 171명, 인천문화재단 지원사업 관련 예술인이 총 1,197명, 인천 전문예술법인·단체가 40개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 중 미등록 예술인이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 가능함
- 인천예총, 인천민예총, 인천문화재단 사업 수혜 예술인, 인천전문예술법인·단체 현황을 고려하여 이 중에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 증명을 신청하지 않은 미등록 예술인의 수를 감안하면 인천지역 예술인의 수는 최대 5,000명 내외일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예술활동증명신청을 한 인천 예술인의 연령대는 20~30대가 65%를 넘으며, 이들은 대체로 독립예술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됨

(5) 인천광역시 문화기반 자원 : 인천지역 근현대 미술²⁾

■ 인천 근현대미술관련 연구 현황

- 미술평론가 공주형(2018)에 따르면 인천의 화단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및 인천 미술인에 관한 연구는 김인환, 우문국, 이경모, 박석태 등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그러나,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시립미술관이 부재하는 인천의 경우 지역 미술연구의 본격적 계기를 마련하지 못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인천 근현대미술 : 인천 화단의 형성 시기에 대한 논의

- 기존 연구들은 인천 화단의 형성 시기로 '해방 이후'에 주목해왔음. 특히, 박석태(2007)는 1883년 개항 이래 인천에도 미술인이 다수 활동했지만 대부분은 일본인들로 이 시기를 인천 화단 성립의 독자적 출발점으로 전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김인환도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 조선미술전람회 입상 작가 다수가 일본인이었다는 점과 김은호 같은 인천 출신 미술가도 동료들과 고향에서 전시를 개최했지만 본격적 활동거점은 서울화단이었다는 점을 들어 인천 화단 형성의 시기를 '해방 이후'로 어렵잡고 있음
- 인천 화단 형성기에 관한 논문은 현재까지 본격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으며, 해당 시기의 인천화단과 미술인들은 인천 미술사 연구(김인환, 1999·우문국, 1971·박석태, 2004)와 인천 미술인 연구(이경모, 2007·박석태, 2015)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져 왔음

[표 II-34] 인천 미술에 관한 연구 필요성 제기

흔히 인천을 대표하는 문화인으로서 우현 고유섭(又玄 高裕燮, 1905-1944)과 이당 김은호(以堂 金殷鎬, 1892-1979)를 들고 있음. 세간의 평가가 어쨌든 인천이 배출해 낸 거목임에는 분명하며, 비교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반면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수상했던 인천의 화가들은 1930년대부터 이준실(李俊實)을 비롯하여 김영건(金永健), 김종식(金鍾植) 등이지만 연구가 부족한 상황임. 또한 추사 이래 최고의 서예가로 꼽히는 검여 유희강(1911-1976) 선생에 대한 연구와 함께 작품 확보 등의 노력이 요구됨

출처 : 박석태, '조선미술전람회와 인천의 화가들' 외 참조

2) 인천 근현대미술에 관한 논의는 공주형(2018)의 학술논문 「인천 화단 형성과 전개, 해방에서 전후(1945~1959)시기를 중심으로」를 중심으로 참고하여 제시하였음

■ 인천 근현대미술 : 인천 지역 소집단 미술운동

- 최근 경기도미술관은 인천지역의 미술연구자들과 협업하여 〈시점時點·시점 : 1980년대 소집단 미술운동 아카이브〉에서 인천 지역에서 활동한 소집단 그룹운동에 대해 조명한 바 있음. 이를 통해, 미술연구자들에 의해 인천 지역의 미술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 가능함

[표 II-35] 인천지역 주요 소집단 미술운동

미술패 껍짓	현대미술상황회	미술동인 지평
1980년대 후반 일그림 동인(대표 허용철)이 먼저 활동하고 있었고, 인천노동자 문화기획 일손나눔 소속미술패(대표 정정엽)가 이후에 인천공단 미술패 껍짓에 합류했음. 이들은 주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했음. 투쟁대회 등에 필요한 깃발그림을 제작했고, 파업기간 중 현장에 필요한 노동조합의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했음	현대미술상황회는 1980년대에 창립했고, 인천이라는 지역을 인연삼아 모인 그룹이지만 그들의 예술행위가 추상 이후의 새로운 실험과 모험을 한다는데 동일성을 지니고 있음. 그렇다고 그들의 작품 양식이 하나의 유형으로 귀납되는 것은 아니며, 그들은 전부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양식을 지니고 예술의 새로운 모색하였음	인천미술동인 지평은 1985년 6월에 창립했으며, 회원은 도지성, 이봉춘, 이종구, 장충익, 정용일, 조성희, 홍용택이었음 지평은 스스로 살아서 움직이며 발전해가는 공간으로, 휴머니즘으로서의 미술과 리얼리즘의 접목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갖는 일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미술집단이었음

■ 시사점

- 인천 지역 화단의 형성기에 대한 학술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사례가 없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성이 연구자들 간에 논의되고 있음
- 80년대 인천 지역의 소집단 미술운동에 대한 연구는 최근까지 진행되어 왔으며, 관련 내용은 경기도미술관의 〈시점時點·시점 : 1980년대 소집단 미술운동 아카이브〉 전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
- 시립미술관이 부재하는 인천의 경우 지역 미술연구의 본격적 계기를 마련하지 못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인천뮤지엄파크 시립미술관을 통해 인천지역 미술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를 강조할 수 있음

6) 인천시 환경 분석 주요 쟁점

(1) 인구적 특성

- 인천광역시의 인구는 2019년 10월 기준 3,029,26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주요 연령대는 40~50대이며, 외국인 규모는 전국 5위로서 중국인 비율이 가장 높음
- 차이나타운 등 여타 도시와 달리 문화다양성의 오랜 역사를 보유해온 특징이 있음

(2) 지리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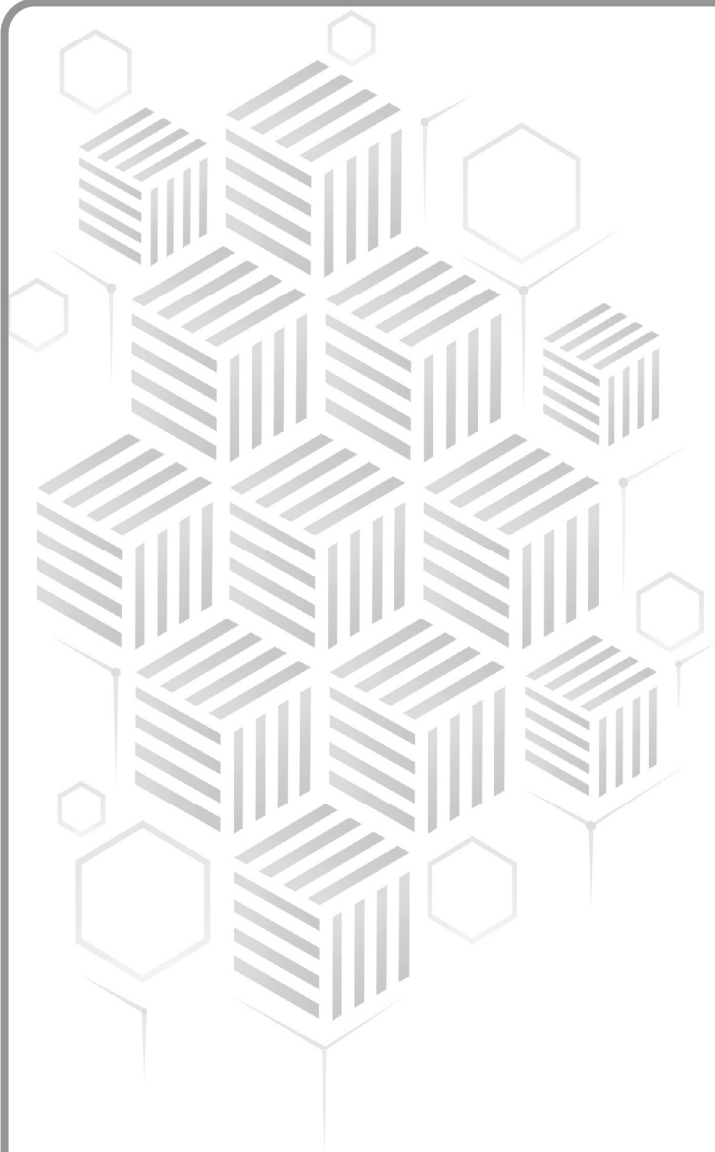
- 육지 및 해상교통의 거점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동북아의 물류와 금융의 중심지로 성장 가능성이 열려있는 가운데, 송도 신도시 건설에 따른 새로운 지역문화를 형성해왔음
- 반면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와 함께 지리적으로 북한과 대치점을 형성해왔으나, 최근 남북 대화로 인해 남북 교류와 남북공동협력 사업 등 다양한 역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3) 문화적 특성

- 관련 미술대학을 통한 예비작가와 인천 지역 작가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현대미술 전시와 담론 형성을 위한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임
- 그럼에도 인천현대미술은 80년대 이후 자생적으로 흐름을 형성함으로써 인천을 대표하는 리얼리즘 그룹 <지평>을 비롯하여 모더니즘 계열의 <현대미술상황'80-인천전> 등의 축적된 역사를 보유함
- 90년대 이후 소그룹 미술운동과 다양한 대안공간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미술의 고민과 성찰을 담아내왔음

(4) 시립미술관 건립의 당위성

- 광역시 미술관 가운데 서울특별시(1988), 광주광역시(1992), 대전광역시(1998), 부산광역시(1998), 대구광역시(2011), 울산광역시(2021 개관예정)에 이어 인천광역시가 가장 늦게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 후발주자로서 인천광역시의 시립미술관은 지역미술인의 활동 거점이자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역할 수행이 요구됨



III

시립미술관의 성격과 방향

-
1. 국내외 미술관 운영 및 환경 변화 분석
 2. 국내외 우수 미술관 사례연구
 3. 시립미술관의 성격과 방향

III

시립미술관의 성격과 방향

1. 국내외 미술관 운영 및 환경 변화 분석

1) 국내 지역미술관의 성격 및 운영 특성

■ 도립 및 시립미술관의 확충과 미술문화의 확산

- <2018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국내 미술관은 국공립 68개, 사립 168개, 대학 15개로 총 251개소로 조사되었음
- 미술관은 경기(54개), 서울(43개)순으로 많으며, 울산과 세종에는 미술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정부의 미술관 문화 확산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옴에 따라, 미술관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음 (2014년 미술관 190개소 대비 2018년까지 61개소 증가)

■ 지역별 미술관 차별화 및 특성화 전략 수립

- 서울과 광주, 대전, 제주 등의 시립미술관은 비엔날레를 주관하거나 연계하여 미술관의 특성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미디어아트, 국제현대미술, 예술과 과학의 결합 등 동시대 예술분야의 특화된 장르를 바탕으로 미술관의 차별화를 마련함
- 지역성 연구와 개발을 통해 미술관의 정체성을 모색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음
- 타 유사기관과의 비교를 통해 차별화된 프로그램 및 운영 전략에 주력함

■ 지역미술의 진흥을 위한 허브 기능 강화

- 지역작가 발굴 및 지원을 통한 지역의 미술 문화 창달과 진흥에 기여함을 미술관 활동 미션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음
- 최근 지역별로 많은 미술관이 창작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창작지원 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미술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연구와 마케팅 부분의 강화

- 미술관학 및 지역의 미술 등을 연구하고 운영 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능한 한 주민의 욕구와 희망을 통합하고 더 많은 지역 관람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행해짐
- 정기적인 관람객 만족도 조사와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평가를 시행함
- 관람객 확충과 지속화를 위한 온 오프라인 서비스, 문화사업 및 문화상품 개발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고 있음

2) 국외 미술관의 새로운 대응

■ 박물관·미술관의 새로운 대응 : 온라인 문화서비스와의 경쟁

- 20세기 박물관의 주 관람객은 박물관 소재의 주민이었고 때로는 인근 지역 주민이었음
- 1990년대 말, 월드와이드웹(www)의 등장으로 박물관은 관람객의 범위를 현지 및 인근 지역 경계 너머로 확대할 수 있다는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온라인 전시를 통해 세계 각지의 관람객을 미술관으로 유치하고자 시도함
- 미술관은 멀리 있는 다른 여러 미술관 뿐만 아니라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다른 유형의 문화 및 오락거리와도 경쟁하게 되었으며, TV의 문화 프로그램 편성,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츠 등 이러한 모든 유형의 서비스가 집에서 문화와 오락을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 서로 경쟁하기에 이룸

■ 더 많은 소장품을 전시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대부분의 미술관은 소장품의 일부만을 전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에는 더 많은 소장품을 전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는 미술관이 늘어나고 있음
- 그리하여 웹 전시가 부각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존보다 더 많은 소장품을 접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개선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음

■ 관객 개발 방안 모색

- 관람객을 미술관으로 이끄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미술관 건물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건물 외관에 이끌려 들어오게 하는 방안이 있음
- 관람객 유도를 위해 건축물 자체를 변화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건물 외관에 흥미를 유발하는 게시물을 내건다거나, 거리의 광장에서 미술관 내 전시와 관련된 시각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관심을 이끌기도 함
- 최근 인스타그램머블(Instagramable), ‘인스타그램(Instagram,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할 수 있는(Able, 기관과 플랫폼 간의 양립가능성과 상호작용)’을 결합한 신조어로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와 연계된 전시 및 홍보가 늘어나고 있음

■ 관객 참여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 미술관이 관객의 참여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들이 미술관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는 사람이며 미술관의 사명과 목표에 피드백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임
- 관객의 참여를 높이는 전략으로 다중 감각적이며 풍성하고 포용적인 스토리텔링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이 있음. 이러한 과정에서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기술은 수단으로 활용될 뿐 목적으로 작용하지 않음

2. 국내외 우수 미술관 사례연구

1) 국내 지역 미술관

① 부산시립미술관

■ 개요

- 설립연도 : 2011년
- 시설성격 : 시립 미술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8 (우동) 부산시립미술관
- 관장명 : 김선희
- 규모 : 부지면적 21,560㎡, 연면적 21,425㎡
- 주요시설 : 전시실, 도서자료실, 교육실, 어린이미술관, 이우환 공간 등

■ 설립목적

- 부산의 대표 미술문화공간으로 지역 미술 활성화와 시민들의 감성문화 배양

■ 주요활동

- (전시개최) 과거부터 미래까지 부산미술사를 발굴하고 연구하는 전시와 국내외의 다양한 미술 흐름을 파악하고 이에 조응하는 전시를 개최함
- (학예연구) 부산미술, 기획전시의 작가 및 작품 연구, 미술전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유함
- (미술교육) 대상별·주제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지역 미술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한 미술이론 강좌 운영함
- (국제교류) 해외 유수의 미술관들과의 자매결연 및 교류를 통하여 국내외 동시대 미술 현황을 공유함
- (비엔날레) 2016년 부산비엔날레 개최장소로, 비엔날레 전시공간 공유를 통한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와 협업 관계를 형성함

■ 소장품 성격

- 1930년대부터 현대까지의 국내·외 근현대작품을 소장하고 있으며, 장르로는 회화, 조각, 공예, 건축, 사진, 뉴미디어 등 총 2,700여점 소장하고 있음

■ 전시 성격

- 부산시립미술관의 2019년 연간전시계획에 따르면, 기획전시 6건, 상설전시 3건, 어린이 미술관 전시 3건, 이우환 공간 전시 2건으로 총 14건의 전시를 계획하였음
- 기획전시의 경우 부산작가 조명 및 작가연구 전시 및 주제전시와 국제교류 전시를 선보였음
- 상설전시(단기)로는 부산시립미술관이 기증받은 소장품을 중심으로, 컬렉션 전시를 개최하였음
- 이우환 공간은 이우환 작가와 예술적 연관성이 있는 작가의 개인전을 기획·전시하였음

[표 III-1] 2019년 부산시립미술관 전시 개요

전시성격	전시주제	전시기간	전시명
기획전시 (6)	죽음과 삶의 경계	2019.12.18.~2020.04.14.	시오타 치하루 : 영혼의 떨림
	핀란드 현대미술	2019.07.12.~11.26.	핀란드웨이브 (Finnish aaloto)
	작가연구	2019.06.07.~09.29.	로비프로젝트 〈하지훈〉
	작가연구	2019.06.28.~2019.10.13.	이건용 : 이어진 삶
	작가연구	2019.03.08.~06.16.	부산작가조명 : 방정아
	시간성	2019.03.15.~06.23.	반복과 차이 : 시간에 관하여
상설전시 (3)	소장품전	2019.12.18.~2020.02.16.	부산미술전
	소장품전	2019.05.31.~10.13.	하정웅 기증작품전
	소장품전	2019.03.01.~05.16.	신옥진 기증작품전
어린이 미술관 (3)	결과전	2019.12.21.~2020.02.16.	어린이 결과보고전
	전시연계전	2019.09.11.~2020.02.16.	핀란드 웨이브 전시연계
	사물의 관계성	2019.04.05.~08.25.	한젬마의 관계요리
이우환 공간 (2)	작가연구	2019.10.18.~2020.04.19.	이우환과 그 친구들 I : 안토니 고폴리
	작가연구	2019.01.02.~12.30.	이우환 공간 : 상설전

■ 교육프로그램

- 부산시립미술관의 교육프로그램은 〈사회교육프로그램〉과 〈어린이미술관 교육프로그램〉 두 개의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사회프로그램〉은 연령 별로 ‘성인강좌’와 ‘청소년 강좌’로 구분되며, 카테고리 별로는 ‘미술이론’, ‘특별강좌’, ‘전시연계강좌’로 나누어짐
- 〈어린이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은 ‘개인/가족프로그램’과 ‘단체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있음

[표 Ⅲ-2] 부산시립미술관 주요 교육 프로그램

구분	연령	카테고리	교육내용	소요시간
사회교육 프로그램	성인	미술이론	• 제목 : 부산시립미술관 미술이론 강좌 • 대상 : 학생 및 일반인 • 수강료 : 무료 • 내용 : 부산 미술의 흐름 다시 보기	120분
	성인	특별강좌	• 제목 : 이우환 공간 〈명사 초청 프로그램〉 • 대상 : 전공자, 일반인 • 수강료 : 무료 • 내용 :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초청 특강	90분
	성인	전시연계강좌	• 제목 : 핀란드 대사와 함께하는 헬싱키 투어 • 대상 : 학생 및 일반인 • 수강료 : 무료 • 내용 : 헬싱키 지역 문화예술 명소 소개	90분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 제목 : 세상을 움직여봐 - Thinking Moving • 대상 : 중등부 • 수강료 : 무료 • 내용 : 미술 관련 직업 이해 및 미술관 경험 유도	90분
어린이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초등부	개인/가족 프로그램	• 제목 : 신체드로잉 • 대상 : 초등부 1~4학년 • 수강료 : 무료 • 내용 : 이건용 전시연계 신체드로잉 프로그램	90분
	초등부	개인/가족 프로그램	• 제목 : Children's Wave Ground_가구디자인 • 대상 : 초등부 3~6학년 • 수강료 : 무료 • 내용 : 재활용품을 활용한 가구 디자인 프로그램	90분
	초등부	단체 프로그램	• 제목 : 꿈틀꿈틀_꿈을 키우는 미술관 • 특징 : 상세 내용 별도 확인 필요	-
	유치부	단체 프로그램	• 제목 : 하늘로 날아간 천 개의 구름 미술관 • 특징 : 상세 내용 별도 확인 필요	-

■ 특징 및 시사점

- 부산시립미술관 내에는 이우환 공간과 어린이미술관 두 개의 특화공간이 운영되고 있음
- 이우환 공간은 작가가 직접 입지 선정부터 건축 기본설계와 디자인한 공간으로, 이우환 작가의 예술관을 총체적으로 감상 가능한 미술관임
- 어린이미술관은 유치원·초등학교 학생들의 미술관 경험과 감상체험이 가능한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부산시립미술관은 교육프로그램이 세분화하여, 시민들이 미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특히, 미술이론 강좌는 부산 지역의 미술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
- 매년 국제교류 전시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국외 동시대 예술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음
- 연 평균 10회 이상의 전시 개최 및 세분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미술관으로 볼 수 있음



[그림 III-1] 부산시립미술관 전경



[그림 III-2] 핀란드알토 전시 현장

② 광주시립미술관

■ 개요

- 설립연도 : 1992년
- 시설성격 : 시립미술관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52 (운암동) 광주시립미술관
- 관장명 : 전승보
- 규모 : 부지면적 143,293㎡, 연면적(본관) 13,329㎡
- 주요시설 : 시립미술관 본관, 하정웅미술관, 사진전시관, 어린이미술관 등

■ 설립목적

- 국내 미술문화 발전에 기여 및 시민을 위한 종합예술공간으로써 문화향유 제공

■ 주요활동

- (전시개최) 광주의 지역성을 담아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한 고미술 및 현대미술 전시를 개최함
- (학예연구) 광주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근·현대 미술품을 수집·정리·보존하여 연구 및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함
- (미술교육) 각 체험(미술실기, 유적지 투어 등) 및 미술이론 교육프로그램을 대상 별·연령 별로 체계화 하여 운영하고 있음
- (창작지원) 북경창작센터, 국제레지던시, 청소년예술인센터를 운영하여 미술인의 창작을 지원하고 있음
- (분관운영) 시립미술관 본관 외에 하정웅미술관, 사진전시관, G&J광주전남갤러리, 어린이미술관 등 광주지역 내·외 미술공간을 운영·관리하고 있음

■ 소장품 성격

- 미술관의 수집 작품 2,300여점과 하정웅의 기증 작품 2,600여점으로 약 4,900여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음
- 국내에서 가장 많은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공립 미술관으로 알려져 있으며, 피카소, 샤갈, 앤디 워홀 등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품을 다수 소장하고 있음
- 이우환, 박인식 등의 재일교포의 작품들은 작품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제작된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전시 성격

- 광주시립미술관은 주로 호남 지역미술을 연구하고, 민주·평화·인권의 이슈를 다루는 전시를 개최하고 있음
-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연계하여 기획된 〈맛있는 미술관〉 및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을 바탕으로 남도 지역의 미술적 뿌리를 살펴본 〈남도미술_뿌리 Roots〉 등 교류·협력의 성격을 지닌 전시를 개최하고 있음

[표 III-3] 2019년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기획전시 개요

전시성격	전시주제	전시기간	전시명
회고전	작가연구	2019.11.01.~2020.02.02.	손장섭, 역사가 된 풍경
기획전	소장품전	2019.10.22.~2020.02.09.	소장품전 바람이 지나간 자리
기획전	지역미술연구	2019.07.10.~10.20.	의재, 산이 되다 - 연진회로 이어진 의재 정신과 예술
연계전시	음식문화	2019.07.02.~11.03.	맛있는 미술관
기획전시	중국현대미술	2019.06.11.~10.13.	북경서신
협력전	소장품전	2019.04.02.~06.08.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남도미술_뿌리 Roots〉
기획전	인권	2019.03.19.~06.30.	2019 민주인권평화전 〈만화로 보는 대한민국〉
기획전	소장품전	2019.02.22.~06.02.	신소장품 2018 “무등을 바라보다”전

■ 교육프로그램

- 광주시립미술관의 교육프로그램은 〈미술관 문화센터〉, 〈미술관 아카데미〉, 〈런치토크 강좌〉, 〈인문학 강좌〉, 〈문화행사〉, 〈전시연계프로그램〉 총 6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광주시립미술관의 교육프로그램은 타 미술관에 비해 개설 프로그램의 수가 많으며, 전 연령을 아우르고 있다는 특징을 찾아 볼 수 있음
- 〈미술관 문화센터〉는 어린이, 청소년, 가족이 함께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유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미술아카데미〉, 〈런치토크강좌〉, 〈인문학강좌〉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인문학 콘텐츠를 다루고 있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무료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표 Ⅲ-4] 2019 광주시립미술관 주요 교육프로그램

구분	연령	카테고리	교육내용	소요시간
미술관 문화센터	전연령	학생&가족 프로그램	• 제목 : 점,점,점이 모여 어떤 그림이 될까 • 대상 : 유아·어린이 • 수강료 : 10,000원 • 내용 : 점과 선을 통해 그림을 표현 해보기	120분
미술관 아카데미	전연령	인문학	• 제목 : 그림 속 삶 이야기 • 대상 : 일반시민 • 수강료 : 무료 • 내용 : 일상의 삶에 스며든 미술의 다양한 모습과 서사를 다루는 전문가 8인의 강의	120분
런치토크 강좌	전연령	인문학 (문화가 있는 날)	• 제목 : 런치토크강좌 • 대상 : 일반시민, 문화예술인, 미술인 • 수강료 : 무료 • 내용 : 미술전시를 친근하게 느끼게 하는 강의	120분
인문학강좌	전연령	인문학	• 제목 : 그림 읽어주는 남자의 미술 기행 • 대상 : 일반시민, 미술인, 학생 등 • 수강료 : 무료 • 내용 : 미술 관련 주제 다루는 인문학 강의	120분
전시연계 프로그램	전연령	전시연계	• 제목 : 의재 허백련의 흔적을 따라 걷다 • 대상 : 광주 시민 19세 이상 • 수강료 : 무료 • 내용 : 의재 허백련 유적지 탐방	270분

■ 특징 및 시사점

- 광주시립미술관은 다수의 분관을 운영하며, 미술 문화 저변 확산에 기여하고 있음
- 광주시립미술관은 전시를 통해 남도 지역의 미술적 특징을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교감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과의 지속적인 접근과 관계 유지를 도모하고 있는 것을 확인 가능함



[그림 Ⅲ-3] 광주시립미술관 전경



[그림 Ⅲ-4] 광주시립미술관 전시장 전경

③ 서울시립미술관 (Seoul Museum of Art)

■ 개요

- 설립연도 : 1998년
- 시설성격 : 시립 미술관
- 소재지 : 서울 중구 덕수궁길 61
- 관장명 : 백지숙
- 규모 : 부지면적 25,420.9㎡, 연면적 13,433㎡
- 주요시설 : 전시실, 천경자 컬렉션 전시실, 강연실, 카페 등

■ 설립목적

- 여럿이 만드는 미래, 모두가 연결된 미술관'으로 세계성과 지역성, 전문성과 대중성을 아우르고자 함

■ 주요활동

- (전시개최) 국내외 동시대 작가 및 작품을 조명, 타 기관과 교류 및 협력 전시
- (학예연구) 미술사, 작가, 소장품 연구 및 이를 바탕으로 SeMA 출판물 간행
- (미술교육) 전시연계 및 강연 외에도 학교, 직장 연계 등의 각 시민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 진행
- (비엔날레)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를 주관하여, 미디어아트를 통해 동시대 주요 미술 담론을 발굴
- (분관운영) 서소문 본관 외 북서울미술관, 남서울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SeMA창고, 백남준기념관, SeMA벙커 등 다양한 분관 운영

■ 소장품 성격

- 한국현대미술사의 흐름을 이해 가능한 작품을 중심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다양한 장르의 작품 4,900여 점을 소장하고 있음
- 2015년에 소장작가 중 200명을 선정하여 "SeMA Collection 200" 194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의 연대별로 분류함
- 서울시립미술관의 기본 소장품 수집 정책은 다음과 같음

- | |
|---|
| (1) 한국현대미술사의 맥락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 작가들의 시기별, 매체별, 양식별 대표 작품 |
| (2) 한국현대미술의 전개 과정 중 주요 사조, 운동, 경향에 중요한 역할을 한 미술사적 대표 작품 |

■ 전시 성격

- 국제적인 미술 담론을 추적하고, 국내 큐레이터 및 예술가들의 동시대 예술에 관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민들과 공유하고 있음
- 중동지역의 현대미술을 통해 중동과 한국의 지역적인 관계성을 다루는 〈고향 gohyang: home〉(2019.11.27.~2020.03.08.)가 예정 중에 있음

[표 III-5] 2019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전시 개요

전시성격	전시주제	전시기간	전시명
기획전	지역 관계성	2019.11.27.~2020.03.08.	고향 gohyang: home
대외협력전	현대 한국의 주거문제	2019.09.24.~2019.10.10.	2019 대외협력전시 〈SeMA Collection: 아파트〉
대외협력전	노동의 가치	2019.09.19.~2019.10.19.	2019 대외협력전시 〈SeMA Collection: 집요한 손〉
기획전	노인	2019.08.27.~10.20.	〈에이징 월드〉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기획전	작가연구	2019.06.26.~09.29.	안은미래전
소장품전	신소장품	2019.04.16.~06.02.	2018 SeMA 신소장품 《멀티-엑세스 4913》
특별전	작가연구	2019.03.22.~08.04.	데이비드 호크니
기획전	관계성	2018.12.13.~02.24.	이스트빌리지 뉴욕: 취약하고 극단적인
기획전	순종성	2018.12.13.~2019.02.06.	두 개의 기둥과 일곱 개의 글자
기획전	작가연구	2018.12.11.~2019.03.24.	한묵 : 또 하나의 시(詩)집서를 위하여
상설전	작가연구	2018.04.24.~2019.11.06.	가나아트 컬렉션 상설전 〈시대유감 時代遺憾〉
상설전	기증작가연구	2016.08.16.~2019.11.06.	영원한 나르시스트, 천경자

■ 교육프로그램

- 서울시립미술관의 교육프로그램은 〈시민미술아카데미〉, 〈사진아카데미〉, 〈시민큐레이터〉, 〈도슨트 양성 교육〉, 〈예술가의 런치박스〉, 〈찾아가는 미술감상교실〉 총 6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시민미술아카데미〉는 작가와의 대화, 심포지엄, 인문학 강연 및 토크 등 다양한 장르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
- 〈사진아카데미〉의 경우는 서울시립미술관 후원회에서 진행하며, 회원들이 1년에 걸쳐 서울의 모습을 기록하는 프로젝트로, 이를 통해 작품 전시기회를 제공함
- 〈시민큐레이터〉는 일반 시민 및 경력단절 전공자들을 위한 큐레이터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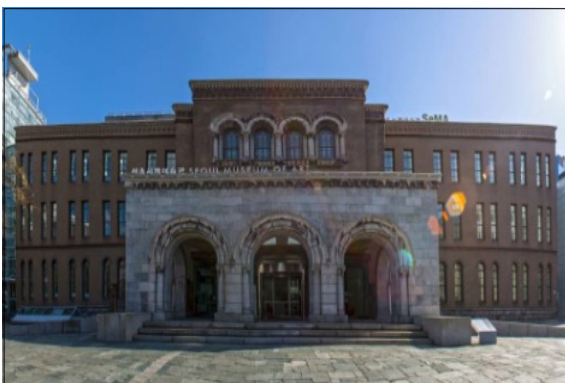
- 〈도슨트 양성교육〉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도슨트 교육을 운영하고, 교육수료자 중 선발된 도슨트가 미술관 전시서비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예술가의 런치박스〉는 먹고, 마시고, 대화하는 일상적 과정을 통해 현대미술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작가와 함께 퍼포먼스에 참여하거나 워크숍 등의 활동을 함께하고, 각 프로그램과 연결되는 음식을 맛볼 수 있음
- 〈찾아가는 미술감상교실〉은 학교, 직장, 문화소외시설, 자치구 등 직접 찾아가 미술교육을 운영하여 미술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미술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임

[표 III-6] 2019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주요 교육프로그램

구분	연령	카테고리	교육내용	소요시간
시민미술 아카데미	전연령	아카데미	• 제목 : 포용적 예술프로젝트: 언러닝, 뮤지엄 • 대상 : 누구나 • 수강료 : 무료 • 내용 : '장애' 주제의 퍼포먼스와 현장참여 프로그램	270분
시민 큐레이터	20살 이상 성인	큐레이터 양성	•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20살 이상 성인 • 수강료 : 무료 • 내용 : 큐레이터 양성교육을 통해 전시 기획·운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80분 (13개 강좌)
도슨트 활동	20살 이상 성인	도슨트 양성	• 제목 : 2019 도슨트 양성교육 • 대상 : 일반인 • 수강료 : 무료 • 내용 : 시민을 대상으로 도슨트를 양성하는 프로그램	120분 (21개 강좌)
사진 아카데미	전연령	사진강좌	• 제목 : '서울, 오늘을 찍다' • 대상 : 일반 시민 • 수강료 : 700,000원 • 내용 : 이론 및 촬영 실기수업 후 전시기획 제공	120분 (16개 강좌)
예술가의 런치박스	전연령	워크숍	• 제목 : 예술가의 런치박스 • 대상 : 일반인 • 수강료 : 10,000원 • 내용 : 음식을 먹으며 작가와 함께 워크숍, 토크 참여	60분
찾아가는 미술관	전연령	참여교육	• 제목 : 찾아가는 미술관 • 대상 : 학교, 직장, 문화소외시설 등 • 내용 : 미술관이 직접 찾아가 미술 교육을 운영하여 시민의 미술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는 프로그램	-

■ 특징 및 시사점

- 서울시립미술관은 현재 서소문본관 외에도 북서울 미술관, 남서울 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SeMA창고, 백남준기념관, SeMA벙커 등 다양한 분관을 운영 중에 있음
- 분관들을 기능별로 특성화하여 본관과 유기적 관계를 맺는 ‘네트워크형 미술관’에 지향점을 두고 있음
- 서울시는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신규 미술관, 박물관을 조성하고 있음
- 서울시가 건립 추진 중인 신규 미술관은 3개관으로, 2021년까지 순차 준공을 거쳐 향후 서울시립미술관의 분관으로 운영될 예정임
- 신규 분관 〈미술문화복합공간(가칭)〉은 도서관과 희귀자료관, 미술관의 기능을 현대적으로 융합한 라키비움(라이브러리, 아카이브, 뮤지엄)
- 신규 분관인 〈서서울미술관(가칭)〉은 문화 교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울 서남권에 건립되어 청소년, 다문화 관객과 예술-과학의 융합을 주로 다룰 예정임
- 신규 분관인 〈서울사진미술관(가칭)〉은 현대사진영상예술 전문 미술관으로 역사적 사진 영상 작품들 수집, 사진영상 예술인들 창작 지원, 사진영상산업과의 협력, 이미지 리터러시 교육, 전문 연구 및 비평 신장을 위한 활동을 할 예정임



[그림 Ⅲ-5]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전경



[그림 Ⅲ-6]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전시전경

[표 III-7]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외 분관

북서울 미술관	
	• 설립연도 : 2013년 • 소 재 지 : 서울 노원구 동일로 1238 (중계동) • 설립목적 : '시민의 일상' 속에 자리하여 접근성이 높은 지역문화의 거점 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 설립연도 : 2006년 • 소 재 지 :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로 108-1 (상암동) • 설립목적 : 국내외 역량 있는 미술가 및 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 창작 스튜디오
남서울 미술관	
	• 설립연도 : 2004년 • 소 재 지 :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2076 (남현동) • 설립목적 : 도심 속에 예술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친근한 지역 문화 공간
SeMA 창고	
	• 설립연도 : 2016년 • 소 재 지 :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5동) • 설립목적 : 옛 질병관리본부의 창고를 리모델링 하여, '시민의 참여'로 전시가 기획되는 전시공간
SeMA 벙커	
	• 설립연도 : 2017년 • 소 재 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지하 76 (여의도동) • 설립목적 : 여의도 내 군사벙커시설을 재생하여, '장소의 역사성'을 예술적으로 선보이는 전시공간
백남준 기념관	
	• 설립연도 : 2017년 • 소 재 지 : 서울 종로구 종로53길 12-1 (창신동) • 설립목적 :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백남준의 창신동 집터의 한옥을 리모델링 하여 조성된 기념관

④ 제주도립미술관

■ 개요

- 설립연도 : 2009년
- 시설성격 : 도립 미술관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2894-78 (연동) 제주도립미술관
- 관장명 : 최정주
- 규모 : 부지면적 38,744㎡, 연면적 7,087㎡
- 주요시설 :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장리석기념관, 시민갤러리, 옥외전시장

■ 설립목적

- 제주문화정체성 구현, 도민의 문화향수권 보호, 지역성과 국제성을 연계한 기획전시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미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활동

- (전시개최) 제주의 지역성 및 작가와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 외에도 국제교류를 통한 전시를 개최함
- (학예연구) 제주미술사 정립 및 제주지역 작가와 작품을 연구하여 시민들에게 전시로 선보임
- (미술교육) 연령 별 특화 교육 및 미술 전문인 육성, 시민 교양강좌 등 폭 넓은 범위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
- (작가육성) 청년작가 발굴·지원프로젝트를 통해 제주 지역의 젊은 작가들의 활동을 지원함
- (비엔날레) 제주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목표로, 제주비엔날레 2017 <투어리즘>을 첫 개최하였으며, 2020년 제 2회 제주비엔날레 개최가 예정되어 있음

■ 소장품 성격

- 1920년대부터 현대까지의 국내·외 근현대작품을 소장하고 있으며, 장르로는 회화, 조각, 공예, 건축, 사진, 뉴미디어 등 총 821여점 소장하고 있음
- 2005년에 장리석 화백이 자신이 소장해온 작품 110점과 화구를 기증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미술관 내에 장리석 기념관을 건립하고 작품을 영구전시하고 있음

■ 전시 성격

- 2019년 제주도립미술관의 전시는 총 6건으로, 주로 제주도립미술관의 10주년 기념의 취지로 기획되어 제주 지역의 작가를 조명하고, 미술관 회고 성격의 전시를 개최했음
- 지역 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Young & Emerging Artist’를 통해 강태환 작가의 개인전을 선보였음

[표 III-8] 2019년 제주도립미술관 기획전시 개요

전시성격	전시주제	전시기간	전시명
기획전	유럽 모더니즘	2019.10.18.~2020.02.07.	〈프렌치 모던: 모네에서 마티스까지, 1850-1950〉
개인전	작가연구	2019.10.18.~2020.02.07.	2019 Young & Emerging Artist 〈강태환-休〉
기획전	제주 작가 조명	2019.06.21.~09.15.	개관 10주년 기념 제주작가 조명전 〈99+1〉
교류전	한국 근현대 미술	2019.04.16.~06.09.	국립현대미술관 순회전 〈내가 사랑한 미술관 : 근대의 걸작〉
기획전	미술관 회고전	2019.01.31.~03.31.	개관 10주년 기념전 〈생·활(生·活)〉
기획전	인터랙티브 아트	2019.01.31.~03.31.	〈빛과 그림자〉

■ 교육프로그램

- 제주도립미술관은 〈어린이미술학교〉, 〈청소년미술관활동〉, 〈시민교양강좌〉, 〈미술전문인 양성교육〉, 〈전시연계가족프로그램〉 총 5개 종류의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무료로 운영하고 있음
- 〈어린이미술학교〉는 고학년과 저학년으로 연령을 구분하고 ‘업사이클링 생태 공작소’와 ‘자연과 미술의 데칼코마니’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을 통해 자연과 생태의 가치·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음
- 〈청소년미술관활동〉은 청소년들의 미술관 주요 업무를 학습하고, 전시장 지킴이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시민교양강좌〉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미술에 관한 흥미로운 주제들로 강의를 개설하여, 제주도민의 삶에 문화·예술적 교양을 더하고 있음
- 〈미술전문인 양성교육〉은 38주간 미술관학, 미술이론, 미술관실무, 현장학습의 과정을 거쳐 미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임

[표 Ⅲ-9] 제주시립미술관 주요 교육 프로그램

구분	연령	카테고리	교육내용	소요시간
어린이 미술학교	초등생	창작·체험	• 제목 : 업사이클링 생태 공작소 • 대상 : 고학년 (4~6학년) • 수강료 : 무료 • 내용 : 업사이클링을 통해 환경 보전의 중요성 이해	150분
		창작·체험	• 제목 : 자연과 미술의 데칼코마니 • 대상 : 저학년 (1~3학년) • 수강료 : 무료 • 내용 : 놀이와 미술로 자연을 이해	
청소년 미술관활동	청소년	체험·봉사	• 제목 : 청소년 미술관 활동 • 대상 : 청소년 • 수강료 : 무료 • 내용 : 미술관 업무 학습 및 전시장 지킴이 활동 ※ 지킴이 활동 시 봉사활동 시간 인정	180분
시민교양강좌	성인	이론·교양	• 제목 : 생활 속 미술 이야기 • 대상 : 일반성인 • 수강료 : 무료 • 내용 : 미술 관련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는 교양 강좌 • 구성 : 4개 주제로 나누어 5회씩 추진 - (건축) 공간을 채우는 예술, 제주 건축 이야기 - (공예) 소박하지만 특별한 제주 공예 이야기 - (음악) 미술과 음악의 하모니 - (영화) 영화로 이해하는 명화 이야기	5주/5회 120분
미술전문인 양성교육	성인	학예	• 제목 : 미술전문인 양성 교육프로그램 • 대상 : (우대) 미술 분야 활동가 및 전공자 (일반) 미술에 관심 있는 도민 • 수강료 : 무료 • 내용 : 미술관 학예업무 기초 및 전문성 고양 훈련 • 구성 : 미술관학(10주), 미술이론(10주), 미술관실무(10주), 현장학습(8주)	38주/38회 120분
전시연계 가족프로그램	가족	체험	• 제목 : 전시연계 가족프로그램 • 대상 : 초등생을 자녀로 둔 가족 • 수강료 : 무료 • 내용 : 가족 단위로 전시 작품을 감상하고 미술 체험 - 강사의 설명에 따라 작품 감상 - 가족간 협동 하여 다양한 재료로 전시작품 재구성 - 결과물 발표하기	120분

■ 특징 및 시사점

- 제주의립미술관은 제주도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저변 확산을 위해 다수의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주된 특징임
- 제주의립미술관은 <어린이미술학교>, <청소년미술관활동>, <시민교양강좌>, <미술전문인 양성교육>, <전시연계가족프로그램> 총 5개 종류의 교육프로그램 외에 <미술관속 영화관>, <미술관속 사진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특히, 미술전문인 양성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미술 전문 인력을 자체적으로 육성·확보 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전시회와 더불어 다수의 교육·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제주도민의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보여짐
- 제주의립미술관은 2017년 제 1회 제주비엔날레(총감독 김준기 제주의립미술관 관장)의 개최를 후원하여 제주지역의 미술의 국제교류를 활성화 시키고자 시도한 바 있으며, 제 2회 제주비엔날레의 개최는 2020년으로 예정되어 있음
- 제주의립미술관은 다수의 교육·체험 프로그램 및 전문교육과 더불어, 비엔날레 개최를 통해 지역 미술의 발전과 확산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그림 III-7] 제주의립미술관 전경



[그림 III-8] 시민교양강좌 현장 스케치

2) 해외 지역 미술관

①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21st Century Museum of Contemporary art , Kanazawa)

■ 개요

- 설립연도 : 2004년
- 시설성격 : 시립미술관
- 소재지 : 가나자와시 히로사카
- 관장명 : 시마 아츠히코 (Shima Atsuhiko)
- 규모 : 부지면적 26,964.5㎡, 연면적 27,920㎡
- 주요시설 : 전시실, 프로젝트공방, 디자인갤러리, 키즈스튜디오, 아트라이브러리 등

■ 설립목적

- 동시대의 미술을 중심으로 마을과 시민 간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문화의 창조'와 '새로운 도시의 활기 창출'을 목적으로 함

■ 주요활동

- (전시개최) 동시대 예술가 및 작품을 발굴하고 연구하여 개인전 형식으로 개최
- (학예연구) 가나자와의 지역성, 1980년대 이후의 21세기의 가치가 담긴 작가 및 작품 연구
- (미술교육) 대상별 프로그램을 개발 및 동시대의 아티스트와 직접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 (국제교류) 해외의 동시대 아티스트들 또한 개인전 형식으로 전시, 2018년 동아시아문화 도시 교류전 개최

■ 소장품 성격

- 1980년대 이후 제작된 새로운 가치관을 제안하는 작품 및 그 가치관에 큰 영향을 준 1900년 이후의 작품 중 미술사적 가치 있는 작품을 중심으로 수집
- 가나자와 지역과 관계있는 새로운 독창성을 지닌 우수한 작품을 수집
- 현재 약 3,660여점의 소장품을 보유 중이며, 예술가 아와즈 키요시(Awazu Kiyoshi)로부터 2,900여점을 기증 받았음

■ 전시 성격

-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은 개인전을 통해 작가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동시대 예술을 담론을 조망할 수 있는 기획전을 개최함
- 최근 현재 개관 15주년을 맞이하여, 소장작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바탕으로 현대미술의 지형도를 살펴볼 수 있는 〈Where We Now Stand-In Order to Map the Future〉(2019.10.18.~2020.02.07.)을 개최했음

[표 III-10] 2019년 가나자와21세기미술관 기획전시 개요

전시성격	전시주제	전시기간	전시명
기획전	개관 15주년	2019.10.12.~2020.4.12	Where We Now Stand—In Order to Map the Future [2]
기획전	관계성 연구	2019.10.12.~2020.3.22	lab.4 Space Syntax
기획전	개관 15주년	2019.09.14.~12.19	Where We Now Stand—In Order to Map the Future [1]
기획전	도시 관계성	2019.07.06.~09.23	Metamorphoses of the City
기획전	기증작가연구	2019.05.18.~09.23	What Can Design Do
기획전	작가 연구	2019.04.27.~08.25	Journey to the Light
기획전	생태의 순환	2019.04.27.~08.25	"Foam"
기획전	작가연구	2019.04.06.~09.23	Third Landscape
기획전	원초적 미(美)	2019.04.06.~06.30.	Memories of Love and Me

■ 교육프로그램

-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대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연계〉, 〈키즈스튜디오〉, 〈아트라이브러리〉, 총 3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현대미술을 함께 생각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나가고자 함
- 〈학교연계〉는 ‘미술관 크루즈 프로그램’과 ‘마루비 예술학교’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미술관과 지역 학교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음
- 〈아트라이브러리〉는 현대 미술 및 건축, 패션, 영화, 사진 등 수 많은 예술 관련 장르와 관련된 참고자료를 제공하며, 전시회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책을 사용하여 이야기를 들려주는 ‘스토리 타임’프로그램이 운영됨
- 〈키즈스튜디오〉는 ‘핸즈 온 마루비(Hands on Murubi)’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자유로운 창작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음

[표 Ⅲ-11] 2019 가나자와21세기미술관 주요 교육프로그램

구분	연령	카테고리	교육내용	소요시간
교육 프로그램	초등학교 4학년	학교 연계	• 제목 : 미술관 크루즈 프로그램 • 대상 : 초등학교 4학년 • 수강료 : 무료 • 내용 : 박물관 크루즈(승무원)* 프로그램의 회원과 함께 미술관의 소장작품을 중심으로 한 아이들의 작품 감상 및 미술관 체험 * 박물관 크루즈는 자원봉사 활동가로 만 20세 이상부터 참여 가능함	
	전연령	아트 라이브러리	• 제목 : 그림책을 읽자 • 대상 : 전 연령 • 수강료 : 무료 • 내용 : 전시 관련 그림 책을 읽고, 전시 감상	40분
		키즈 스튜디오	• 제목 : 핸드 온 마루비 - 나의 여름 아틀리에 • 대상 : 전 연령 • 수강료 : 무료 • 내용 : 자유로운 예술 공작실 오픈하여, 참가자가 자유롭게 재료를 가져와 3D영상 안경 만들기 등 만들기 체험에 참여	240분

■ 특징 및 시사점

-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은 ‘소통’과 ‘교류’를 키워드로 하여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등에 반영하여 차별화를 꾀하고 있음
- 미술관의 건축은 원형 구조를 기반으로 모든 방향에서 접근이 가능한 개방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미술관의 운영철학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 가능함
-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의 핵심은 마을과 시민들 간의 교류에 있으며, 시민 참여 갤러리·시민 자원봉사자 운영·다양한 워크숍 프로그램 등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지역사회 문화예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림 Ⅲ-9]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전경



[그림 Ⅲ-10] 교육프로그램 : 핸드 온 마루비

②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

■ 개요

- 설립연도 : 1999년
- 시설성격 : 시립 미술관
- 소재지 : 후쿠오카시 하카타구 시모카와바타마치 3-1 리버레인센터 7·8층
- 규모 : 연면적 9101.05㎡
- 주요시설 : 기획갤러리, 아시아갤러리, 교류갤러리, 교류스튜디오, 아트카페 등

■ 설립목적

- 고대로부터 아시아 문화의 수용창구였던 지리적·역사적 특성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의 근현대미술을 교류·연구함

■ 주요활동

- (미술교류) 아시아 미술작가와 연구자를 초빙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 및 국내외 미술관·연구기관과의 상호협력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함
- (교육보급)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 가능한 워크숍·강연회 및 작품의 해설을 통해 아시아의 미술과 문화를 접하는 기회를 제공함
- (조사연구) 아시아 근현대미술에 관한 연구를 현지조사 및 문헌 자료 등을 이용하여 실행하고, 전시 및 강연회 등의 형태로 발표함
- (작품수집) 19세기부터 현대까지 아시아 근현대미술을 중심으로 작품을 수집함

■ 소장품 성격

- 아시아 23개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장르의 작품 3,000여 점을 소장하고 있음
- 아시아 미술의 독자성을 보여주는 근현대미술품을 중심으로,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아시아 지역의 미술사의 흐름을 이해 가능한 작품을 중심으로 수집하고 있음
-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의 기본 소장품 수집 정책은 다음과 같음

- (1) 아시아 미술의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흐름을 계통적으로 나타내는 작품
 - (2) 아시아 근현대미술사에서 중요한 민속예술 또는 대중 미술
 - (3) 기타 아시아의 근현대 미술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통미술

■ 전시 성격

-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의 주요 전시는 ‘소장품 전시’, ‘레지던시 성과 전시’, ‘특별기획전’ 등 아시아의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근·현대미술 전시를 개최하고 있음
- 국내외 예술가들이 레지던시에 상주하며 연구·창작한 작품들의 전시를 통해 동시대예술가들의 예술적 관점·담론을 확인하고, 이를 후쿠오카 지역민들과 공유·소통하고 있음
- 전시는 주로 아시아의 각 국가 별 지역성을 담아내고 국가 간의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 및 공통점들을 살펴보며, 미술관의 아시아의 미술에 대한 연구·조사의 과정의 역할을 하고 있음

[표 III-12] 2019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 주요 전시개요

전시성격	전시주제	전시기간	전시명
레지던스 성과전시	결과전시	2019.12.02. ~ 2020.03.17.	레지던스 작가 결과 전시
소장품전	베트남 미술	2019.12.02. ~ 2020.03.17.	베트남 미술 “대나무 뜨개질”
소장품전	성소수자	2019.12.02. ~ 2020.03.17.	아시아 미술 속 LGBTQ와 다양성 사회
레지던시 성과전시	이주민과 타자성	2019.10.11.~11.09.	Good Night, and Good Morning
특별기획전	아시아 미술	2019.10.05.~11.26.	개관 20주년 ‘아시아 미술 100년의 여행’
레지던시 성과전시	시민 교류	2019.09.26.~11.26.	레지던스 작가 워크숍 전시회
소장품전	아시아 미술	2019.07.11.~09.24.	후쿠오카 아시아 문화상 30주년 기념전
소장품전	아시아 미술	2019.06.27.~09.24.	‘대결! 아시아 육체파!’
소장품전	스리랑카미술	2019.06.27.~09.24.	가우타마·싯다르타 왕자의 탄생
레지던시 성과전시	생명성	2019.06.01.~06.25.	생명은 흐르는 강물처럼
소장품전	아시아 미술	2019.03.28.~06.25.	신 소장품 전 2016-2019년
소장품전	아시아 영상	2019.01.17.~03.26.	시대의 몽타주 - 아시아 영상의 전개

■ 교육프로그램

-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의 교육프로그램은 ‘초·중·고등학교 수업과 연계’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작품감상〉, 〈스튜디오견학〉, 〈워크샵〉, 〈워크래리〉로 구분하여 총 4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각 프로그램 별로 특화 콘텐츠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모든 교육프로그램은 ‘전시감상’을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함
- 도슨트와 함께 하는 전시감상부터 레지던시 스튜디오 견학 및 미술품 창작체험과 지역 문화공간 탐방에 이르는 프로그램이 운영하여, 학생들의 문화·예술 분야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음

[표 III-13] 2019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 주요 교육프로그램

구분	연령	교육내용	소요시간
작품감상	어린이 청소년	• 제목 : 도슨트와 작품 감상 • 대상 : 초·중·고등학생 학급 • 수강료 : 무료 • 내용 : 자원봉사자 도슨트의 작품 설명과 함께 전시 감상 • 코스 : 오리엔테이션 - 전시감상	80분
스튜디오 견학	어린이 청소년	• 제목 : 예술가 레지던시 스튜디오 탐방 • 대상 : 초·중·고등학생 학급 • 수강료 : 무료 • 내용 : 레지던시 예술가와 대화 및 스튜디오 탐방 • 코스 : 오리엔테이션 - 전시감상 - 스튜디오견학	120분
워크샵	어린이 청소년	• 제목 : 예술가와 함께하는 창작 체험 • 대상 : 초·중·고등학생 학급 • 수강료 : 무료 • 내용 : 레지던시 아티스트와 함께 아시아 전통 문화 관련 작품 • 코스 : 오리엔테이션 - 전시감상 - 점심시간 - 워크샵	260분
워크래리 (Walk-Rally)	어린이 청소년	• 제목 : 하카타 문화와 전통 배우기 • 대상 : 초·중·고등학생 학급 • 수강료 : 무료 • 내용 : 하카타구 지역 내 문화·전통 공간 견학 • 코스 : 오리엔테이션 - 전시감상 - 하카타 구 지역 문화·전통공간 견학	270분

■ 특징 및 시사점

-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은 아시아지역의 미술을 전문적으로 수집·연구함으로써 후쿠오카의 지역성을 담보하고, ‘교류’를 특화된 성격으로 제시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의 미술관으로 자리하고 있음
- 1999년부터 매년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미술작가, 연구자·큐레이터를 초빙하고 시민 및 예술인들 간의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아시아 미술 교류의 거점 공간으로 성장하고 있음
- 전시를 통해 동시대 아시아 지역 작가들의 관심 분야 및 아시아지역의 주요 미술 특징과 담론을 드러내고 있음. 특히, 2019년 12월 2일부터 개최되는 소장품전 <아시아 미술 속 LGBTQ와 다양성 사회>을 통해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은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시도를 하는 것을 확인 가능함
-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은 아시아 미술인들 간의 ‘교류’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현대미술담론을 지속적으로 발굴·연구하고, 이를 후쿠오카의 시민들과 공유하여 미술관의 가치를 더하고 있음



[그림 Ⅲ-11]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 전경



[그림 Ⅲ-12]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 전시실

③ 타이페이시립미술관

■ 개요

- 설립연도 : 1983년
- 시설성격 : 시립 미술관
- 소재지 : 타이페이시 중산구 중산북로 3단 181호
- 주요시설 : 전시실, 어린이교육센터, 강당 등

■ 설립목적

- 대만의 현대예술을 보존, 연구, 수집, 전시하고 현대미술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이해와 참여를 높여, 현대예술의 대중화를 촉진하고자 함

■ 주요활동

- (전시개최) 대만의 현대예술 창작 및 연구가 활성화 되도록 현대미술 전시를 개최함
- (학예연구) 대만의 근대미술품을 수집·연구하여 역사적인 예술자산으로서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함
- (미술교육) 문화적 안목을 사회의 다양한 연령과 그룹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 (작가육성) 동시대 신진 작가들의 예술적 실험과 잠재성을 발굴하기 위해 젊은 작가에 초점을 맞추어 <타이페이 예술상(TAA)>을 개최하여 매년 5명의 우승자를 선정하고, 전시를 지원하고 있음
- (비엔날레) 글로벌 커뮤니티와의 교류를 촉진 및 타이페이의 문화적 지평을 넓히기 위해 타이페이비엔날레와 베니스비엔날레의 대만 전시관을 조직·운영함

■ 소장품 성격

- 국내·외 유명 예술가들의 대표적이고 창의적인 작품 5,000여 점을 소장하고 있음
- 소장품은 대만의 미술사를 이해할 수 있고, 현대성을 지니고 있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대적으로는 19세기 초부터 동시대에 이르는 작품을 중점적으로 수집하고 있음

■ 전시 성격

- 타이페이시립미술관은 주로 동시대 예술가의 개인전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여, 관람객에게 예술가들의 예술적 관점과 해석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동아시아 추상화의 역사’ 전시의 경우 한국, 대만, 일본의 여성 예술가를 초대하여, 2차 세계대전 이후 오늘 날까지의 추상 미술의 궤적을 살펴보고, 추상미술을 정의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함

[표 III-14] 2019 타이페이시립미술관 주요 전시개요

전시성격	전시주제	전시기간	전시명
개인전	뉴미디어아트	2019.08.10.~11.17.	Ryoji Ikeda 개인전
기획전	동아시아, 추상화, 여성	2019.07.20.~10.27.	동아시아 추상화의 역사
개인전	메타회화	2019.08.17.~11.10.	노인·요정 : Tang Jo-Hung 개인전
개인전	메타회화	2019.08.17.~11.03.	먼지를 가로지르는 빛 : Huang Hua-Chen 개인전
개인전	가상과 현실	2019.08.17.~11.03.	일상의 허구 : Sera Chen 개인전
개인전	공유와 공존	2019.08.17.~11.03.	잔재가 있는 자아, 인간, 기계 : Ban- Yuan Chang 개인전
개인전	순종성	2019.08.17.~11.03.	송곳니가 없는 나라 : Wu Chuan-Lun 개인전
기획전	메타공간	2019.06.15.~2020.03.29.	연중무휴
개인전	기호학	2019.04.27.~07.21.	편안한 햇살 속에서 : James Ming-Hsueh Lee 개인전
개인전	커뮤니케이션	2019.04.27.~07.21.	콜드체인 : Hou I-Ting 개인전
개인전	미디어아트	2019.04.27.~07.21.	매복 : Ni Hao 개인전
개인전	미디어아트	2019.04.20.~07.21.	NESTED : Su-Mei Tse 개인전
기획전	미디어아트	2019.04.13.~07.14.	Musica Mobile
기획전	작가연구	2019.03.30.~06.30.	하늘과 땅의 방랑자 : Yu Peng과 그의 삶

■ 교육프로그램

- 전시연계 체험학습 및 도슨트 투어의 프로그램 등을 개설·운영하고 있음
- ‘Art Education In-Depth(심층미술교육)’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예술의 창작과 감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함
- 2019년 1학기의 Art Education In-Depth는 ‘동아시아 추상의 역사’전시연계로 진행되었으며, 초등학교 3학년생들이 동시대 예술의 주요 담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식 가이드의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음

[표 III-15] 2019 타이페이시립미술관 주요 교육프로그램

구분	연령	카테고리	교육내용	소요시간
심층미술교육	초등생	전시연계	• 제목 : 동아시아 추상의 역사 연계 교육 • 대상 : 초등학교 3학년생 • 수강료 : 무료 • 내용 : 동시대 예술 담론에 친근해질 수있도록 대화식 전시 가이드 투어 진행 • 특징 : 방문날짜와 시간 사전등록 필수	90분

■ 특징 및 시사점

- 동시대 예술가들의 개인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예술가들이 관심 갖고 있는 주요 이슈·담론을 발굴하고 있으며,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과 공유하고 있음
- 교육 대상을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는 특정 연령으로 한정하여 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에서도 초등학교 4학년 학생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시립미술관의 교육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 참고 가능한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함



[그림 III-13] 타이페이시립미술관 전경



[그림 III-14] Ryoji Ikeda 개인전

④ 홍콩미술관 (Hongkong Museum of Art)

■ 개요

- 설립연도 : 1962년
- 시설성격 : 공립 미술관
- 소재지 : 홍콩 카오룽 침사추이 솔즈베리로 10
- 관장명 : 이브 탐(Eve Tam)
- 규모 : 부지면적 17,560㎡, 연면적 6,019㎡
- 주요시설 : 홍콩 현대미술 전시실, 중국 고미술 전시실 등

■ 설립목적

- 중국의 문화유산 및 홍콩의 현대미술의 학예연구를 통한 홍콩 예술의 활성화

■ 주요활동

- (전시개최) 중국의 고미술, 문화 관련, 홍콩의 작가를 조명하는 전시
- (학예연구) 근현대 홍콩 지역 예술가 및 중국의 고미술품 등의 작품을 홍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분석하는 연구하고 있음
- (미술교육) 전시연계 및 미술관 관련 강연과 학교연계 프로젝트 진행
- (협업연구) 홍콩 미술사, 분관 미술관 등의 주제로 비영리 예술단체와 협업하여 연구

■ 소장품 성격

- (홍콩예술) 20세기부터 동시대에 이르는 홍콩의 지역성을 드러내는 예술가들의 작품 및 홍콩의 지역적 맥락에서 문화적으로 중요성을 지닌 주제들을 다룬 작품 등을 수집
- (중국예술) 중국의 예술 양식의 발전과 독특한 특징을 이해하고, 거장들의 업적을 살펴보기 위해 중국의 고미술품과 18세기~19세기 중국 회화·서예작품을 수집
- (소장작품) 중국 회화와 서예, 홍콩 예술가의 작품 등 17,000점 이상 보유하고 있음

■ 전시 성격

- 2019년 11월 30일에 재개관한 홍콩 미술관의 경우 해당 미술관의 소장품 (주로 중국의 유물 또는 고미술) 및 이를 현대의 아티스트들이 재구성하는 연계전시를 함께 진행함
- 이에 해당되는 전시로는 ‘클래식 리믹스: 홍콩관점’과 ‘풍경의 숨결’, ‘풍경 재발견’이 있음

- 2018년에 친로로우의 서예 및 회화 작품 300여점을 기증받아 해당 상설전시관에서 '즐거움 공유: 친로로우 루 컬렉션에서 엄선된 작품 (1부)'를 진행함
- 이외에도 영국 테이트 미술관과 중국 문화여가부 공동 주최 교류전으로 홍콩미술관에서 '장소의 감각: 터너에서 호크니까지' 전시를 진행 중에 있음

[표 III-16] 2019 타이페이시립미술관 주요 전시개요

전시성격	전시주제	전시기간	전시명
상설전	재개관기념	2019.11.30.~	평범한 것에서 비범한: 박물관의 이야기
특별기획전	재개관기념	2019.11.30. ~2020.06.13.	클래식 리믹스: 홍콩 관점
소장품전	작가연구	2019.11.30. ~2020.02.10.	덩바구니에서 다이닝 카트까지 : 우관중 탄생 100주년 (1부)
기증작품전	중국근대서화	2019.11.30. ~2020.02.10.	즐거움 공유 : 치로 루 컬렉션에서 엄선된 작품 (1부)
소장품전	중국고미술	2019.11.30. ~2020.05.02.	공허의 지혜 : 수바이자이 컬렉션에서 엄선된 작품
상설전	중국고미술	2019.11.30.~	두 세계의 최고 : 중국 유물의 인수 및 기부
특별기획전	채터 컬렉션	2019.11.30. ~2020.11.24.	분실및발견: 채터 컬렉션의 수호자
특별기획전	홍콩 지역성	2019.11.30. ~2020.05.02.	홍콩 체험 · 홍콩 실험
기획전	삶과예술의 관계성	2019.11.30. ~2020.09.29.	풍경의 숨결
기획전	삶과예술의 관계성	2019.11.30. ~2020.09.29.	풍경 재발견
국제교류전	영국 미술	2019.11.30. ~2020.03.03.	장소의 감각: 터너에서 호크니까지

■ 교육프로그램

- 홍콩미술관의 교육프로그램은 예술교육 관련 키트를 대여하는 〈홍콩 예술가의 작품(In touch with Hong Kong Artists)〉와 대나무를 통해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대나무와 함께(Living with Bamboo)〉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왔음

[표 Ⅲ-17] 홍콩미술관 교육프로그램 개요

구분	카테고리	교육내용	소요시간
교육 프로그램	키트 대여	• 제목 : 홍콩 예술가의 작품 • 대상 : 초등·중등학생 • 내용 : 13명의 홍콩 예술가의 교육용 키트 대여 • 특징 : 홍콩 미술관 컬렉션을 기반으로 지역 예술가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자료 제공함	-
	유아 교육	• 제목 : 대나무와 함께 (Living with Bamboo) • 대상 : 유아 • 내용 : 대나무를 통한 중국의 문화·역사의 이해 • 특징 : 교육 매뉴얼 및 키트를 온라인으로 제공함	60분

■ 특징 및 시사점

- 홍콩미술관은 1962년에 설립된 홍콩 지역의 최초의 공공 미술관임
- 홍콩미술관은 현재 리노베이션에 있으며, 2019년 11월에 재개관 하였음
- 교육프로그램은 ‘키트대여’의 방식으로 주로 운영하여,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 해왔음



[그림 Ⅲ-15] 홍콩아트뮤지엄 전경



[그림 Ⅲ-16] 홍콩아트뮤지엄 리노베이션

[표 III-18] 아트페어 : 아트바젤 홍콩

개 요
• 행 사 명 : 제 8회 아트바젤 홍콩 • 설립연도 : 1970년 (2013년 아트바젤 홍콩 첫 개최) • 전시기간 : 2020.03.19. ~03.21. • 전시장소 : 홍콩컨벤션센터(HKCEC) • 주최주관 : MCH그룹 • 협 찬 : UBS, AUDEMARS PIGUET, RUINART, SANLORENZO , la prairie, DIOR 등 • 참여화랑 : 세계 242개 화랑 참여 ※ 국내 참여화랑 : 국제갤러리, 리안갤러리, 아라리오갤러리, 원앤제이갤러리, 학교재갤러리, PKM갤러리 등 - 참여관객 : 88,000여 명 (2019년 기준)
전시구성
• (갤러리) 페어의 메인 섹션으로 약 242개의 세계를 선도하는 갤러리의 주요 작품 전시 • (인사이트) 아시아·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인 또는 듀오로 활동하는 작가작품 집중 조명 • (디스커버리) 유망한 동시대 신진 작가들의 작품 전시 • (캐비닛) 갤러리 부스 내에 현대미술사적 가치를 조망할 수 있는 기획 전시 • (인카운터)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대규모 조형물과 설치작품 전시 • (필름) 멀티미디어 아티스트의 단편영상 작품을 상영 • (매거진) 전 세계의 미술 출판물을 전시·홍보함 • (컨버세이션) 현대미술계에 관한 주제를 바탕으로, 국제 예술계의 저명한 구성원들 간의 토론, 소통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주요특징
• 스위스 바젤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세계적 아트페어 아트바젤의 3개 페어 중 하나로 2013년에 출범 • 아트바젤을 운영하는 MCH그룹은 2007년부터 홍콩에서 매년 진행되어 온 아트페어 아트HK를 인수하여 아트바젤 홍콩의 기반을 마련하고, 2013년부터 아트바젤 홍콩을 개최 • 리드 파트너인 'UBS'는 20년 간 아트바젤을 지원하였으며, 바젤, 마이애미비치, 홍콩의 3개 아트페어를 모두 지원 • 아트바젤 홍콩은 참여 갤러리의 50%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갤러리에 할당하여, 3개 아트바젤 중에 유일하게 지역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음


3) 사례분석의 쟁점

(1) 국내 지역 미술관의 성격

■ 지역미술 발전의 거점 공간

- 국내 지역 미술관들은 시립·도립미술관으로써 지역미술의 발전 및 확산을 위한 허브기능을 하고 있음
- 지역성의 담보를 통해 타 지역 미술관과의 차별화 및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 국제성과 지역성의 균형을 통해 국내·외 미술 주요 담론 발굴 및 공유하고 있음

■ 지역민과 소통하는 미술관

- 최근 미술관은 사회교육의 장으로서 박물관의 사회적 포용 기능이 강화되고 있음
- 전시 및 퍼포먼스, 영화,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복합문화공간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 관람객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미술관과 관객 간의 지속 가능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2) 국외 지역 미술관의 성격

■ 국제 교류, 네트워크 중심의 미술관

- 타 지역의 미술관, 미술인 들 간의 교류 활동을 통해 지역 미술의 연구 및 동시대 미술의 주요 담론을 연구하고 있음
- 현대미술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세계 미술계와의 소통을 위해 비엔날레 및 트리엔날레를 개최하고 있음

■ 지역민과 소통하는 미술관

- 미술관이 위치한 지역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현대미술의 담론을 발굴하고 시민들과 소통·공유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음
- 지역의 현대미술을 연구하고, 현대미술의 대중화를 지향하고 있음
- 지역 학교와의 연계 및 연령에 따른 세부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설계 운영하고 있음

3. 시립미술관의 성격과 방향

1) 지역성 연구

- 인천학연구원 및 계간「황해문화」등의 학술 자료를 바탕으로 인천 지역성 관한 관점들을 확인했으며, 주요 특성으로 ‘황해문화’, ‘국제교류’, ‘근대산업과 노동자문화’, ‘다문화·디아스포라’, ‘문화다양성’ 총 5 가지의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었음

■ 황해문화

- 황해는 동아시아의 지중해로, 중국의 동해안 지역과 한국의 서해안 지역 그리고 일본의 규슈 지역을 하나로 연결하는 한편 동남아로 열려 있는 문명의 바다였음
- 한반도 중심에 위치한 인천은 역사적으로 황해문명의 요람이었으나, 근대 개항기 서구열강의 침입과 냉전시대를 거치며 피해를 받았던 지역이며 이후 근대화논리에 의해 서울의 주변부로 전락하며 인천 고유의 정체성이 훼손되기에 이름
- 동아시아·동남아시아를 아우르는 황해문명권이라는 세계적 범주 속에서 인천의 지역성을 확보하여, 지역문제를 전국적 시각, 더 나아가 세계적 시각에서 조명하고자 함

[표 III-19] 계간 「황해문화」 개요

발행기관	새얼문화재단
설립연도	1883년 8월 22일 문화재단 설립 (1975년 재단법인 ‘새얼장학회’로 시작)
소재지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 7-241 정석빌딩 신관 803호
이사장	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설립자)
설립목적	문화운동을 바탕으로 인천 지역의 정체성 확보
주요사업	계간 황해문화 발간, 장학사업, 새얼문화상, 새얼문화축제 등
주요특징	국내 최초의 시민문화재단

- 창간연도 : 1993년 12월
 - 성 격 : 종합인문교양 계간지
 - 목 적 : 세계적 시각에서 지역을 보고, 지역의 눈으로 세계를 보는 상호침투적 시각으로 인천 지역 사회의 정체성 확보
 - 주요특징 :

- 2019년 9월, 104호가 발간되어, 약 26년 간 지속되고 있음
- 황해문화는 “전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라”라는 모토를 지니고 있음
- 인천을 황해문명 내에서 이해하고, 주변 국가·지역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역성을 발굴하고자 함
- 주요 이슈로는 동아시아 문화 / 분단과 평화 외에 거시·미시 정치담론을 아우르고 있음

■ 국제교류

- 인천광역시의 지리적·역사적 환경을 바탕으로 지역성을 서술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관문 도시이자 대외무역의 중심지로 역할해 국제교류의 성격을 지닌 도시로 바라보고 있음

강화와 인천은 근대기의 개항 지역이었고, 일찍부터 서구와의 접촉이 많아 실질적인 문화유입의 통로역할을 해왔으며, 현재도 그렇다. 내륙과 달리 동아시아 또는 세계를 향한 지적 담론의 생산과 실천을 꿈꾸고, 지역 문화 운동이 활발한 것은 그런 지역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출처 : 경기도미술관(2018), 『경기 아카이브_지금』

■ 근대산업과 노동자문화

- 인천광역시는 제물포의 개항 이후 일제강점기 인천항 공사와 간척을 통해 공단이 형성되었으며, 공단은 한국전쟁시기 이북 피난민들과 1970년대 산업화 시기의 전국의 젊은이들이 모여들게 하여, 근·현대 인천의 지역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디아스포라·다문화

- 인천의 시민의 정체성의 바탕에는 다양한 인종, 국내 각지에서 다양한 집단들이 모여들며 이질적인 것들이 섞이고 합쳐져 있어 혼합성/혼종성/다중성이 발견됨을 서술하고 있음. 이로부터 인천광역시의 지역성을 디아스포라와 다문화로 도출할 수 있음

■ 문화다양성

-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은 다른 한편 다양한 삶에서 비롯하는 각각의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쟁점을 유발함. 이에 따라 차이로 인한 갈등과 혐오, 차별을 극복한다는 의미에서의 문화다양성 이념을 실천해야 하는 장이 됨

[표 III-20] 인천광역시 지역성 주요 키워드

국제 교류	근대개항	관문도시	화교
문화다양성	디아스포라	다중적인 정체성	혼혈사회
항만도시	산업화	공업도시	노동운동

2) 주요 미술담론

(1) 인천광역시 주요 미술담론

① 조사방법

- 인천광역시 내 주요 미술관 및 박물관, 미술행사 전시 주제로부터 지역의 미술 담론을 조사하였으며,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음
 - (미술관) 인천아트플랫폼
 - (박물관) 인천시립박물관, 한국이민사박물관, 짜장면박물관

② 주요담론

■ 디아스포라

- 한국 근현대사 속 식민과 분단 등의 사건으로부터 발생한 디아스포라의 삶과 문화에 관심을 갖고 전시를 개최해왔음
- 2019년도 인천시 주요 미술관과 박물관은 국제교류 및 다문화·디아스포라에 관한 전시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평화의 서해

- 인천광역시는 ‘평화’를 주제로 크고 작은 전시를 기획해오며 평화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음. 예컨대, 2012년 인천아트플랫폼은 〈평화의바다, 물위의 경계〉전을 선보였으며, ‘2019 인천평화축제’프레임에서 개최된 황해미술제는 ‘평화로 날다’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음. 또한 2019년 인천섬기행전 〈평화의 섬 시대를 열며〉, 인천해양국제미술축전에서 〈평화의 거점 서해 서막전〉이 개최되었음

[표 III-21] 인천광역시 주요 미술 담론

디아스포라	재중한인동포	평화의 서해	분단과 통일	국제교류
근대건축물	공업도시 인천	젠더&페미니스트	미래사회	

③ 사례조사

[표 Ⅲ-22] 인천아트플랫폼 주요전시

전시명	전시기간	주제	내용
$3^x = \infty$	2019.07.04. ~2019.07.28.	동아시아 문화도시	여러 국가의 사람과 문화, 삶의 방식을 교류하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2019 사업 연계전시
태양을 넘어서	2019.05.24. ~2019.06.23.	디아스포라	식민과 분단 등 한국 근현대사의 '디아스포라'를 미학적으로 살피는 전시
잊혀진 흔적	2019.02.28. ~2019.03.31.	디아스포라	일제강점기 항일운동과 한·중 근현대사 속의 재중한인 동포들의 삶을 조명하는 사진전

[표 Ⅲ-23] 인천시립박물관 주요 전시

전시명	전시기간	주제	내용
노동자의 삶, 굴뚝에서 핀 잿빛 꽃	2019.10.08. ~2020.02.16.	노동자 생활문화	인천의 산업사를 소개하고, 인천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노동자의 노동운동에 관한 기록과 생활문화를 조명하는 전시
이름 섞임 그리고 삶	2019.06.28. ~2019.09.01.	다문화 도시	개항 이후 인천에 사람들이 모여든 요건과 환경이 무엇이고 그들의 교통로 등을 살피는 전시
위대한 도구, 젓가락 展	2019.01.22. ~2019.02.24.	동아시아 문화	'동아시아 삼국의 의식주(衣食住)'를 주제로 순회 전시의 일환으로 중국 대련시의 여순박물관이 소장한 '젓가락' 유물을 소개하는 전시

[표 Ⅲ-24] 한국이민사박물관 주요 전시

전시명	전시기간	주제	내용
에네켄에 담은 염원	2019.10.25. ~2020.02.16.	디아스포라	멕시코-쿠바 한인의 이민과 독립운동에 관한 전시
기억할게 우토로	2018.12.14. ~2019.04.14.	디아스포라	1943년 일본군비행장을 만들기 위해 모인 조선인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해방 이후에도 돌아오지 못하고 모여 살게 된 우토로 마을에 관한 전시

[표 Ⅲ-25] 짜장면박물관 주요 전시

전시명	전시기간	주제	내용
공시공시 (恭喜恭喜)	2018.12.21. ~2019.03.31.	중국의 새해 풍속	중국의 다양한 새해 풍속을 살펴보고, 다가오는 2019년 기해년(己亥年)을 기념하는 전시
짜장면, 그릇으로 탐(耽)하다	2017.12. ~2018.05.	인천의 도자 산업	짜장면 그릇의 변천사와 한국 및 인천의 도자기 산업을 함께 다룬 전시

(2) 국내·외 동시대 미술담론

① 조사방법

- 국내외 주요 비엔날레 및 미술관의 전시 주제로부터 현대미술 담론을 조사하였으며,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음
 - (국외 비엔날레) 베니스비엔날레
 - (국내 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서울미디어비엔날레
 - (국내 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일민미술관

② 주요담론

■ 예술과 사회

- 예술적 시각으로 동시대 사회문제를 다루는 전시가 다수 개최되고 있으며, 기후변화·난민·포스트콜로니얼리즘·인종·여성·장애인 등 환경 및 여전한 후기 식민지배의 문화 현상, 사회적 약자의 소외 문제 등에 대해 관습적 사고를 탈피할 것을 유도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의 미래

- 현대미술은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현대기술의 다양한 효과와 그 이면을 비판적으로 통찰하여,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유와 실천의 노력하고 있음

[표 III-26] 동시대 주요 미술 담론

환경문제	난민	사회적 약자	정치적 분단과 분리	사회참여적 예술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	개인과 공동체	역사의 재해석	메타비엔날레	메타회화
디지털 기술	미술품 유통	장르 확장	아시아 현대미술	정치사회적 경계

③ 사례조사

[표 Ⅲ-27] 국외비엔날레 전시

전시명	전시기간	담론	내용
베니스비엔날레 'May you live in interesting times'	2019.05.11. ~2019.11.24.	사회적 약자	세계 각국의 환경, 난민, 소수자, 인종, 여성,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관습적 사고에서 탈피할 것을 유도하는 예술가들의 작품들로 구성된 전시임
베니스비엔날레 'Viva Arte Viva'	2017.05.13. ~2017.11.26.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	'모든 세계의 미래'라는 주자 아래 정치·사회적 이슈들을 전면적으로 다루는 전시를 선보였으며, 시대가 당면한 문제들에 직접 개입하고 발언하는 것이 동시대 예술가의 역할임을 비추었음

[표 Ⅲ-28] 국내 비엔날레 전시

전시명	전시기간	담론	내용
광주비엔날레 '상상된 경계들'	2018.09.07. ~2018.11.11.	정치사회적 경계성	세계화 이후 민족적·지정학적 경계가 재편되고 있는 동시대 현상 속에서 지정학적 경계를 넘어 정치, 경제, 감정, 세대 간 복잡해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굳건해지고 있는 경계에 대해 이야기함
광주비엔날레 '예술은 무엇을 하는가?'	2016.09.02. ~2016.11.06.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	예술가들이 사회의 변화를 먼저 예측·진단하고, 미래에 대한 투지와 상상력을 끌어내 정치·경제·사회·환경 등 동시대 지구촌 이슈와 담론을 짚어보는 전시임
부산비엔날레 '비록 떨어져 있어도'	2018.09.08. ~2018.11.11.	정치사회적 분단, 분리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권력으로부터 발생하는 물리적·심리적 분단과 분리가 어떻게 강화되는지 질문하고,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에 어떠한 갈등을 기인하는지 고민하는 전시임
부산비엔날레 '혼혈하는 지구, 다중지성의 공론장'	2016.09.03. ~2016.11.30.	메타 비엔날레	비엔날레에 대한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작가적 존재에 대한 반성과 비판하는 전시임
서울미디어비엔날레 '좋은 삶'	2018.09.06. ~2018.11.18.	인간의 삶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가치와 변화하는 '좋은 삶'의 모습을 대중과 함께 토론하고 그려보고자 함
서울미디어비엔날레 '네리리키르르하라라'	2016.09.01. ~2016.11.20.	미래의 가능성	예술언어와 미디어가 매개하는 다양한 종류의 미래를 제안하면서, 유토피아도 디스토피아도 아닌, 기억이면서 노스텔지어이기도 한 내일의 가능성을 묻고자 하는 전시임

[표 III-29] 2019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전시명	전시기간	담론	참여작가	내용
광장 : 미술과 사회 1900~2019	2019.10.17. ~2020.02.09.	개인과 공동체	안중식, 김환기, 이쾌대 등 80여명	격동의 한국 역사를 중심축으로 하여, 예술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 어떻게 반응 하고 조응해왔는지 살펴보는 전시임
광장 : 미술과 사회 1950~2019	2019.10.17. ~2020.03.29.	개인과 공동체	이승택, 성능경, 오윤 등 220여명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한국현대 미술사를 사회와 예술, 삶과 연계해야 재조명하는 전시임
광장 : 미술과 사회 2019	2019.09.07. ~2020.02.09.	개인과 공동체	김희천, 오형근, 홍승혜 등 19명	다원화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 들이 맞닥뜨리는 질문과 상황들을 동시 대 미술을 통해 이야기하는 전시임
현대회화의 모험 : 나는 나대로 혼자서 간다	2019.09.27. ~2020.03.29.	메타회화	권순영, 박경진, 서고운 등 17명	현대미술이 개념이 무한확장 되는 시기 에,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매체인 ‘회화’ 적 창작활동의 의미에 대해 질문하는 전 시임
떠도는 영상들의 연대기	2019.05.30. ~2019.08.25.	디지털 기술	소장품	디지털아카이브 활동을 관객과 미술인들 에게 인식시키고 앞으로의 운영을 위한 모델을 찾아보고자 함
아거스 윤, 사회운동가로서의 예술가	2019.04.12. ~2019.09.08.	사회참여적 예술	아거스 윤	급진적 아방가르드 그룹을 이끌며 20세 기 중반 사회참여적 예술을 주도했던 북 유럽의 대표작가 아거스윤을 집중 조명 하는 전시임
불온한 데이터	2019.03.23. ~2019.07.28.	디지털 기술	김실비, 김웅현 등 11명	인간이 구축해 온 디지털 체계와 이를 둘러싼 환경 속에서 발생한 예측 불가능 한 ‘틈새’를 보여주는 전시
세상에 눈뜨다 : 아시아 미술과 사회	2019.01.31. ~2019.05.06.	아시아 현대미술	한·중·일, 아세안 국가 13개 국가 참여	아시아 현대미술의 역동적인 지형도를 그려내고, 서구 중심의 글로벌 미술사 서술을 재구성하기 위한 새로운 가능성 을 모색하는 전시

[표 Ⅲ-30] 2018/2019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전시

전시명	전시기간	담론	참여작가	내용
에이징월드	2019.08.27. ~2019.10.20.	사회적 약자	SMSM, 박은태, 오형근 등 15명	전 지구적으로 직면한 고령화문제, 특히 한국 사회 안에 깊게 자리 잡은 노인을 이질적 타자로 간주하는 문화와 이를 둘러싼 동시대 이슈를 조명하는 전시임
2019 서울포커스 〈두 번의 똑같은 밤은 없다〉	2019.02.26. ~2019.06.09.	환경문제	김명진, 김지영, 리혁중 등 16명	자본주의 체제 아래 훼손된 지구 생태계와 인간의 삶을 미술의 언어로 살펴보는 전시임
모두를 위한 세계	2019.03.01. ~2019.05.26.	역사의 재해석	월리엄 켄트리지 등 6명	세계사적 토대와 동시대 미술의 지평에서 3.1운동의 의미를 새롭게 바라보는 전시
두 개의 기둥과 일곱 개의 글자	2018.12.13. ~2019.02.06.	디지털 기술	파비오 라탄치 안티노리, 추미림	동시대의 우리에게 자산으로 작용하는 대부분의 키워드와 수치화된 무형의 정보의 객관성에 대해 재고할 시간을 갖고자 함
보이스리스-일곱 바다를 비추는 별	2018.06.26. ~2018.08.15.	사회적 약자	송상희, 임흥순, 장서영 등 7명	우리의 삶 속에 억압되고 배제된 존재를 조명함으로써 우리를 둘러싼 다양한 영역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예술이 지닌 사회적 함의와 가능성을 고민하는 전시임
IN_D_EX	2018.04.17. ~2018.06.10.	메타전시	기슬기, 김민경, 김주현 등 11명	새롭게 변화하는 관객의 전시관람 방식에 주목하고 그에 상응하는 전시관람 환경을 구성한 전시
씨실과 날실로	2018.04.17. ~2018.06.03.	사회적 약자	고산금, 권용주, 권혁 등 14명	‘실’을 매개로 하여 사회주변부로 인식되어 온 여성과 손노동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
경계 155	2017.12.05. ~2018.03.04.	분단과 통일	김량, 김치신, 김태균 등 26명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 시각이 커져가고 있는 현실을 인지하고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등 사회 저반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바탕으로 통일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표 III-31] 2019 일민미술관 전시

전시명	전시기간	키워드	참여작가	내용
퍼폼2019: 린킨아웃	2019.08.29. ~2019.09.04.	미술품 유통	키라라, 고대영 등 90명	2016, 2017 퍼포먼스 활동을 기반으로 비물질작품의 쇼케이스부터 회차 공연권, 제한 상영권, 한정기록 판매까지 작가들의 유통과 소비를 위한 고찰 전시
디어 아마존 : 인류세 2019	2019.05.31. ~2019.08.25.	환경문제	사이몬 페르난디스, 주앙 제제, 등 11명	브라질의 문화·지역·사회적 특성을 중심으로 '인류세'(인간이 지배하는 지질시대)를 단순한 환경 훼손에 따른 생태 위기 개념을 넘어, 인류의 존재와 미래를 다룬 전시
불멸사랑 Immortality in the Cloud	2019.02.22. ~2019.05.12.	디지털 기술	강이연, 권하윤 등 6명	근미래엔 AI를 통해 인간의 경험, 추억이 클라우드에 백업되는 동시대성 안에서 역사, 신화, 종교, 사랑 같은 불멸의 가치들에 대한 해석과 새로운 구성을 탐구하는 전시
퍼폼 2018	2018.12.12. ~2018.12.16.	미술품 유통	cody lee, 고대영, 곽고은, 금혜원 등 55명	한시적인 퍼포먼스를 기반으로 비물질작품의 쇼케이스부터 회차 공연권, 제한 상영권, 한정기록 판매까지 작가들의 유통과 소비를 위한 고찰 전시
플립북: 21세기 애니메이션의 혁명	2018.05.18. ~2018.08.12.	장르확장	오성윤, 이성강, 고등어 등 18명	동시대 예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소개되지 않았던 애니메이션 장르의 예술적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는 전시

3) 전문가 자문회의

■ 개요

- 일 시 : 2019년 10월 31일 15시
- 장 소 : 인천아트플랫폼 A동 2층, 모임방 중3
- 내 용 : 시립미술관 콘텐츠 개발 학술용역 전문가 의견 수렴
- 참석자 : 14인 (자문위원 7인, 인천시청 문화콘텐츠과 3인, 문화예술경영연구소 3인)

구분	소속	성명
자문위원	경기도미술관 학예팀	김종길 팀장
	작가	도지성 작가
	스페이스빔	민운기 대표
	인천문화재단 생활문화팀	박석태 팀장
	인천아트플랫폼	이재언 관장
	작가	이종구 작가
	임시공간	채은영 디렉터
인천시청	문화콘텐츠과	김지영 과장
	문화콘텐츠과	박종문 팀장
	문화콘텐츠과	김래영 주무관
	문화콘텐츠과	임경미 주무관
학술연구	경희대 문화예술경영연구소	박신의 소장
	경희대 문화예술경영연구소	백령 연구위원
	경희대 문화예술경영연구소	김원재 연구원



[그림 Ⅲ-17] 자문회의의 현장 스케치



[그림 Ⅲ-18] 자문회의의 현장 스케치

■ 주요내용

○ 시립미술관 핵심 컨셉 : 디아스포라 / 동아시아 교류

- 인천시청의 시립미술관 핵심 컨셉 제시 요청에 따라, 대다수의 자문위원은 ‘디아스포라’를 제안하였음
- 디아스포라는 ‘이산’(離散)의 의미로, 팔레스타인을 떠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게 된 유대인에서 유래되었으나, 20세기 말 글로벌리즘을 통해 국가나 민족의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과, 일정하게는 새로운 정체성 논의로 요약되는 포스트콜로니얼리즘과도 연관성을 갖는 용어라 하겠음
- 인천 역시 제물포 개항 이래 한국 최초의 하와이 이민선(1902)이 출항한 곳이며, 산업화로 인한 국내 노동자들의 인천 유입 등을 고려하면 다양한 지역민과 민족, 언어 등이 섞이고 교류가 이루어지는 지역적 특성으로 귀결될 수 있음
- 결국 이주, 차별, 적응, 문화변용, 동화, 공동체, 민족문화와 민족정체성 등 다양한 주제로 해석되며, 역사학, 인류학, 민속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언어학 등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는 주제로서 의미의 시의성도 포함됨
- 디아스포라의 문화적 개념은 이질적인 것이 섞여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문화다양성의 원천이기도 함. 일례로 ‘짜장면’은 디아스포라의 산물이자 지역 고유의 문화 다양성의 양상을 반영함
- 또한 <디아스포라영화제>(7회)와 연계하면서, 의미론적으로 유목민주의(노마디즘)와 연관하여 동아시아 문화교류와 거점미술관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도 가능함

○ 인천의 지역성 설정

- (디아스포라) 인천광역시에는 다양한 지역에서 모여든 작가들이 터를 잡고 활동한 지역이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서울로 진출하기 위한 경력을 쌓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음
- (냉전·분단) 인천광역시에는 맥아더 장군 동상, 충혼탑 등 전쟁의 상흔과 냉전시대와 남북 분단에 관련된 문화가 남아 있는 특징을 찾아볼 수 있음

○ 시립미술관의 성격 : 특화된 주제를 지닌 미술관 성격 필요

- 부산, 대구, 광주와 달리 인천광역시는 수도권에 위치한 광역시일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매우 인접하여 문화적으로 인천을 중심으로 유인력을 지니는 데 어려움이 존재함
- 하나의 특화된 성격이 필요하며, 단순히 지역미술관으로써의 기능을 하면 향토미술/남구 중심의 미술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됨
- 수도권 전체의 환경 속에서 인천을 고려하고, 특화된 성격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시립미술관 특화 컨셉 : 디아스포라 / 동아시아 교류

- **(디아스포라)** 인천의 근현대는 디아스포라들에 의해 성장해 온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다양하고 이질적인 특성들이 섞여 인천의 문화들을 형성해왔음
- **(교류의 가치)** 디아스포라의 가치는 이주자들이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삶을 영위해가며 발산하는 문화적 특질과 이것이 사회 속에서 융화되며 또 다른 문화를 형성해내는 것들에 있다고 볼 수 있음. 즉, 교류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함

○ 시립미술관의 역할 : 헤드쿼터 / 인터로컬

- **(헤드쿼터)** 인천광역시는 지리적으로 광범위하고, 그 속에 다양한 이질적 특성들이 공존하고 있기에 한 개의 미술관에서 모든 것을 담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헤드쿼터)** 인천의 지역성을 담아내는 데 있어 우선순위를 정하여, 현재 조성 중인 시립미술관은 헤드쿼터로서의 역할을 갖고, 인천광역시 내에 지역 별 특성에 맞는 분관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인터로컬)** 시립미술관은 인천의 지역성을 바탕으로 국제성과 지역성을 함께 담보하는 인터로컬 뮤지엄의 역할을 지녀야 할 필요가 있음

○ 인천아트플랫폼의 위상 재정립 필요 : 시립미술관과 레지던시의 관계

- 국공립미술관은 레지던시·창작센터와 함께 운영되고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고양레지던시, 서울시립미술관·난지창작센터, 경기도미술관·경기창작센터) 인천의 시립미술관이 조성되었을 때, 인천아트플랫폼과의 관계, 구조 설정 및 역할 분담의 제시가 필요함

○ 시립미술관의 역할 가능성

- **(환경문제)** 송도에 GCF(녹색기후기금)가 있어, 시립미술관은 이들과 협업하여 환경을 예술적 담론으로 승화하는 국제적 움직임의 중심으로서 역할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음
- **(남북평화)** ‘남북교류의 플랫폼’으로서 인천광역시의 역할을 강조하고, 문화교류의 기지로 시립미술관이 전국에서 대표적으로 ‘남북문화교류’에 앞장서는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인천광역시의 미술 소장품 활용 방안

- 시립미술관의 소장품은 인천문화재단이 인천미술활성화사업을 통해 수집한 미술품들과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인천문화재단의 소장품 내에서 미학적·미술사적 유의미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작품들을 선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응모형 방식이 아닌 질적 가치를 담보하여 소장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소장품에서 소장자료로 확장된 개념이해 필요

- 아카이브 자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기존의 작품 중심이 수집이 아닌 포스터·도록·엽서 등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자료 등을 수집·연구할 필요가 있음
- 7~80년대에 인천광역시의 현대미술이 본격화되고, 소집단 운동이 발생했던 기록과 자료들을 아카이빙 하여 인천광역시 미술활동의 뿌리부터 추적하는연구가 필요함

○ 인천 지역 활동작가

- 인천문화재단 예술창작표현 부분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예술가들이 전시했던 대안/신생 공간은 약 10개소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주로 중구·서구·미추홀 지역 등에 분포되어 있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인천 지역의 예술인 수는 2,225명으로 확인할 수 있음³⁾

○ 인천지역 경력인증기관 부족으로 인한 신규 전문 인력 유출

- 인천지역의 미술관련 경력인증기관은 2개소(송암미술관, 인천아트플랫폼)로 매우 부족하여, 신규 전문 인력이 서울지역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있어 관련 논의가 필요함
- 청년기획자, 청년작가들이 인천광역시를 자신들이 지속적으로 활동 가능한 전망 있는 지역으로 인식할 수 있을 때 시립미술관이 유의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함

○ 시민들이 함께 참여 가능한 미술관

- 일부 전문 미술인들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여 인천광역시의 대표적인 미술관으로 거듭나는 노력이 필요함

3)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한 전국 예술인의 수는 2018년 9월 19일 기준 총 55,177명이며, 이 중에서 인천시의 예술인은 총 2,225명으로 전국대비 4.03%에 해당함. 예술부문별 현황을 살펴보면 음악분야가 489명(21.89%)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연극(404, 18.16%)>미술(353명, 15.87%)>영화(257명, 11.55%)>문학(192명, 8.63%)>연예(148명, 6.65%)>복수응답(125명, 5.62%)>만화(100명, 4.49%) 순으로 나타났음 (최영화, 2018)

4) 시립미술관의 SWOT 분석과 대응 전략

(1) 시립미술관의 SWOT 분석



[그림 Ⅲ-19] 시립미술관 SWOT 분석

① Strength(강점)

- 인천광역시인 인구 300만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다수의 시민과 지역 미술인의 문화향유 욕구 증대 및 인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시립미술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인천광역시는 국제공항과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로서, 시립미술관의 국제 교류의 용이성이 담보되어 있음
- 시립미술관의 건립예정지는 인근 거주단지로부터 500m 거리 내외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인선 '학익역' 및 버스정류장 '동양화학정류장'에서 10분 내에 접근 가능하여 높은 접근성을 지니고 있음
- 복합문화시설인 뮤지엄파크 내에 소재하여 높은 유동인구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박물관 및 콘텐츠 플라자, 공원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기획이 가능할 수 있음

② Weakness(약점)

- 시립미술관의 규모는 중규모(전시공간 연면적 4,580㎡) 수준으로, 효과적인 전시를 운영하기 위한 공간적 활용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인천뮤지엄파크 시립박물관과의 교육 공간을 공유하게 됨에 따라, 미술관만의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실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
-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특화된 성격 및 방향성이 미흡한 상황으로, 이에 따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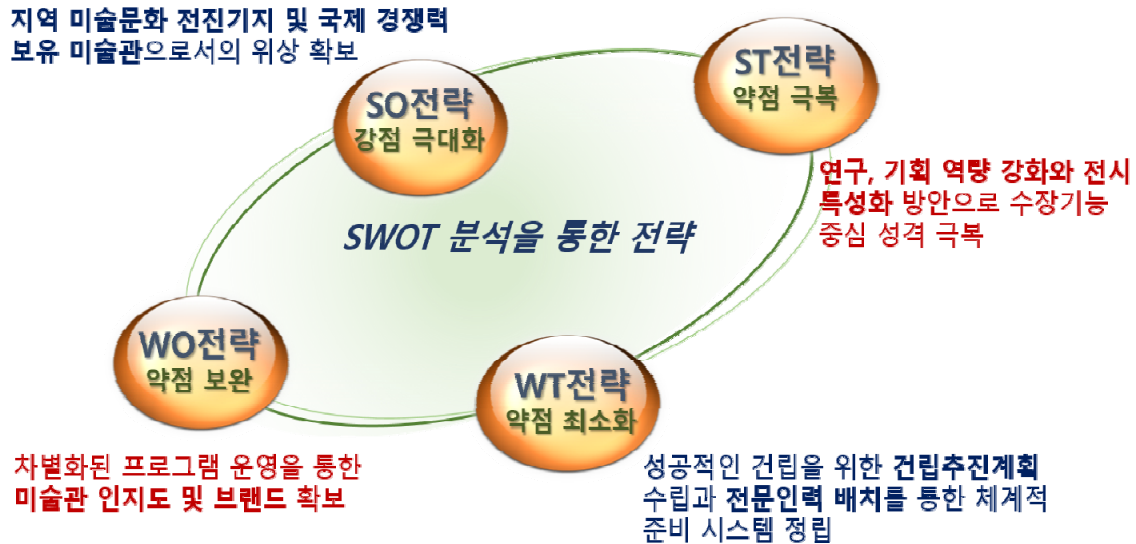
③ Opportunity(기회)

- 인천의 지역작가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작가들의 주요 활동 무대가 되어, 인천광역시의 근현대미술 발전을 위한 허브 공간화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
- 인천의 근현대미술을 연구·계승함으로써 지역미술의 정체성을 발굴하고, 상설전시 또는 기획전시를 통해 시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의 역할이 가능함
- 시립미술관이 주거 밀집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높은 참여율을 기대할 수 있음
- 복합 문화예술 플랫폼인 인천뮤지엄파크에 위치함에 따라 시립박물관·야외공원과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가 가능함

④ Threat(위협)

- 부산, 대구, 광주 등의 지역 시립미술관과 달리, 인천광역시는 서울과의 높은 인접성을 지니고 있어 시민들이 문화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 서울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따라, 서울 지역의 미술관과 차별화 및 특성화를 지니지 못할 경우 시립미술관의 존재감이 약화될 수 있음
- 건립추진계획 수립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가 실행되지 않을 시 전문적인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 미술 관련 전문 인력들이 인천광역시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전문 인력들은 서울시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음

(2) SWOT 분석에 따른 대응 전략



[그림 III-20] SWOT 분석에 따른 대응 전략

■ 강점 극대화 전략

- 지역 미술문화의 전진기지로서, 인천지역의 지역성을 담보한 근현대미술을 연구·수집·보존·전시함과 동시에 국제 교류를 통해 경쟁력을 보유한 미술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함에 따라 강점을 극대화함

■ 약점 극복 전략

- 인천지역의 미술 연구 및 기획 역량 강화와 전시 특성화 방안으로, 지역작가들의 작품을 수장하고 전시하는 단편적인 성격을 넘어서는 특화 전략을 수립하여 약점을 극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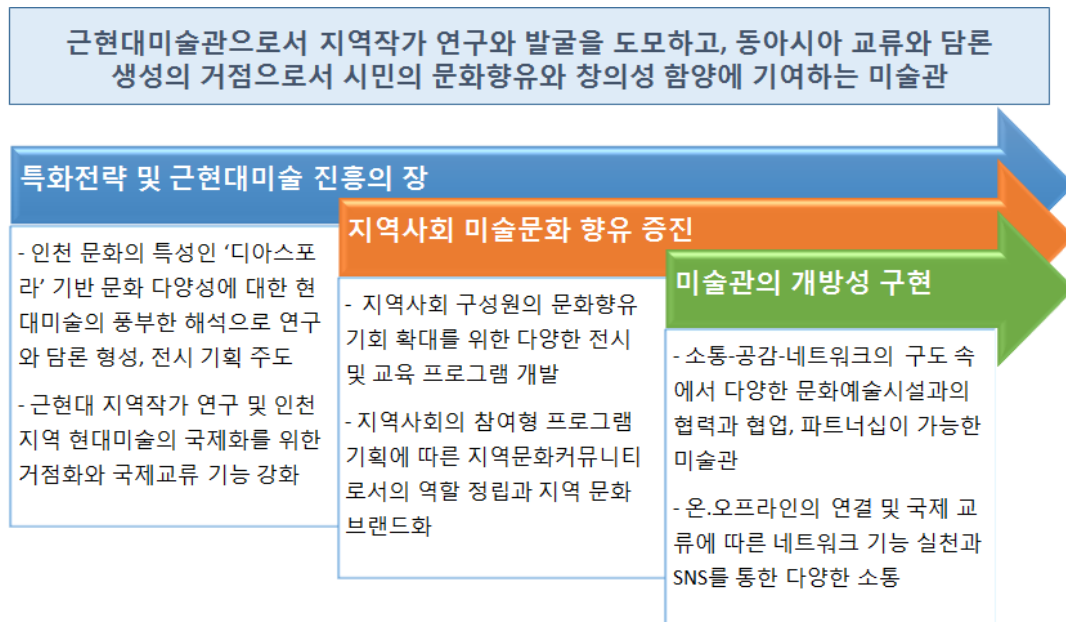
■ 약점 보완 전략

- 시립미술관의 특화성격 마련 및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미술관 인지도와 브랜드를 강화함으로써 약점을 보완함

■ 약점 최소화 전략

- 서울과 인접한데서 비롯될 수 있는 한계와 공간의 협소함을 개선하기 위해, ‘인터로컬’과 ‘헤드쿼터’로서의 미술관의 차별화된 역할을 부여하고, 미술관의 조직체계 및 운영 시스템을 정립함으로써 약점을 최소화함

5) 성격 및 방향



[그림 III-21] 시립미술관의 성격과 방향

■ 문화다양성, 다문화의 가치 확산

- 인천광역시 제물포 개항 이후 국내외로부터 다양한 문화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사회를 이루어온 역사를 지니고 있음
- 대한민국의 관문도시이자, 국제교류의 중심지로서 항만과 국제공항을 보유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니고 있어 사람들의 유입이 잦고, 문화의 충돌과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
- 이를 통해 인천광역시의 시립미술관은 ‘다문화’, ‘문화다양성’이라는 특화전략을 바탕으로 ‘디아스포라’와 관련한 주제를 다루는 전략을 모색하여 타 미술관과 차별화되는 특징을 마련할 수 있음
- 인천광역시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지역의 근현대·동시대 미술이 국제 미술담론 속에서 이해 가능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음

■ 인천광역시 근현대미술 진흥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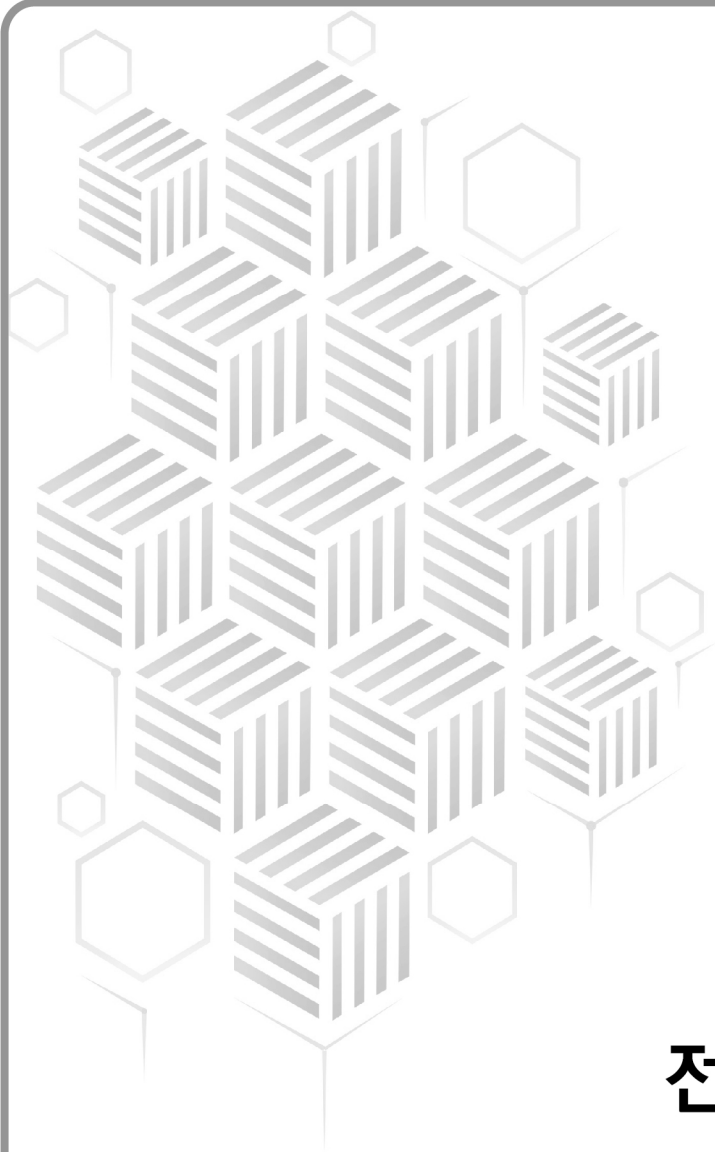
- 특정시대에 편중되지 않고, 인천지역의 근현대미술에 대한 조사·수집·연구를 바탕으로 인천지역미술 진흥의 거점 역할을 모색함
- 인천광역시의 근현대미술을 세계화하고, 이를 위한 국제교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지역 내 소재하는 다양한 미술 인프라 간 매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의 미술자원 전체가 활발한 활동을 주도하도록 함

■ 지역사회 미술문화 향유 증진

-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고 인천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
- 다양한 형태의 기획전시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관람객 개발에 기여하도록 함
-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지역문화 커뮤니티 형성하고, 이에 관한 시립미술관의 역할을 정립함으로써 지역 문화 브랜드화의 선도 역할을 수행함

■ 미술관의 개방성 구현

- 소통·공감·네트워크의 구도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시립미술관이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지역 내 미술관, 인천아트플랫폼, 갤러리, 대안공간, 신생공간, 박물관, 공연장, 학교, 시민 단체와의 네트워크(협업과 파트너십 구현)를 통해 지역 자원의 상생방안을 모색함
-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고 국제 교류에 따른 네트워크 기능을 실천함
- SNS를 통한 다양한 소통 방식 개발과 프로그램에 적용함으로써, 시민들과 지속적이고 밀접한 네트워크를 형성함



IV

전시 콘텐츠 개발 방향 및 계획

1. 전시 콘텐츠의 성격 및 특성화
2. 기획전의 주제 개발과 운영방안
3. 상설 및 특별전 운영방안
4. 소장품 정책 및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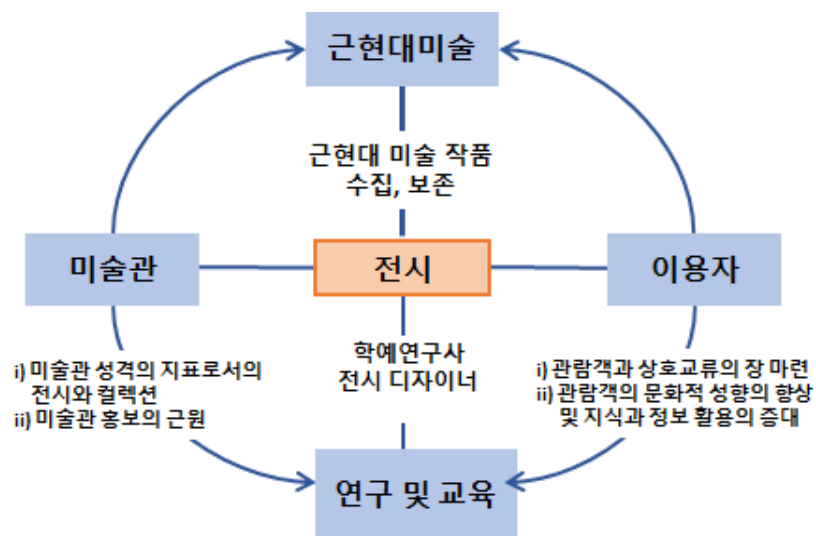
IV

전시 콘텐츠 개발 방향 및 계획

1. 전시 콘텐츠의 성격 및 특성화

1) 시립미술관의 전시 개념 및 성격

(1) 전시의 역할과 기능



[그림 IV-1] 전시의 역할과 기능

■ 미술관의 기능

- 근현대미술 작품을 수집, 보존, 연구하고 대중에게 전시활동을 통해 사회와 문화발전에 봉사하며, 이를 공개함으로써 연구와 교육에 이바지 함
- 근현대미술에 대한 다각적 학문 연구와 해석을 통해 전시의 의미를 드러냄
- 현대미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이 됨
- 미술관은 전시·교육 및 다양한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지역문화 형성에 기여함
- 미술관 활동을 통해 이용자 스스로가 문화적 의미를 흡수하고 생산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수용자 중심 문화형성에 기여함

■ 전시의 의미와 역할

- 미술관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소장품의 내용에 있으며, 또 소장품을 매개로 기획되는 전시회의 성격과 방향에 달려있음
- 무엇보다도 전시는 미술관의 성격에 맞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일관성 있고 통일감 있는 전시는 미술관의 정체성을 대변하고 소장품 수집정책의 방향에도 반영됨
- 전시의 목표는 단순 진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관계, 새로운 해석을 창출해내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데 있음
- 전시를 통해 미술관 소장품 운영 능력과 전시기획 능력, 미술관의 경영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미술관에 대한 문화적 신뢰도를 높이며, 이를 통해 기증자, 후원인(기관), 관람객들에게 신뢰성을 구축할 수 있음

■ 전시의 일반적인 유형

- 전시의 일반적인 유형은 크게 전시기간에 의한 분류, 전시주제에 의한 분류, 자료의 배치법에 의한 분류, 전시기법에 의한 분류 4가지임
- 전시기간에 대한 분류는 상설전시와 단기 기획전시로 나뉘며, 단기 기획전시는 다시 특별전시, 기획전시, 신소장품을 소개하는 전시 등으로 나뉨

2) 시립미술관 전시 프로그램의 기본방향과 성격

(1) 시립미술관 전시 프로그램 기획 원칙

- 인천지역 미술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인천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시
- 인천지역 근현대미술의 역사적 흐름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지역미술 활성화에 영향 끼친 작가들을 조명하는 전시
- 인천지역 작가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바탕으로 조명 받지 못한 지역작가들을 새롭게 재조명하는 전시
- 지역 작가와 국내외 작가들 또는 주요기관들과의 교류를 통해 이루어진 전시

(2) 시립미술관 전시 프로그램 기본계획

- 인천시청은 ‘동시대(同時代) 예술의 통합과 확장’을 주제로 하여, 전시프로그램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전통 및 근대 미술의 현대로의 계승방식 고찰과 인천 지역미술의 세계미술과의 공존 방식 제시, 전시 주제를 통한 시립미술관 정체성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표IV-1)

- ‘동시대 예술의 통합’이라는 주제로 <전통과 지역>, <동시대미술>, <기술과 미래>, <확장과 융합>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세부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음
- 시립미술관의 관장과 학예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전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마련 시 운영주체의 실질적인 전시 기획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음
- ‘기술과 예술이 접목되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지 보여주는 전시’의 경우 기술이 예술에 우위를 점하는, 다시 말해 기술 중심의 창작물에 대한 전시는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음

[표 IV-1] 인천시청의 ‘시립미술관 전시구성’ 기본계획

I 전시주제 : 동시대(同時代) 예술의 통합과 확장		
• 전통 및 근대 미술의 현대로의 계승방식 고찰 • 인천 지역미술의 세계미술과의 공존 방식 제시 • 전시 주제를 통한 시립미술관 정체성 구현		
I 전시구성(안)		
주 제	내 용	세부 프로그램
전통과 지역	현대에 전통 예술과 지역 예술이 어떻게 계승되고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전시	인천의 대가전
		전통예술 - 전통의 계승
		인천 아티스트
동시대 미술	인천 시립미술관의 메인 테마라고 할 수 있는 현대 미술에 대한 국내·외 작가와 작품이 중심이 되는 전시	동시대 미술의 리더
		컨템포러리아트의 최전선
		시립미술관 올해의 작가전
		내일의 거장전
		해외작가전
기술과 미래	기술이 예술과 접목되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에 대한 전시	미디어아트-생성의 예술
		미디어아트 영상 아케이드
		미디어파사드 상연
		산업유산 미디어아트 환경조형물
확장과 융합	과거 고정되어 있던 장르 간 경계를 현대미술이 어떠한 방법으로 넘나드는지를 보여주며 예술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전시	다원예술-경계를 넘어서
		필름앤 비디오
		인천-서해안 평화도시
		공간작가전
		우리시대의 디자인과 디자이너전
		인천 파빌리온 설치 야외전시
		인천 정원 박람회

(3) 전시 프로그램 종류

[표 IV-2] 전시유형에 따른 전시내역과 개최시기

전시유형	전시 내역		평균개최시기
상설전	1안) 전시공간이 충분치 않은 관계로 초기에는 보류. 추후 유수의 소장품 기증이 주어질 경우 독립공간을 고려함 2안) 야외 공간 설치작품 및 실내 대형 설치작품의 상설 전시		상설전 교체시기는 연단위로
기획전	주제 기획전	시립미술관의 성격과 관련한 주제 및 담론 개발을 위한 기획에 따른 전시(국내 및 국제 단위 기획전)	연 3회 내외
	개인전	중견작가 이상의 국내외 대표적 작가에 대한 집중 조명	연 3회 내외
	야외 예술공원 연계전	미술관 야외 예술공원은 소통을 주제로 한 다양한 형태의 전시	연 2회 내외
	지역 기반 형성	지역작가 및 국내외 작가 대상의 주제적 접근을 통한 전시	연 2회 내외
순회 및 교류전	국내외 관련 미술관 주요 전시 순회 및 교류 및 연계전 개최		연 1회 내외
인천아트플랫폼 연계전	- 인천아트플랫폼 입주 작가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기획 전시로 연계 - 커뮤니티 아트 및 퍼블릭 아트 등 프로젝트 개발에 따른 기획전으로 연계		연 1회 내외
온라인 전시	기획전의 온라인 연계	오프라인 전시를 온라인으로 전환, 정보 제공 및 관람 동기 부여	상시
	온라인 기획전	온라인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형태의 전시, 소통 및 참여 증진의 계기 제공	연 2회 내외

① 상설전시

- 현재 시립미술관은 전시시설의 규모는 4,430㎡로 전시공간이 충분치 않은 상태이고 수장고 역시 적은 비율에 해당함. 이에 따라 초기에는 상설전을 보류하되, 추후 유수의 소장품 기증이 주어질 경우 독립 공간을 배치하는 것을 고려함
- 하지만 야외 공간을 활용한 설치작품 및 실내 대형 설치작품을 소장품으로 구입할 경우 이를 상설 전시하는 것은 가능함

② 기획전시

■ 주제 기획전

- 시립미술관의 성격과 관련한 주제 및 담론 개발을 위한 기획에 따른 전시로서 국내 및 국제단위 기획전이 모두 가능함
-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할 경우, 문화다양성 시대에 차이와 소통과 이해의 의미 및 현대 사회 속 예술의 역할 등의 주제적 접근을 통해 장르적 한정을 넘어서도록 함
- 소통의 대상이나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연관성을 찾게 될 경우, 회화나 조각과 같은 전통 장르만이 아니라 판화, 사진, 영상, 미디어아트 등 기술복제 예술도 포함될 수 있음
- 국제적인 현대미술 담론의 흐름을 파악하여 이를 한국적 상황과 비교하면서 주제 기획이 가능함

■ 개인전

- 최근 들어 신진작가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면서 오히려 중견작가군이 작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개인전은 중견작가 이상의 국내외 대표적 작가를 집중 조명함
- 특별히 지역작가를 대상으로 할 경우 시립미술관은 인천광역시의 근현대미술에 대한 지속적인 지역작가 연구를 토대로 지역작가전을 기획하도록 함

■ 야외 예술공원 전

- 야외 예술공원의 전시회는 시립미술관의 전시 활동이 미술관 내부로만 한정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며, 다양한 공공 공간을 기획 대상으로 함으로써 미술관의 역동적 존재감을 부각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미술관 야외 예술공원 및 인천 시내와 연계하여 소통을 주제로 다양한 형태의 전시를 개최함

■ 지역기반 형성

- 지역작가를 중심으로 주제별 접근을 주도하여 지역작가의 역량을 개발하고 작가적 면모를 드러내는 기회로 적용함. 단, 주제에 따라 지역 외 국내작가의 초대도 가능함
-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인천시립박물관의 유물과 미술의 연합전시도 가능함
- 인천이 가진 특성들을 조사하여 역사, 사건, 인물 등과 같은 콘텐츠 개발 및 연구조사가 필요함
- 인천지역 타 미술관들과 하나의 주제를 놓고 다양한 관점을 연출하는 연계 전시를 개발함

③ 순회 및 교류 전

- 국내외 관련기관(연구기관, 미술관)과 연계하여 기획전, 상설전을 개최함(순회)
- 타 지역 해외에서 활동 중인 인천기반 작가들의 작품을 보유한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컬렉션 교환이나 대여를 염두에 둔 전시기획, 지역에 대한 순회전 등을 고려한 전시기획이 가능함
- 인천지역 근현대 작품 및 작가를 외국에 프로모션 하는 전시 방법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수립함
- 인천지역의 미술관, 박물관 및 다양한 문화행사와 국제적 행사를 연계한 특별전시를 개발 및 주요 전시 순회 및 교류를 활성화시킴

④ 인천아트플랫폼과의 연계 프로그램

- 인천아트플랫폼 입주 작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 기획전을 개최함
- 미술관 기획자와 스튜디오 작가와의 공동 작업을 미술관 기획 전시로 연결시킴
- 미술관 기획자와 입주 작가들,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커뮤니티 아트, 퍼블릭 아트 프로젝트를 영상작업으로 편집해 미술관에서 전시함
- 타 창작스튜디오와의 연계프로그램을 통해 초청 기획전을 미술관에서 개최함
- 미술관 전시 공간을 이용하여 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들의 작업과정을 담은 영상을 주기적으로 상영함
- 인천아트플랫폼과 시립미술관 주최의 시상식을 통해 작가에 대한 지원 및 미술관 내 전시 기회를 제공함

⑤ 온라인 전시 구축 및 실행

- 시립미술관의 주요 성격 및 특성에 개념에 준하여 유튜브나 블로그 등 SNS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주도하는 다양한 형태의 전시를 기획
-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공동의 문제를 주제전 형식의 온라인 전시로 기획하여 국제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소통으로 유도함
- 시립미술관 자체적으로 온라인 전시 시스템의 구축이 어려울 경우 Google Art & Culture(GAC)와 제휴하여 온라인 전시를 선보일 수 있음. 해당 내용은 본 보고서 185 페이지에 상세 기술되어있음

3) 시립미술관 전시 운영방안

[표 IV-3] 전시프로그램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추진과제	세부사업
다양한 전시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기획 전시 전략적 유형화
	국제전시 기획력 강화 및 교류 및 순회전시 활성화
	전시기법 개발 및 소통체계 구축
전시기획력 강화방안	중장기 전시기획 시스템 구축
	전시 담론의 활성화
	전시평가체계 구축
	전시기획 연구기능 강화
작가 개발 및 관리 체계 마련	신진작가 육성을 위한 전시기획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
	기성작가 활동지원 및 국제적 역량을 갖춘 작가 개발을 위한 기획전시 체계화

(1) 다양한 전시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 기획 전시의 전략적 유형화

- 시립미술관의 미션과 비전에 걸맞은 기획의 방향 설정과 이에 따른 3-4개의 전시 주제별 유형화 수립
- 인천 지역의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주제적 접근
- 지역작가들을 국내외적으로 프로모션 하는 전시 방식으로 개발 및 전략 수립을 목표로 하는 기획전의 유형화 가능

■ 전시기법 개발 및 소통체계 구축

- 해외 주요 미술관들의 차별화, 특성화된 전시기법 사례를 조사연구함
- 다채로운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로 다양한 관람객 층을 확보함
- 다양한 관람객 층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전시 설명 프로그램으로 구성함
- 관람객의 연령, 계층에 따른 다채로운 맞춤형 전시 연계프로그램 개발로 전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킴

(2) 전시기획력 강화방안

■ 중장기 전시기획 시스템 구축

- 전시 운영체제, 인력 운용, 정례전시 운용, 전시 교류, 국제 네트워크, 전시 마케팅에 대한 개선안을 포함 한 중장기 전시 마스터플랜 수립과 전시교류사업 계획을 수립함
- 국내외 근현대미술, 전시개발 운영, 미술자료 수집 등 전시를 위한 집중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함
- 관람객 분석을 통한 맞춤형 전시 설명 프로그램 개발과 관람객의 동기유발을 위한 효과적인 소통과 학습 효과를 고려한 전시를 기획함
- 전시 전문 디자이너 확충을 통한 전시 연출 및 기법의 전문화로 전시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함
- 전시 내용의 특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을 지원하고 그에 맞는 소장품을 확보함

■ 전시기획 연구기능 강화

- 전시 주제 및 작가 발굴, 전시 연출기법 개발 관련 연구를 통해 전체적인 전시 기획 체제를 개편함
- 중장기 전시 기획 수립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기획전 및 상설전 유형화에 따른 주제별 집중 연구 및 전시 운영체제(전시 횟수, 전시 개최 기간 등) 개선을 실행함
- 학예 인력 별 현대미술 관련 장르별, 주제별 전문 분야의 배치와 이에 따른 집중 연구 환경을 조성함
- 전시 기획 연구 기능 강화에 따라 소장품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연구가 연계하도록 함으로써 연구 기능의 유기적 연계를 실행함
- 전시 기획 역량 향상과 이에 따른 담론 형성을 목표로 다양한 지적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활용함
- 전시팀 소속 전시 관련 온오프라인상의 종합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시스템을 활성화시킴

■ 전시 담론의 활성화

- 전시를 계기로 비평적 담론이 활성화되도록 언론 홍보 및 학술행사 등 다양한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함
- 전시 기획단계에서 비평가나 큐레이터, 작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의 특정주제연구와 개발을 시도함
- 전시 기간 중 담론 형성을 위한 전문가와 관련분야 종사자들 간의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구축함

- 대중의 전시이해 촉진과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 및 체험 효과 제고를 위한 큐레이터, 작가와 대중 간의 자유로운 형식의 토론회, 강연회, 작가 설명회, 학술 세미나 등을 마련함

■ 전시평가체계 구축

- 전시기획력에 중점을 둔 평가지표 개발을 통해 평가체계를 수립함
- 전시평가를 위한 내·외부 평가단을 구성하고 운영함
-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한 전시평가제도 운영(정량/정성평가 병행)하고 지속적인 평가 시스템 개발을 통해 관람객 전시 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 환류체제를 구축함

(3) 작가 개발 및 관리 체계 마련

■ 신진작가 육성을 위한 전시기획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

- 해외 우수 미술관들의 작가 발굴 및 육성 사례를 조사연구함
- 전시개최 외에 신진 작가 발굴, 육성 및 관리를 위한 독립된 사업개발로 집중적 작가 개발 체계를 마련함
- 발굴 신진 작가 및 지역작가의 포트폴리오 소개와 토론을 위한 미술 관련 전문 인사 초청 행사를 정례화시킴
- 작가소개를 위한 동영상등과 같은 작가별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해외 주요 미술기관에 배포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함
- 작가들이 참여, 관리하는 자체 프로그램이나 네트워크를 겨냥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 관련 특성화 전략이 필요함

■ 기성작가 활동지원 및 국제적 역량을 갖춘 작가 개발을 위한 기획전시 체계화

- 근현대 미술에 있어 저평가 되었거나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작가 발굴하여 예술적 업적을 재조명함
- 매년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통해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인천기반 작가를 선정하여 전시를 개최함
- 국내 근현대미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발된 작가 전시회를 개최하여 작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계를 구축함

2. 기획전의 주제 개발과 운영방안

기본계획	기획전시			
	(인천 근·현대미술사) 인천지역 근·현대미술의 역사적 흐름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전시 (인천 지역작가 발굴) 인천지역 미술의 활성화에 영향을 끼친 작가들을 조명하는 전시 (동아시아 현대미술) 동아시아 미술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동아시아지역의 현대미술 담론 발굴			
구성별	주제전	개인전	야외공간 연계전	
	- 동시대 인천의 미술 특징 연구 - 동아시아 현대미술의 담론 연구 - 디아스포라 관련 특화전시 기획	- 인천 출신 및 연구 작가 연구조사 - 작고작가 또는 중견작가의 재조명 - 해외 주목 신진작가 국제화 지원	- 미술관 존재감 강화 및 관람객의 다양한 전시경험 마련 - 설치미술 중심의 전시	
주제별	지역성	지역작가	국제미술	소장품 활용
	- 디아스포라 - 문화다양성 - 인천 근대산업문화 - 인천의 역사적 사건 - 남북교류 및 평화 - 학교 연계 전시 기획 - 커뮤니티 아트 전시 - 지역주민 기획 참여	- 신진 작가 지원 - 기성작가 재조명 - 인천근현대미술 연구 - 인천소집단미술운동 - 현대미술 담론 발굴 - 창작활동 동기 부여 - 지역작가 역량 강화 - 학교 연계 작가 발굴	- 국제 현대미술담론 - 동아시아 현대미술 - 동아시아 교류전시 - 포스트콜로니얼리즘 - 페미니즘 - 기후변화 - 포스트휴머니즘	- 국내 미술사적 가치 있는 작품 선별 - 인천 지역성을 지닌 작품 선별 - 순회, 대여, 온라인 등 소장품 매개 전시
	인천의 지역성을 반영하고, 동아시아의 문화교류를 촉진하는 기획전시			

인천의 지역성을 반영하고, 동아시아의 문화교류를 촉진하는 기획전시

[그림 IV-2] 기획전시 주요 특징

1) 기획전시의 기본계획

- 인천지역 근현대미술의 역사적 흐름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전시
- 시민과의 다양한 공감대 형성과 다수의 지역작가들이 활동 계기를 모색 할 수 있는 특정 장르에 치우치지 않는 전시
- 인천의 지역적 특성(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이 다양한 예술적 표현물에 의해 잘 드러낼 수 있는 전시
- 인천지역미술의 활성화에 영향을 끼친 작가들을 조명하는 전시
- 인천지역의 중견 및 신진작가에 관한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조명 받지 못한 지역작가들을 새롭게 재조명하는 전시
- 인천지역 및 국내·외 작가들 또는 주요 관련기관들과의 교류를 통해 이루어진 전시
- 동아시아 미술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동아시아지역의 새로운 예술적 경향을 탐구하고 현대 미술담론을 발굴 및 연구하여 인천시민들과 공유하는 소통하는 전시

2) 구성별 기획전시 운영방안

■ 주제전

- 시립미술관의 특성을 드러내고 대표성을 가진 정기적인 기획전시가 필요하며, 기획의 방향 설정에 따라 2-3개의 전시 주제별 유형화 수립이 필요함
- ‘동시대성’에 초점을 맞춘 ‘오늘날 인천을 중심’으로 한 주제로 현대미술의 국제적 동향에 따른 다양한 주제 발굴이 필요함
- ‘식민과 분단에서 비롯된 디아스포라의 삶과 정체성의 문제’ 등 과 같이 인천의 지역성에 대해 담론 제시가 가능하고 특화된 주제의 기획전이 가능함
- 그 외 동아시아지역 현대미술담론의 흐름을 파악하여 이를 인천지역의 상황과 비교하는 주제전시 기획이 가능하며, 지역성을 드러내는 특정 장소나 주요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 발굴(커뮤니티 아트, 퍼블릭 아트, 동아시아 지역 미술 등)이 제시될 수 있음

■ 개인전

- 작고작가이거나 중견작가의 경우는 새롭게 재조명하고, 해외에서 주목받기 시작하거나 가능성 있는 신진작가의 경우는 국제적인 작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마련에 중점을 둔 전시를 기획함
- 정기적인 지역작가 개인전을 통해 인천지역 작가들의 작품세계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연구조사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여 인천지역미술이 발전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

■ 야외공간 연계전

- 시립미술관의 다양한 전시활동이 미술관 내부의 물리적 공간 안으로만 국한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야외의 공공공간을 기획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미술관의 역동적 존재감과 관람객의 다양한 전시경험을 부각시킴
- 나아가, 미술관 야외 공간 및 인천 시내의 역사성이 있는 여러 공공시설물이나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제로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가능한 여러 형태의 전시를 개최함
- 공모전 형식을 가진 정기전시 형태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실내 공간에는 전시 중심의 작품 제작 및 드로잉과정을 위주로 전시하고, 야외에는 해당 설치미술 전시로 관람객에게 다양하고 깊이 있는 미술양식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3) 주제별 기획전시 운영방안

(1) 지역성 기반 기획전

■ 기본방향

- 인천지역의 미술사 연구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기록과 자료를 발굴하는 전시지역성은 지역의 정체성에 대한 성찰의 결과로서, 과거와 현재, 미래적 전망 속에서 접근함에 따라 특수성에 매몰되지 않고 보편성을 동시에 갖게 되는 구조라 할 수 있음
- 그런 점에서 지역성의 동시대적 측면이 중시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결국 지역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어, 잠정적으로 이주와 교류, 새로운 정체성 등의 이슈를 포함하는 디아스포라의 관점을 통해 특화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함
- 이러한 관점은 가능한 주제적 영역인 인천의 역사와 문화, 사회적 이슈, 남북 및 평화 전반에 적용 가능하며, 직접적인 디아스포라의 주제 외에 문화다양성, 근대산업 문화의 해석, 인천 역사의 결합 등이 해당됨
- 다른 한편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한 다양한 기획도 포함되며, 학교 연계전시기획을 비롯, 커뮤니티 아트 전시와 지역주민 참여 전시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관련 예시

- 인천지역 미술운동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
- 인천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근현대미술전시

- 기본적으로 지역성을 반영하는 전시는 인천지역의 미술운동의 흐름과 지역성을 기반한 주제로 기획이 가능함
- 전시 콘텐츠 개발을 위해 인천이 가진 특성들(지역적, 지리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을 연구 및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예술적 해석을 통해 전시주제를 세분화함

- 근대성과 산업에 초점을 맞춘 전시
- 디아스포라와 관련된 기존의 여러 유사 전시 사례들을 모아, 이를 재해석하는 전시
- 인천시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예술적으로 재해석을 시도한 전시
- 지역의 관련행사나 단위별 지역의 이름 또는 명소를 주제로 한 기획전시

-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주변 관련 기관들과의 소장품 연합전시도 가능함
- 인천지역의 타 문화예술 관련 기관들과 하나의 주제를 놓고 각 기관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작품들과 다양한 관점들이 연출되는 연계전시를 개발함
- 인천의 지역성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지역민들이 참여한 프로그램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전시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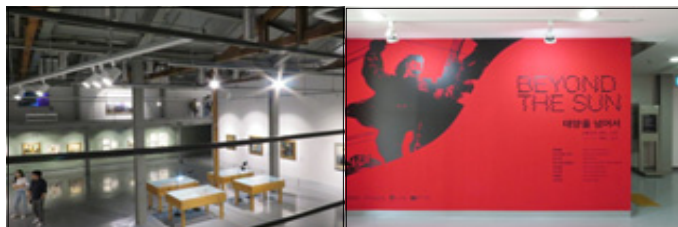
- 인천지역의 학교들과 연계해서 학생들의 참여에 의해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전시기획
- 지역주민이 참여한 커뮤니티 아트나 퍼블릭 아트 프로젝트를 영상작업을 편집해 미술관 관내 유휴공간에 설치 전시함
- 지역민이 직접 기획하는 전시

- 공모전 형식으로 인천지역민들을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전시기획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민이 직접 인천의 이야기를 전시로 기획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 인천시민들을 대상으로 기획자 양성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정기간 수련과정을 마친 후 전시를 직접 기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하나의 주제아래 지역주민과 예술가가 함께 참여하는 커뮤니티 아트 기획으로 다양한 관점들과 생각들이 모여 다채로운 표현 속에서 하나의 통합된 결과물이 드러날 수 있는 전시

관련 전시 사례

인천아트플랫폼: 인천지역의 역사적 배경을 담은 '인천 포커스' 시리즈 일환으로 제7회 디아스포라 영화제와 함께 기획한 《태양을 넘어서》(2019). 인간에 대한 존엄을 바탕으로 국가와 이념을 뛰어넘는 디아스포라와의 공감, 공행, 공존을 향한 글로벌 가치와 이념을 부각. 디아스포라를 둘러싼 다층적 의미 안에서 폭넓은 스펙트럼의 미학적 사유 방식을 제안함



관련 전시 사례

〈코리안 디아스포라, 이산을 넘어〉



기간	2018년 9월 20일 ~ 11월 25일
장소	경기도미술관 기획전시실
주최/주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
후원	경기관광공사, 한국이민사박물관, (주)삼화페인트, 아트인컬처, 네오룩
전시작품	회화 및 영상 114점, 전시관련 도서 및 영상자료 등

2018년 경기도미술관은 ‘경기(京畿)’라는 이름이 정해진지 1천년이 된 것을 기념하여,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미술관이 주최/주관하는 전시로 특별기획전 《코리안 디아스포라, 이산을 넘어 Korean Diaspora - Beyond Dispersion》를 개최하였다. 이 특별전에는 중국·일본·러시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아시아 지역 5개국에 거주하는 재외한인 동포 작가 25인이 참여하였다.

‘코리안 디아스포라(Korean Diaspora)’는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모국을 떠나 세계 여러 지역으로 이주하여 살아가는 한민족 ‘이산(離散)’을 의미한다. 19세기 중엽부터 만주와 연해주로 떠나면서 시작한 재외한인의 이산으로 전 세계 재외동포사회는 오늘날 743만 명 규모로 성장하였다. 한민족은 조선 말기에는 하와이와 멕시코에 사탕수수 노동자로, 일제 강점기에는 만주와 일본에 농민·노동자·징용군으로, 1960년대에 이후 근대화 시기에는 중남미·북미·유럽·호주 등지에 노동자·이민자·유학생으로 퍼져나갔다. 오늘날 이들과 그 후손은 초기 정착의 역경을 극복하고 현지 사회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고 있다. 이 전시는 이러한 한국인의 이산의 역사를 기억하고,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찾는 작품, 그리고 또 다른 고향에 적응하고 정착하며 그린 그림들, 거주 국가는 달라도 조국의 분단을 아파하고 통일을 바라는 작품을 보면 하나로 연결된 한민족의 정서를 공감하게 된다.



출처 : 경기도미술관 웹사이트

(2) 지역작가 발굴 기획전

■ 기본방향

- 인천시립미술관의 미션 가운데 하나가 지역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인천현대미술의 경쟁력을 키워가는 데 있다고 한다면, 기획전시를 위한 지역작가 발굴은 전략적일 필요가 있음
- 기본적으로 지역작가 발굴의 목표는 '기획에 의한 발굴과 재조명, 연계'로 두고, 단순한 작가 발굴과 재조명에 두지 않고, 기획의 관점에서 발굴 방식을 고안하고, 추후 네트워킹을 통한 연계와 확장에 집중함
- 대상 작가는 신진작가와 중진작가, 소집단, 작고작가와 미술사적 가치를 둔 작가로 한정하며, 이들에 대한 담론 생산과 이론적 평가를 통한 작가 역량 강화에 기여함. 또한 가능한 선에서 국제교류 등의 연계 지원을 강구함
- 작가 발굴의 범위는 다양한 주제적 측면을 다루는 작가를 비롯하여, 새로운 유형의 시각 예술 활동을 실험하고 시도하는 작가를 포괄하여, 예술의 창의적 혁신과 사회적 가치를 드러내며 확산하는 작가를 포함하도록 함

■ 관련 예시

- 인천지역에서 한국현대미술에 있어서 떠오르는 젊은 작가들의 발굴과 함께 동시대 새로운 예술 경향을 탐구하고 담론화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기획전시
- 신진작가들에게 창작활동의 동기부여를 제시하고 그들의 시각을 통해 동시대 다양한 사회문화적 현상을 조망해본다는 취지의 전시
- 지역작가를 중심으로 주제별 접근을 주도하여 지역작가의 역량을 개발하고 작가적 면모를 드러내는 기회로 적용함.
- 작가의 시각과 접근법으로 인천의 특성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이야기하는 전시
- 인천지역의 기성작가 및 국제적 역량을 갖춘 작가들 개발을 위한 기획전시
- 인천지역의 예술학교들과 연계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획한 전시로, 그들이 갖춘 역량과 재능을 발굴하는 전시기획

관련 전시 사례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



기간	2018년 10월 26일 ~ 2019년 2월 17일
장소	부산시립미술관 3층
주최/주관	부산시립미술관
후원	부산시립미술관
전시작품	부산 활동 35세 이하 작가 4인의 작품 (28점)

부산시립미술관은 젊은 작가를 발굴, 지원하고 이들의 활동경향과 문화맥락을 짚어보는 전시로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본 전시는 개관 이래 지속적으로 개최되어왔으며, 매년 개최해오던 것을 2007년부터 격년제로 전환하여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한다. 작가로서의 성장기에 도약의 중요한 발판이 되는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은 주제중심의 기획전이 아니라 작가를 조명하는 작가중심 전시로 젊은 작가들의 현재를 보고 그 미래를 가늠하는, 그리고 앞으로의 작가생활을 설계하는 시간을 제공한다.

출처 : 부산시립미술관 웹사이트

관련 전시 사례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2019'〉

- 홍영인, 박혜수, 이주요, 김아영이 후보로 선정, 각자 신작을 전시하고 이를 통해 최종 작가 선발하는 방식임
- 이들 작가들은 한국 사회에 내재된 개인과 사회에 관한 이슈 또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접근
- 전시는 참여 작가들이 전시장 안에서 퍼포먼스, 토론, 설문, 공연, 온라인 중계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
- 최종 수상 작가는 1,000만원 지원, 작품세계를 조망하는 현대미술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어 SBS 지상파와 케이블 채널을 통해 방영될 예정



(3) 국제미술 기반 기획전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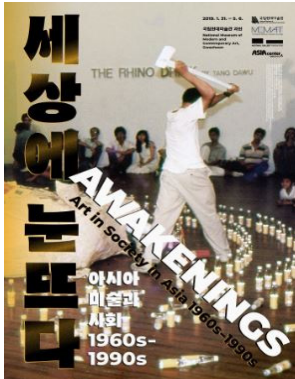
- 국제미술 담론을 기반으로 한 기획전은 기본적으로 국제교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내용적으로는 인천의 지역성이 글로벌한 차원에서 만나는 계기라 할 수 있음
- 인천시립미술관의 특화전략을 주제로서의 디아스포라와 그것의 내재된 개념을 동시대적 구도에서 다양하게 해석한다면, 국제미술 담론과 연결이 어렵지 않게 연결 가능함
- 기본적으로 국제교류의 지리적 범위를 동아시아, 환태평양권에서 시작하되, 주제적 연관성(포스트콜로니얼리즘, 페미니즘, 기후변화, 포스트휴머니즘 등)을 고려하여 전지구적으로 확대하도록 함
- 이를 위해서는 시립미술관 자체에서 국제미술 담론의 흐름을 인지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획역량을 갖추도록 하며, 전시회는 자체 기획을 비롯하여 교류전의 형식을 취할 수 있음

■ 관련 예시

- 동시대 국제적인 현대미술담론의 흐름과 주요 이슈를 파악하여, 이를 인천지역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주제 기획전시
- 동아시아의 각 국가별 지역성을 담아내고 국가 간의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 및 공통점을 잘 드러내는 전시
- 동아시아작가들 간의 교류전시를 통하여 국가 간의 독특한 예술적 시각과 표현의 다양성을 담아내는 전시
- 전 세계의 정치, 사회적 이슈에 있어서 공통적 쟁점을 다루고, 시대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예술가들의 시각과 태도를 보여주고 예술과 예술가의 역할이 제시될 수 있는 전시

관련 전시 사례

〈세상에 눈뜨다 : 아시아 미술과 사회〉



기간	2019년 1월 31일 ~ 2019년 5월 6일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주최/주관	국립현대미술관, 도쿄국립근대미술관, 국립싱가포르미술관, 일본국제교류기금아시아센터
후원	국립현대미술관, 도쿄국립근대미술관, 국립싱가포르미술관, 일본국제교류기금아시아센터
전시작품	아시아 13개국의 주요 작가 작품 170여점

〈세상에 눈뜨다 : 아시아 미술과 사회 1960s-1990s〉전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30여 년 동안 아시아 각국에서 진행된 사회·정치·문화적인 변화와 이에 따른 아시아 현대미술의 다양한 면모를 조명하는 국제 기획전이다. 국립현대미술관, 도쿄국립근대미술관, 싱가포르국립미술관, 일본국제교류기금아시아센터의 공동주최로, 4년 여간의 조사 연구 바탕으로 기획되었다.

한국, 일본, 중국,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 미얀마, 캄보디아 등 아시아 13개국의 주요 작가 100여명의 작품 170여점이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국가적 경계를 넘어선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아시아 아방가르드 미술의 역동적인 면모를 소개한다.

출처 : 국립현대미술관 웹사이트

관련 전시 사례

〈FUKUOKA ASIAN ART TRIENN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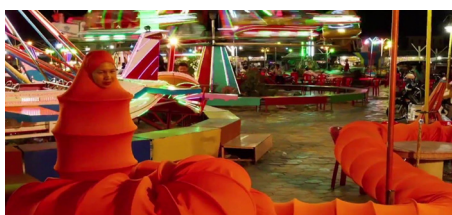
1980년 후쿠오카미술관에서 5년 주기로 시작하였으며, 1999년 후쿠오카 아시아미술관이 개관하면서 3년 주기로 전환함. 매회 다양한 주제로 기획, 아시아적 시각으로 현대미술을 조망함과 동시에 아시아 지역의 역사와 사회, 정치 문화를 해석하고 아시아 작가 발굴과 작품 소장의 의미를 실천



〈THE ASIA PACIFIC TRIENNIAL OF CONTEMPORARY ART〉

1993년 호주 브리즈번(Brisbane)의 퀸즈랜드미술관에서 개최.

2018년 제9회에서는 환태평양 국가 80여명 작가 400여점 출품. 환태평양 아시아의 이해를 '복합성'으로 보고, 각 나라가 겪는 사회정치적 이슈 속에서 다양한 시각과 언어를 제시함을 목표로 함. 포스트콜로니얼리즘, 기후변화와 환경, 아시아적 영성, 문화 유산 등에 이르는 광범한 주제적 스펙트럼 제시



(4) 소장품 활용 기획전

■ 기본방향

- 소장품 활용 기획전은 기본적으로 소장품 구입을 미술관 성격에 맞게 하면서 조성된 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인천시립미술관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소장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라 할 수 있음
- 소장품을 단순히 수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소장품 연구에 의해 기획전으로 새롭게 재해석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함
- 소장품 활용 방식은 주제별로 나누어 기획전으로 활용하는 방식과, 여타의 기획전 주제에 맞는 경우에 한하여 소장품을 선별하여 활용하는 방식이 가능함
- 또한 소장품을 대상으로 한 상설전에 대해서도 기획을 통해 새로운 해석과 관점을 부여하는 계기를 제공함
- 새롭게 구입한 소장품을 대상 전시를 할 경우에도 일정하게 기획을 시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관련 예시

- 현재 인천문화재단이 보유중인 소장 작품(서양화 100점, 한국화 35점, 사진 22점, 조각 13점 외 총 194점) 내에서 시립미술관의 성격에 맞는 작품들을 선별하여 이를 중심으로 매체별, 주제별, 장르별, 시기별로 구분하여 기획전시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함
- 소장품의 수가 한정된 초기에는 보유된 소장품만으로는 단일전시기획에 무리가 있음. 따라서 타 기관과 연계해서 동일주제 아래 해당 소장품과 관련된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전시 중심으로 진행이 가능함
- 소장품을 매개로 다양한 전시활동(순회, 대여, 온라인, 디지털 등) 또는 소장 작품을 주제별로 선별하여 관람객의 학습동기 유발 및 이해향상을 위한 연계 프로그램 개발

관련 전시 사례

〈신소장품전 : 멀티-엑세스 4913〉



기간	2019년 4월 16일 ~ 2019년 6월 2일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주최/주관	서울시립미술관
전시작품	한국화, 회화, 드로잉&판화, 사진, 조각, 설치, 뉴미디어 등 약 10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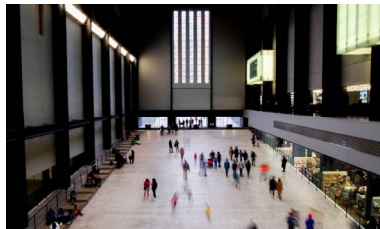
2019년 서울시립미술관의 영구소장품(permanent collection)은 4,913점이다. 1985년 최초 수집한 박생광의 〈무속〉(1985)을 시작으로 현재 미술관은 약 5,000점의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전시 《멀티-엑세스 4913》은 새로 수집한 작품과 더불어 미술관 소장품의 전체 성격을 보여주고자 한다. 역사로 인해 새로움이 생성되듯 장래 소장품 역사를 모색하고 쓰기 위해서, 과거의 반추와 전체 소장품 분석을 바탕으로 신규 소장품의 현재를 바라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출처 : 서울시립미술관 웹사이트

관련 전시 사례

〈Tate Modern 소장품전〉

1988년부터 2017년까지 영국 테이트모던미술관장을 역임한 니콜라스 세로타 경은 2000년 테이트모던을 개관하면서 상설전을 기존의 연대별, 사조별 구분이 아닌 작품의 주제별로 구성하여 소장품 기획전을 마련함. 또한 유명 석유기업 브리티시 페트롤륨(British Petroleum)의 후원을 받아 매년 기획을 바꿔 새롭게 상설전을 구성함으로써 재원 조성과 마케팅 효과도 얻어냄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 수장형 미술관〉

2018년 개관. 소장품을 수장한 상태로 관람자에게 개방하여 방대한 양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술관의 보이지 않는 기능까지 알 수 있는 확장된 개념의 미술관. 수장고 자체를 개방하는 형식과 소장품을 대상으로 기획한 전시회 병행



3. 상설 및 특별전 운영방안

1) 상설전 운영방안

- 기본적으로 한국의 시립미술관은 기획전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 상설전을 운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서울시립미술관만이 천경자 컬렉션을 운영하는 수준임
- 반면 외국의 경우, 미술사적 가치를 지닌 작품을 소장품으로 하여 미술관이 건립되는 추세여서 규모가 큰 미술관의 경우 상설전을 겸비하고 있음
- 이러한 여건 속에서 인천의 시립미술관은 상설전을 운영할 만큼 큰 규모가 아니라는 점과 소장품에서 상설전을 필요로 하는 상황도 아니라는 점에서 상설전은 추후 고려해 볼 수 있음
- 상설전을 기획할 경우, 소장품의 특수성과 미술사적 가치를 기준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일련의 기획의 방법(주제별 접근, 시기적 접근, 작가별 접근, 장르별 접근 등), 시기(3-5년 단위별 교체 등), 전시 연출 및 기법의 특성, 전시공간구성(고정 공간 혹은 가변 공간, 1개 공간 혹은 다수 공간 혹은 야외 공간 등)등을 고려함
- 미술관 성격과 미션에 걸맞도록 현재 보유중인 시립미술관 소장품 연구를 통한 상설전 기획과 운영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
- 소장품을 매개로 다양한 전시활용(온라인, 순회, 대여, 디지털 등)또는 연계 프로그램으로 다각적인 활용방안 모색

2) 특별전 운영방안

- 특별전의 경우는 연 1-2회로 제한하고, 공간 활용에 있어서는 기획전시장과 상설전시장 그리고 야외 공간이나 타 기관과의 연합하여 인천시내의 여러 공간(지역성과 역사성이 부각된 공간 등)을 통합 활용하는 방법으로 대규모 연계 전시기획이 가능함
- 국내·외의 우수한 외부 큐레이터를 초대하여, 동시대 미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끌어들이는 방향이나 인천의 특성을 외부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전시기획으로 인천 시민에게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전시제공이 가능함
- 해외의 우수한 기관에서 진행 중인 기획전시를 유치하여, 인천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새로운 관점의 예술적 표현과 폭넓은 전시경험을 제공함
- 대규모 국제전 중심의 기획운영을 위한 해외 미술관 및 큐레이터와의 공동 기획전시 및 소장품 대여, 홍보 마케팅 등 정보교류, 다양한 협력 사업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함
- 공통된 주제 아래, 해외 기관과의 공동기획을 추진하여 각기 보유한 소장품과 작가군을 가지고 연합한 전시기획으로, 주제에 대한 서로 다른 두 시각과 예술적 표현과 다양한 작품 유형을 보여주는 전시가 가능함
- 인천의 특별한 기념일이나 행사에 맞추어 주제에 맞게 대규모 전시기획이 가능함
-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되는 시민참여형 전시기획으로, 인천지역 미술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인천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시를 기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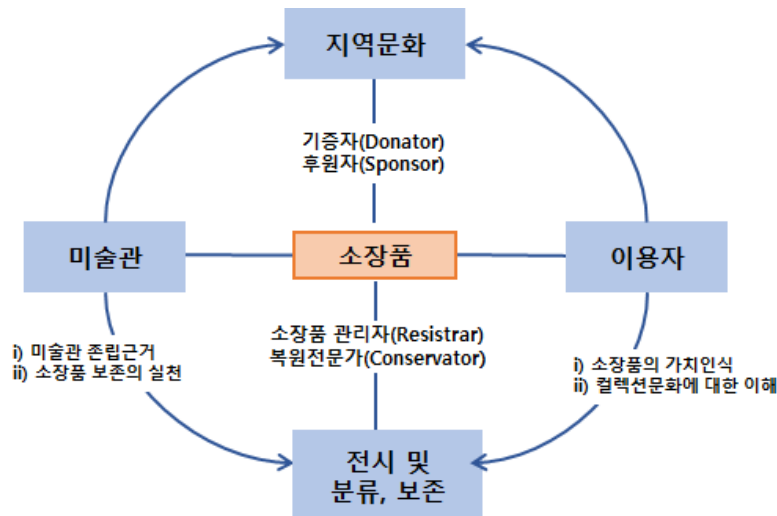
3) 연계 및 교류전 운영방안

- 국내·외 유사 성격의 관련기관들을 조사 연구하여, 그들과 지속적인 정보교환 및 인적 교류를 통해 국제적 수준의 교류전을 개최함
- 해외를 비롯한 타 지역에서 활동 중인 인천기반의 작가들의 작품을 보유한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컬렉션 교환이나 대여를 염두에 둔 전시기획, 지역에 대한 순화전 등을 고려한 전시기획 등이 가능함
- 인천지역의 근·현대 작품 및 작가를 외국에 프로모션하는 전시방법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수립함
- 국내·외 미술관을 비롯한 관련기관들과 인천해양국제미술축전 등과 같은 지역의 국제적 행사와 연계한 특별전시를 개발하고, 주요 전시순회 및 교류를 활성화시킴
- 시립미술관 기획자와 인천아트플랫폼 작가와의 공동 작업을 미술관 기획전시로 연결시킴
- 인천아트플랫폼과의 연합한 시민참여프로그램을 통해 초청 기획전을 시립미술관에서 개최함
- 전국의 시립미술관들과 연계 전시로, 하나의 공통된 주제아래 각 도시의 대표 작가들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예술적 해석을 통해 제작된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한자리에서 각 도시별 특성을 예술언어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4. 소장품 정책 및 방향

1) 시립미술관의 소장품 개념 및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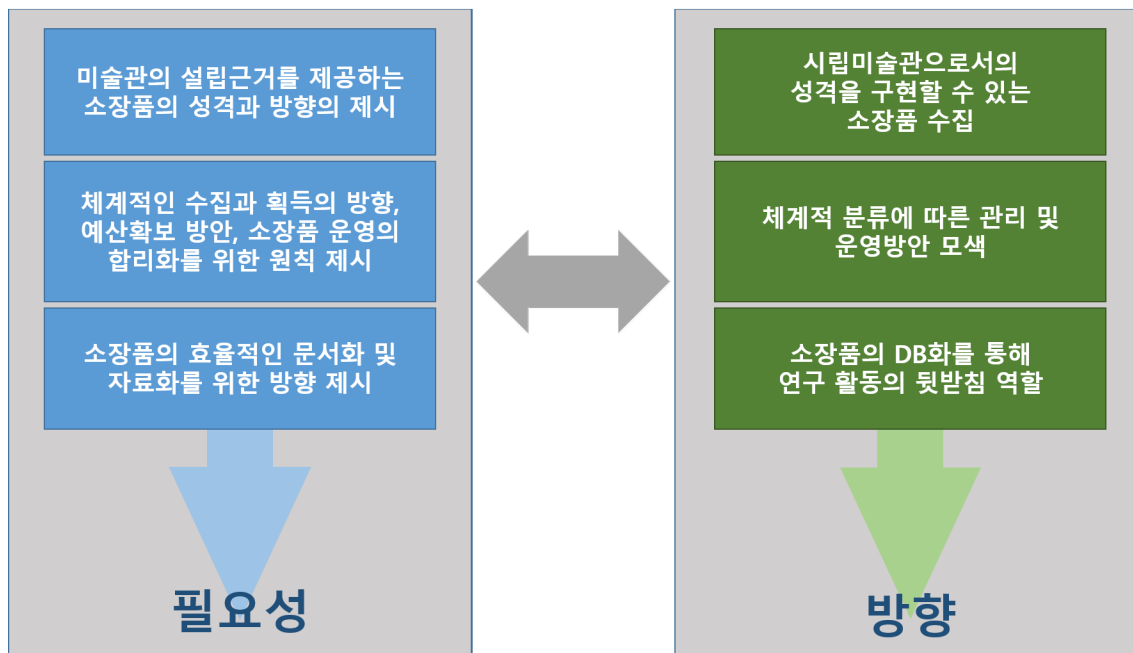
(1) 소장품의 역할과 기능



[그림 IV-3] 소장품의 역할과 기능

- 소장품은 미술관의 존립을 가능케 하는 핵심요소인 동시에 전시를 기획·운영할 수 있는 매개요소이자 보존과 관리 및 연구 활동을 통한 미술관의 연구대상이 됨. 따라서 미술관의 고유한 성격을 만들어주는 것이 소장품이며, 소장품의 내용과 질적 수준이 곧 미술관의 수준을 가늠하게 하는 기준으로 작용함
- 이에 따라, 시립미술관은 소장품의 수집활동(구입, 기증)과 병행하여 조사 활동을 통해 가치 있는 소장품을 확보하며, 이를 연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미술관의 차별화된 성격 및 방향을 설정하도록 함
- 미술관 소장품은 이용자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을 전달하는 주요 수단이며 미술관 교육을 진행하게 되는 요소로서 전시와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함
- 소장품 구입을 위한 정책 수립의 문제는 미술관의 설립과 활동 목표, 성격과 방향을 반영하는 지표가 됨. 따라서 미술관 성격에 부합하는 일관적인 소장품 구입과 정확하고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갖추으로써 미술관의 성격을 알리고 경쟁력을 갖는 동시에 기증과 후원의 방식을 추동해 낼 수 있을 것임
- 소장품의 정보화는 차후 특별전과 기획전에 필요한 자료원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대중 정보 서비스 차원에서도 활용성을 위해 매우 필요한 작업임
- 정보화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는 미술관의 자료관리 기능 수행과 정보 공개를 통한 대중 서비스 실행으로 이어져 미술관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됨

(2) 소장품 정책의 필요성 및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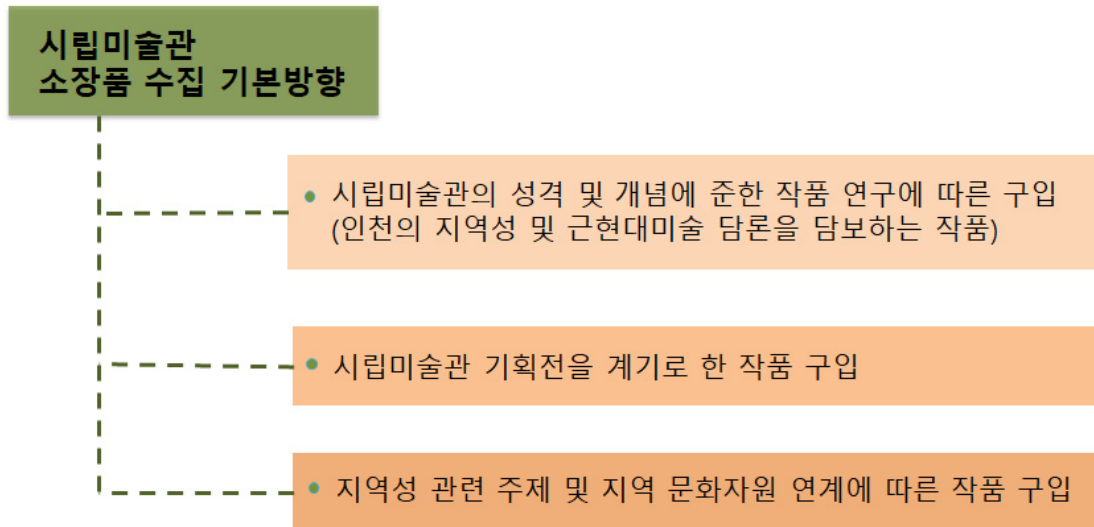


[그림 IV-4] 소장품 정책의 필요성 및 방향

- 소장품은 미술관 설립의 활동 목표, 성격과 방향을 반영하는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소장품 확보와 관리의 효율적인 체계를 갖추기 위해 소장품 정책의 수립이 필요함
- 소장품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미술관은 소장품의 수집 및 획득, 구입, 기부 등의 절차를 정례화하고, 수집과 활용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소장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됨
- 소장품 정책에 대한 단기, 중장기적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여 소장품의 가치와 역사적 의의를 배가시키도록 함
- 또한 체계적 분류에 따른 관리 및 운영방안을 세우며, 소장품의 DB화를 통해 연구 활동을 위한 자료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함

2) 소장품 수집 정책의 기본 방향

(1) 기본 방향



[그림 IV-5] 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 기본방향

■ 시립미술관의 성격 및 개념에 준한 작품 연구에 따른 구입

- 다문화, 디아스포라 등 인천의 지역성을 나타내는 작품 및 근현대미술의 특징 및 담론을 반영한 작품을 통해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한다는 맥락에서 네트워크 개념을 살린 작품을 연구, 발굴하여 소장품 대상을 조사함
- 장르나 기법에 제한을 두지 않고 회화에서부터 조각, 설치미술, 판화, 사진, 비디오 아트 및 영상, 미디어 아트, 그래픽, 공예, 디자인 등에서 주제적 설득력과 예술성을 기준으로 작가 및 작품을 발굴함

■ 시립미술관 기획전을 계기로 한 작품 구입

- 시립미술관의 기획전은 규모와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미술관 작품수집심사위원회를 통하되, 일정한 비율을 소장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역성 관련 주제 및 지역 문화자원 연계에 따른 작품 구입

- 인천지역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거나 지역의 주요 작가의 작품을 대상으로 소장계획을 수립함
- 동시에 지역성의 의미를 지역의 문화자원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확장함에 따라 지역 내 사립미술관의 전시 및 작품을 대상으로 소장계획을 수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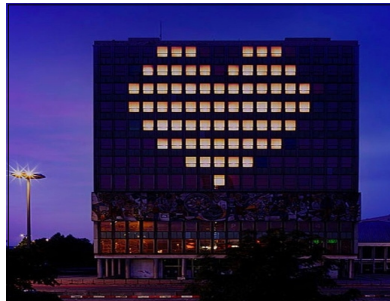
(2) 소장품 특화 및 브랜드 형성을 위한 전략

■ 시립미술관 성격에 준하는 국제적 명성을 갖는 작품의 소장

- 소통·공감·네트워크 개념에 준하는 국제적 명성의 작품을 발굴하고, 구입 계획 및 예산 계획 수립을 통해 준비기간을 갖고 구입함

■ 개관 전에 ‘소통-공감-네트워크’ 개념에 준한 공공미술 작품을 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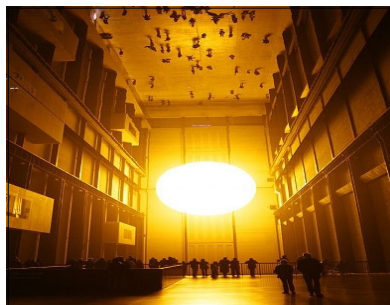
- 시립미술관의 환경을 고려하여 야외 설치를 위한 공공미술작품 공모를 통해 시립미술관의 홍보 효과 배가 및 인지도를 확보함
- 기본적으로 빛, 소리, 냄새, 시각적 요소 등의 의미를 부각함에 따라 소통과 공감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을 기조로 하되, 작품들은 관람객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작품들로 구성되도록 함
- 이에 따라 미술관 정면을 미디어 파사드로 디자인하게 될 경우 미술관 존재에 대한 인식이 커질 수 있음
- 미술관 내부 천정 높이를 고려한 수직형 설치미술품을 장기 설치함으로써 시각적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빛을 소재로 한 건축적 조각의 형태를 통해 미술관 건물의 시각적 효과를 높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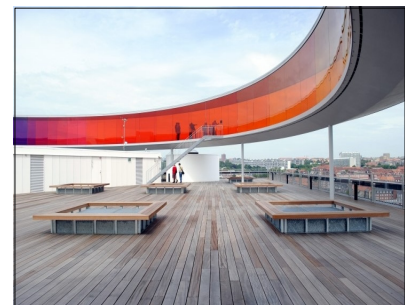
[그림 IV-6] 미디어 파사드



[그림 IV-7] 빛의 작품 :
아니쉬 카푸어



[그림 IV-8] 빛의 작품 :
올라퍼 엘리아슨



[그림 IV-9] 빛의 작품 :
올라퍼 엘리아슨

3) 시립미술관 소장품 현황 분석 및 쟁점

(1) 인천광역시 소장 미술품 현황 분석

① 인천시청 소장 미술품 분석

[표 IV-4] 인천시청 소장 미술품 등급별 구분

단위 : 점

장르	작품 등급				장르 별 수집 방법			합계
	A	B	C	D	구매	기증	관리전환	
서예	0 (0.0%)	0 (0.0%)	59 (10.9%)	64 (11.9%)	40 (7.4%)	60 (11.1%)	23 (4.2%)	123 (22.9%)
한국화	9 (1.6%)	1 (0.1%)	36 (6.7%)	69 (12.8%)	36 (6.7%)	52 (9.6%)	27 (5.0%)	115 (21.4%)
사진	5 (0.9%)	0 (0.0%)	14 (2.6%)	86 (16.0%)	28 (5.2%)	65 (12.1%)	12 (2.2%)	105 (19.4%)
서양화	3 (0.5%)	5 (0.9%)	41 (7.6%)	52 (9.6%)	27 (5.0%)	49 (9.1%)	25 (4.6%)	101 (18.8%)
공예품	10 (1.8%)	0 (0.0%)	3 (0.5%)	27 (5.0%)	29 (5.4%)	10 (1.8%)	1 (0.1%)	40 (7.4%)
조각	11 (2.0%)	0 (0.0%)	5 (0.9%)	3 (0.5%)	12 (2.2%)	6 (1.1%)	1 (0.1%)	19 (3.5%)
도자기	0 (0.0%)	0 (0.0%)	2 (0.37%)	16 (2.9%)	15 (2.7%)	2 (0.37%)	1 (0.1%)	18 (3.3%)
기타 (판화 등)	4 (0.7%)	0 (0.0%)	1 (0.1%)	11 (2.0%)	6 (1.1%)	10 (1.8%)	0 (0.0%)	16 (3.0%)
합계	42 (7.8%)	6 (1.2%)	161 (30.0%)	328 (61.0%)	193 (36.0%)	254 (47.3%)	90 (16.7%)	537

출처 : 인천시청 소장품 관리 리스트 수정사용

[표 IV-5] 수집방법 별 미술품 등급 구분

단위 : 점

등급	수집방법			소계
	구매	기증	관리전환	
A	32 (6%)	10 (1.9%)	0 (0.0%)	42 (7.8%)
B	4 (1%)	0 (0.0%)	2 (0.5%)	6 (1.2%)
C	99 (18.5%)	24 (4.5%)	38 (7.0%)	161 (30%)
D	58 (10.8%)	220 (40.9%)	50 (9.3%)	328 (61.0%)
소계	193 (36.0%)	254 (47.3%)	90 (16.7%)	537 (100%)

출처 : 인천시청 소장품 관리 리스트 수정사용

- 인천시청은 서예, 한국화, 사진, 서양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총 537점 소장하고 있음
- 소장품의 장르 구분에 따르면 서예 작품이 123점(22.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화 115점(21.4%), 사진 105점(19.5%), 서양화 101점(18.8%) 순으로 확인됨
- 인천시청이 시행한 소장품 등급별 구분에 따르면, A급 작품은 총 42점(7.8%), B급 6점(1.2%), C급 161점(30.0%), D급 328점(61.0%)으로 나타나 질적 가치가 담보되지 않은 C~D급의 작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을 확인 가능함
- 작품의 수집방법은 구매, 기증, 관리전환으로 구분되며, 구매가 193점(35.9%), 기증이 254점(47.4%), 관리전환이 90점(16.7%)로 나타남
- 구매 작품 중 A~B급 작품은 총 36점(7%), 기증 작품 중 A~B급 작품은 총 10점(1.9%)으로 A~B급 작품은 구매 작품에서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이와 반대로 기증 작품 중 C~D급의 작품은 총 244점(45.4%), 구매 작품 중 C~D급 작품이 총 157점(29.3%)으로 C~D급의 작품은 기증 작품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② 인천문화재단 소장품 분석

- 인천문화재단은 인천 연고 작가의 작품을 구입하고, 구입한 미술품을 대여하거나 전시함으로써 인천 미술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는 ‘인천미술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표 IV-6] 인천미술활성화 사업 프로그램 개요

구분	내용
작품 구입	• 작가본인 : 아래 자격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작가 - 인천 연고의 작가 인천 활동자 : 공고일 기준으로 인천에 거주하거나 인천을 활동의 근거지로 삼는 작가 인천 출신자 : 인천 출신 또는 인천에서 초/중/고/대학교 중 1개 과정 이상을 졸업한 작가 - 작품 신청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창작활동을 해온 자 - 개인전 1회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거나 국내외에서 공인된 국제 비엔날레급 전시회 초청되어 전시한 적이 있는자, 또는 기획전 또는 그룹전 10회 이상(동일작품전시 제외)의 경력이 있는 자
작품 대여	• 공공기관의 문화공간화 및 환경개선의 목적 • 시민문화 향수권 신장을 위한 기획전시 등의 목적

- 인천문화재단은 ‘인천미술활성화’ 사업을 통해 서양화·한국화·사진 등의 다양한 장르를 수집하였으며, 총 194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음. 이 작품을 토대로 미술관 등록을 시행함
- 인천문화재단의 소장품은 서양화 99점(51.0%), 한국화 37점(19.0%), 사진 22점(11.3%), 입체 7점(3.6%)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소장품 현황 분석에 따른 주요 쟁점

■ 시립미술관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소장품 수집 방안 마련 필요

- 인천시청과 인천문화재단의 미술 소장품은 시립미술관의 정체성에 대한 고려가 수반되지 않은 채 작품을 구입하거나, 기증을 받아왔음
- 시립미술관의 소장품 수집 정책 수립 후, 이에 부합하는 소장품을 선별하여 시립미술관의 소장품으로 구성하고, 추가적인 작품 수집이 적극적으로 시도되어야함

■ 소장품에 대한 질적 가치 제고 필요

- 인천시청의 소장 미술품에 대한 자체 등급평가에 따르면 A급에 해당하는 작품은 42점(7.8%)에 그치며 C~D급에 해당하는 작품들은 각각 161점(30.0%), 328(61.0%)로 과반 이상을 차지함
- 인천시청의 소장 미술품 중 A급에 해당하는 작품은 기증작품 보다 구매작품에서 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증 작 추후 작품의 기증을 받을 시 작품의 질적 가치에 대한 판단이 면밀히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4) 시립미술관의 소장품 수집 방안

(1) 수집계획의 원칙

■ 컬렉션의 연속성 확보

- 제한된 자원들의 범위 안에서 수집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소장품 수집의 범위가 공간적으로든 시간적으로든 지나치게 한 부분에 편중되면 안 되며, 궁극적으로는 역사적인 차원에서 유형별, 지역별, 시기별 컬렉션의 연속성 확보가 중요함

■ 관리 가능한 실제적 능력 고려

- 새로 확보한 소장품을 기존 소장품과 함께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미술관의 실제적 능력을 고려해야 함. 단순히 전시를 하기 위해 보존할 수 없거나 미술관의 수용능력을 벗어나는 자료를 구입하거나 기증 받아서는 안 됨

■ 체계적 절차

- 수집에 따른 모든 절차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명확한 증거와 외형적인 절차에 따라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2) 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 기본계획

- 인천시청은 <인천뮤지엄파크 사업계획서>에 따라, 소장품 수집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표 IV-6)
- 인천시청은 기본방향을 통해 시립미술관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소장품을 구입·기증 받을 것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미술관 작품심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소장품 수집의 타당성 기반 마련 및 수집을 실행하고자 함
- 소장품이 유의미한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미술관의 성격 및 비전에 부합하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컬렉션을 구성하여 시립미술관 소장품의 특성화 마련 및 질적 가치를 담보하는 것이 필요함
- 소장품 수집정책 수립은 작품수집심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효성을 제고해야함. 이 때, 시립미술관의 관장 및 큐레이터의 참여와 의사 반영이 절실함. 실질적인 운영주체의 의사가 배제된 채 작품의 수집이 진행될 시 전시기획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에서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 수집유형은 공모형(공개모집)과 제안형(아트페어·전시·경매)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공개 모집의 경우 미술관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작품을 수집될 수 있도록 가치심사위원 간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공유되어야 함
- 인천문화재단의 소장 작품 인수 및 활용의 경우 인천아트플랫폼이 미술관 등록을 위해 활용된 작품 100여점의 리스트를 확인하고, 시립미술관의 미술관 등록 시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표 IV-7] 인천시 소장품 수집 기본계획(안)

I 기본 방향

- 시립미술관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소장품 구입, 기증
- 미술관 작품수집심사위원회를 조직하고 미술품의 현황 조사, 수집 대상 및 장르 등 범위의 설정, 가치평가, 수집 대상 미술품 선정

I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회명) 미술관 작품수집심사위원회
- (구 성) 위원장 이하 10인 이내로 구성(당연직 위원 제외)
- (구성시기) 관련 조례 제정 후 2개월 내
 - * 미술관 작품수집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2020. 6월 限 제정
- (위원자격)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관장이 위촉
 - * 개관 전 : 뮤지엄파크조성업무 추진 부서장이 위원 위촉
- (역 할) 분과위원회 결과 등을 참고하여 작품의 가격, 수집 여부 최종결정, 소장품 수집계획 등 심의
- (분과위원회) 사유발생시 분과 위원회 구성 운영

① 가치심사위원회	② 작품가격평가위원회	③ 구입심의위원회
• 작품구입, 활용가치 및 구입심의 대상작품 선정을 위한 위원회 • 개별 심사마다 심사위원회에서 추천된 전문가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가치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작품의 가격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 • 심사위원회에서 추천된 전문가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가치심사위원회와 가격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기초로 작품의 구입 여부와 가격을 결정 • 심사위원회에서 추천된 전문가 중에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I 수집 계획

- (초기 규모) 2,000점 / 300억
- (수집 절차) 가치심사위원회 → 작품가격평가위원회 → 구입심의위원회
- (수집 유형) 공모형(공개모집), 제안형(아트페어, 전시, 경매)
- (수집 방안) 대신민 홍보를 통한 개인, 기업, 단체 등의 미술품 기증 활성화 및 인천문화재단
- (인천미술은행) 미술품 194점을 시립미술관 소장품으로 인수 및 활용

〈 연도별 소장품 구입 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소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구 입 작 품 수	2,010	공모형	2,000	300	500	500	500	200
		제안형	10	-	-	5	5	-
소요예산	30,000	공모형	20,000	3,000	5,000	5,000	5,000	2,000
		제안형	10,000	-	-	5,000	5,000	-

(3) 미술관 등록목표 소장품 확보 방안

① 미술관 등록 목표 소장품 구입방안 (1안)

■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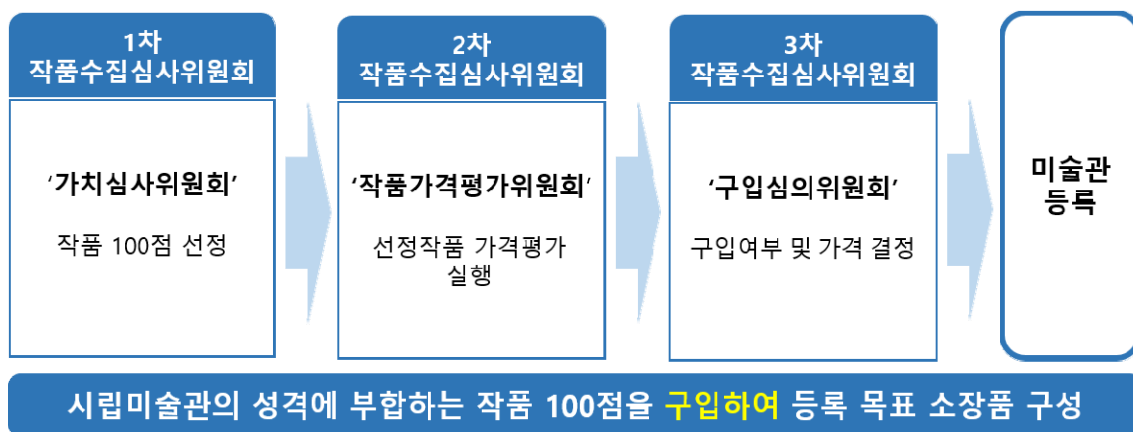
- 미술관 개관과 동시에 등록을 하게 될 경우 100여점의 소장품 확보가 전제되어야 함에 따라, 미술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100여점의 작품을 새롭게 구입함
- 이를 위해 개관 전부터 관장과 큐레이터를 선임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음
-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건립추진단 내에 작품수집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작품의 선정에서부터 적정 가격 산정, 구입 방법 및 보존 방식에 대해 자문을 받음
- 작품 질과 미술관 성격에 준하는 작품을 기준으로 지역작가 작품과 지역의 문화자원(사립 미술관, 화랑 등)과 연계하여 작품 구입을 구상함

■ 장점

- 시립미술관이 소장품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개관함에 따라 미술관의 공적이고 전문적인 면모를 대외적으로 보여줌
- 소장품의 성격이 분명할 경우 시립미술관의 대외 홍보나 인지도에서 유리할 수 있음

■ 단점

- 기준에 따라 작품 조사와 연구, 발굴의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됨
- 예산 계획 역시 소장품 구입을 위한 계획이 설 경우 진행됨에 따라 구입에는 다시 시간이 소요됨
- 단기간에 작품의 구입이 이루어질 경우 질적 편차가 있을 수 있어 위험 부담이 따름
- 초기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추후 소장품 구입 예산 수립에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



[그림 IV-10] 미술품 등록 목표 소장품 구입방안 (1안)

② 미술관 등록 목표 소장품 구입방안 (2안)

■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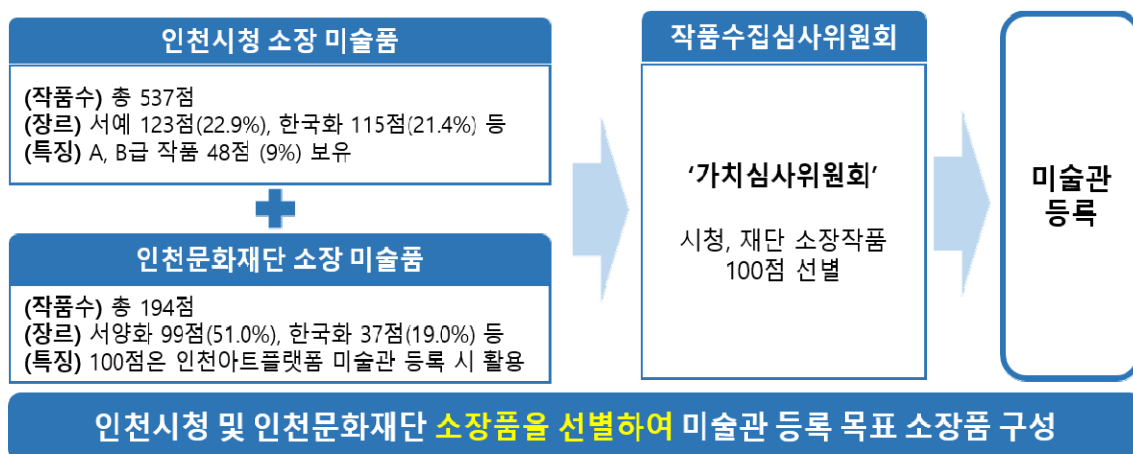
- 인천시 보유 소장품의 성격이 일관된 흐름을 갖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작품수집심사위원회 중 '가치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인천시청 및 인천아트플랫폼의 소장품 중 양질의 작품을 선별하여 시립미술관을 등록하고, 작품 구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립미술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소장품 정책을 수립함
- 하지만 소장품 구입 기한(최소 3년, 최대 10년)을 정하여 소장품 구입 자체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함
- 이 경우 미술관 개관 후 기획전을 통한 작품 구입과 일정 비율 지역을 안배한 작가와 지역 문화자원과 연계한 작품 구입을 구상할 수 있음

■ 장점

- 장기적으로 소장품을 구입함으로써 소장품 성격이나 작품의 질을 모두 확보 가능함
- 개관 시점에 맞춰 많은 소장품 구입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예산 배정에서의 부담이 적어짐

■ 단점

- 시립미술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소장품이 부족한 상태로 시작하여, 시립미술관의 전시기획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대외적 홍보나 인지도에서 불리할 수 있음
- 소장품 구입이 장기화됨에 따라 예산 편성에서 불리해지거나 소극적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최근 소장품 없는 미술관의 역할이 새롭게 제기되는 만큼, 시립미술관의 성격과 방향을 분명히 내세우면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림 IV-11] 미술품 등록 목표 소장품 구입방안 (2안)

5) 수장고 관리 방향

(1) 소장품 관리·운영의 기본방향

■ 개관전을 위한 소장품 연구 우선

- 시립미술관의 소장품에 대한 연구 작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미술관 설립까지의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개관전을 위한 소장품 연구를 우선으로 함

■ 소장품의 질 검증방안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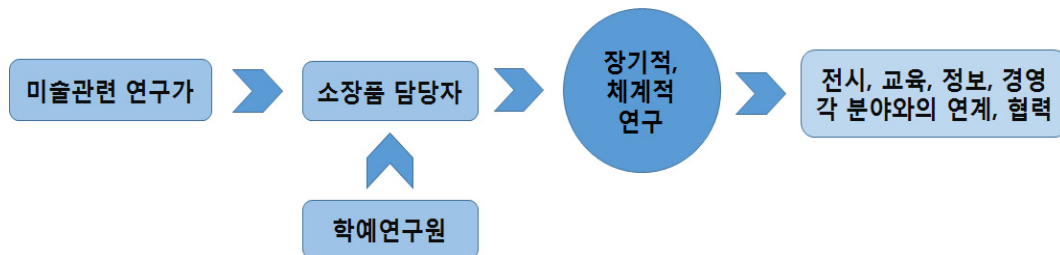
- 소장품의 질에 대한 검증을 위해 미술 관련 연구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소장품 관리 전문 인력 확충

- 소장품에 대해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해 소장품 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하며, 개관전 이후의 소장품 관리에 대한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소장품 수집 방향 및 범위

- 미술관의 설립 목적과 임무 수행에 적합한 컬렉션과 역사적, 문화적,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는 자료를 수집함



[그림 IV-12] 시립미술관의 소장품 관리·운영방안

(2) 소장품 관리

- 소장품이 망실·훼손·도난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소장품의 관리 상태를 지도·점검하여야 함
- 작품관리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작품을 인수인계할 때에는 소장품대장에 따라 인수인계하여야 함
- 소장품의 이동시 안전 운반에 필요한 특수함 등을 사용하고 안전 운송에 필요한 특수 차량 등을 이용함

(3) 소장품 등록

- 작품관리관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장품 등록대장([그림IV-17] 참조)을 작성·관리하여야 함
- 작품관리관은 신규로 수집한 작품을 소장품 관리카드([그림IV-18,19] 참조)를 작성한 후 소장품대장에 등재하여야 함

소장품 등록대장

[illegible]

[그림 IV-13] 소장품 등록대장

소장품관리카드		
인천류지얼파크 서립미술관		
작품번호	현재위치	
사진		
작가명	국적	출생연도 사망연도
		주분
작품유형		제작연도
재료 및 기법		표기사항
에디션 번호		규격

[그림 IV-14] 소장품 관리카드 앞면

양식(시대/유파/사조)	취득원시
수록본입 구입 () 기증 () 관리전환 ()	수록가격
소장경력	크레딧라인 저작권자 담미술관 () 기타 ()
전시이력	상태조사이력
작품설명	
관련문헌	
관련시각자료	사진 () 슬라이드 () video tape () 도판용 필름 () CD-ROM () 포스터 () 엽서 () 기타 ()
비고	
작성원시	작성자

[그림 IV-15] 소장품 관리카드 뒷면

① 소장품 등록의 필요성 및 분류 유형

■ 접근의 용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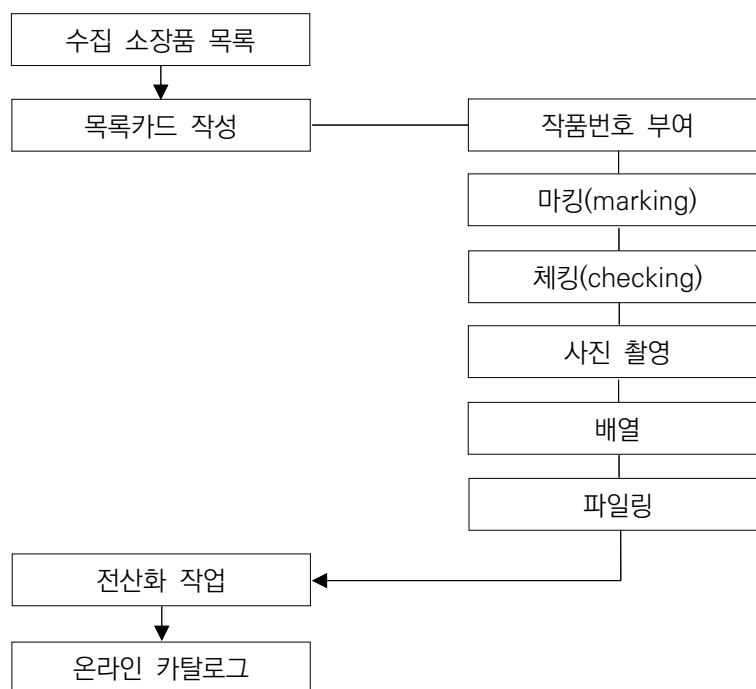
- 소장품 등록은 단순히 정보를 등록하는 것을 넘어서 각 소장품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체계적인 등록은 소장품을 찾고 확인하는 과정이 수월해짐

■ 도난/훼손에 대한 대비

- 체계적인 등록이 이루어지면 분실이나 훼손을 줄일 수 있으며, 물건을 도난당하거나 훼손된 경우에 정확한 데이터를 복원하거나 처치하는 것을 수월하게 함

■ 미술관 활동의 기본적인 맥락 형성

- 소장품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일 수 있는 등록 작업은 미술관의 전시연구,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활용 등 모든 미술관 활동의 기본적인 맥락을 형성함



[그림 IV-16] 소장품 등록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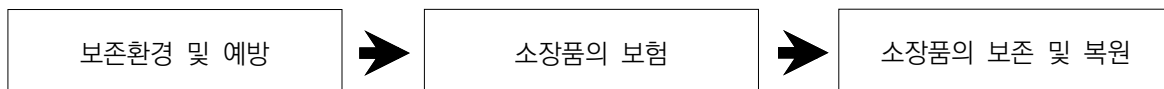
② 소장품 등록

■ 기능별 분류

- 소장품 등록을 위한 명세서 작성은 소장품에 대한 족보로서 번호부여, 명칭, 종류, 시대, 소장연유, 일시, 구입경위, 금액 등을 기재함
- 분류는 학제적 구분에 따른 소장품 분류방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용어를 사용해 검색에 통일성을 갖추

(5) 소장품의 보존 및 수리·복원 업무

- 소장품의 관리는 작품의 생명을 연장시켜 가장 안정되고 물리적인 상태로 후세에 전승한다는 관점에서 미술관의 업무 중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음
- 소장품 보존이란 적절한 안전시설을 갖춘 통제된 환경을 조성하고, 소장품에 대한 기록을 문서화하여 체계적으로 유지하며, 손상된 소장품은 복원하고 보수하는 것을 포함함
- 소장품이 파손되거나 혹은 파손된 것을 방지한다면, 이는 단순히 소장품을 잃게 되는 의미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인류의 문화적 유산을 영원히 잃게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함
- 이에 미술관은 소장품의 보존관리를 위해 전문 인력과 전문적 시설로서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그림 IV-19] 소장품의 보존 업무

■ 보존환경 및 예방

- 소장품은 보존처리 및 복원 등의 과학적 처방을 하기 이전에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이 필요함
- 소장품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온도·습도·조도가 반드시 조절되고 통제 가능한 보존환경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
- 대부분의 손상은 그 당시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 대부분의 미술관은 이러한 보존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수장고를 마련함

■ 소장품의 보험

- 미술관의 수장고에 보관되는 소장품, 전시 중인 소장품, 연구나 전시를 위해 대여 중인 소장품들은 미술관의 보험정책에 의해 보험에 가입해야 함
- 소장품 담당자는 관련 학예연구진들에게 소장품의 가치를 평가받고 현재의 가치를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됨
- 타 기관에서 대여하는 물품도 보험을 들어 소장품의 훼손이나 도난을 방지함
- 대여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반입되는 작품의 경우, 보험의 가입을 요구받을 때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이에 응할 수 있음

■ 소장품의 보존

- 자료의 손상여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존처리를 행함
- 미술관에서 소장품의 취득 시, 차후 보존 및 복원을 위해 사진이나 기록카드 등으로 소장품의 원상태의 기록을 남겨둠
- 보존처리 카드를 만들어 개개 작품의 보존 및 복원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함

■ 수리 및 복원

- 작품관리관은 소장품을 수리 또는 복원하고자 할 때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관장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는 수리 또는 복원을 요하는 부분 및 그 담당자를 명시하고 시방서가 첨부된 작품 수리 또는 복원계획서를 제출신청하여야 함
- 수리 및 복원은 과학적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전문적 시설이나 기자재를 확보하고 보존과학자(Conservator)의 지시 아래 이루어져야 함
- 새로운 물질적 요소를 더하여 복원을 하는 경우는 소장품 자체적 재질과 복원된 부분이 구별되도록 함

(6) 소장품 대여

- 관장은 소장품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장품의 대여를 허가할 수 있음
- 대여의 대상기관: 대여의 대상기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국공립 또는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국공립과학관 및 등록 과학관, 「유아교육법」 제7조·「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 학교에 설치 운영하는 박물관·미술관·과학관,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품 등의 전시관에 한함
- 미술관 소장품을 대여 받고자하는 때에는 소장품대여신청서⁵⁾(그림IV-24] 참조)를 제출하여야 함
- 관장이 대여를 허가할 때에는 소장품대여허가서(그림IV-25] 참조)를 교부하여야 함
- 관장은 대여작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대여료는 무상으로 할 수 있음
- 대여의 방법으로 수입되는 작품은 미술관 소장품과 동일하게 취급함
- 소장품의 이동시에는 안전운반에 필요한 특수함 등을 사용하고 안전 운송에 필요한 특수 차량 등을 이용함
- 소장품을 대여 받은 자는 소장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힐 시 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 결정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함
- 관장은 소장품을 대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여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보험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음

5) 서울특별시 종로 구립 미술관 소장품대여 신청서 양식 재구성

소장품 대여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대여소장품	소장품 관리 번호	부분	작가명	작품명(소장품)	제작 연도	규격	비고
대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대여사유							
인천뮤지엄파크 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품 대여를 신청합니다. 20년월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인) 인천뮤지엄파크 시립미술관장 (인)							

[그림 IV-20] 소장품 대여신청서 앞면

소장품 대여허가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대여소장품	소장품 번호	작품명(소장품)	수량	비고
대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대여목적				
대여내역				
운반방법				
부대조건				
귀하의 소장품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인천뮤지엄파크 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년월일 인천뮤지엄파크 시립미술관장 (인)				

[그림 IV-21] 소장품 대여신청서 후면

(7) 소장품의 폐기

- 소장품 처분정책은 그 획득의 정책과 궤를 같이 하여야 하되, 최소한 다음의 처분 관련 일반 원칙을 고려해야 함
- 또한 처분에 대한 결정은 미술관의 학예연구원 혹은 자문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조언을 받아 실행하고 처분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함

(8) 소장품의 활용

■ 소장품 및 자료 공개 시스템 구축

- 소장품 활용을 위한 접근편의성 제고를 도모함
- 전문가들의 학술적인 목적과 일반대중의 학습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소장품 및 관련 자료의 공개 방법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
- 국제박물관협의회는 박물관·미술관은 소장품을 적당한 시간과 정기적인 기간에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별한 열람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자에게는 개별적인 배려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 또한 인류의 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산을 진흥하는 것이 박물관·미술관의 중요한 교육적 역할 가운데 하나라고 국제박물관협의회는 주장하고 있음

■ 소장품의 열람

- 관장은 소장품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장품의 열람을 허가할 수 있음
- 미술관의 소장품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소장품열람신청서([그림IV-26] 참조)를 제출하거나 전화모사전송컴퓨터 통신 등에 의한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함
- 관장은 교육, 학술, 연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장품의 열람을 허가할 수 있음
- 열람을 허가할 경우에 관장은 소장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유의사항 및 열람시간 등을 열람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시간의 변경이 가능함
- 열람자가 작품 및 시설이나 기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함. 이 경우 작품의 손해배상은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액에 따라 배상하여야 하며, 그 밖의 시설 또는 기물의 경우에는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소장품 열람 신청서				
허가여부				
신청인	성명		성년	
	주소 (연락처:)			
소장품 번호	작품명 (소장품)	열람수량	비고	
열람기간		열람인원		
열람목적				
열람내역				
열람장비				
기타참고사항				
위와 같이 '인현유지염파크 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 20 제 4항에 따라, 귀 미술관의 소장품에 대한 열람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소속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현유지염파크 시립미술관장 (인)				

[그림 IV-22] 소장품 열람 신청서

6) 수장고 관리 방안

- 수집된 소장품이 훼손 없이 안전하게 보존, 관리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건을 갖춘 수장고를 보유하여 운영하는 것이 우선되는 사항임
- 수장고의 종류와 조건은 소장품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시립미술관의 경우 특화된 소장품 성격에 맞는 미술작품을 보존할 수 있는 수장시설이 요구됨. 따라서 이러한 상태를 가장 적합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수장고를 선택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음

(1) 수장고의 종류

■ 일반수장고

- 사용 빈도가 높고 비교적 온습도 및 빛과 미생물의 영향으로부터 덜 민감한 소장품들은 일반수장고에 보존할 수 있음
- 전시 및 학예·사무공간의 주변에 위치하도록 하여 잦은 이동에 의한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함
- 자료나 소장품을 바닥에 직접 두는 일은 피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석재류나 금속류와 같은 유물에 대에 대해서는 만일의 손상에 대비해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두도록 함



[그림 IV-23] 일반 수장고

■ 특별수장고

- 귀중한 자료이거나 특히 부패 및 변질의 위험이 있어 보존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자료는 특별수장고에 보관함
- 경우에 따라 항온·항습 수장고를 설치하기도 하며 때로는 일반 수장고의 내부에 위치하기도 함
- 예민한 환경조건을 조절할 수 있는 재료로 공간을 구성해야 하며 수장대 및 수납선반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함
- 시립미술관의 경우 설치미술작품이나 조각 작품 같은 대형작품에 대한 수장공간 마련도 고려해야함



[그림 IV-24] 특별 수장고

■ 임시수장고

- 자료를 수장고 또는 전시부문에 반송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적재, 보관하기 위한 창고로, 온습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반입된 자료는 이곳에서 분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을 계획하는 것이 좋음
- 임시 수장고라 하더라도 보안이나 안전상의 위험요소가 없도록 주의해야 함



[그림 IV-25] 임시 수장고

(2) 수장환경의 조건

- 수장고는 오랜 기간 보관 장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자료에 악영향을 끼치는 인자를 최소화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쾌적한 보존환경을 조성해야 함
- 이중벽 설비로 일정한 온습도 유지 및 각종 유해가스 침투를 방어하고, 방화 및 대피에 독립성을 갖추도록 하며, 방역과 자연적 인자를 제어하여 천재와 인재로부터의 피해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함
- 필요에 따라 다른 시설과 연결 및 추후 확장도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특히 소장품의 변형 및 미생물 번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재질별로 소장품을 분류함으로써 보관 상태를 달리하여 습도를 조절하도록 해야 함
- 또한 급격한 온도변화나 빛에 의한 훼손이 없도록 수장고의 환경을 통제하고 유지시키는 것도 중요하며, 보존환경을 바꿀 때에는 서서히 순화시켜서 변화를 줄 수 있는 환경설정이 필요함

[표 IV-8] 수장환경 조건

조습성	습도조절과 유지에 용이해야 함
밀폐성	소독의 효율성과 외부로부터 재해인자 침입 시 단독 환기가 가능해야 함
주화성	산성 및 알칼리성화 방지 등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해야 함
출납성	자료운반과 수납이 안전해야 함

(3) 수장고 관리절차 및 규정

-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단독으로 출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작품관리관 또는 작품관리관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하에 출입하여야 함
-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관장은 박물관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금고 설치 등 작품을 격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작품을 제외한 작품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함
-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소장품은 일반 소장품과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수리 및 복원 중에 있는 작품은 안전방호 시설이 갖추어진 별도 장소에 보관할 수 있음
- 소장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함
- 작품관리관은 반입된 작품을 확인하며, 구입이나 기증의 심의·평가를 위해 일시적으로 미술관에 보관할 필요가 있는 작품에 대하여는 작품보관의뢰서를 접수받아야 함. 이 경우 작품관리관은 작품보관증(그림IV-30 참조)을 교부하여야 함
- 대여·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반입되는 작품의 경우나 특수보관시설 설치를 요구받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응할 수 있음
- 수장고 열쇠는 두벌을 제작하여 관리하되, 그 중 한 벌은 비상용으로 관장과 작품관리관이 연대 봉인하여 관장이 이를 보관하며, 다른 한 벌은 작품관리관이 보관하고 작품 출납 시 사용함. 다만, 수장고 출입문의 개폐가 열쇠에 의한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관장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함
- 열쇠관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장고 열쇠출납부(그림IV-27 참조)를 관리함
- 작품관리관과 작품출납원이 동시에 부재 중 작품출납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관장 또는 관장이 지정하는 직원의 입회하에 출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작품관리관에게 그 사유와 출납사항을 사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함

작 품 보 관 관				
계 호				
보편의의 지	주 소		권 화	
	장 방		생년월일	
종 형	시 대	수 량	특	
보편의영가간				
보편의의비사용				

위 목록을 '민천뮤지엄파크 시립미술관 작품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 3 조 제 4항에 따라 귀 미술관의 소장품에 대한 일함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0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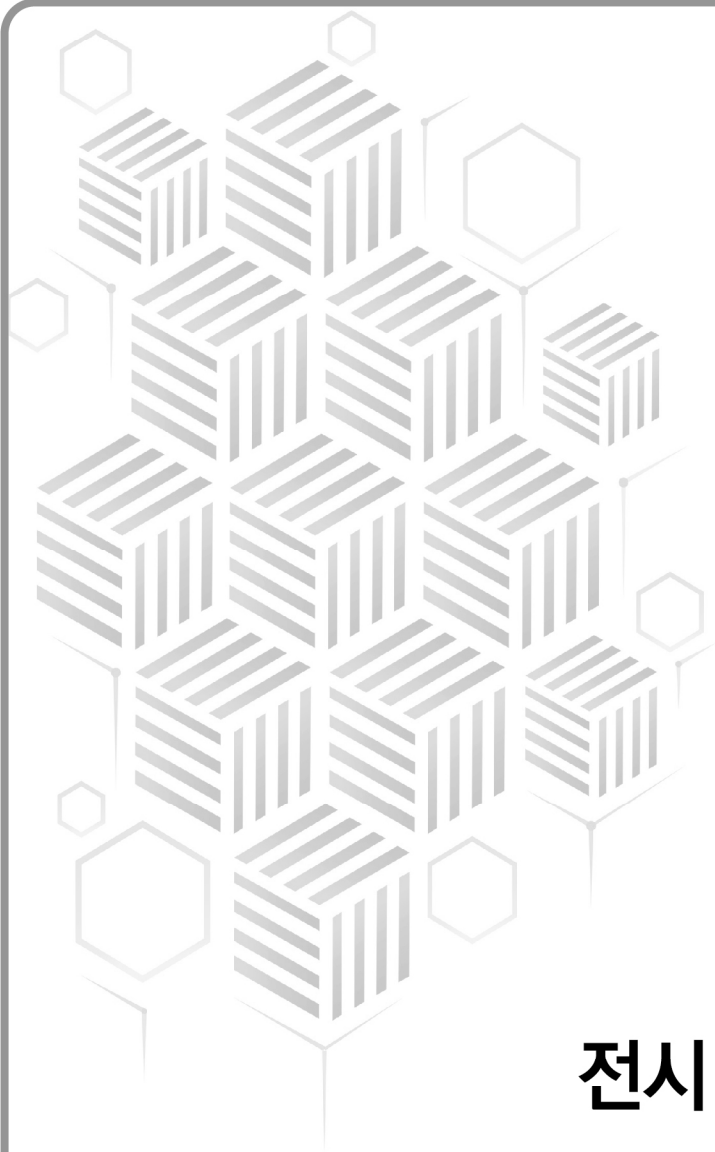
민천뮤지엄파크 시립미술관장 (인)

※ 본 보관증은 작품의 집의여부라는 하등 권리가 없음.

[그림 IV-26] 작품보관증

[illegible]

[그림 IV-27] 수장고 열쇠 출납부



V

전시 콘텐츠 활용 및 운영계획

1. 교육 프로그램
2. 조사·연구 및 정보화 프로그램
3. 홍보 및 마케팅 프로그램
4. 야외공원 활용방안
5. 시립미술관 조직 및 운영주체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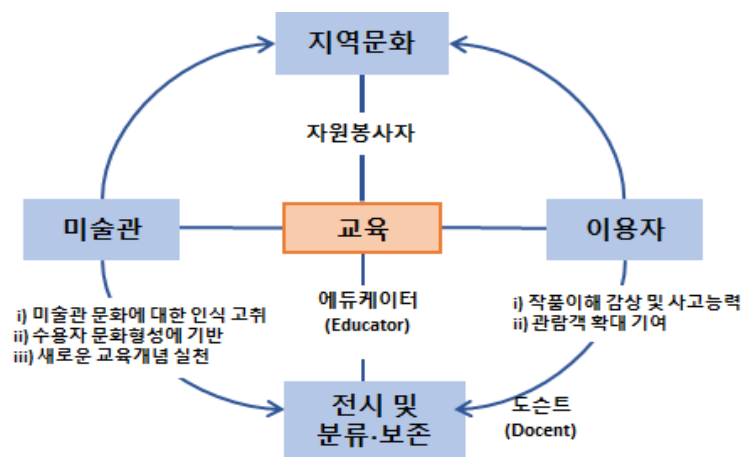
V

전시 콘텐츠 활용 및 운영계획

1. 교육 프로그램

1) 시립미술관의 교육 개념 및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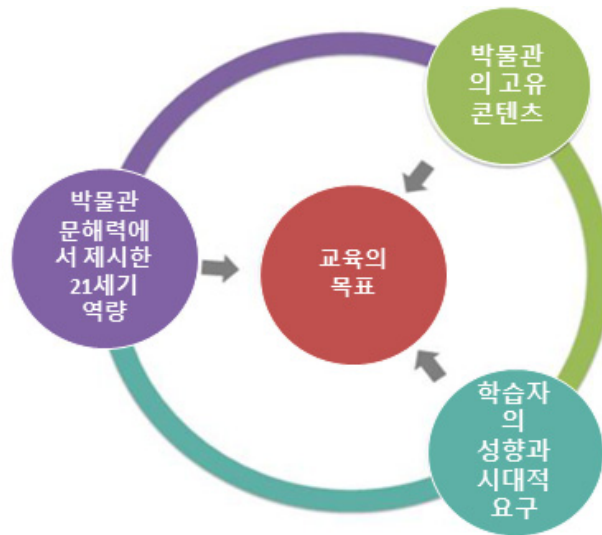
(1) 교육의 역할과 기능



[그림 V-1] 시립미술관 교육의 역할과 기능

- 미술관은 전시의 체험과 배움을 제공하는 문화 기관으로 실제 경험을 통해 지적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독특한 교육적 기능과 역할을 담당함
-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은 인지적 사고와 감정의 교류를 통한 전시의 이해를 도모하여 지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전시와 관람객의 상호작용을 발생시키는 효과를 갖게 됨
- 미술관 교육은 관람객의 자발적 동기로 참여하게 되므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해 관람객 경험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능동적인 수용자, 참여자 중심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이바지해야 함
- 미술관 교육은 대상별 프로그램 기획이 가능하며 학교를 비롯한 각종 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프로그램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람객 개발과 미술관 활성화에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됨
-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은 특정지역사회 속에서의 문화와 예술 체험을 통한 자아 발견, 시민 의식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전문적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며, 관람객이 미술관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교육 봉사 활동을 권장함으로써 지역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함

(2) 시립미술관의 교육 목표



[그림 V-2] 교육의 목표

- 전문적이면서도 상위개념의 콘텐츠 개발에 대한 집중을 통해 효율성과 차별화를 지향하는 고유 교육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하며, 전시관의 오브제를 단순 관람하는 활동에서 오브제와 관련된 의미 만들기의 학습 기회를 제공함
- 관람객의 주체적 미적 체험과 이야기 탐구등 사회적 활동을 통해 공유의 기회를 제공함
- “참여적 박물관”⁶⁾과 이를 접목한 박물관 교육을 통한 ‘과거를 밝히고 현재를 비추며, 미래를 조망하다’의 경험 제공을 통해 인천뮤지엄파크 시립미술관의 전시 방향인 동적 전시, 체험적 전시, 인터랙티브 전시, 몰입전시를 통합한 참여적 경험(Participatory Experience)의 기회 마련함
- 학습으로 이끄는 관람객 경험에는 호기심, 확신, 도전, 통제, 역할놀이, 의사소통의 여섯 가지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함. 즉, 관람객이 궁금해 하는 호기심, 관람객이 확신의 감성을 지니는 것, 관람객은 대상을 향해 수행하여야 할 무엇인가가 있음을 지각하는 도전, 관람객은 자기 결심화 통제의 감성을 지니는 것, 관람객은 감각적인 즐거움과 놀이를 경험하는 것, 관람객은 의미 있는 사회적 상호교감에 참여하는 것임

6) 오늘 날의 박물관·미술관 교육은 유물 중심에서 참여자 중심의 체험 연계로 변화되고 있음. 관람객이 스스로 탐색하고 질문하는 사고의 과정으로 인한 자기주도성 확대, 관람객이 알고 있는 것과 연계하여 새로운 의미를 구축할 수 있는 유추적 사고증진, 문제 탐구 과정을 통해 창의적 생각을 고도화하는 효과 등을 가져올 수 있음

(3) 시립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의 기본방향과 성격

- 기본적인 운영 구조와 프로그램 개발 방안 제공을 비롯해 인천시의 환경 분석과 시립미술관의 여건 및 상황에 따른 운영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향과 전략 제시
- 미술관 전시 관람과 교육 참여를 통한 학습되는 핵심 역량, 뮤지엄 문해력 (museum literacy) 향상을 위한 대상별, 시기별 기대 효과와 목표를 설정함
- 전시를 기반으로 소통과 학습 활동인 교육의 단계별 전략과 목표 설정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 조성과 교육인력의 역할 및 업무 흐름도 제공
- 지역 내 박물관과 교육 참여의 현황 조사를 통한 새로운 수요 발굴. 다양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모색
- 뮤지엄 파크를 포함한 투어 프로그램 구성. 인천의 지역, 문화, 예술을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일반적으로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은 전시 관람 지원(도슨트, 안내 프로그램), 전시 관람 및 연계한 연령대별 체험 및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과 아카데미로 구분. 이를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의 기반으로 그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주제와 내용 및 형식을 개발하고 발전 유도
- 미디어를 포함한 다양한 매체를 접목하는 주도적 활동. 지식, 기술이 결합된 서비스 제공. 연구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와 제공 방법 개발
- 인천 미술을 현재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이해하는 체험 활동. 인간 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 관심을 고취하고 가치관의 함양과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는 인지, 공감의 변화를 기대하는 자기 주도적 활동 제시

(4) 시립미술관의 고유 콘텐츠 개발전략

- 인간은 전 생애에 걸쳐 창조적인 존재로 정의하고 생애주기별 과정에서 삶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창조적인 활동이 필요함
- 일상 속에서 인천뮤지엄파크 시립미술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상 및 세대를 고려한 일회성이 아닌 통합적 관점의 프로그램 체계 구축이 우선되어야하고, 나아가 시각 예술에 국한하지 않은 다양한 장르와의 결합으로 경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인천지역 근현대미술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이해

- 인천의 근현대미술을 인문사회문화적 시각 등 다각적 접근을 통해 해석하고 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천의 미술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기회를 제공함

■ 전시와 전시물 중심 교육 실현

- 전시 주제와 부합하는 표제, 해석적 설명문을 중심으로 일차적 소통을 통한 전시물과 관련된 가시적인 자료 활용과 전시 안내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전시 이해를 도움

■ 체험중심 교육의 장, 활동중심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 단순히 전시관 안의 전시물이 아닌 생활 속에서 발견하고 접근하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과 전시물을 연결할 수 있는 체험의 교육을 시도함

■ 관람객 중심의 체험교육·지식·정보 전달의 새로운 방법 개발

- 대상의 특성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의 주제와 접근 방법을 차별화하여 관람객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함으로써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참여를 유도함
- 대상을 중심으로 교양과정을 비롯한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평생 학습과 사회교육의 개념을 확장함

■ 자발적 참여 프로그램 개발

-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미술관의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함

■ 지역사회의 소통의 장으로서의 기능

- 지역의 전문 미술관으로서 시민에게 새로운 문화체험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사회의 소통의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함

2) 시립미술관의 교육 프로그램(안)

(1)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과정

- 미술관의 교육프로그램은 설립취지와 일관성을 유지해야하며, 이를 위해 내부 자원 및 환경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이를 바탕으로, 외부 경쟁 환경조사를 실행하고 전시 주제 및 관람객 대상에 부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수월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관계부서와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며, 교육프로그램의 실행 후 평가 및 피드백으로 질적 제고를 도모해야함

(1) 미술관 설립 취지와의 일관성 유지

- 미술관의 설립 취지와 관련하여 미술관 교육기능의 본질과 개념을 명확히 파악, 교육프로그램의 목표와 설립취지가 동일하도록 일관성 유지

(2) 내부 자원 및 환경분석

- 인력, 자원, 연구활동, 컬렉션, 시설 등 기념관의 내부 자원과 환경을 분석

(3) 외부 경쟁 환경 조사

- 다른 미술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비교, 분석, 우위 점검 등을 행하도록 함

(4) 전시 주제 부합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미술관 관람을 위한 목표 관람객을 선정함으로써 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개발로 연결함
- 목표 관람객의 학습능력에 맞는 매체, 교육, 방법, 목적 등을 고려함

(5) 목표 관람객 선정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 교육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대상별 분류를 통해 관람객 개발이 가능한 부서와 협업을 시도함
- 특히 학교 연계 프로그램의 경우 대외협력 관련 업무 부서와의 협업이 절실하며, 전시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경우는 학예팀과의 조율이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음

(6) 관계 부서와의 협업

- 교육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대상별 분류를 통해 관람객 개발이 가능한 부서와 협업을 시도함
- 목표 관람객의 학습능력에 맞는 매체, 교육, 방법, 목적 등을 고려함

(7) 교육 프로그램 실행 및 평가 인력의 개발

- 다른 미술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비교, 분석, 우위 점검 등을 행하도록 함

(8) 평가를 통한 피드백 조성

-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피드백을 통해 추후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의 목표를 피드백에 두도록 함

[그림 V-3] 교육프로그램 개발 과정

(2) 차별화 전략

-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은 사항에서 여타 미술관의 교육프로그램과 다른 차별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

■ 인천 근현대미술에 대한 현대적 해석과 소통의 기회

- 시립미술관은 관람객의 사회적 활동을 통해 한국, 인천 지역의 미술과 예술, 작가의 이야기가 해석, 소통되는 공간이 되어야 함
- 특히 인천 작가의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이야기(지역, 문화, 시대)의 현대적 재구성을 위하여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공하고, 알려지지 않은 문화적 공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

■ 관람객의 문화 예술적 성향과 생애주기교육을 기반으로 한 활동 제공

- 관람객 연구와 이해를 기반으로 한 생애주기별 교육을 제공함
- 이전의 관람객 연구가 성별, 연령별, 교육 수준별, 수입별 등의 기준을 적용하였다면, 이제는 문화 예술적 성향과 생애주기교육을 고려함으로써 그 접근을 달리함

■ 수직적 공급형 운영에서 학습자 주체성 부여와 지식 생산 중심의 운영

- 전시장의 오브제를 단순 관람하는 활동에서 오브제와 관련된 의미 만들기의 학습 기회를 제공함
- 작품과 전시에 대한 이야기 학습에서 관람객의 주체적 참여를 독려함
- 관람객의 주체적 이야기 탐구와 사회적 활동을 통해 공유의 기회를 제공함

■ 매체(멀티미디어, 웹, 스마트 폰)를 활용한 서비스 콘텐츠의 다양화

- 매체, 네트워크,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과 서비스를 제공함
- 대중의 용이한 접근성을 기반으로 잠재력과 가능성을 실현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함
- 매체를 활용한 접근성 확보를 기반으로 관람객의 문화예술 향유 및 역사에 대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

(3) 교육프로그램 유형과 개발방안

① 전시 관람 및 연계 교육

■ 전시 관람 지원 프로그램

- 전시주제와 부합하는 표제, 해석적 설명문을 중심으로 일차적 소통을 취하기 위한 전시물 관련인 가시적인 자료를 제작·제공함 (도록, 전시안내문, 설명문, 라벨, 캡션, 도슨트 활동지, 셀프가이드, 오디오 등의 전시 관련 프로그램)
- 전시 안내인을 양성하여 주말 도슨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역민의 참여가 없을 경우 도슨트가 필요 없는 전시 설명문(리플렛)을 제작 배포함
- 최근 드로잉과 함께하는 전시 가이드 투어(Rikiksmuseum) 등으로 변화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으며, 듣는 미술관에서 보는 미술관으로 다시 참여하는 미술관으로 진화 것으로 진단할 수 있음. 이러한 변화를 이를 반영한 전시 안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 마련 필요함

■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

[표 V-1] 대상 별 교육프로그램

영역	대상	내용
대상중심 프로그램	전문인	• 정기적 교육 프로그램(강좌/ 강연) • 영역별 전문인과 연계하는 특별 강연 • 연간 정기 학술 심포지엄
	지역인 (일반인)	• 일회성 주제별 강연 • 특별 초청 강연 프로그램 • 정기 기획 강좌 프로그램 • 창작과 소통의 디지털 학교
	가족 및 어린이	• 활동지 개발 (스마트 활동지) • 어린이 미디어 스튜디오 • 어린이 캠프
	청소년	• 활동지 개발 (미디어를 활용한 활동지/ 드로잉 등과 연계한 전시실 프로그램) • 디지털 매체 체험 • 미디어 창작 스튜디오
	관광객 및 외국인	• 전시실에서의 교육, 체험 프로그램 • 외국인 전시 안내 프로그램과 체험 교실
	학교연계	• 활동지 및 책자 개발 (미디어를 활용한 활동지/ 드로잉 등과 연계한 전시실 프로그램) • 교사용 교재 개발 • 초·중등단체 관람을 위한 프로그램 • 중등의 경우 자유 학기제(학년제)와 연동한 프로그램 (진로, 문화예술, 재량, 교과연계 등)

▶ 전문인 대상 프로그램

- 목적 : 교육프로그램의 참여를 기회로 학술연구사업 네트워킹의 기회 및 프로그램 참여와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관련 전문인의 네트워킹을 조직하여, 전문지식에 대한 다각적 접근을 통해 새로운 해석과 이해의 기회를 제공함
- 영역 : 관련 전문인과의 연계된 학문적 접근
- 대상 : 관련 전문인, 학계 관련자, 예비 전문가
- 내용 :
 - 연간 정기 학술 심포지엄, 현대미술 관련 정기 강연 및 강좌
 - 지역성, 지역작가, 국제미술, 소장품 활용의 주제별 전시와 연계하는 소통, 참여프로그램
 - 인천, 근대미술사, 동시대적 예술, 작가, 국제미술의 현황을 비롯해 미술관 소장품 활용한 전시를 소주제로 구분하여 관련 전문가, 큐레이터와의 대화, 강연, 포럼, 콘퍼런스, 심포지엄 등 운영
 - 아트 플랫폼 등 지역 내 예술 공간 투어 프로그램

▶ 지역인(일반인) 대상 프로그램

- 일반인의 미디어와 매체의 예술적 활동을 독려하여 예술적 소양과 감성 성장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문화와 예술의 가치를 공유하고 공감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둠
- 예술가와 일반인의 소통을 제고하는 프로그램

(예시 1) 정기 강좌 프로그램

- 목적 : 연간 계획에 의해 월별 현대미술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는 강좌를 개최함. 이는 이용객의 사회 문화적, 전문지식에 대한 요구와 관심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수익 창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영역 : 현대미술의 역사, 현대미술 속 한국인의 정체성, 현대미술과 지역을 통해 본 가족 등
- 대상 : 여가 선용을 위한 문화교양강좌 희망자, 주부, 관심 있는 일반 성인, 직장인 등
- 내용 : 한국 현대미술 역사에 대한 교육과 지역, 장르 등 주제를 중심으로 한 시리즈 강좌

(예시 2) 특별 초청 강연 프로그램

- 목적 : 공개강좌를 통해 이용객의 범위를 확대하고, 미술관 재방문의 동기를 부여하며, 전문인과 일반인들의 공감대 형성의 기회를 제공함
- 영역 : 대중문화, 현대미술 관련 다양한 주제의 인문학적 접근
- 대상 : 현대미술에 관심 있는 일반인
- 내용 : 교육담당자가 주제를 선정하고 전문 유명강사를 초빙하여 공개강좌 실시

▶가족 및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 목적 : 주 5일 근무제의 실시에 따라 가족과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함께 체험하며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
- 영역 : 전시연계를 주제로 혹은 지역 전통문화를 매개로 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 대상 : 미취학~12세 아동 및 가족 단위 관람객
- 내용 : 가족을 위한 미술관의 안내 프로그램 운영 및 어린이 활동지 개발, 이야기 해설사 되어보기

예시 1) 어린이 미디어 스튜디오

- 유아부터 아동까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놀이, 움직임, 스토리, 이미지, 사운드 등의 융복합적 예술체험 프로그램
- 놀이를 통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직간접 경험의 확대와 함께, 미디어 문해력을 기를 수 있음

예시 2) 어린이 캠프

- 당일 프로그램으로써 가족과 함께 시각예술, 놀이등과 융합한 체험프로그램
- 상상의 세계를 이해하고 발견, 자기 자신을 깨닫는 즐거운 경험을 제공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 목적 : 지역 문화와 예술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감수성과 자아 정체성의 확립과 타아의 이해와 문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영역 : 특정 영역(직지, 인쇄, 판화, 공예,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작품 제작 과정을 전문인과 함께 학습하며 스스로를 제작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도록 함
- 대상 : 중·고등학생
- 내용 : 전시실에서의 교육·체험 프로그램,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 작품제작 체험

예시 1) 청소년 대상 창작 스튜디오

- 자연과 일상 속에서 주제를 선정하여 작품을 구상, 창작, 발표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창조적 감수성 향상
- 단순히 미디어(매체)를 체험하는 단계를 넘어 매체를 이해하고 향유하게 함으로써 자신을 표현하고 사회를 이해하는 감성 충전 프로그램

▶ 지역 방문객 대상 프로그램

- 목적 : 지역 방문 관광객 또는 한국 현대미술에 관심 있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한국 대중문화 체험
- 영역 : 한국 현대미술의 이해, 현대미술 속 지역의 전설, 민담, 설화 학습을 기반으로 한 체험과 활동(이야기 만들기, 노랫말 만들기 등)
- 대상 : 지역 방문 내·외국인 관광객
- 내용 : 전시실에서의 교육·체험 프로그램,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전시와 연계된 제작 프로그램으로 인쇄, 공예, 디자인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아웃리치 학교 연계 프로그램

- 목적 : 형식적이고 조직적인 학교 수업과는 다른, 비형식적이면서도 자유롭고 질 높은 교육으로 지역문화와 예술에 대한 이해와 체험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함
- 영역 : 참여자들에게 전시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안내 프로그램 및 전시물과 교과과의 내용을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교사와의 소통 및 협조 체계
- 대상 :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
- 내용 : 학교 단체 방문을 위한 활동지와 책자 개발, 미술관 방문 후 교육 활동을 위한 교사용 교재 개발

[표 V-2] 아웃리치 학교 연계 프로그램의 과정

단계	내용
단계 1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교육 개념과 운영방안 모색 (교육 목표, 네트워크 대상기관, 사례 분석, 방법, 교재 개발, 인력 및 예산 등)
단계 2	교육용 모형선정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대표 작품 중 교육용 모형으로 전환될 작품 선정과 작품 관련 연구를 기반으로 한 교육 교재 내용 개발)
단계 3	교육용 모형과 관련된 미디어 자료 개발 (미술관의 디지털 자료를 활용한 미디어 교재 개발)
단계 4	시범 운영과 관련 인력 연수

② IT 활용 자료 정보매체와 사이버 미술관

■ 기본방향

- 미술관을 알리고 관람객을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는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는 것임. 사이버 미술관 혹은 온라인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은 미술관 교육은 물론 마케팅 전략으로도 중요함

■ 웹 2.0 기반 디지털 콘텐츠(온라인-off site) 개발을 통한 사이버 시립미술관과 다양한 프로그램(사이버 아카이브/ 프로그램 UCC 공유/ 웹진/ RFID) 운영

- 소장품과 미술관에 관한 내용을 온라인 콘텐츠로 개발하여 좀 더 쉽게 미술관 전시물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이러한 온라인 프로그램은 미술관을 방문하여 전시를 관람하게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술관 전시를 관람 한 후 보다 깊이 있는 내용을 습득할 수 있는 창구의 역할을 함으로써, 놀이를 통한 정보 습득과 학습이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온라인 교육 설계 단계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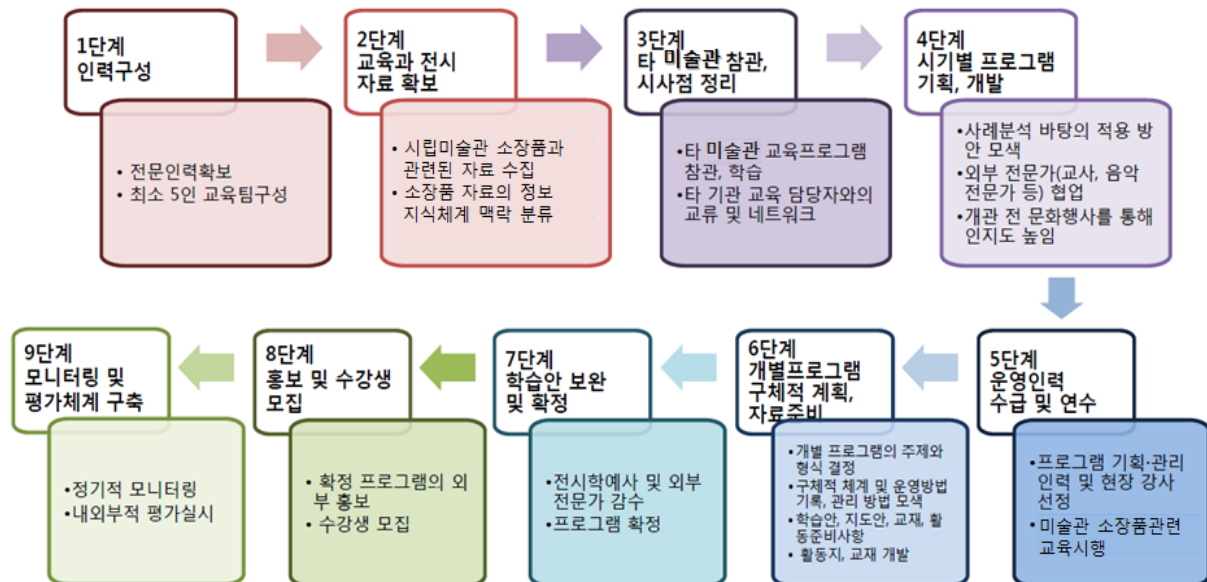
- 온라인 프로그램의 설계 및 개발 절차의 이론적 기반은 ADDIE 모형임
- ADDIE 모형: 분석(Analysis), 설계(Design), 개발(Development), 실행(Implementation), 평가(Evaluation)
- 온라인 프로그램 설계 절차(4단계): 교수학습 전략 수립, 학습구조 설계, 학습내용 및 활동 설계, 학습화면 설계
- 학습구조 설계: 학습계획, 학습목표인식, 학습활동수행, 학습결과도출 및 적용, 학습결과 공유 및 평가

■ 스토리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 멀티미디어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관점의 테마에 입각한 스토리텔링 방식 적용
- 시간 디지털 스토리텔링 적용: 현대미술을 시간의 구성과 사건의 순차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화함

3) 교육 프로그램의 단계별 운영 계획

(1) 개관 전 교육 프로그램 준비 과정



[그림 V-4] 개관 전 교육프로그램 준비 과정

■ 1단계 : 인력 구성

- 교육 운영에서 기획·실행의 전문성을 갖춘 추진력 있는 인력의 확보가 가장 중요함
- 최소 5인으로 구성된 교육팀(부)을 제안함
- 처음부터 5인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 총괄을 담당할 1인을 선정하고 기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3인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가능함

■ 2단계 : 교육과 전시의 자료 확보

- 교육 담당 인력의 첫 업무는 인천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고 분류하여 이를 교육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는 것임
- 개별 작품의 정보와 자료, 전시실과 전시의 자료, 이외에도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발표된 자료와 미술관 관련 자료(아카데미, 교사 연수, 활동지, 인력 운영방안 등)를 수집하여 미술관의 정보 지식 체계의 맥락에서 분류하여야 함
- 시립미술관의 전시물과 전시에 대한 1차적 정보를 정리한 미술관 대표 자료인 도록 및 전시실 설명문과 표제를 중심으로 한 미술관 지식정보화 체계가 필요함

■ 3단계 : 다양한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참관과 시사점 정리

- 교육담당 인력은 유사 미술관의 교육프로그램 참관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고 학습하는 기회를 가져야 함
- 이외에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타 박물관·미술관 교육 담당자와의 교류와 네트워크 활동이 매우 중요함

■ 4단계: 시기별 프로그램 기획과 개발

- 연구에서 제공한 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미술을 다룬 다양한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이들을 통시적, 유형별, 대상자별, 구성별 등의 틀과 지표에 의해 분석하고 시립미술관 교육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자료의 기록과 관리의 전문성이라 할 수 있으며, 이렇게 정리된 자료는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의 기반이 될 수 있음
- 기획과 개발의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이 필요함
 - 외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정기적 모임을 통해 박물관 및 미술관 교육의 방향과 추세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보완에 활용할 수 있음
 - 자문단 구성은 대상전문가(지역 작가, 학교교사)와 미술관 교육 관련인 등의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음
- 미술관 교육의 기획은 진행되고 있는 미술관 연구와 같은 방향성을 가져야 함. 개관 이후 준비하고 있는 기획전과 특별전의 주제와 같은 맥락에서 프로그램이 기획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수집된 자료와 정보를 교육활동을 위해 재구성하고 다양한 매체와 접목하는 것임(어린이 출판물 및 어린이 전시 도록 발간 등)
- 개관 전 다양한 문화 행사 속에서 미술관 개관을 알리고 이벤트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지역에서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음

■ 5단계 : 프로그램 운영 인력(강사 포함) 수급과 연수

- 교육프로그램을 기획·관리하는 인력과 교육 현장 강사를 선정하여 미술관 전시물에 대한 교육을 시행함

■ 6단계 : 개별 프로그램 구체적 계획과 자료 준비

- 연수된 강사 인력들과 함께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를 준비함. 개별 프로그램의 주제와 형식이 결정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립미술관의 교육 프로그램 체계와 운영방법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함
- 프로그램 체계는 프로그램 개요 및 구성, 학습 자료와 교재, 학습되는 전시물과 언어, 평가 방법 등으로 구성됨
- 교육 흐름의 정리 체계를 통해 구체적인 학습안을 구성할 수 있음. 개별 프로그램은 다시 학습안과 지도안(교육자료), 교재 및 활동 준비사항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구체화 과정을 통해 활동지와 교재가 개발될 수 있음

■ 7단계 : 학습안 보완 및 확정

- 내부적으로 전시 학예사들에게 프로그램 내용과 외부 미술관 교육과 교육방법의 전문가들에게 방법과 교육적 효과 등에 대한 감수를 받아 프로그램을 확정함

■ 8단계 : 교육프로그램 홍보와 수강생 모집

- 프로그램 확정 직후 외부에 알려 다양한 형태의 수강생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9단계 : 교육프로그램 모니터링과 평가 체계 구축

- 내부적으로 정기적인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내·외부적 평가를 실시함
 - 이를 위해 모니터링과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내부 인력(인턴, 자원봉사자, 보조강사)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함
- 모니터링과 평가의 결과는 환류 되도록 하여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2) 개관 후 프로그램 확대방안

① 전시실 연계 교육 프로그램

■ 전시안내 설명 프로그램

- 도슨트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정기적인 전시안내 설명프로그램을 실시함.
이를 위해 전시안내인(도슨트, 자원봉사자)을 수급하고 이들을 교육함
- 교육내용으로는 도슨트 및 자원봉사자의 역할, 미술관에서의 전시안내 프로그램, 전시실별 학습, 전시안내 프로그램 시나리오 작성, 시행과 모니터링 등이 있음

■ 전시실 활동지 제공

- 가족과 함께 방문하는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개별 전시실 활동지의 배포는, 초등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미술관의 호감도와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음
- 활동지에는 미술관 개별 전시실 소개 내용과 관람을 통해 답을 구할 수 있는 질문 등을 포함함
- 활동지 제공은 미술관의 사회교육기능의 의지를 드러내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음

■ 온라인 교육

-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사이버 미술관은 미술관과 전시를 소개하는 평면적이고 1차원적 기능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과 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은 물론, 개인화된 관람객의 자료를 수집하고 상호소통의 계기를 제공함

②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

- 대상별 프로그램은 연구물에서 제안하는 것과 같이 전문인, 일반인, 가족과 어린이, 청소년, 학교연계, 관광객 및 외국인, 학교연계 등 다양하게 기획·실행할 수 있음
- 대상의 확대는 중장기적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함
- 일차적으로 개관 시 미술관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중적이고 일회성을 갖는 주말 가족 프로그램과 관광객 대상 프로그램으로 실행하고, 이어 단계적으로 운영 인력을 확충하면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4) 교육 인력의 구성 및 업무

(1) 교육 인력의 구성

① 교육 담당자(에듀케이터)

- 관람객들의 이용을 증진시키고, 소장품과 전시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돕기 위하여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평가·감독함

■ 교육 담당자의 교육수준

- 교육학분야 석사이상 학위
- 박물관·미술관학 관련분야 혹은 박물관·미술관 교육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 자

■ 교육 담당자의 지식, 능력

-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할 수 있는 능력
- 박물관·미술관 교육 기술과 자원에 대한 지식
- 미술관 관람객의 학습 성향에 대한 지식
- 다양한 교육수준과 목표에 적절한 의사소통 능력
- 미술관 소장품 분야에 관한 지식
- 연구 조사 능력
- 교육 평가 방법에 대한 지식

■ 업무 및 역할

- 〈인천뮤지엄파크 시립미술관 교육 운영 매뉴얼〉 작성 및 실행
- 교육인력 운영, 프로그램 기획·실행·평가 등 관리 운영방안

② 시간제 강사

- 서류, 인터뷰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 된 후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계약함
- 미술관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이들로 도슨트들과 함께 연수되어야 함

③ 인턴

- 미술관 인턴은 관련 대학(원)과의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 관련 전공자들에겐 현장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인턴은 작품 관리와 전시 업무 보조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의 조사와 자료 정리 실행함
- 대학(원)과 연계하는 경우, 산학 연계의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함

④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는 안내데스크, 휴게실 운영, 시설 관리 및 질서 정리 등의 행정과 전시 안내 설명을 담당하는 전시안내설명인(도슨트)로 구분될 수 있음
- 지역인들 중 자원봉사자로서 미술관 업무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청자들을 모집하는 방법으로는 미술관 자체에서 수급하거나, 인천광역시 자원봉사자 담당 부처와 협의하는 방법이 있음
- 자원봉사자 활동영역 중 단순 업무는 단순 노력봉사 위주의 활동을 말하며, 전문 업무는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기초로 하는 활동을 말함
- 단순 업무는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담당
- 전문 업무는 인턴과 도슨트가 주로 담당인턴 및 자원봉사자의 업무

[표 V-3] 인턴 및 자원봉사자의 자격조건

자원봉사자	인턴
• 현대미술 및 미술관에 관심이 많은 자 • 문화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은 자 • 인천광역시 지역 주민에게 우선권 부여	• 박물관-미술관학 또는 미술이론 전공 전문인 • 교육부서 연구원 • 다른 전문직 연구원(큐레이터 등) • 초·중·고등학교 교사(방학 중) • 사회/국어/미술/음악교육 전공자 • 인턴실습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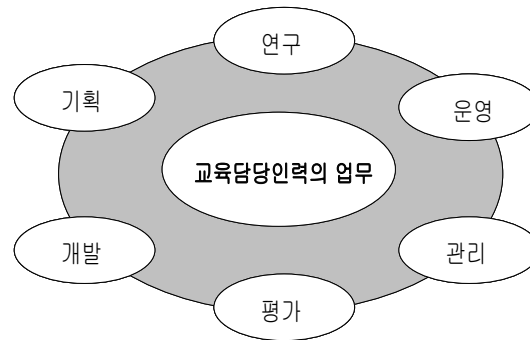
[표 V-4] 인턴 및 자원봉사자의 모집방법

자원봉사자	인턴
• 미술관에서 자체적으로 모집 • 인천광역시 자치단체 자원봉사 담당부서 및 자원봉사센터 의뢰	• 미술관에서 자체적으로 모집 • 인턴 실습생 모집

[표 V-5] 인턴 및 자원봉사자의 업무

단순 업무	전문 업무
• 안내데스크 • 휴게실운영 • 시설 관리 및 질서정리 • 사무행정보조	• 전시설명(도슨트) • 운영 자원 봉사 • 작품 전시업무 보조 •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교육업무 보조 • 이벤트 및 행사 기획 참여보조 • 마케팅 보조 • 사서 보조

(2) 교육 인력의 업무



[그림 V-5] 교육 담당 인력의 업무

- 교육 인력의 업무는 연구, 기획, 개발, 운영, 관리, 평가의 영역으로 구분 될 수 있음
- 개별 영역은 세부적으로 정리 될 수 있음

[표 V-6] 교육 인력 직무 및 직무모형/흐름도

책무	작업				
A 연구	A-1 미술관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전시 연구	A-2 소통, 이야기 구성에 대한 이론을 기반으로 한 전시 매체 연구	A-3 사례 및 관련 자료조사와 분석	A-4 자료의 문서화	
B 기획	B-1 연간 기본계획수립	B-2 개별 프로그램 기획	B-3 중장기 운영 계획안 수립		
C 개발	C-1 전시와 연계 프로그램 성격 확정	C-2 미술 전시 매체 개발	C-3 전시물 디자인과 동선 개발	C-4 전시와 연계되는 소통 프로그램 개발	
D 운영	D-1 기관 마케팅	D-2 관람객과 학습자 집객	D-3 관람객 만족도와 프로그램 평가	D-4 예산 집행	D-5 결과 보고서 작성
E 관리	E-1 강사 및 자원봉사자 모집	E-2 강사 및 자원봉사자 관리	E-3 미술관 기존인력 재교육과 연수	E-4 관련 업체 및 기관과 교류 및 협력구축	E-5 교육프로그램 회원제 관리
F 평가	F-1 운영프로그램 평가 구성	F-2 평가자료 수집과 분석	F-3 평가 내용과 시사점 환류		

- 교육 프로그램 기획은 전시의 주제나 미술관의 교육적 소명을 기반으로, 참여자들의 성향과 지난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남기고 간 평가서 혹은 조사된 만족도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반영하며, 이에 따라 기획 중인 전시를 새롭게 접근하는 방법과 매체를 개발하여 전달하는 활동을 설계하는 작업임
- 이를 위해 앞서 서술한 미술관 교육 담당 인력의 직무 및 직무 모형에서는 개발을 6단계로 나누어 정리하였음. 6단계는 앞서 진행한 관람객 조사, 사례 및 콘텐츠 연구를 기반으로 다시 세부적인 과정으로 정리될 수 있으며, 그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V-7] 교육담당 인력의 책무와 작업의 명세내용

책무	작업				
1 프로그램 성격결정	1-1 프로그램 타당성 검토	1-2 유사 프로그램 분석	1-3 프로그램 요구파악 및 분석	1-4 프로그램 성격과 목표확정	1-5 프로그램 대상자 이해
2 프로그램 설계	2-1 프로그램 목표결정과 내용 선정	2-2 프로그램 의 이론적 근거와 방법 연구	2-3 프로그램설계	2-4 지도안/ 학습구체화	2-5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제작
3 개발된 콘텐츠 감수	3-1 개발된 프로그램 기관 내 감수	3-2 개발된 프로그램 외부 감수	3-3 프로그램 최종안 확정		
4 지원서 및 기획안 작성	4-1 지원/기금 성격이해	4-2 지원서 취지와 목적이해	4-3 기획안 확정		
5 재원조성	5-1 연간 예산에서의 교육비 책정	5-2 기금과 지원금	5-3 참가비 책정		
6 프로그램 실행	6-1 강사 및 교수자 섭외	6-2 강사 프로그램 실행의 연수	6-3 프로그램 실행	6-4 교육프로그램 성과 분석	

-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한 전시 담당 학예사와의 협업 능력이며, 이는 교육 담당 인력으로서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여야 함
- 이들의 교육적 전문성은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기초로 하는 문제해결 능력인 기획력, 기획된 개념과 단계별 활동을 구체화하는 능력, 전체의 구성을 위한 개별 영역의 조립 능력, 논리적 발상과 구조적 이해 및 설계 능력과 기획안의 내용을 타인과 소통하는 표현력 등이라 할 수 있음
- 자원봉사자들의 역할과 직무는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음

[표 V-8] 자원봉사자역할과 작업의 명세내용

책무	작업			
1 안내	1-1 미술관 이용 안내	1-2 부대행사 안내	1-3 관련 문헌 및 정보 제공	
2 자료 개발	2-1 전시 관련 자료 수집 및 조사	2-2 해설/교육 모니터링	2-3 교안개발	2-4 스크립트 작성
3 해설	3-1 학습자 요구 이해	3-2 미술관 소개와 관람 개요	3-3 전시와 전시물 안내	
4 체험학습지도	4-1 체험 학습을 위한 준비	4-2 자료와 교재 준비	4-3 활동 운영 및 진행	
5 일정관리	5-1 교육 및 근무 일정 작성	5-2 자원봉사 활동 일정 작성	5-3 예약자와 학습자 관리	
6 훈련	6-1 연수 프로그램 기획	6-2 봉사자 간의 멘토링	6-3 학습 동아리 조직과 운영	6-4 활동성과 분석

5) 교육 프로그램의 국내·외 사례 및 쟁점

- 해당 내용은 본 보고서의 'Ⅲ. 시립미술관의 성격과 방향 - 2. 국내외 우수 미술관 사례 연구' 내에 서술되어 있는 교육프로그램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타 지역 시립 미술관의 교육프로그램 사례의 주요 쟁점을 도출하였음

(1) 국내 교육프로그램 사례

① 부산시립미술관 교육프로그램

- 부산시립미술관의 교육프로그램은 〈사회교육프로그램〉과 〈어린이미술관 교육프로그램〉 두 개의 범주로 나누어짐
- 〈사회프로그램〉은 연령 별로 '성인강좌'와 '청소년 강좌'로 구분되며, 카테고리 별로는 '미술이론', '특별강좌', '전시연계강좌'로 나누어짐
- 〈어린이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은 '개인/가족프로그램'과 '단체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있음

[표 V-9] 2019 부산시립미술관 주요 교육프로그램 내용

구분	연령	카테고리	교육내용	소요시간
사회교육 프로그램	성인	미술이론	• 제목 : 부산시립미술관 미술이론 강좌 • 대상 : 학생 및 일반인 • 수강료 : 무료 • 내용 : 부산 미술의 흐름 다시 보기	120분
	성인	특별강좌	• 제목 : 이우환 공간 〈명사 초청 프로그램〉 • 대상 : 전공자, 일반인 • 수강료 : 무료 • 내용 :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초청 특강	90분
	성인	전시연계강좌	• 제목 : 핀란드 대사와 함께하는 헬싱키 투어 • 대상 : 학생 및 일반인 • 수강료 : 무료 • 내용 : 헬싱키 지역 문화예술 명소 소개	90분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 제목 : 세상을 움직여봐 - Thinking Moving • 대상 : 중등부 • 수강료 : 무료 • 내용 : 미술 관련 직업 이해 및 미술관 경험 유도	90분
어린이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초등부	개인/가족 프로그램	• 제목 : 신체드로잉 • 대상 : 초등부 1~4학년 • 수강료 : 무료 • 내용 : 이건용 전시연계 신체드로잉 프로그램	90분
	초등부	개인/가족 프로그램	• 제목 : Children's Wave Ground_가구디자인 • 대상 : 초등부 3~6학년 • 수강료 : 무료 • 내용 : 재활용품을 활용한 가구 디자인 프로그램	90분
	초등부	단체 프로그램	• 제목 : 꿈틀꿈틀 꿈틀 키우는 미술관 • 특징 : 상세 내용 별도 확인 필요	-
	유치부	단체 프로그램	• 제목 : 하늘로 날아간 천 개의 구름 미술관 • 특징 : 상세 내용 별도 확인 필요	-

② 광주시립미술관 교육프로그램

- 광주시립미술관의 교육프로그램은 〈미술관 문화센터〉, 〈미술관 아카데미〉, 〈런치토크 강좌〉, 〈인문학 강좌〉, 〈문화행사〉, 〈전시연계프로그램〉 총 6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광주시립미술관의 교육프로그램은 타 미술관에 비해 개설 프로그램의 수가 많으며, 전 연령을 아우르고 있다는 특징을 찾아 볼 수 있음
- 〈미술관 문화센터〉는 어린이, 청소년, 가족이 함께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유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미술아카데미〉, 〈런치토크강좌〉, 〈인문학강좌〉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인문학 콘텐츠를 다루고 있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무료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표 V-10] 2019 광주시립미술관 주요 교육프로그램 내용

구분	연령	카테고리	교육내용	소요시간
미술관 문화센터	전연령	학생&가족 프로그램	• 제목 : 점,점,점이 모여 어떤 그림이 될까 • 대상 : 유아·어린이 • 수강료 : 10,000원 • 내용 : 점과 선을 통해 그림을 표현 해보기	120분
미술관 아카데미	전연령	인문학	• 제목 : 그림 속 삶 이야기 • 대상 : 일반시민 • 수강료 : 무료 • 내용 : 일상의 삶에 스며든 미술의 다양한 모습과 서사를 다루는 전문가 8인의 강의	120분
런치토크 강좌	전연령	인문학 (문화가 있는 날)	• 제목 : 런치토크강좌 • 대상 : 일반시민, 문화예술인, 미술인 • 수강료 : 무료 • 내용 : 미술전시를 친근하게 느끼게 하는 강의	120분
인문학강좌	전연령	인문학	• 제목 : 그림 읽어주는 남자의 미술 기행 • 대상 : 일반시민, 미술인, 학생 등 • 수강료 : 무료 • 내용 : 미술 관련 주제 다루는 인문학 강의	120분
전시연계 프로그램	전연령	전시연계	• 제목 : 의재 허백련의 흔적을 따라 걷다 • 대상 : 광주 시민 19세 이상 • 수강료 : 무료 • 내용 : 의재 허백련 유적지 탐방	270분

③ 서울시립미술관 교육프로그램

- 서울시립미술관의 교육프로그램은 〈시민미술아카데미〉, 〈사진아카데미〉, 〈시민큐레이터〉, 〈도슨트 양성 교육〉, 〈예술가의 런치박스〉, 〈찾아가는 미술감상교실〉 총 6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시민미술아카데미〉는 작가와의 대화, 심포지엄, 인문학 강연 및 토크 등 다양한 장르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
- 〈사진아카데미〉의 경우는 서울시립미술관 후원회에서 진행하며, 회원들이 1년에 걸쳐 서울의 모습을 기록하는 프로젝트로, 이를 통해 작품 전시기회를 제공함
- 〈시민큐레이터〉는 일반 시민 및 경력단절 전공자들을 위한 큐레이터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
- 〈도슨트 양성교육〉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도슨트 교육을 운영하고, 교육수료자 중 선발된 도슨트가 미술관 전시서비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예술가의 런치박스〉는 먹고, 마시고, 대화하는 일상적 과정을 통해 현대미술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작가와 함께 퍼포먼스에 참여하거나 워크숍 등의 활동을 함께하고, 각 프로그램과 연결되는 음식을 맛볼 수 있음
- 〈찾아가는 미술감상교실〉은 학교, 직장, 문화소외시설, 자치구 등 직접 찾아가 미술교육을 운영하여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임

[표 V-11] 2019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주요 교육프로그램 내용

구분	연령	카테고리	교육내용	소요시간
시민미술아카데미	전연령	아카데미	• 제목 : 포용적 예술프로젝트: 언러닝, 뮤지엄 • 대상 : 누구나 • 수강료 : 무료 • 내용 : '장애' 주제의 퍼포먼스와 현장참여 프로그램	270분
시민큐레이터	20살 이상 성인	큐레이터 양성	•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20살 이상 성인 • 수강료 : 무료 • 내용 : 큐레이터 양성교육을 통해 전시 기획·운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80분 (13개 강좌)
도슨트 활동	20살 이상 성인	도슨트 양성	• 제목 : 2019 도슨트 양성교육 • 대상 : 일반인 • 수강료 : 무료 • 내용 : 시민을 대상으로 도슨트를 양성하는 프로그램	120분 (21개 강좌)
사진아카데미	전연령	사진강좌	• 제목 : '서울, 오늘을 찍다' • 대상 : 일반 시민 • 수강료 : 700,000원 • 내용 : 이론 및 촬영 실기수업 후 전시기회 제공	120분 (16개 강좌)
예술가의 런치박스	전연령	워크숍	• 제목 : 예술가의 런치박스 • 대상 : 일반인 • 수강료 : 10,000원 • 내용 : 음식을 먹으며 작가와 함께 워크숍, 토크 참여	60분
찾아가는 미술관	전연령	참여교육	• 제목 : 찾아가는 미술관 • 대상 : 학교, 직장, 문화소외시설 등 • 내용 : 미술관이 직접 찾아가 미술 교육을 운영하여 시민의 미술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는 프로그램	-

④ 제주시립미술관 교육프로그램

- 제주시립미술관은 〈어린이미술학교〉, 〈청소년미술관활동〉, 〈시민교양강좌〉, 〈미술전문인 양성교육〉, 〈전시연계가족프로그램〉 총 5개 종류의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무료로 운영하고 있음
- 〈어린이미술학교〉는 고학년과 저학년으로 연령을 구분하고 ‘업사이클링 생태 공작소’와 ‘자연과 미술의 데칼코마니’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을 통해 자연과 생태의 가치·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음
- 〈청소년미술관활동〉은 청소년들의 미술관 주요 업무를 학습하고, 전시장 지킴이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시민교양강좌〉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미술에 관한 흥미로운 주제들로 강의를 개설하여, 제주시민의 삶에 문화·예술적 교양을 더하고 있음
- 〈미술전문인 양성교육〉은 38주간 미술관학, 미술이론, 미술관실무, 현장학습의 과정을 거쳐 미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임

[표 V-12] 2019 제주시립미술관 주요 교육프로그램 내용

구분	연령	카테고리	교육내용	소요시간
어린이 미술학교	초등생	창작·체험	• 제목 : 업사이클링 생태 공작소 • 대상 : 고학년 (4~6학년) • 수강료 : 무료 • 내용 : 업사이클링을 통해 환경 보전의 중요성 이해	150분
		창작·체험	• 제목 : 자연과 미술의 데칼코마니 • 대상 : 저학년 (1~3학년) • 수강료 : 무료 • 내용 : 놀이와 미술로 자연을 이해	
청소년 미술관활동	청소년	체험·봉사	• 제목 : 청소년 미술관 활동 • 대상 : 청소년 • 수강료 : 무료 • 내용 : 미술관 업무 학습 및 전시장 지킴이 활동 • ※ 지킴이 활동 시 봉사활동 시간 인정	180분
시민교양강좌	성인	이론·교양	• 제목 : 생활 속 미술 이야기 • 대상 : 일반성인 • 수강료 : 무료 • 내용 : 미술 관련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는 교양강좌 • 구성 : 4개 주제로 나누어 5회씩 추진	5주/5회 120분
미술전문인 양성교육	성인	학예	• 제목 : 미술전문인 양성 교육프로그램 • 대상 : (우대) 미술 분야 활동가 및 전공자 (일반) 미술에 관심 있는 도민 • 수강료 : 무료 • 내용 : 미술관 학예업무 기초 및 전문성 교양 훈련 • 구성 : 미술관학(10주), 미술이론(10주), 미술관실무(10주), 현장학습(8주)	38주/38회 120분
전시연계 가족프로그램	가족	체험	• 제목 : 전시연계 가족프로그램 • 대상 : 초등생을 자녀로 둔 가족 • 수강료 : 무료 • 내용 : 가족 단위로 전시 작품을 감상하고 미술 체험	120분

(2) 국외 교육프로그램 사례

①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대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연계〉, 〈키즈스튜디오〉, 〈아트라이브러리〉, 총 3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현대미술을 함께 생각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나가고자 함
- 〈학교연계〉는 ‘미술관 크루즈 프로그램’과 ‘마루비 예술학교’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미술관과 지역 학교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음
- 〈키즈스튜디오〉는 ‘핸즈 온 마루비(Hands on Murubi)’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자유로운 창작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음
- 〈아트라이브러리〉는 현대 미술 및 건축, 패션, 영화, 사진 등 수 많은 예술 관련 장르와 관련된 참고자료를 제공하며, 전시회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책을 사용하여 이야기를 들려주는 ‘스토리 타임’프로그램이 운영됨

[표 V-13] 2019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주요 교육프로그램 내용

구분	연령	카테고리	교육내용	소요시간
교육 프로그램	초등학교 4학년	미술관 체험	• 제목 : 미술관 크루즈 프로그램 • 대상 : 초등학교 4학년 • 수강료 : 무료 • 내용 : 박물관 크루즈(승무원)* 프로그램의 회원과 함께 미술관의 소장작품을 중심으로 한 아이들의 작품 감상 및 미술관 체험 * 박물관 크루즈는 자원봉사 활동가로 만 20세 이상부터 참여 가능함	
	전연령	아트 라이브러리	• 제목 : 그림책을 읽자 • 대상 : 전 연령 • 수강료 : 무료 • 내용 : 전시 관련 그림 책을 읽고, 전시 감상	40분
		키즈 스튜디오	• 제목 : 나의 여름 아틀리에 • 대상 : 전 연령 • 수강료 : 무료 • 내용 : 자유로운 예술 공작실 오픈하여, 참가자가 자유롭게 재료를 가져와 3D영상 안경 만들기 등 만들기 체험에 참여	240분

②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 교육프로그램

-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의 교육프로그램은 ‘초·중·고등학교 수업과 연계’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작품감상〉, 〈스튜디오견학〉, 〈워크샵〉, 〈워크렐리〉로 구분하여 총 4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각 프로그램 별로 특화 콘텐츠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모든 교육프로그램은 ‘전시감상’을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함
- 도슨트와 함께 하는 전시감상부터 레지던시 스튜디오 견학 및 미술품 창작체험과 지역 문화공간 탐방에 이르는 프로그램이 운영하여, 학생들의 문화·예술 분야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음

[표 V-14] 2019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 주요 교육프로그램 내용

구분	연령	교육내용	소요시간
작품감상	어린이 청소년	• 제목 : 도슨트와 작품 감상 • 대상 : 초·중·고등학생 학급 • 수강료 : 무료 • 내용 : 자원봉사자 도슨트의 작품 설명과 함께 전시 감상 • 코스 : 오리엔테이션 - 전시감상	80분
스튜디오 견학	어린이 청소년	• 제목 : 예술가 레지던시 스튜디오 탐방 • 대상 : 초·중·고등학생 학급 • 수강료 : 무료 • 내용 : 레지던시 예술가와 대화 및 스튜디오 탐방 • 코스 : 오리엔테이션 - 전시감상 - 스튜디오견학	120분
워크샵	어린이 청소년	• 제목 : 예술가와 함께하는 창작 체험 • 대상 : 초·중·고등학생 학급 • 수강료 : 무료 • 내용 : 레지던시 아티스트와 함께 아시아 전통 문화 관련 작품 • 코스 : 오리엔테이션 - 전시감상 - 점심시간 - 워크샵	260분
워크렐리 (Walk-Rally)	어린이 청소년	• 제목 : 하카타 문화와 전통 배우기 • 대상 : 초·중·고등학생 학급 • 수강료 : 무료 • 내용 : 하카타구 지역 내 문화·전통 공간 견학 • 코스 : 오리엔테이션 - 전시감상 - 하카타 구 지역 문화·전통공간 견학	270분

③ 타이페이시립미술관 교육프로그램

- 전시연계 체험학습 및 도슨트 투어의 프로그램 등을 개설·운영하고 있음
- ‘Art Education In-Depth(심층미술교육)’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예술의 창작과 감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함
- 2019년 1학기의 Art Education In-Depth는 ‘동아시아 추상의 역사’ 전시연계로 진행되었으며, 초등학교 3학년생들이 동시대 예술의 주요 담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식 가이드의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음

[표 V-15] 타이페이시립미술관 주요 교육프로그램 내용

구분	연령	카테고리	교육내용	소요시간
심층미술교육	초등생	전시연계	• 제목 : 동아시아 추상의 역사 연계 교육 • 대상 : 초등학교 3학년생 • 수강료 : 무료 • 내용 : 동시대 예술 담론에 친근해질 수있도록 대화식 전시 가이드 투어 진행 • 특징 : 방문날짜와 시간 사전등록 필수	90분

④ 홍콩미술관 교육프로그램

- 홍콩미술관의 교육프로그램은 예술교육 관련 키트를 대여하는 〈홍콩 예술가의 작품(In touch with Hong Kong Artists)〉와 대나무를 통해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대나무와 함께(Living with Bamboo)〉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왔음

[표 V-16] 홍콩미술관 주요 교육프로그램 내용

구분	카테고리	교육내용	소요시간
교육 프로그램	키트 대여	• 제목 : 홍콩 예술가의 작품 • 대상 : 초등·중등학생 • 내용 : 13명의 홍콩 예술가의 교육용 키트 대여 • 특징 : 홍콩 미술관 컬렉션을 기반으로 지역 예술가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자료 제공함	-
	유아 교육	• 제목 : 대나무와 함께 (Living with Bamboo) • 대상 : 유아 • 내용 : 대나무를 통한 중국의 문화·역사의 이해 • 특징 : 교육 매뉴얼 및 키트를 온라인으로 제공함	-

(3) 교육 프로그램 사례조사 주요 쟁점

■ 대상별·연령별 맞춤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각 미술관들은 교육 대상의 특성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의 주제와 접근 방법을 차별화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과 타이페이시립미술관은 교육프로그램을 특정 연령대의 구분이 아닌 '연령'으로 구분함으로써 교육 대상을 보다 세분화하고 있음. 예컨대, 교육의 대상을 초등생이 아닌 특정 학년을 명시적으로 지정하고 있음

■ 지역 학교와의 연계 교육

- 국외 미술관의 경우 학교·학급과 연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미술관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특히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은 초·중·고등학교 수업과 연계하고 무료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미술관에 대한 학생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음

■ 미술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운영

- 서울시립미술관의 〈시민큐레이터〉, 제주도립미술관의 〈미술전문인양성교육〉은 미술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미술관의 학예업무의 기초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 교육 프로그램임
- 큐레이터 업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전시기획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내 인재개발 및 확보의 수월성이 마련될 수 있음

■ 교육 키트의 활용

- 미술관 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 외에 교육키트와 매뉴얼을 대여함으로써 시민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것이 가능함
- 홍콩미술관의 경우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지역예술가들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키트를 개발하고 대여하고 있음

■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이해의 장으로서의 기능

- 부산시립미술관은 부산지역의 미술사를 강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미술의 지속적인 연구 계기 마련 및 지역미술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있음
- 후쿠오카아시아시립미술관의 경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타카구 지역 내의 문화 및 전통 공간을 견학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음

2. 조사·연구 및 정보화 프로그램

1) 시립미술관의 조사·연구 및 정보화 기본방향

■ 조사·연구 프로그램

- 조사·연구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시립미술관이 작품을 진열하는 수준을 넘어, 주요 미술담론과 이슈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것에 있음
- 시립미술관의 고유의 콘텐츠를 생성하고 타 지역의 시립미술관과 차별성을 마련함으로써, 미술관의 주요 성장 동력의 역할이 가능할 수 있음

[표 V-17] 조사·연구프로그램의 기본 단위 기능 및 목표

영역	기능 및 목표
보존	소장품 보존 처리 통한 추가 손상 방지
전시연구	전시기획 개념화 효율성 확보 및 형식 개발
교류프로그램	미술연구의 양적 질적 활성화를 위함
출판	개발된 연구 콘텐츠의 보급

■ 정보화 프로그램

- 정보화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미술관과 이용객 간의 효과적인 소통 유발을 하는 것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미술관의 잠재 관람객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염두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정보화 프로그램은 각 영역의 기본 방향의 설정을 통해 전시·교육·경영·조사·연구 등 미술관의 타 프로그램과 상호 연동 가능하여 미술관의 운영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함

[표 V-18] 정보화 프로그램 기본 단위 기능 및 목표

영역	기능 및 목표
자료 DB화	소장품 자료의 정보화 및 체계적 관리
정보자료센터	미술관 관련 자료 및 정보제공을 통한 자료의 대중화
멀티미디어 시스템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기술 제공
홈페이지 및 사이버뮤지엄	미술관 홍보 및 소장품 검색기능 확보, 온라인 전시 및 잠재 관객 개발

2) 시립미술관 조사·연구 프로그램

■ 보존 프로그램

- 해당 부서는 인천광역시와 관련된 시각예술 자료 및 정보를 체계적 조사·수집·연구해야 함
- 작품 뿐 만 아니라, 인천지역의 미술활동이 담겨진 자료의 수집·보존·연구하는 아카이빙 작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수집된 미술품의 보존처리를 통해 추가적 손상 방지하여 작품 수명 연장하는 활동을 수행해야 함

■ 전시연구 프로그램

- 전시연구관 전시기획의 개념화 작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연구를 말함
- 매체의 복합·전환에 따른 전시 공간 및 형식의 개발 필요성 증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시립미술관은 전시의 주제 설정 및 연출 방안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교류프로그램

- 시립미술관은 인천 미술에 대한 담론에 대한 고찰 및 국내외 미술 현장의 인력 간의 교류 유도해야 함 (심포지엄 및 학술대회 개최)
- 인천미술과 작가를 연구하고 전시기획, 큐레이션, 비평 등을 담당하는 이론가의 풀을 확대하는 구심점 역할을 해당 기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음
- Fellowship, 방문 연구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내외 전문 인력이 인천미술 연구를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
- 국내·외 주요 미술관 및 연구소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연구 네트워크 구축

■ 출판 프로그램

- 인천 미술에 대한 전문 콘텐츠를 다각도로 연구하고 이를 보급
- 전시도록, 연구논문, 학회 및 세미나 자료집, 연구 출판물 등

3) 시립미술관의 정보화 프로그램

① 자료 데이터베이스

■ 자료 DB화

- 미술관의 소장품 및 도서자료를 정리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정보를 제공함
- 미술관의 연구 혹은 전시를 통해 신규 생성된 자료를 기록함에 있어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맥락의 자료 관리가 필요함

[표 V-19] 자료 DB화의 목적 및 역할

자료의 정보화	자료의 과학적 관리
- 전시, 교육 프로그램의 자료화 - 소장자료의 DB화 - 타 기관과의 자료 교환 - 인터넷을 통한 소장정보 구축 - 다양한 매개를 활용한 자료의 정보화	- 최신 정보 및 희귀정보의 수집 - 체계적이고 표준화 된 자료관리 시스템 - 자료 관리 전담 인력 확보 - 자료 관리를 위한 최신 시설과 쾌적한 공간

② 정보자료센터

■ 정보자료센터 운영방안

- 시립미술관의 정보자료센터는 도서자료 및 기록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자료의 대중화’와 ‘전문화’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 전자매체 자료 및 기본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이용자 중심의 성격을 지녀야 함

[표 V-20] 정보자료센터의 운영 목적 및 역할

자료의 대중화	자료의 전문화
• 자료 공개 서비스와 공공도서관 이용 권장을 통한 미술관 자료의 활용의 효율화 - 자료 공개 - 이용자 서비스 확대 - 공공 시설 및 공간 확보 - 효율적 전시 시스템 구축 - 다양한 자료실 프로그램 운영	•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훼손의 정도가 심한 자료는 별도의 관리가 필요함 - 체계적 자료 관리 - 전문가를 위한 제한적 자료 공유 - 전문인력(사서)의 확보 - 전문가를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위한 공간 마련

- 장기적으로, 미술관의 자료실로 한정하기보다 열람실 및 아카이브 시설 구축 요구됨
- 아카이브 시설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함: 시립미술관 역사, 전시관련 자료, 소장품 수집 및 관련 서류 등을 수집, 보관, 공개 및 제한적 공유하는 시설임

- 상설전에 포함되지 않은 소장품에 대하여 연구목적으로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는 공간 및 연구자의 접근을 위한 제반 서비스 마련 (아래 사례에 기술된 British 도서관의 연구자를 위한 공간과 제반 서비스를 참고해야 함)
- 모든 자료는 디지털화 (Digitalisation)을 통해, 효율적 열람 및 영구적 보존이 가능하게 저장할 필요가 있음

■ 사례 1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디지털 정보실

- 국립 현대 미술관은 일반인에게 다양한 미술 관련 지식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2014년 이후 설립
- 디지털 아카이브: 국내 주요 미술작가들의 자료를 DB화 한 한국 현대미술가 파일 및 비디오 아티스트의 영상 아카이브 보유 (마련된 컴퓨터로 시청)
- 디지털 도서관: 디지털 콘텐츠, 현대미술 관련 도서, 국립현대미술관 출판물, 예술분야 연속 간행물 소장하고 있으며 누구나 열람 가능



[그림 V-6] 국립현대 미술관 서울 디지털 정보실 (좌: 디지털 아카이브 우:디지털 도서관)

■ 사례 2 : 브리티시 도서관 (Reading room)

- 브리티시 도서관은 소장품 중 희귀품 (지도 등), 고서, 희귀 서적 등을 지정된 장소인 Reading Room 내에서 대여하여, 전문 인력이 연구하는 공간을 마련함
- 이용료는 무료이지만, 이용객은 사전 등록을 통해 이용증 (Reader Pass)를 발부받아야만, Reading Room에 입장이 가능함
- 이용자들은 도서관의 소장품 보호 목적에 따라, 매우 제한된 품목 (연필, 노트북)만을 소지하고 입장이 가능하며, 가방 및 외투 등을 소지 할 수 없음
-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 연출되어 있음



[그림 V-7] 브리티시 도서관(British Library)의 내부

②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 홈페이지 구축 및 소셜미디어 활용

- 시립미술관 홈페이지는 미술관 이용자가 사전 정보 취득에 용의 한 공간이며, 동시에 잠재 이용자를 개발할 수 있는 중요한 가상의 공간임.
- 영국 테이트 박물관은 미술관의 2013년 디지털 전략⁷⁾을 수립하고 미술관과 연계한 다양한 디지털 활동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시립미술관 역시 염두 해야 할 필요 있음.
- 테이트는 디지털 커뮤니티 활동을 관객이 예술에 참여하게 하는 미술관 미션 달성에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 있으며, 다음의 디지털 커뮤니티 활동을 가지고 있음(블로그, 소셜미디어, 유저 참여 공간)

7) <https://www.tate.org.uk/research/publications/tate-papers/19/tate-digital-strategy-2013-15-digital-as-a-dimension-of-everything>

[표 V-21] 테이트(TATE) 미술관의 디지털 전략

미술관의 디지털 전략의 목적
• 예술에 대한 이해도와 즐거움을 향상 • 사고력을 향상하고 참여를 유도 •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제공 • 심도 깊은 내용을 탐구하는 것을 유도 • 미술관 관련 상품의 구매를 고무시키고 테이트의 멤버십 가입 및 기부를 유도 • 플랫폼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구현

[표 V-22] 테이트(TATE) 미술관의 디지털 커뮤니티 활동

블로그	해당 미술관 큐레이터는 주기적으로 담당 전시에 대하여 글을 올리고, 미술관 직원들과 교육 담당자들도 자신들의 업무 관련 내용을 올리고 있음
소셜미디어	소셜미디어는 이미 테이트의 마케팅과 소통의 중심임. 이는 미술관과 관객과의 연계 및 테이트의 콘텐츠를 새로운 관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임
유저 참여 공간	온라인 유저들이 만든 콘텐츠는 디지털화된 컬렉션에 대한 관객의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늘리기에 중요함. 또한, 테이트는 소장품을 활용한 아이들의 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③ 멀티미디어 시스템

■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활용

- 멀티미디어 시스템은 양질의 정보를 미술관 관람객에게 제공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써, 관람객이 미술관의 전시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함
- 다양한 디지털 매체의 융합을 통한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마련으로, 인터랙티브 전시가 가능해짐
- 다감각적 상호 작용성을 내재한 전시물은 관람자에게 몰입, 참여, 이해, 상기를 유발하며, 전시물의 유인력과 보유력, 전시 만족도, 관람 소요시간을 증가시킴(Allan & Gutwill, 2004)

④ 사이버뮤지엄

■ 외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사이버 뮤지엄 운영

- 시립 미술관의 기술적/재정적/시간적 여건을 고려하여, 가상의 미술관을 구축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진은 외부 기관(구글)과의 협업을 제안함: 구글은 전 세계의 다양한 미술관 및 박물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가상의 공간 (Google Arts & Culture) 에 이 예술기관의 내부와 외부 및 소장품을 구현하고 있음

■ Google Art & Culture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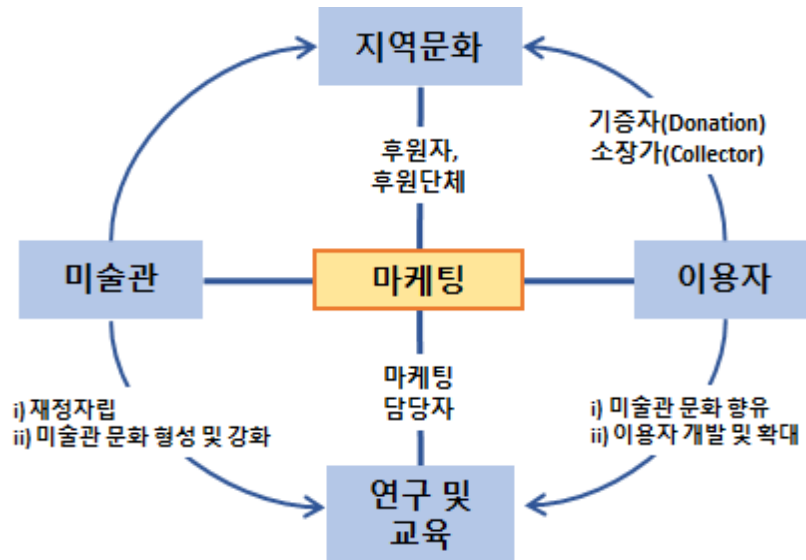
- 2011년 구글의 비영리 부서에서 Google Art Project라는 프로젝트 명으로 17개의 미술관과 협업으로 시작한 사업이었으며, 해당 프로젝트는 미술관의 소장품의 디지털화를 통하여 보다 많은 대중에게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Procto, Nancy. 2011)
- 현재 80여 개국 1800개 기관과 제휴하여 7000여 개의 전시를 온라인으로 선보임
- 구글은 기술력을 이용하여, 예술기관의 소장품을 스캔하여 플랫폼에 데이터로 저장하며 현재 GAC에는 780만 개의 디지털 이미지가 저장되어있음 (특히 기가 픽셀 이미지를 통하여 스캔된 그림들의 경우, 눈으로 볼 수 없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확인 가능함)
- 구글의 Street View 기술을 이용하여 미술관 내/외부를 파노라마 스캔하여, 가상의 뮤지엄 구현하고 있음: 현재 국내 문화예술기관 30개가 GAC에 참여 중
- 플랫폼 GAC는 웹사이트 형식 외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형식으로 구현 및 제공됨. 특히, GAC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들은 GAC 웹 사이트에 제공되는 기능 외 가상현실, Art Selfie 등도 이용 가능함

■ 시립 미술관의 Google Art & Culture 참여의 장점

- 시간, 인력, 재정적 측면: 외부 업체를 통한 시립미술관의 내/외부 및 일부 소장품의 디지털 화 가능함
- 홍보의 측면: GAC를 통해, 전 세계 이용자에게 미술관 노출 및 홍보 효과 가능
- 관객 및 잠재 관객 분석 측면: 구글은 협력기관에게 GAC 내의 해당 기관에 방문하는 관객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일정 부분 공유할 예정임

3. 홍보 및 마케팅 프로그램

1) 시립미술관의 홍보·마케팅 기본방향⁸⁾



[그림 V-8] 홍보 및 마케팅의 역할과 기능

(1) 홍보·마케팅의 의의

- 홍보, 고객관리, 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하는 미술관 마케팅은 시립미술관의 활동을 활성화시켜 설립취지를 존속하고 확립해가는 운영과정임
- 시립미술관은 마케팅을 기획, 운영해 가는 과정을 통해 대중의 시립미술관 활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키며, 지역사회에서 시립미술관 위상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 가능함

(2) 홍보·마케팅 방안

- 효율적인 마케팅을 위해서는 마케팅 기반의 구축이 중요하며, 이는 독립적인 담당 부서의 구성과 전문 인력의 구축을 통해 이루어짐
- 이에 따라 마케팅 부서에서는 미술문화마케팅 전문가, 전직 언론인 또는 기자 등을 영입 하여 언론 대응 및 온·오프라인 활용 마케팅 전략, 미술교육사업 및 관련 상품 개발 등 다양한 홍보마케팅 전략을 개발해야 함

8) 미술관 등 비영리기관의 마케팅 목적은 영리추구가 아니라 일반 대중의 저변을 확대하고 비영리기관의 설립취지와 그 이용자를 연결하는 총체적이고 창의적인 기능으로 이해해야 함. 또한, 비영리기관 공급은 수요에 대해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요구에 대해 이루어 짐

- 또한, 최근 마케팅에서 핵심사항으로 떠오른 유튜브 및 SNS활용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유튜브 디자인·제작·운영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과, SNS의 디자인과 운영을 전담할 인력 채용은 필수적임
- 마케팅을 통해 관람객을 세분화하고 각 이용자 그룹에 적절한 서비스 전략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며 잠재적 관람객의 개발과 관람객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요소를 구축해야 함
- 전략적 마케팅을 통해 시립미술관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키고 지지도를 향상시킴으로써, 미술 문화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에서 시립미술관의 역할을 견고하게 해야 함

(3) SNS 및 유튜브를 통한 홍보·마케팅 전략

-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이용하기 편리한 관람시스템 구축
 - 스마트기기를 통해 누구나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립미술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이를 중심으로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을 운영
 - 저예산으로 파급력이 큰 유튜브와 SNS를 활용하여 시립미술관 홍보·마케팅을 활성화해야 함
- 유튜브, SNS를 적극 활용한 화제성 있는 프로모션 확대로 목적형 관람객 유치
 - 시립미술관의 주 관람층은 학생단체가 가장 유력하나, 수도권지역과 인천을 찾는 관광객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주요 고객층으로 인식하고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마케팅 전략이 필요함
 -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한 지속적이고 화제성 있는 프로모션을 확대하여 관광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인천시와 시립미술관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 해야 함
 - 새롭고 다양한 홍보·마케팅 이벤트를 추진하여 목적형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지역 내 지지도 확보를 달성해야 함
- 공공 및 민간 네트워크와 연계를 통한 홍보 효과 극대화
 -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청, 인천시청, 한국관광공사 등 공공부문의 지원 및 민간 관광업체 등의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홍보·마케팅을 추진해야 함
 - 민관 연계를 통한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마케팅을 실시하여 지역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 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함

2) 시립미술관의 홍보·마케팅

(1) 기본방향

- 시립미술관의 미션과 관람객의 성격에 부합하는 마케팅, 홍보 프로그램 개발
- 단계별 홍보의 목표 설정을 통한 홍보 효과 집중
- 온라인 서비스, SNS활용, 회원제운영을 통한 이용자 참여도 향상 및 관람객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접근 시도
- 시립미술관의 특성을 담은 문화 상품 개발 및 뮤지엄샵 운영을 통한 시립미술관 정체성과 특화 이미지 확보에 주력
- 전시별, 시기별 문화행사 기획, 운영을 통한 관람객 참여 기회 확대 및 시립미술관 위상 확보

(2) 홍보·마케팅 전략 핵심사항

- 기업과 달리 미술관에서는 아직 조사가 본격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 미술관 Formation의 과정에서부터 미술관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기 위해 수시로 여러 가지 형태의 조사를 실시하여 알맞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또한, 사회변화속도에 맞추어 다양하게 변화하는 이용자들의 기호와 관심사를 파악해 이를 근간으로 홍보 전략을 구축해야함
- 시립미술관은 기성 문화기관들의 유사성을 탈피하여 독창적인 방향성을 갖추어야 하며 홍보 또한 예외가 아님. 정확한 벤치마킹 대상의 선정과 이의 분석, 분석된 자료를 시립미술관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제 구성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함
- 홍보는 경영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이해되고 활용되어야 하며, 시립미술관 홍보 활동은 미술관 홍보 전문가가 반드시 담당하여야 함
- 현대 문화기관의 경영을 살펴보면 홍보는 마케팅 담당 인원이 병행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는 홍보가 마케팅의 중요한 툴(Tool)로서 작용하며 마케팅의 전체 전략을 기준으로 구성, 활용되어야 그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문화기관들, 특히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인력구조 내 홍보팀의 개별적 구성은 실효성이 부재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시립미술관의 조직에서는 홍보 업무를 마케팅 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조직 구성의 형편상 전체 마케팅 팀이 조기에 완성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관 전 홍보의 중요성으로 고려하여 홍보 담당 전문가의 채용을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3) 시립미술관 홍보·마케팅 전략(안) 및 프로그램 사례

(1) 시립미술관 홍보·마케팅 기본 전략 개요

- 시립미술관의 마케팅 전략은 시립미술관의 위상에 부합하며 미션 수행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전략이 구상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시립미술관의 마케팅 분야는 조직·재정·시설의 주요 마케팅 업무와 고객관리 서비스, 특별활동 및 연계 활동 프로그램의 마케팅 확장업무로 구분되며, 각각의 분야에서 그 성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전략적 비전과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될 수 있음

[표 V-23] 시립미술관 마케팅 및 고객관리 전략 비전의 주안점

홍보·마케팅 전략	• 자율운영적 조직 구성을 통한 업무효율의 극대화 - 이용자 관련 업무를 위한 원활한 협력과 관리 체제
	•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략 - 기부, 모금, 협찬, 후원, 메세나 등을 통한 모금 활동
	• 전략적 시스템 개발을 통한 시설운영 방안 구축 - RFID 등 무선 인터넷 시스템을 적극 활용
고객관리 서비스 전략	• 대상층에 따른 세분화된 고객관리 서비스 - 이용자별 차별접근 전략 및 재방문 유도 서비스 전략
특별활동프로그램 및 연계 활동	• 이벤트 및 연계 활동을 통한 관람객 유도 및 잠재고객 확보 - 딱딱한 교육시설 이미지 회피, 시리즈형 콘텐츠 등 제시

■ 첫째, 고객관리 서비스임을 명심

고객관리 서비스의 비전과 목표(안)

- ▶ 시립미술관의 관람객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절한 고객관리 서비스 시스템이 필요하다. 고객관리 서비스는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이용자를 세분화하고, 각 이용자 그룹에 적절한 서비스 전략을 차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은 이용자를 재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서비스 방안 구축에도 토대가 될 수 있다.
- ▶ 고객관리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전담 지원팀을 구성하며, 분명한 지침을 통해 선반할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교육한다. 고객관리 서비스 팀과 자원봉사자들은 이용객이 만나는 시립미술관의 가장 첫 얼굴일 수 있음을 명심한다.

■ 둘째, 전시 기획력의 강화

-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의 성향을 파악하고 관람객과 교류 가능한 전시를 기획할 필요가 있음. ‘보는 것’ 만으로도 즐거운 전시기획을 통해 관람객의 폭을 확장해야 함
- 전시기획은 단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2~3년)으로 계획되어야 함. 수년 전부터 오늘의 사회, 문화, 전시 트렌드 등을 미리 읽어 준비해야 완성도가 높은 전시를 선보일 수 있음
-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수년 뒤에도 시의성에 적합할지 검토가 필요함

■ 셋째, 사진과 SNS 활용이 가능한 환경

- SNS 활성화 덕분에 일명‘전시 인증샷’은 전시 자체를 바이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사진 촬영을 허락하면 전시관람객 한 명 한 명이 모두 ‘광고 채널’이 될 수 있음(인스타그램 #대림미술관 해시태그 게시물은 22만 건에 달하고 있음)

■ 넷째, 자주 찾게 유도하는 전략, 티켓팅

- 인천시내의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기관과의 연동 티켓제도를 도입하여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 또는 시립미술관의 전시 기간(기획전, 특별전 등)동안에는 한 번 티켓을 구매하면 무제한으로 입장 가능하도록 입장제도 개선
- 티켓팅 전략과 회원제도를 엮어서 회원의 경우 연회비 1만 원 정도에 1년 동안 무제한 입장을 제시하거나 회원 추천제도(회원 추천으로 가입하는 경우 할인 혜택 부여) 등을 도입하여 신상을 알 수 있는 회원을 확보. 확보된 신상은 ‘고객 분석’의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 가능함

(2) 시립미술관 홍보·마케팅 전략(안)

① 이민사 (디아스포라 Diaspora) 관련 전략 활용

- 인천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이민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도시로 구한말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로 이민하기 위한 출발지로서, 현재는 해외에서 코리안드림을 찾아오는 이민자들의 목적지로 자리하고 있음
- 1902년 국가 승인하에 이민자들을 하와이로 보냈던 인천은 그러한 이민사를 기억하기 위해 ‘한국이민사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음
- 또한, 국내 유일의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매년 개최되고 있기도 함
- 따라서 시립미술관은 전시와 교육 등 프로그램의 선정과 운영에 있어 인천의 특징 중 하나인 ‘디아스포라’를 염두에 둔 기획이 필요함
- 영화제가 열리는 기간 동안 영화제의 슬로건(2018년 ‘환대를 넘어’, 2019년 ‘사이를 잇는’)를 주제로 하는 미술 작품을 선정, 또는 공모하여 이를 전시함으로써 영화제와 자연스러운 공조체제를 갖출 수 있음
- 영화제 기간을 포함한 전후 기간 동안 영화제 조직위원회 및 한국이민사박물관과 공동 기획하는 디아스포라 관련 그림그리기 대회 등을 기획하는 것 역시 좋은 전략으로 작용할 것임
- 한국이민사박물관과의 적극적인 연계로 인천지역 거주 중인 고려인 등 해외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진행, 시민과 함께 하는 시립미술관의 이미지 확보
- 국제영화제로 유명한 부산은 이미 영화제와 박물관(부산영화체험박물관), 유명 음식점과 문화관광지의 연계 전략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사례 부산국제영화제 팸투어 (무비히어로즈)

부산국제영화제 투어가 아닌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장소를 체험’하는 행사



- 부산역에서 출발하여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관람, 영화 촬영지로 유명한 음식점과 문화마을 탐방 후 부산국제영화제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일정을 구성하고, 예약한 50명을 대상으로 한정적인 팸투어 진행
- 참가자들은 각각의 개인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참여했던 팸투어와 각 관람장소를 소개
- 영화진흥위원회의 홍보보다 월등한 홍보 효과 창출(매년 팸투어 참여 희망자가 증가)

② 인천 공단 근로자와의 연계

- 인천은 1960년대 이후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정책과 함께 공단의 조성이 급속화 되었음. 대표적으로는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된 남동공단과 도화동 등에 위치한 수출공단, 인천지방공단, 인천기계공단 등 대규모의 공단이 자리하고 있음
- 이 중 남동공단만 하더라도 인천 제조업의 85%, 종사자 수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인천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근로자 수는 6만여명에 달하고 있음
- 공단 근로자의 문화향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동과 관련된 전시, 근로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야간 및 주말 등으로 특화) 등을 기획하여 공단 근로자와 그 가족을 시립미술관의 고객으로 흡입
- 특히 여성근로자와 근로자 가족대상 프로그램은 시립미술관이 그 포지셔닝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계획해야 할 것으로 시립미술관의 브랜드화 정책과 전략에 포함되어야 함

③ 관광지 연계 및 가족 대상 전략

- 인천의 유명 관광지(월미도, 차이나타운 등)와의 연계 전략을 통해 관광객을 시립미술관 관람객으로 유도하는 전략의 채택 역시 중요 마케팅 고려 대상임
- 미술관의 특성상 미술관 관람만을 목적으로 하는 관람객 뿐 아니라 다양한 목적으로 인천을 찾는 사람들(특히 관광객)을 시립미술관으로 유입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
- 관광 형태가 기존의 자연 감상, 유명 사적지 등의 관람 위주에서 쇼핑관광, 생태관광 등으로 점차 다변화되어 가는 현상에 주목하여 인천의 특화된 관광자원과 연계한 특화 관광상품으로 개발이 가능
- 시립미술관을 포함하여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는 관광코스를 구축하고 이를 홍보하여 자연스럽게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 인천시의 주요명소, 숙박, 먹거리, 즐길거리 등 관광 목적지의 현황을 파악하여 자원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
- 또한 시립미술관 자체를 '문화예술관광'자원으로 인식하고 일종의 '특별관심관광:SIT'형의 관광상품화 하는 방안 역시 고려 대상임
- 현대의 관광객, 특히 가족단위의 관광객은 관광 활동에 대한 교육적, 체험적 동기가 강해지고 있는 추세이며 문화적 경험을 통한 만족을 중요시하고 있어 음악, 미술관, 뮤지컬, 영화 등 문화색이 강한 SIT(Special Interest Travel) 분야인 문화예술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문화예술관광은 높은 만족을 제공하는데 성공한다면 재경험 욕구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발전가능성이 큰 편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관광목적지에서의 문화예술 참여와 체험활동은 지역의 이미지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일본 가나자와현의 문화예술관광정책은 가나자와 21세기미술관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할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한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등 지역 차원에서의 문화예술관광 정책을 펼쳐 성공하고 있는 사례임



[그림 V-9]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 우리나라의 '뮤지엄 산'은 문화예술관광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으며 미술관 건물 자체가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서, 또한 주변의 자연 풍경과의 어울림 등 공간의 장소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접근성이 다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을 꾸준히 유인하고 있음



[그림 V-10] 뮤지엄 산

④ 기타 시립미술관의 홍보·마케팅 전략 제시

■ 스마트 기기와 어플리케이션의 활용

- 시립미술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관람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시립미술관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시립미술관의 홍보와 안내 서비스 제공은 물론 시립미술관의 전시물 안내 해설 서비스 제공
- 시립미술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관람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교육관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시립미술관을 중심으로 한 인근 유관기관의 다양한 정보를 같이 제공함으로써 미술문화 교육체험의 계획을 세우고 지역을 방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시립미술관을 중심으로 인천의 주요 관광명소, 주변 숙박 및 맛집 소개, 축제 안내 및 예약, 관광 상품 및 코스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관광객을 유인하는 홍보를 강화
- 방문 후 체험 후기, 내비게이션과 연동한 길 찾기 기능, 다국어 서비스 등의 정보 제공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방문률 제고

■ 회원정보 관리를 통한 지속적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 스마트 기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시립미술관 뿐 아니라 인천시의 주요 문화관광·교육 자원에 대한 홍보물을 신청하여 받아볼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회원 관리를 통해 시립미술관 프로그램 안내와 함께 지역의 축제 및 이벤트 기간에 홍보물을 팝업 형태로 발송
- 시립미술관의 캐릭터 및 디자인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스킨을 개발하여 관람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전략을 기획·실시함

■ 인터넷과 SNS의 적극적 활용

- 다수의 문화·예술 교육기관들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기반 디지털 홍보 콘텐츠를 활용하여 이야기가 있는 ‘개인화’, ‘참여적’, ‘실시간’을 키워드로 하는 홍보전략을 채택·시행 중임
- 특히 유튜브 채널의 확보와 운영은 필수사항이며 이 외에 전시, 체험 영상 등을 소재로 UCC 대회 등을 개최하여 우수 콘텐츠 제공자에게는 인천시장상 등을 수여하는 등 참가 독려 가능
- 인터넷과 인터넷 기반 SNS의 마케팅 톨의 장점은 다음과 같이 설명됨
 - 기존 미디어와 달리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여 관람객의 참여, 공유, 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음

- 관람객(또는 잠재 관람객)이 이미 가지고 있는 SNS 네트워크를 통해 마케팅 경험 및 콘텐츠가 구현되는 바이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
 - 신뢰성과 진실성을 기반으로 관계 지향적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여 긍정적 반응과 로열티 확보에 용이
- 따라서, 시립미술관이 인터넷과 SNS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중 참여적 소통 방식과 실시간적 반응, 매체별·이용자별로 맞춤형 정보를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 SNS 매체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이용기반을 구축하며 홈페이지와의 통합 운영을 고려해야 함

사례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안내 App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안내 App

스마트폰 스토어에서 '국립현대미술관' 검색 후 무료로 설치하세요
MMCA App is provided in English
You can download it through the smartphone store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국립현대미술관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작품안내
작품 앞에 서면 자동으로 해설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선택 작품에 한함
Approach to the artwork and receive information on the spot

가이드투어
미술관이 제안하는 경로를 따라 다양한 작품 속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Follow the path to discover artworks and find out new insights about the artist

• 전시실 안에서는 반드시 이어폰을 사용해주세요
• 앱을 사용하기 위하여 블루투스 설정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 'MMCA 전시안내 앱'은 기존에 유료로(3,000원) 기기를 대여하여 이용해 온 오디오가이드 서비스를 보완하여, 미술관 내 어디서나 관람객이 스마트폰 앱 설치 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
- 과천관, 서울관, 덕수궁관 등 3개 미술관 전시실과 복도에 설치된 600여개의 비콘(근거리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관람객의 실시간 위치를 탐지하여 근접한 전시와 작품에 대한 음성 안내를 자동으로 제공 ('작품안내'와 '가이드투어'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
- '작품안내'는 자유롭게 전시실을 이동하며 원하는 작품에 대한 안내를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음. 관람객의 위치가 바뀌면 근접한 작품 목록이 실시간 갱신되어 관람객이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화면 상단에 이미지로 표시
- '가이드투어'는 미술관이 제안한 경로를 따라 전시와 작품에 대한 보다 풍성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음. 전시에 참여한 미술 작가와 학예사, 스토리텔링 작가의 협업을 통해 관람객들이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전시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디자인

■ 인터넷 파워블로거 모집을 통한 시립미술관 기자단 운영

- 국내 미술 및 문화 관련 분야 파워 블로거를 모집하여 시립미술관 기자단으로 위촉하고, 시립미술관과 인천시의 생생한 소식을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SNS 및 블로그에 업데이트 하여 구전효과를 극대화
- 선정된 기자는 소정의 원고료의 지급이 필요하며 시립미술관 기자증을 발급하고 연 2회 기자단의 활동을 모아 책자 발간



[그림 V-11] 국립중앙박물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기자단의 모습

■ 시립미술관의 전시물과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콘텐츠 상품 개발

- 시립미술관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의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캐릭터를 상품화
- 시립미술관을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를 제작하여 소품, 의상 등 다양한 콘텐츠 상품을 개발

■ 회원제 운영

- 개인 및 가족회원제 운영으로 손쉬운 재방문 유도
- 학교회원제 운영으로 유치원, 보육원, 초중고등 교사를 대상으로 무료관람 및 미술관 행사 프로그램에 참여 유도

(3) 홍보·마케팅 추진방법

- 마케팅 추진방법은 [표 V-24]~[표 V-27]과 같은 일반계획과 서비스 특화계획, 이용자별 지원서비스 계획, 지원 인력교육 계획에 따라 전시 관람 및 체험 지원서비스를 제공 가능함

[표 V-24] 관람객 프로그램 일반계획

구 분	관람 지원서비스 내역
지원계획	• 다양한 수준과 형태의 전시 설명 가이드북, 전시해설사 및 전시 설명 • 어플리케이션의 개발과 활용, 자원봉사자 활용
편의계획	• 뮤지엄 샵, 간이 카페테리아 운영, 관람 피로도 최소화를 위한 휴게 공간 배치, 유모차 대여, 모자보건실, 어린이 방 등 운영
접근성을 위한 지원서비스계획	•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지역 내 숙박업소 등과 연계한 홍보 • 각 지자체 및 중앙부처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 지역의 교육 단체 및 교사와 학부모 커뮤니티와의 교류 추진 • 단체 및 개인 관람객을 구분하여 서비스 지원

[표 V-25] 서비스 특화계획

구 분	서비스 특화 내역
기본개념	• 특화 피드백 시스템(Specialized Feedback System)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서비스 제공
특화 피드백 시스템의 내용	• 이용 전 교육 →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시 문제점 정리 → 해결방안 도출 → 결과의 데이터베이스화 → 결과반영 • 민원방지 및 처리 시스템의 내용 일부를 같이 직원 간 공유 • 출입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용자 성향 추이 분석 활용 • 외부 강사 초빙 및 타 시설 견학을 통한 지원서비스 품질 극대화
단체이용자	• 요청 시 관람 및 교육 참여시간과 유형에 따라 맞춤형 설명과 시립미술관 경험 제공

[표 V-26] 이용자별 지원서비스 계획

구 분	이용자별 서비스 내역
기본개념	• 학생, 유치원생, 장애인, 노인, VIP, 외국인 등으로 이용자 각자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
학생	• 교과과정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단체관람 시 편의 공간 제공, 목적과 유형에 따른 맞춤형 전시설명, 활동지 및 학습 관련 자료제공
장애인	• 접근 편의성 확보, 특수교육 전문 교육담당자를 통한 전시안내와 설명, 입장과 이용 동선에 있어 우선 배려
노인	• 관람 피로 최소화를 위한 휴게 공간 제공, 전시설명
VIP	• 독립 동선 제공, 학예사 등을 통한 전담설명 및 안내 담당 서비스 제공
외국인	•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불어) 가이드북 제공, 다중언어지원 어플리케이션 개발, 필요시 도슨트 서비스 지원, 다양한 뮤지엄 샵(Museum Shop) 상품 진열

[표 V-27] 지원 인력교육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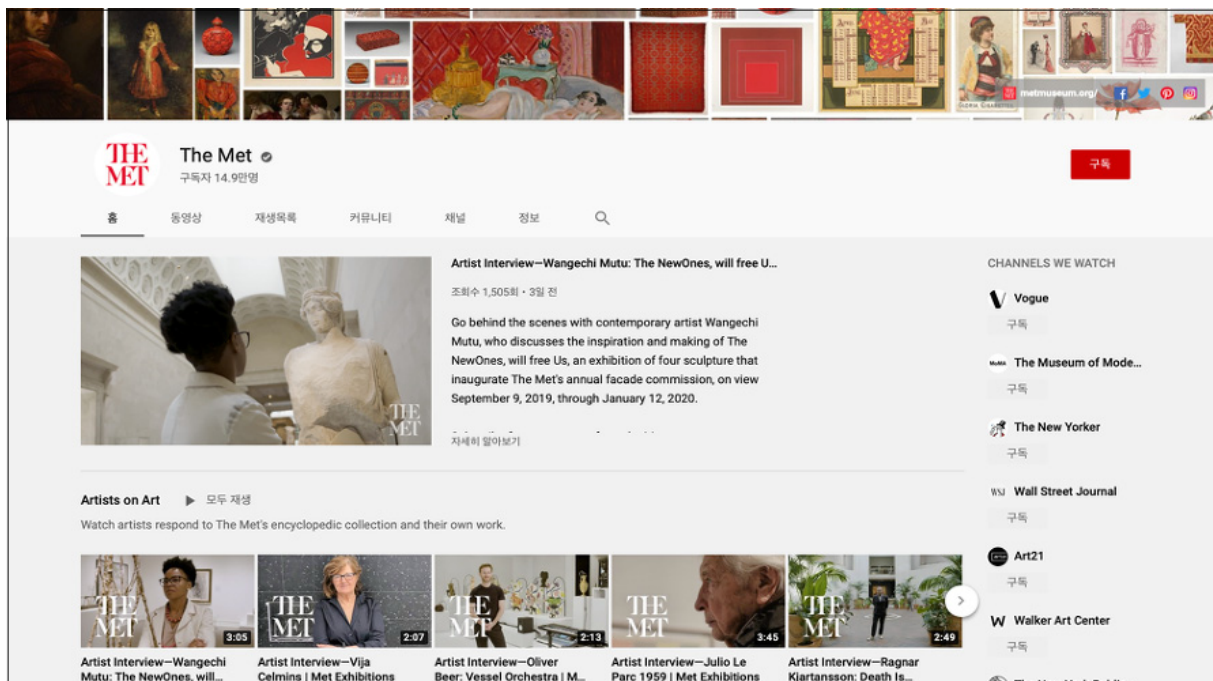
구 분	교육내용	교육주체	교육대상	교육주기
이용자 서비스교육	- 서비스 마인드 의식 강화 - 인사, 전화, 대화 등 예절교육 - 전시공간 및 교육공간 특성에 맞는 소양 교육	초청강사/ 외부 위탁교육	전 직원	연 1회
도슨트 교육	- 오리엔테이션 - 대상별(아동, 단체, 장애인/노약자, 외국인, VIP) 맞춤 도슨트 교육	학예 팀장	운영 요원 자원봉사자 인턴	수시
인턴교육	- 전시기획, 교육, 홍보, 실무교육 - 도슨트 교육	해당 담당자	인턴	수시
수화교육	운영 요원 전체 수화가능을 위한 수화통역자 초빙 교육	수화 통역자	운영 요원	안정화 이후부터 실행
전시시설물 안전교육	- 시립미술관 시설물 이해 -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기본점검 교육 - 안전사고 초기 진압을 위한 긴급대처방안	학예연구 팀장	운영 요원 자원봉사자 인턴	매주
소방교육	관할 소방서 소방교육 프로그램	관할 소방서	운영조직 전체	분기

(4) 홍보 프로그램 사례

- 세계의 우수 미술관을 이끄는 마케팅과 홍보 실무자가 이야기하는 공통 의견을 정리해 보면 “우리의 타깃이 누구인지 알고, 그들을 미술관에 더 많이 데려오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임
-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콘텐츠의 종류가 과거보다 다양해지면서 미술관과 박물관의 관람객 또한 다양한 영역으로 흩어지고 있어 이제는 미술관의 경쟁 상대가 같은 분야 문화기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의 플랫폼으로도 확장되고 있음을 주지해야 함
-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미술관 홍보는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IT산업, 기업형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과도 경쟁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고 단순한 ‘알림’ 수준이 아닌 철저한 분석을 통한 전략의 개발이 가능한 전문성으로 무장해야 함

■ 뉴욕메트로폴리탄 미술관 : 유튜브의 활용⁹⁾

-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유튜브를 통해 330만여 점에 이르는 방대한 소장품과 콘텐츠를 디지털 형태로 재생산하고 공유하며, 세계 곳곳에 숨어있는 잠재 관람객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음
-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유튜브 채널은 ‘예술가 인터뷰’, ‘멧 갈라 패션’, ‘작품 보존 작업실’, ‘전시’, ‘음악’, ‘신규 수집품’ 등 6가지 메뉴로 구성되어 있음
- ‘예술가 인터뷰’ 코너에서는 미술관 직원과 큐레이터가 적극적인 모습으로 출연해 미술관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상황을 생생하게 전하며, ‘작품 보존 작업실’ 메뉴에서는 실제 관람을 통해서도 알 수 없었던 작품 보존 작업실의 비하인드 스토리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다루어 미술관에 대한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음
- 또한 ‘멧 갈라(Met Gala) 패션’ 메뉴의 A-Z와 하이라이트 클립은 미술관 유입 인구 상승에 큰 역할을 했었는데, 멧 갈라는 멧의 의상 연구소(Costume Institute)가 주관하고 미국 보그(Vogue)의 편집장인 애나 윈투어(Anna Wintour)가 연출하는 미국 최대의 패션 이벤트임
- 다양한 영상 콘텐츠로 멧을 간접 경험하며 상상력을 극대화하는 가상의 관람객, 즉 구독자 수는 약 15만 명에 이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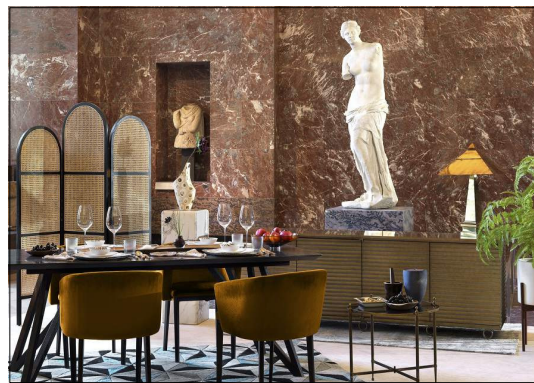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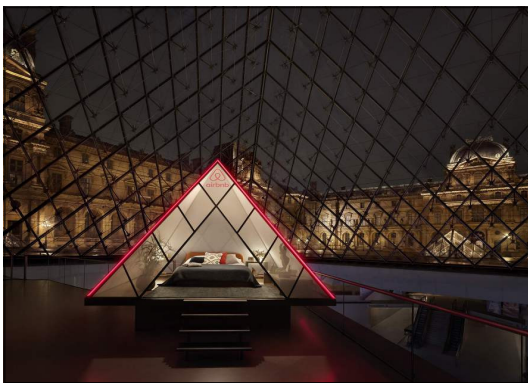


[그림 V-12] 뉴욕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유튜브 채널

9) 뉴욕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유튜브 주소 : <https://www.youtube.com/user/metmuseum/featured>

■ 미술관에서의 하룻밤 : 루브르박물관, 뉴욕 자연사박물관, 뉴욕 루빈미술관

- 루브르박물관은 유리 피라미드 개관 30주년을 기념하여 숙박 공유 기업인 에어비앤비(Airbnb)와 함께 루브르에서의 특별한 하룻밤을 기획하였음
- ‘내가 모나리자의 손님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기재하는 이벤트 당첨자 1명은 동반 1인과 함께 아무도 없는 루브르 박물관에 초대받아 루브르 관장의 안내에 따라 둘만의 관람을 즐길 수 있도록 함. 국가원수나 유명인만 참여할 수 있었던 VIP 투어를 젊은 관객의 취향과 관심사에 맞춰 새롭게 기획한 ‘루브르에서의 하룻밤’ 이벤트는 전 세계의 18만 2천 명이 참가하고 있음



[그림 V-13] 루브르박물관 X 에어비앤비

- 영화 ‘박물관이 살아있다’의 실제 무대였던 미국 뉴욕의 자연사박물관은 박물관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박물관 밤샘파티(Museum Sleepovers)’ 프로그램 ‘영화 속 하룻밤’ 이벤트를 기획하였음



[그림 V-14] 박물관 밤샘파티

- 뉴욕의 루빈미술관은 인도 지역의 예술 작품과 티베트 문화를 소개하며 미국의 인종 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에 힘쓰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명상과 대화, 야식을 자유롭게 즐기다 밤이 되면 각자 원하는 작품 앞에 침낭을 깔고 누워 티베트의 자장가를 들으며 하룻밤을 지내는 ‘꿈의 조력자(dream facilitator)와 잠드는 하룻밤’을 기획, 예술작품에 보다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비일상적인 즐거움을 제공함



[그림 V-15] 꿈의 조력자와 잠드는 하룻밤

4. 야외공원 활용방안

1) 야외공원 환경 여건

(1) 야외공원 조성방향

- 부지면적 : 보존구역 8,707㎡ (문화시설용지 15,600㎡ 중 일부)
- 건물면적 : 연면적 1,802㎡(선교사사택 7동, (구)극동방송사옥 1동)
- 조성목적 : 뮤지엄 콤플렉스 공간과 상업시설 공간 사이에 공원구역을 배치하여 두 개 구획 간의 완충지대,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 조성방안 : 기존 선교사사택 정원 및 공원의 외관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함
- 조성방향 : 화랑, 기념품판매소, 인천뮤지엄파크 스토리텔링 미니박물관, 기독교기념관 등으로 조성



[그림 V-16] 부지 내 선교사사택과 정원

※ 참고 : 선교사 사택, (구)극동방송 사옥

- 보존규모 : 1,802㎡ (선교사사택 7동, (구)극동방송사옥 1동)
- 건축시기 : 1950년대(근대건축물 가치 有)
- 주요특징 :
 - 1955년 6월 '한국 복음주의 방송'이 극동방송 개국
 - 해당 부지에 미국식으로 9개의 동을 신축
 - 무선국 사옥과 부속 건물, 선교사 등이 묵었던 사택 7동이 훼손되지 않은 채 보존됨
 - OCI가 해당 부지 인수 후 공장을 세웠지만, 건물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존하여 직원기숙사 등으로 사용



[그림 V-17] 극동방송사옥

2) 야외공원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방안

■ 조각공원 : 야외 조각공원 및 조각전 기획

- 부지 내 공원에 조각 작품을 설치하여 조각공원으로 조성하거나, 기획전을 운영하여 다양한 조각 작품을 전시할 수 있음

소마미술관과 올림픽 조각공원 사례	사진
• 소마미술관은 서울 올림픽 시기에 조성된 올림픽 조각공원을 미술관 소속으로 운영하며, 조각공원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음	

■ 서점 : 해외 미술관 도록 및 미술관련 도서 판매

- 인문학 관련 도서, 청년 문화예술인들의 독립출판물들을 구매 가능한 서점 조성을 고려할 수 있음
- 국립현대미술관은 개관 50주년을 맞이하여, 높은 수요가 있었던 해외 미술관 도록과 작품을 함께 판매하는 '미술책방'을 개점하였음

미술책방 사례	사진
• 국립현대미술관이 발간한 도서 150여 종을 비롯해 • 해외 유명 미술관의 도록, 비평 위주의 이론서 등 국내외 예술 서적 1,000여 종을 구비함 • 국내 대형 서점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해외 미술관의 도록을 국내에 먼저 소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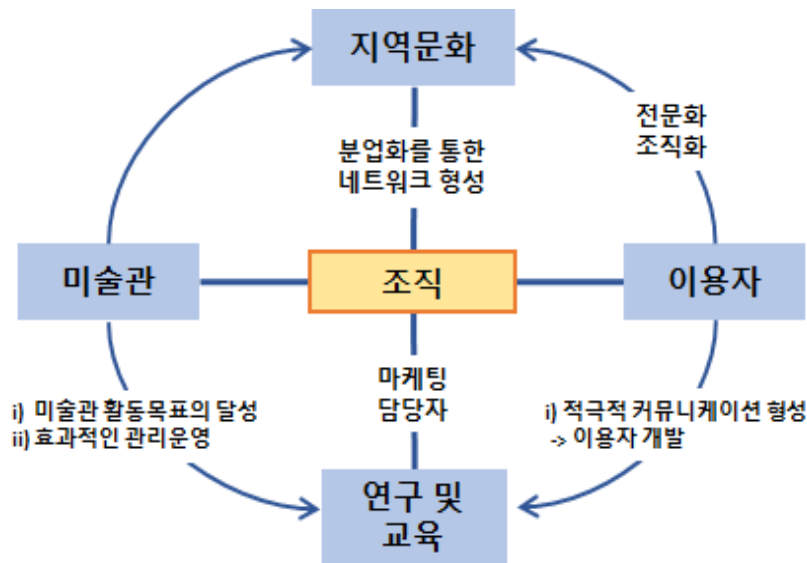
■ 어린이 교육 공간 : 시립미술관 어린이 교육 전용공간으로 활용

- 공원 내 사택을 어린이 교육 전용공간으로 활용하여 공원 연계 교육프로그램 실행 및 어린이미술관 기능을 병행할 수 있음

국립현대미술관 사례	사진
• 과천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국립어린이미술관으로, 어린이·가족 대상 전시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현대미술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교육문화공간임	

5. 시립미술관 조직 및 운영주체 설정

1) 시립미술관 조직 개념 및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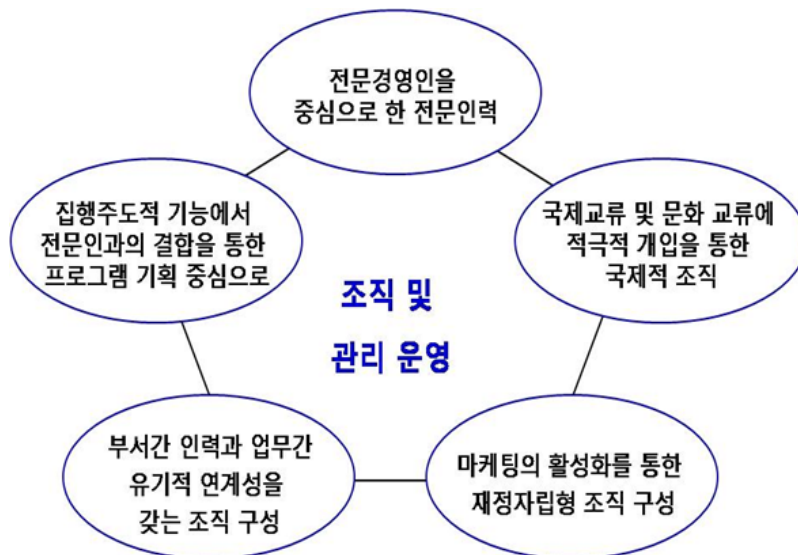
[그림 V-18] 미술관 조직의 역할과 기능

- 시립미술관은 인천지역 미술을 중심 주제로 하여 근현대미술과 관련된 예술작품의 조사, 연구, 수집, 보존, 전시, 교육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업무가 이루어짐
- 다양한 업무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전문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조직의 구성과 관리 운영이 필요함
- 따라서 업무의 특성화에 따라 조직되어야 하며, 조직 내 부서 간의 유대는 긴밀해야 함. 조직의 유기성이 극대화 되면 시립미술관의 기능은 통합적인 성격을 띠게 되며 미술관의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됨

2) 시립미술관 조직 및 관리 운영프로그램 기본방향

-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잘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운영조직이 미술관의 공공성과 더불어 경영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음
- 타 유사기관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적합한 조직을 구성함
- 마케팅, 학예, 전시, 관리, 교육 등 체계적인 조직 구성을 통해 업무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이와 같이 체계적, 효율적으로 구성된 조직을 통해 잠재 이용자를 개발하고 관리하며 고정 이용자층을 확보함

- 지속적인 회원모집 및 관리 운영, 효과적인 홍보활동 프로그램 개발, 관련 기관 및 업체 연계 전략을 통한 수익사업 제안을 통해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적재적소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해 대학이나 관련 연구소의 협력 및 연계방안을 채택할 수 있음
- 재정 운영에 관하여 회원 관리와 회원제도의 활용으로 일정한 고정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연관 업체의 연계를 통한 재원 조성 역시 일회성 후원금이 아닌 상호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계획안을 기초로 수익사업, 현물 협찬, 출판사업, 캐릭터 사업 등의 재원 조성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음
- 재정 확보 및 고정 이용자 확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전문적인 안목에서 설계, 운영하여 미술관의 주요 기능인 교육과 이용자 만족도 극대화 그리고 재원조성이라는 세 가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재정 확보 및 고정 이용자 확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전문적인 안목에서 설계, 운영하여 미술관의 주요 기능인 교육과 이용자 만족도 극대화 그리고 재원조성이라는 세 가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그림 V-19] 조직의 구조 및 역학관계

3) 시립미술관의 조직 체계 구성

(1) 시립미술관의 필요 전문 인력 및 역할

전문분야	역할
관장 Director	• 근현대미술 관련 및 미술관 분야 전문인 • 미술관 운영의 총체적인 업무 담당
운영위원회 Management Committee	• 근현대미술 관련 분야 전문인 • 미술관 운영 및 사업계획 등의 전반적인 부분 심의
학예연구원 Curator	• 근현대미술 관련 분야 전문인 • 미술관 소장품의 성격과 내용을 결정하고 전시물에 대한 학술적인 분석과 관리를 담당하고 책임짐 • 상설전 및 기획전의 기획과 내용결정, 연구와 출판 등이 주요 업무에 속함
소장품 담당 Conservator	• 근현대미술 관련 분야 전문인 • 소장품 구입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만 넓게는 소장품 담당 학예연구원으로 이해함 • 학예팀과 공동으로 소장품 구입 정책 수립과 구입을 위한 작품 선정 등의 기준을 수립함과 동시에 소장품 구입위원회 운영을 담당함
교육담당 Educator	• 시립미술관과 전시품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돕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기획, 운영 담당 • 교육목표의 전시기획, 전시안내 가이드 출판기획, 전시안내, 교사연수, 외부 교육프로그램을 담당함
기획, 홍보 및 마케팅 담당 PR, Marketing Manager	• 재정, 업무, 전시, 그 외 모든 프로그램 분석 • 시립미술관의 홍보 마케팅 전략 개발 담당 • 마케팅의 기획과 운영 담당 •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사업

■ 관장

- 미술관의 관장은 경영뿐 만 아니라 행정, 실무 등의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 뛰어난 리더십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총체적인 업무, 즉 계획·조직·인사관리·감독·조정·정책결의 및 재정 지원에 대한 책임도 동시에 담당하고 있음
- 시립미술관의 경우 미술관의 대외 이미지 구축과 재정 확보 등의 활동에 주력 가능한 인사로 현대미술 및 미술관 관련 전문가에 한해 외부 공개 선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 운영위원회

- 미술관 정책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핵심적인 사항과 주요한 현안은 반드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심의 조정 하도록 함
- 미술관 운영위원회는 10명 정도의 비상근직으로 구성하되, 운영위원에게 일정한 임기를 부여하고 권한과 책임도 부여함

-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등에서 안건을 처리, 의결하며, 필요에 따라 산하에 각종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 운영위원회의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정책 기획 및 운영, 미술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미술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심의함
- 운영위원회는 근현대미술 관련 전문가로 전국에 걸쳐 공개적으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학예연구담당

- 시립미술관 소장품의 성격과 내용을 결정하고 전시물에 대한 학술적인 분석과 관리를 담당하고 책임짐
- 상설전 및 기획전의 기획과 내용결정, 소장품 및 교육 연계프로그램 기획, 홍보 및 마케팅 관련 내용 협조 등의 업무를 진행함

■ 소장품 담당

- 시립미술관의 소장품 구입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만 넓게는 소장품 담당 학예연구원으로 이해함
- 학예팀과 공동으로 소장품 구입 정책에 수립 및 구입을 위한 작품 선정 등의 기준을 수립함과 동시에 ‘작품수집심사위원회’의 운영을 담당함
- 구체적인 소장품 관리방안 및 DB 구축을 위한 업무 설계를 통해 소장품 관리의 전문성을 꾀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담당

- 미술관의 소장품과 자료에 대한 일반 대중의 올바른 이해와 해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미술관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며, 감독함
- 뿐만 아니라, 시립미술관과 지역사회 간의 소통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시민참여형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함
- 시립미술관의 도슨트 및 자원봉사자를 교육,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책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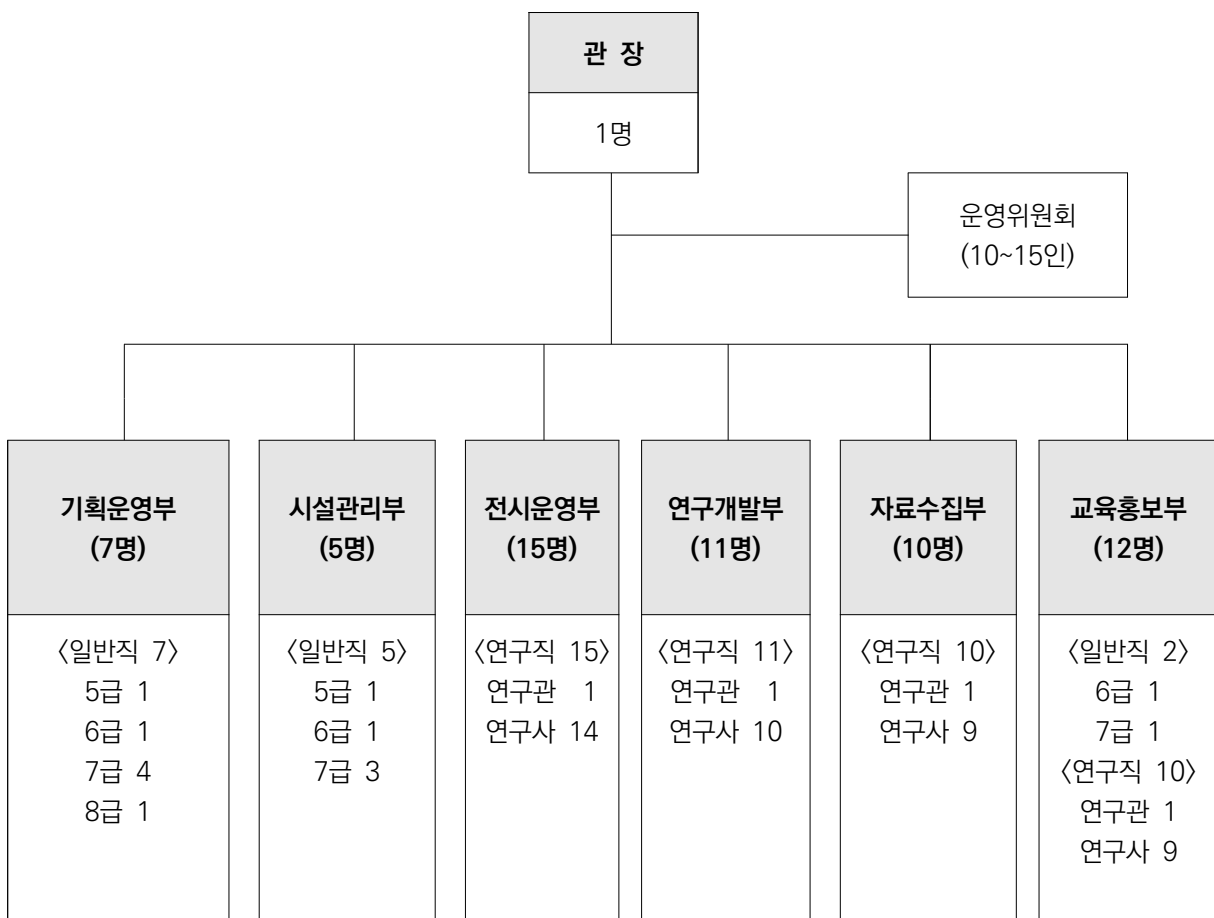
■ 기획, 홍보 및 마케팅 담당

- 미술관의 장·단기 발전을 위한 전략을 연구하며 재정, 업무, 전시, 그 외 모든 프로그램, 시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함
- 미술관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확대되어 일반인들이 친밀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문화시설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고 미술관의 회원 및 일반인들의 미술관 활동에 대한 요구와 기대사항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전략을 수립함
- 더불어, 전시·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한 이벤트 문화 사업을 기획함으로써 이용자를 개발하고 문화적 활동을 극대화함

(2) 시립미술관의 조직구성(안)

- 인천시청은 인천뮤지엄파크 시립미술관의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시직영’으로 운영방침을 결정하고, 운영인력과 조직도를 설정하였음
- 시립미술관의 정규인력은 61명으로, 연구직의 경우 연구관 4명, 연구사 42명으로, 46명의 연구직을 정규인력으로 채용하여 운영하고자 함
- 시립미술관은 6부로 구성하였으며, 학예연구 관련 부서를 4개 부(전시운영부·연구개발부·자료수집부·교육홍보부)로 구분 하고 연구직 46명을 배치하여 미술관 운영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 조 직 도



4) 미술관의 운영주체 설정

- 미술관·박물관의 운영방식은 크게 3가지로 「직영」, 「법인」, 그리고 「위탁」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직영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직영과 책임운영기관의 2가지 유형이 있으며, 법인조직 그리고, 별도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통해 운영하는 「위·수탁」방식이 있음

(1) 직영

① 지자체 직영

■ 특징

- 지자체가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공무원 인력과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함에 따라 조직·인사·재정 안정성은 높지만 공무원의 순환 인사 체계로 인해 전문성이 미약함. 또한 지자체 회계 기준으로 운영되므로 예산의 이월 및 전용 등에 제한이 큼. 신분은 공무원이며, 인사권은 시장에게 있음

■ 장점

- 지자체의 직접운영으로 인해 정책추진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서비스 공급이 가능함
- 수익성 보다는 공공성 극대화를 추구하며,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통한 문화형평성 제고 가능함
- 기관장은 임명 또는 개방형 직위공모를 통한 전문가 영입 가능함
- 기관장 및 조직원이 공무원 신분이므로 안정적인
- 정부의 회계 예산 편성으로 예산 확보가 용이함
- 시설 운영의 관리적 차원에서도 책임성을 확보

■ 단점

- 지자체 직영의 운영 특성으로 절차와 규정에 의한 계층제적인 조직 운영과 경직성이 있음
- 공무원 증원 규정에 따른 인력 충원의 어려움
- 순환보직체제에서 조직원의 전문성 기대하기 어려움
- 관장을 행정직 공무원으로 임명이 가능하며, 이는 관장의 전문성 확보에의 어려움을 가중함. 또한 행정직 공무원이 관장으로 임명될 경우, 공무원 순환보직체제에 따른 장기근무가 어려워 박물관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됨
- 예산의 경직성 및 비효율성(경상적 경비의 5%이하 이월 가능)
- 수익사업 및 기부금 운영 불가(별도의 재단법인을 통한 수익사업 가능)

② 책임운영기관

■ 특징

- 책임운영기관은 공공성을 유지하되 기관장에게 어느 정도 운영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한 운영체계임
- 기관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인 기관장을 임명하고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함. 또한 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이며 인사권은 기관장에게 있음. 책임운영기관은 예산이월이 기존 경상경비의 20% 이하로 가능하여 직영에 비해 탄력적임

■ 장점

- 예산확보 및 조직원의 신분이 공무원으로 안정성 확보 가능함
- 기관장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높아짐
- 기관장에게 일정한 인사권 부여로 업무 효율성 증진 가능성
- 경상적 경비의 20% 이하 이월 가능 (지자체 직영에 비해 탄력적임)
- 예산의 이월이 경상경비의 20% 한도 내에서 인정되고, 이·전용상의 자율권이 있음(직영에 비해 높음)

■ 단점

- 지자체 조직으로서의 단점 유지(조직의 경직성 및 인력 충원의 어려움은 동일함)
- 기관장의 성과 평가에 따른 압박으로 성과위주의 운영 추진
- 책임운영기관의 관장에게 일부 인사권이 부여되지만, 관장이 연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3년 임기) 인사권의 영향력과 파급효과는 제한적임

(2) 법인

① 법인조직

■ 특징

- 법인은 각종 개별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지자체 출연이나 지분 등의 조건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 하에 기관을 운영하며, 문화·전시·연구형 특수법인(법정법인)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주무부처와 더불어 기획재정부에 의해 일정한 관리(혁신, 경영공시, 고객만족 경영, 조직 및 인력운영 등)를 받게 됨
- 개별 법률(조항)을 통해 예산의 안정적 지원을 보장받고 경영상 유연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음

- 기관장은 「기타공공기관혁신에 관한 지침」 제6장 제20조(인사 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라 전문가 기관장이 필요한 기관은 공모제 활성화 대상기관으로 지정 후 기관장 후보자 모집 시 공개모집 함
- 직원들은 비공무원 신분으로 인사권은 기관장에게 있음
- 예산의 이월이나 전용은 정관과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함

■ 장점

- 직영에 비해 업무 효율화와 경비 절감이 가능함
- 직영에 비해 일정 정도 수입 및 인력의 관리 운영(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노사 협의 하에 탄력 정원을 둘 수 있음(「예산편성지침」상에 제외)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점이 차별화됨
- 해당 부처의 소속기관이지만 자율적 운영을 하므로 해당 부처의 관리 감독은 기관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유사기관과의 경영평가를 통한 경쟁력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음
- 출연금, 기금을 통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개별법이 있는 경우는 출연금을 통해 운영되며 조직이 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조직 안정성이 높지만, 재단법인의 경우 기금 고갈 시에 조직의 합병 및 해체가 가능함(조직안정성 낮음)
- 직영에 비해 자체수입의 이월 및 전용이 가능하며, 기부금·협찬금 모집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수익사업개발을 통해 장기적 재정 발전방안(재정자립도제고)을 계획할 수 있음

■ 단점

- 조직원의 증원은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제3장 8조에 의거하여 기획재정부에서 미리 정한 증원의 한도 내에서 다음연도 증원계획에 먼저 반영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증원의 어려움)
- 자립성을 강조할 경우, 정부의 예산지원 감소 및 지속적인 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상업성 확대 가능과 이에 따른 전문 인력의 감축이 잠재되어있음
- 예산 문제로 인한 다양한 기획전시 추진의 어려움
- 블록버스터급 전시 유치를 통한 수익추구 및 공공성 약화가 우려됨
- 전시 및 입장료 상승으로 인한 접근성 및 문화향유 기회가 제한될 수 있음
- 공익성이 높은 소장품의 수집과 보존에 대한 예산 삭감 가능성으로 박물관 본연의 연구·수집·조사 기능 퇴색될 수 있음

(3) 민간 위탁

■ 특징

- 민간 위탁 운영기관은 법률적 주체인 정부와의 계약에 따른 한의와 지시에 따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 기업이 문화예술 서비스를 위탁받아 제공하는 형태임
- 기관장 임명은 해당 정부 부처의 부서장 또는 기관장, 또는 계약기관의 대표 등이며, 직원 신분은 민간인이며, 인사권은 계약기관에 있음
- 예산의 이월 및 전용 등은 해당 부서의 회계와 계약에 따름

■ 장점

- 직영이나 법인에 비해 경비 최소화(인건비 절감)가 가능함
- 민간위탁의 경우 박물관은 해당 부처 소속임, 운영이나 해당 업무를 위탁할 뿐 관리, 감독권은 해당 부처에 있으므로 해당 부처의 정책 기조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음
- 해당 부서의 일반 회계로 예산을 수립하므로, 운영예산 확보가 용이함
- 민간위탁의 최대 장점은 인사권이 위탁업체에 있기에 해당 위탁업체는 필요한 인력을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반영한 조직을 구성하므로 직영에 비해 조직 운영이 유연하며, 인력 구성의 최소화가 가능함
- 민간위탁의 경우 수익성을 고려하여 입장료와 프로그램 수입을 관리·운영하므로 관람객 증대와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음

■ 단점

- 공익성 약화 우려
- 수익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품질 저하 및 소비자 부담 증가(입장료 높음)
- 지나친 이윤추구 가능
- 선정과 재계약 등의 과정에서 문제 발생 가능
- 소장품의 수집, 보존·관리 및 유지 한계(소홀)

(4) 타 미술관 운영주체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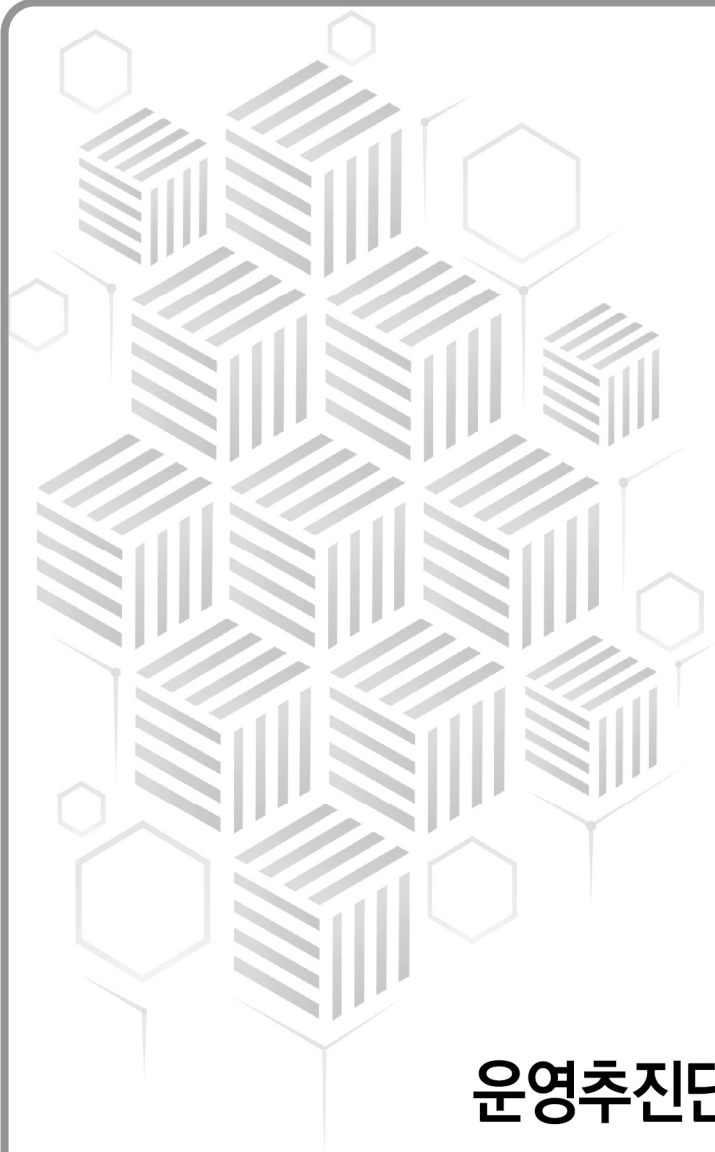
구분	지방자치단체 직속기관	책임운영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연 재단법인
명칭	광주시립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기관장	2급(개방형직위)	3급(개방형직위)	임명직(1급 수준의 대우)
기구(조직)	1분관 1실 3과	1분관 2부 6과	2팀
구성원	정원 85명 (일반직 14, 연구직 10, 기능직 21, 공무원 40) (2019년 기준)	현원 74명 (일반직 45, 연구직 12, 계약직 11) (2019년 2월 기준)	정원 27명 (행정직 3, 운영직 14, 학예직, 기간제 1) (2019년 5월 기준)
예산 (2018년)	9,712,194 천원	12,688,096 천원	3,202,000 천원
성과 (2018년)	연 관람객수 200,000명	연 관람객수 1,168,748명	연 관람객수 207,113

- 광주시립미술관은 지방자치단체 직속기관의 형태이고, 서울시립미술관은 책임운영기관제로 운영되며 경기도미술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재단법인(경기문화재단)으로 운영됨
- 광주시립미술관의 기관장은 2급(개방형 직위), 서울시립미술관의 기관장은 3급(개방형 직위)로 경기도미술관은 1급(개방형 직위) 대우를 받음
- 서울시립미술관의 책임운영기관제는 관장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는 원리이지만, 오히려 성과 중심의 운영체제로 갈 수 있는 소지가 큼. 이를테면, 현재 서울시립미술관 관람객이 여타 지역 미술관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미술관 자체가 기획전시를 한 것이 아닌 외부 기획사에 기획전을 임대하면서 따라온 관람객 수치라는 점에서 논란이 제기 될 수 있음
- 경기도미술관은 경기문화재단 소속으로 예산 운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2018년도까지 소장품 구입 예산이 0원으로 책정됨에 따라 미술관 고유의 기능이 상당히 제한되어 왔음. 이렇게 된 배경에는 미술관이 독립된 전문시설로서 이해되기 보다는 문화재단 사업으로 이해되면서 미술관 자체가 갖는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게 되면서 전체적인 예산 삭감의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되기 때문임

(5) 미술관 운영주체 설정 시사점

■ 미술관의 운영주체 논의 시사점

- 미술계 및 학계에서는 미술관의 운영주체를 법인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마련되고 있음. 특히, 책임운영기관(아시아문화전당,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법인화 추진이라는 방향은 있지만 정치적·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소속 조직원의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함
- 한번 정해진 운영주체에 대해 변화하려는 논의(법인화 논의)에 대한 변화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임
- 최근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민영화보다는 공공성을 살려 기존 운영체제인 국립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을 볼 때 문화·전시형 기관의 경우 직영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운영주체의 변화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시립미술관 초기단계에는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시 직영으로 운영체제를 가져가되 추후 운영 안정화를 이룬 후에 운영 효율성을 위한 체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추후 운영형태에서 재단 법인화될 경우를 고려한다면 경기도미술관의 사례로 보서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으며, 인천아트플랫폼과의 조직 위상 설정에 문제 발생의 여지가 있음
- 최종적으로 말하자면 ‘법인화’를 통해 미술관 운영의 전문성 확립하고 전문 인력들의 주도적인 미술관 업무를 개진하여 미술관의 질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지향해야하지만, 현재로서는 시 직영으로 운영체제를 확립하여 미술관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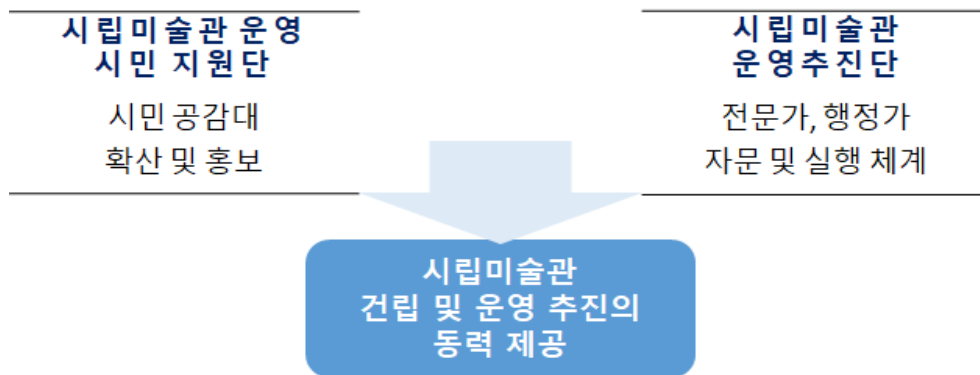
VI

운영추진단 구성 및 준공 이후 콘텐츠 운영방안

1. 운영추진단의 역할
2. 시립미술관 운영추진단 구성 및 운영방안
3. 준공 이후 단계별 콘텐츠 운영계획
4. 중장기 운영방안

VI 운영추진단 구성 및 준공 이후 콘텐츠 운영방안

1. 운영추진단의 역할



[그림 VI-1] 시립미술관 운영추진단의 역할

- 미술관 운영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일정부분 의사 결정 활동
- 미술관 건립과 운영 기본계획의 추진 및 행정적 대응
- 필요 시 중앙 정부의 지원 요청 등에 대한 자문
- 기업체, 관련단체 및 범시민 협찬금 및 모금운동의 가능성 타진

2. 시립미술관 운영추진단 구성 및 운영방안

1) 미술관 건립추진의 프로세스

- 미술관을 포함한 문화 시설의 건립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음
- 개괄적인 일련의 과정을 크게 5단계로 나누면, 기획단계, 준비단계, 전시사업단계, 건립 단계와 개관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기획단계와 준비단계는 기본계획연구를 통하여 건립을 위한 기본내용을 마련하고 건립 담당 조직(담당자)을 구성하고 건립 방향성을 확정하는 단계로 이 단계에서 결정된 내용은 추후의 단계를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됨
 - 전시사업단계는 전시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전시자료의 목록작성과 수집 방법 결정, 자료의 수집, 전시설계, 종합정보시스템과 MI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음
 - 건립단계는 일반적으로 토목, 건축, 실내, 전시공사로 구분하여 진행함
 - 개관단계는 미술관의 기본적인 공사가 마무리 된 후 개관을 위한 준비단계임. 개관을 위한 시험운영을 거치도록 하며 시험운영 기간 동안 개관을 위한 홍보와 준비 작업에 착수함
- ※ 개관 이후의 운영 : 개관 이후에는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수집, 연구, 전시,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한 활동을 함. 시설의 유지관리와 전시실의 개보수, 증개축 등에 관한 긴 안목의 장기발전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표 VI-1] 미술관 건립추진 프로세스 주요 내용

기획단계	미술관의 건립 여부를 결정하고 전반적인 초기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① 건립 결정 → ② 부지 확정 → ③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필요시) → ④ 타당성 조사 〈건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는 경우〉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자문위원회 구성 →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 건립 프로그램 설정 → 타당성 조사		
▼		
준비단계	미술관 건립 담당자(또는 담당 조직) 선정 후 소요예산 및 건립 방향성을 확정하여 외부 전문 연구 집단에게 배포할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배포하는 단계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경우〉 ① 투·융자 심의(필요시) → ② 국/도비 신청 및 결정 → ③ 과업지시서 작성 및 배포		
▼		
전시사업단계	전시 기본구상 및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로 자료의 수집이 진행되는 동안 전시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진행됨	
① 전시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 ② 수집대상 조사 및 수집 → ③ 전시 기본 및 실시 설계 → ④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MI 구축		
▼		
건립단계	공모	경쟁 입찰을 통한 설계사 선정 및 계약
	설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진행 및 건축 심의와 감리 선정
	시공	토목공사, 건축공사, 실내공사, 전시공사 진행
① 설계공모 및 선정 → ② 기본 및 실시 설계 → ③ 시공 및 감리업체 선정 → ④ 착공 → ⑤ 시공		
▼		
개관단계	운영	미술관 조직 구성 및 재정계획 수립 등 사업계획서 작성
	시설	보수공사 및 시운전, 시설 및 관리 운영계획서 작성
① 준공 → ② 시운전 / 운영 및 사업계획 → ③ 개관		

2) 미술관 운영추진 기구 구성 및 운영

- 건립 및 운영추진을 위한 조직의 구성과 운영은 단계별 추진일정에 따라 운영추진기구의 탄력적인 조직체계와 운영계획이 필요함
- 일정에 따른 건립추진 기구의 성격은 1단계 운영추진 준비단, 2단계 운영추진단, 그리고 3단계 운영기구 구성으로 전개되는 단계별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조직 운영 내용은 기본계획의 추진, 설계 시공관리, 전시부분 지원, 건물 운영관리 지원을 하게 되며 일정기간 후 시립미술관의 운영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가면 미술관 조직에게 이관됨

(1) 1단계 구성 / 운영추진준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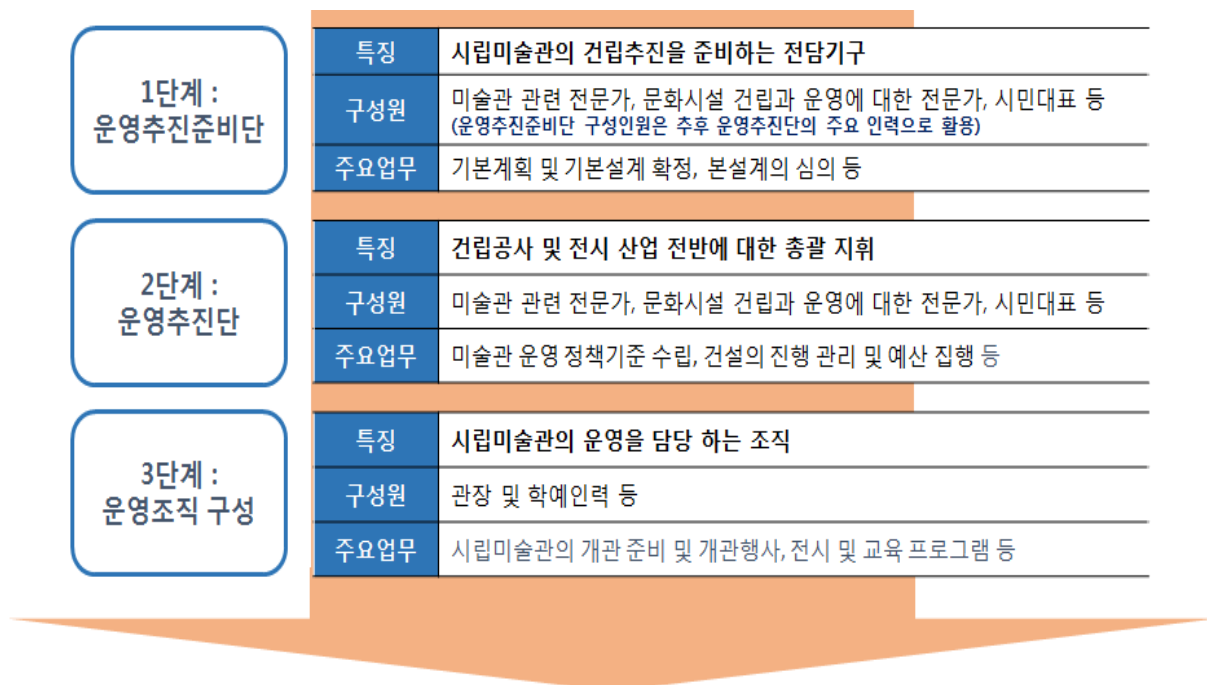
- 운영추진단 전 단계로 시립미술관 건립추진을 준비하는 전담기구
- 미술관 관련 전문가 및 문화 시설 건립과 운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및 집단과 시민대표의 자문과 지원이 필요
- 운영추진준비단의 구성인원은 추후 운영추진단의 주요 인력으로 활용
- 사업추진 구상 및 건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조사와 시립미술관의 기본 계획 연구 추진
- 주요업무로는 시립미술관 기획을 계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기본 계획 및 기본설계를 확정하고 본 설계의 심의, 감독을 수행하며 공사 입찰을 준비하여 건립공사 기구로 전환을 준비해야 함

(2) 2단계 구성 / 운영추진단

- 운영추진단은 건립공사 및 전시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 지휘, 공사시공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 감독과 기술적 문제를 협의하며, 공사 집행에 대한 행정관리, 행정업무처리 및 지원 업무를 수행
- 운영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은 시립미술관 설립의 추진에 있어 원활한 진행과 조속한 사업 추진에 용이하다는 점 이외에 건립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작성할 수 있으며 대외적인 홍보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 할 수 있음
- 주요업무로는 시공회사 선정에 다른 정책기준을 수립하고 추진, 공사발주 후 건설의 진행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기술의 제반 사항을 관리 운영함
- 건물 공사 완료 단계부터 시립미술관 전시 및 건물 관리 운영 및 공사 이후 후속 관련 사항을 관리하고 운영 이관을 주도함

(3) 3단계 구성 / 운영조직 구성

- 운영기구 구성 단계로 건설 완료시부터 시립미술관 소장품 전시, 개관준비, 개관행사를 집행함
- 운영의 기본은 경영적 측면에서는 업무의 효율성, 효과성을 위한 체계 및 방침을 세우고, 대중적인 측면에서 관람객의 요구와 기대, 호응도 그리고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야 함
- 개관에 임박하여 여러 가지 이벤트, 개관특별전 등을 마련하여 시립미술관의 성공적 개관을 이끌어 내야하며 또한 각종 미디어를 통한 홍보가 집중적으로 진행되어 개관을 널리 알리는 기획을 해야 함



[그림 VI-2] 미술관 운영추진기구의 단계별 구성

3. 준공 이후 단계별 콘텐츠 운영계획

- 본 연구가 시립미술관의 성공적인 개관과 운영을 위해 검토해야 할 기본적인 내용과 틀을 제공하고 있으나 개관 이후에도 단계별, 분야별로 세부적인 계획의 수립과 집행이 요구되므로 분야별로 면밀한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개관직후, 안정기, 발전기 등 각 단계별 시립미술관의 목표 달성을 위한 콘텐츠 운영방안 계획이 필요함
- 지속적 이용자 조사를 통해 변화하는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미술관 콘텐츠의 개발과 전반적 운영계획 보완이 필요함
- 관련 연구기관과 관련 전문가의 활동을 모니터링 하여 시립미술관의 전시와 교육 활동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

■ 콘텐츠 분야별 운영 계획(안)

분야	연차	내용
전시	1~3년차	• 상설전시관 단기 및 중장기 운영계획 강화방안 구축 • 특별전시와의 차별화 전략 프로그램 개발 • 국내외 벤치마케팅을 통한 기획전시 활성화 방안 구축 •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소장품 구입 경로의 다각화 방안 모색
	3~5년차	• 상설전시 부분적 리모델링 기획 • 상설전시관을 활용한 특별기획전 운영 및 신규소장품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전략 구축 • 국내외 벤치마케팅을 통한 기획전시 프로그램 전략 실험적 도입 • 소장품 수집의 중장기 계획 수립 • 영상 및 디지털 매체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 • 2차 제작 전시 콘텐츠 자료 조사 및 활용방안 계획 수립 • 소장품 전략적 활용방안 계획 수립
	5년차 이상	• 상설전시관 전시 시스템 리뉴얼 • 특별전시 등을 통해 개발된 콘텐츠 상설전시관 도입 • 시립미술관 개관 5주년 기념 특별전 개최 • 등록 소장품의 다각적 활용방안 계획 구축 • 3차 제작 전시 콘텐츠로 활용 및 재활용 방안 계획 구축 • 소장품 상품화 전략 수립 • 해외 전시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 벤치마킹을 통한 해외전시 개최
교육	1~3년차	• 상설 및 특별전시 연계 교육자료 개발 및 제작 : 어린이, 성인, 외국인 (영어, 중국어, 일어)대상 개별화된 전시 안내 프로그램(리플릿 등) 제작

분야	연차	내용
		• 도슨트를 활용한 전시안내프로그램 운영기획안 마련 및 도슨트 사전교육 시행 • 유치원 및 초·중·고교 견학프로그램 운영기획안 마련 및 사전교육자료 제작
	3~5년차	• 상설 및 특별전시 연계 교육자료 개발 및 제작 : 외국인 대상 자료의 경우, 타 외국어 추가 방안 모색 및 제작
	5년차 이상	• 도슨트 전시안내 교육프로그램 리뉴얼 • 유치원 및 초·중·고교 견학프로그램 운영 및 사전교육자료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이벤트/행사	1~3년차	• 국내학술대회 개최 : 학술대회의 정기적 개최, 다양한 분야의 국내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학술대회 진행 • 찾아가는 미술관 프로그램 기획 및 발전방안 모색 • 연령별 프로그램 체계화 및 운영발전방안 모색 • 인근 유관시설들과의 협력기반, 문화축제 기획 및 운영방안 도출 • 가족행사프로그램 세부기획 및 중장기 운영방안 도출
	3~5년차	•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 학술대회의 정기적 개최,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학술대회 진행 • 찾아가는 미술관 프로그램 운영, 세부 프로그램 시범 운영 • 연령별 프로그램 확대 운영방안 모색 • 유관시설 연계, 문화축제 운영
	5년차 이상	•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 학술대회의 정기적 개최,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학술대회 진행 • 찾아가는 박물관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재외동포 대상 특별프로그램 운영 • 연령별 세분화된 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정착도모 • 문화행사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향후 발전방안 모색

4. 중장기 운영방안

(1) 효율적인 자원의 투입과 활용

- 시립미술관의 성공적인 개관과 높은 성과의 달성을 위해서는 인천시의 의지가 일관되게 높아야 하며, 조직·인력 및 예산에 충분하게 반영되어야 함
- 시립미술관은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전시와 교육을 위한 물리적인 시설을 갖추는 것은 성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에 불과하며 연구, 교육 및 전시 진행을 위한 충분한 수준의 전문 인력의 확보와 지속적인 투자가 필수적인 요건이 됨
- 인천시를 대표하는 미술 전시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 활동 과제의 진행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충분한 인력이 확보될 필요성이 있으며 전시, 교육체험과 관련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설비 및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며 이러한 인력과 예산에 대한 수요는 국공립 미술관 및 박물관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 인력의 확보는 규모와 함께 시기도 매우 중요함. 특히 이전 개관 이전에 충분한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두고 사전에 적절한 규모의 인력이 확보되어야 함
- 인력의 사전 확보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관리와 교육을 담당할 인력에 대하여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됨
- 예산 측면의 경우에도 일회성의 투자만 이루어질 경우 시립미술관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한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됨

(2) 사회적 인식 및 지역적 지지의 확대

- 시립미술관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충분한 수준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인천시민, 주요 대상 고객, 관련 전문가 등 주요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시립미술관의 기능과 활동을 보다 정확하게 홍보하여 공공성을 추구하는 문화 예술사업으로 평가받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특히 지역적인 인식도와 지지도는 향후 시립미술관의 업무 진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지역(인천 뮤지엄파크 내 타 기관 등)과의 연계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홍보 전략의 구축과 실행이 필요함

1) 단계별 운영방안

(1) 개관 직후로부터 ~ 개관 후 3년

- 개관 직후, 안정기, 발전기 등 각 단계별 시립미술관의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필요
- 지속적 이용자 조사를 통해 변화하는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시립미술관의 전반적 운영계획 보완
- 관련 기관의 연구 활동을 모니터링 하여 시립미술관의 전시와 교육 활동에 흡수
- 시립미술관 M.I.(Museum Identity) 개발전략의 기획과 운영
 - 시립미술관이 개관하는 상황은 미술관의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고 확대하는데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반드시 채택되어야 하며함. 이에 따라, 인지도 확보 전략 중 하나인 MI 개발전략을 제안하고자 함

● 시립미술관 인지도 확보를 위한 MI전략(안)

- MI 전략을 수행하는 데는 다음의 3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함. 시립미술관의 철학 및 이념 요소인 MI(mind identity), 주체성 확립과 목표 달성을 위한 미술관의 행동 요소인 BI (behavioral identity), 시각디자인 요소인 VI(visual identity)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음
 - MI(mind identity) : Domain, Philosophy, Mission 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미술관이 어떠한 사업 영역에서 어떠한 경영 철학으로 미술관의 목적을 이룩할 지를 결정하는 것임
 - BI(behavior identity) : 미술관 경영 문화를 지칭하는 것으로 미술관 내부에서 수행하는 부분에 대한 전략으로, 시립미술관의 이념을 행동 양식으로 확신시키는 것이 주된 내용임
 - VI(visual identity) : 미술관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모든 부분을 다루는 것으로, 심벌마크(symbol mark), 로고 타입(logotype), 전용 서체(typiface), 시그니처(signature), 고유색상(corporate color), 보조 그래픽 요소, 트레이드 캐릭터(trade character) 등의 기본 시스템과 각종 서식류, 유니폼, 사인물, 판촉용 인쇄물 등에 모두 적용될 수 있음

■ MI의 기대효과

- 조직의 체계화, 활성화, 구성원의 사기양양 자부심 고취
- 능동적이고 혁신적인 미술관 경영문화 정립
- 이미지쉐어를 통한 장기적인 운영기반 구축
- 차별화를 통한 사회의 신뢰감 및 인지도 상승
- 미술관 이미지의 통합으로 인한 신규이용자 확보 및 이용자 충성도 증가

■ MI 개발의 단계

① 정보수집과 디자인 조사

- 기획 담당자와 디자이너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디자인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함

② 디자인 전략수립

- MI 의 도입배경과, 목적, 기대효과에 대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 그동안 수집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 경영관리의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디자인 전략을 수립함

③ MI 콘셉트 도출

- 디자인 전략이 수립이 된 후 경찰박물관의 이념과 철학·비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콘셉트를 도출해나가는 과정
- 이 단계에서는 디자인방향이 콘셉트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재작업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함

④ 아이디어스케치

- 정해진 스케치에 근거하여 다양하게 섬네일과 러프스케치를 하여 점차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디자인을 세밀하게 스케치하는 과정임

⑤ 기본 그래픽 디자인

- 선택된 스케치를 작도법에 의거하여 정확한 도안으로 만들어내는 단계. 정확히 작성된 초안을 일러스트레이터나 벡터관련 프로그램으로 작도하여 데이터로 생성하며 이 단계에서 기본형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변형안들을 제작함

⑥ 스크리닝

- 그래픽으로 제작된 시안들을 선택해나가는 과정으로, 많게는 수백 종에서 수십 종에 이르는 안들의 완성도와 시각적인 아름다움, 콘셉트를 고려하여 최종 몇 개의 안으로 좁혀나가게 된다.

⑦ 응용형 그래픽디자인

- 몇 가지 안으로 압축된 시안들을 실무에 실제 적용되어지는 응용디자인을 그래픽으로 제작. 실무에 적용되는 적용사례는 그 수가 방대하여 대표적인 것들만 디자인하여 프리젠테이션에 활용하도록 함

⑧ 샘플작업

- 베이직 시스템과 시그니처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으로 나누어 프리젠테이션 보드를 제작하여 몇 가지제품에 적용된 사례를 샘플로 제작함

⑨ 수정보완

-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압축된 시안들을 수정 보완하여 다시 제안을 하게 되는 단계로, 이 단계에서 최종안을 확정하는 경우가 많음

⑩ 표준매뉴얼 제작

- 완성된 기본시스템에서 응용시스템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용시킬 수 있는 표준 매뉴얼을 제작하는 단계로, 이 매뉴얼은 새 담당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또는 조직의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에도 매뉴얼만으로도 효과적으로 적용, 관리, 운영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므로 상당히 세심한 작업을 필요로 함

⑪ 감리 자문

- 완성된 MI시스템이 정확하게 사용되어지는지에 대해 감리하고 자문하는 단계로, MI개발 인력과 디자이너 그리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개발 초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자문에는 일반인의 참여도 유도하여 시립미술관 개관 이벤트로 활용하는 전략도 가능함

(2) 개관 후 4년차부터 ~ 개관 후 7년차

- 미술관 건립 시 많은 경우 연구나 조사와 같이 미술관의 기본을 이루는 소프트웨어에 중심을 두지 않고 단 한 번의 상설전시만을 위해 만들어 놓은 곳을 볼 수 있음. 이런 곳은 건립 이후 매일 문을 열고 닫는 시설물 관리만 할 뿐 실제로 미술관에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은 등한시 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이며 미술관 건립의 소기의 목적을 상실할 가능성이 농후함
- 시립미술관이 기관 건립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초기 이전 계획 시 기획단계에서부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립미술관의 기능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앞으로 개관 후 시립미술관은 연구, 전시, 교육기능을 더욱 확장하여 인천 문화예술기관의 중심지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할 것임
- 운영활성화를 위한 학예인력의 전문성 강화 훈련·교육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더구나 개관 후 안정기로 접어드는 4년차 이후부터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을 통한 인력의 재정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라 사료됨

● 시립미술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전문성 강화전략(안)

■ 추진목표

- 미술관 운영인력 중, 가장 중추적인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학예인력(큐레이터 및 에듀케이터)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

■ 추진내용

- 실무역량 향상 제고를 위한 정기적 직무연수교육
 - 한국박물관협회 ‘박물관·미술관 교육아카데미’,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 실무교육’ 및 국립중앙박물관 ‘미래를 여는 박물관 큐레이터 교육’ 등 참여
- 시립미술관의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지식 함양
 - 관련 전문기관 위탁교육, 관련 학자 및 전문가 초빙 정기적 강좌 및 워크숍 개최
- 우수사례 미술관 견학 및 벤치마킹
 - 국내외 우수 미술관 운영사항에 대한 정보 및 지식습득

2) 중장기 발전방안

(1) 3대 영역별 전략 목표

■ 시립미술관의 기능과 역할 정립

- 시립미술관은 관람객의 계층에 상관없이 미술과 미술 활동에 대한 체험과 경험에 대한 가치를 알려주는 공공문화예술기관으로서 관람객들이 스스로 미술에 대해 새롭게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해야 함

■ 관계 설정 및 소통

- 인천시를 대표하는 미술관으로서 인천지역 미술에 대한 미술관적 접근과 연구를 통해 방향성을 정립하며 전시, 교육, 정보화, 교류, 홍보마케팅 기능이 통합된 대외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경험을 확장시킴

■ 마케팅

- 시립미술관 고유의 임무 달성을 위한 운영체제, 조직, 재정, 시설, 홍보 등 효과적 경영·관리기반과 문화시장 경쟁력 구축함

(2) 주요 전략 과제

- 시립미술관의 장기 발전을 위한 주요 전략과제는 다음과 같음

[표 VI-2] 시립미술관 장기발전방안 주요 전략과제

전략과제	내용
전시	체계적인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미술문화를 이해하도록 도우며, 미술관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이해하도록 구성
학술활동	국내외 조사연구 협력 체계 구축 및 조사연구를 통한 시립미술관 기능 내실화
콘텐츠개발	연구개발 및 문화관광 연계 체제 구축으로 시립미술관의 부가가치 극대화
교육	다양한 계층과 이용자를 위한 교육적 자원으로 기능
홍보마케팅	지역을 중심으로 국내외에 시립미술관을 홍보할 마케팅 체계구축
학예사 전문성 강화	시립미술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기적 연수와 교육을 통해 실무역량 극대화
비상대응 및 안전관리	재난 위기대응 관리 및 안전관리 대처능력 강화를 통해 안전한 미술관 구축
연계방안	국내외 관련 기관 및 인천지역 관련 기관(박물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체계 조성
기타	시립미술관의 독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아카이브의 구축과 운영

참고문헌

- 경기도미술관(2018). 경기 아카이브_지금, 경기:경기도미술관
- 경기도미술관(2019). 시점·시점-1980년대 소집단미술운동 아카이브 자료집, 경기: 경기도미술관
- 김창수(2011). 인천시립미술관의 성격과 건립 기본방향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 국립현대미술관(2006). 2005 미술관 백서, 국립현대미술관
- 박남춘(2019). 제58회 인천광역시통계연보 (2018), 인천광역시
- 박수강(2018). 프로젝트 비아 2018 결과보고서 : 아트타이베이와 타이베이아트썬,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체육관광부
- 이용식(2018). 인천 예술인 복지플랜 : 예술인 실태조사 및 복지정책, 인천연구원
- 인천문화재단(2018). 2017 인천문화예술연감, (재)인천문화재단
- 인천광역시(2018). 2017년도 주민등록인구 통계,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2019). 2018 인천통계연보,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2019). 2018년도 주민등록인구 통계, 인천광역시
- 안정윤, 김나라, 정연학, 유재형(2018), 인천 공단과 노동자들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 최영화, 이미애, 이선정(2018). 인천 예술인 복지플랜 - 예술인 실태조사 및 복지정책, 인천연구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2020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
- 한국민속박물관(2019), 박물관·디지털과 커뮤니케이션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 공주형(2018), 인천 화단 형성과 전개 : 해방에서전후(1945-1959)시기를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19(1), pp.15-26
- 박석태. 조선미술전람회와 인천의 화가들 -오리엔탈리즘을 중심으로-
- Allan, Sue and Gutwill, Joshua (2004), Designing museum exhibits with multiple interactive features: Five common pitfalls, Curators, 47(2)
- Proctor, Nancy (2011), "The Google Art Project: A New Generation of Museums on the Web?" Curator: The Museum Journal 54 (2): 215-21
-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https://www.kanazawa21.jp/en/>
- 갤러리 더웨이 <https://blog.naver.com/soon120911/90168998643> ?

갤러리 지오 <http://www.gallerygo.co.kr/>
광주시립미술관 <http://artmuse.gwangju.go.kr/>
더리미 미술관 <http://deorimimuseum.com>
뉴욕 루빈미술관 <https://rubinmuseum.org/>
뉴욕 자연사박물관 <https://www.amnh.org/>
부산시립미술관 <http://art.busan.go.kr/>
사진공간 배다리 <http://www.uran54.com/>
서울시립미술관 <https://sema.seoul.go.kr/>
스페이스빔 <http://www.spacebeam.net/>
아트바젤 홍콩 <https://www.artbasel.com/hong-kong>
인천광역시립박물관 <http://icmuseum.incheon.go.kr>
인천경제자유구역청 <http://www.fez.go.kr/global/index.do>
인천광역시청 www.incheon.go.kr
인천시청 주거지분석맵 <https://sgis.kostat.go.kr/view/house/houseAnalysisMap>
인천아트플랫폼 <http://www.inartplatform.kr/>
임시공간 <http://spaceimsi.com/>
전원미술관 http://www.inmuseum.or.kr/kor/museum/index.php?m_code=MUSEUM1542073135
제주도립미술관 <http://jmoa.jeju.go.kr/>
타이페이시립미술관 <https://www.tfam.museum/index.aspx?ddlLang=en-us>
통계청 kostat.go.kr
홍콩미술관 https://hk.art.museum/en_US/web/ma/home.html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 <https://faam.city.fukuoka.lg.jp/en/>
광주비엔날레 <http://www.gwangjubiennale.org/>
구겐하임 재단 <https://www.guggenheim.org/foundation>
구글 아트앤컬처 <https://artsandculture.google.com>
국립현대미술관 www.mmca.go.kr
루브르박물관 랑스 <https://www.louvre.fr/en/louvre-lens-0>
베니스 비엔날레 <https://www.labiennale.org>
부산 비엔날레 www.busanbiennale.org
브루클린 미술관 <https://www.brooklynmuseum.org>
브리티시 도서관 <https://www.bl.uk>
서울미디어 비엔날레 <http://mediacityseoul.kr/>
웨일스 카디프 국립박물관 <https://museum.wales/cardiff/>
인천미술협회 <http://www.incheonfineart.org/>
인천문화재단 www.ifac.or.kr
인천민예총 <http://artincheon.com>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http://www.iwabiennale.org/2012/main/main.php>

일민미술관 <http://ilmin.org/>

짜장면박물관 <http://www.icjgss.or.kr/jajangmyeon/>

테이트 미술관 <https://www.tate.org.uk/>

새얼문화재단 황해문화 <http://www.saeul.org/main/BrenchPage.php?ref=main04>

인천투데이,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2008.01.16.

오마이뉴스,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2%가 부족해”, 2011.10.20.

인천신문, “인천 제조업과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2010.09.28.

인천뮤지엄파크 시립미술관 콘텐츠 개발 학술 용역

발 행 일	2019년 12월
발 행 처	인천광역시청
연 구 기 관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오비스홀 105호 Tel. 02-961-9211

